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 예비검사 문제지

# 제 1 교시 언어추론영역

홀수형

공통계열

성 명 : _____ 수험 번호 : _____

- 문항 수가 **50문항**인지 점검하십시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형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의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간)** 입니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NA 정보는 몹시 복잡하여 해독이 쉽지 않다. 이것을 해독하는 일은 마치 미지의 고대 언어로 기록된 문장들을 읽어내는 과정과도 같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DNA가 언어와 유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NA 사슬은 네 가지 '글자(염기 : G, A, T, C)'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그리고 한 '단어'는 세 개의 '글자'로만 구성되며,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 DNA '단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단백질 구성 단위인 20개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단어', DNA '문장'의 시작 혹은 끝을 표시하는 '단어', 단백질의 목적지를 지시하는 '단어' 등이 그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DNA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다. 트리포노프는 DNA 염기 서열이 히브리 어나 에트루리아 어로 기록된 글처럼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NA가 자주 애용하는 장치들을 여러 개 찾아냈다. 이에 따라 DNA 사슬에서 의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DNA 사슬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것들을 '잡동사니(junk) DNA'라고 부른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든 잡동사니 DNA는 모호한 염기 서열들로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다. 물론 거기에도 해독의 열쇠가 될 만한 글자들의 배열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해독될 가능성은 있다.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물학자들은 DNA '단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DNA 사슬 속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3%의 DNA를 골라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단어'들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으며, DNA 염기 서열들과 그것의 의미를 사전으로 편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트리포노프는 이러한 DNA 언어에 '놈(gnom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놈'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 전체를 지칭하는 게놈(genome)의 첫 번째 'e'를 생략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놈'이라는 단어에는 옛이야기 속에 나오는 땅의 요정이라는 뜻이 있다. 이 요정은 지하 보물을 지키는 난쟁이 노인으로 달빛을 등불 삼아 은빛 펜으로 신비로운 글을 썼다고 한다. 또 '놈'에는 '격언(格言)'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해 준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놈'은 태고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모든 생명체의 비밀을 G, A, T, C의 조합이라는 간결한 언어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10. 글쓴이의 생각을 바르게 말한 것은?

① 연구 대상을 신비화하면 연구의 가치가 부각된다.
② 연구 방법의 정교함은 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③ 한 분야의 연구 방법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구 대상의 가치는 그 의미의 해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증거들이 반복되더라도 그 출현이 불규칙하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1. 위 글의 내용에 따를 때, DNA 염기 서열의 해독과 관련한 진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단어'의 위치를 알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
②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이 몇 개의 '단어'를 포함하는지 알 수 있다.
③ 시작을 표시하는 '단어'를 잘못 정하면, '문장' 전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④ 과학이 발달하면, 잡동사니 DNA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읽어낼 가능성이 있다.
⑤ 세 번째 '글자'만 다른 '단어'들이 한 유의어군을 이룬다면, 16개의 유의어군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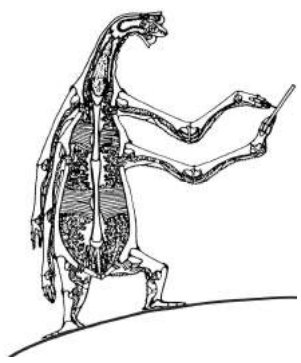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며 공간은 3차원이다. 우리는 공간 속의 존재이므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3차원 존재인 인간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식할 수 있을까? 2차원 세계에서의 삶을 다룬 애벗의 <평지(Flatland)>와 같은 소설이 벌써 한 세기 전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원 세계는 낯설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원 세계에 과연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소설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능은 2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상호 작용이 복잡한 뇌 구조를 요구하므로 적어도 3차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런 주장이 반박되고 있다. 컴퓨터에서는 3차원에서의 교차와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2차원에서의 '교차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장치를 쉽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계된 2차원 컴퓨터도 우리의 컴퓨터와 똑같이 작동할 수 있다. 다만 교차를 위해 추가된 회로 때문에 연산이 지연될 뿐이다. ㉠ 그렇다면 이런 회로와 유사한 생물학적인 2차원의 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의 컴퓨터 과학자 듀드니는 2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과학적 법칙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그는 2차원 세계를 플래니버스(Planiverse)라 부르고, 플래니버스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평평한 원판 모양의 아드(Arde)라는 행성을 설정하고, 그곳의 거주자를 아디언(Ardean)이라고 했다. 우리가 구형인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듯이, 아디언은 아드의 테두리에 살고 있다.

듀드니는 아디언의 모습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에 따르면 아디언은 지구의 곤충처럼 외부 골격을 갖는데, 그 이유는 내부에 골격이 있으면 몸 안에서 피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 아디언은 몸의 반대쪽에 있는 손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양쪽에 각각 두 개의 팔이 달려 있다. 소화 기관은 몸의 전체를 관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소화 계통은 우리와 다르게 작용한다. 실제로 그들 몸의 기능 대부분은 인간과 다르다.



(가) 아디언의 행동 방식 또한 인간과 아주 다르다. 예를 들면, 두 아디언이 만나서 서로 지나쳐 가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야 한다. 아드의 모든 건물은 아디언들이 여행할 때 건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 아드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계는 없을 것이다. 원형 바퀴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축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날개의 단면과 같은 모양의 비행기는 만들 수 있다.

듀드니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아디언의 기술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놀랄 만큼 진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와 대단히 유사한 아디언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듀드니는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는 2차원 세계의 ㉡ 존재 가능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2. 글쓴이가 ㉠과 같은 생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것은?

① 교차 문제가 해결되면 2차원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다.
② 2차원 회로 기술을 3차원 컴퓨터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산의 지연이 컴퓨터의 작동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④ 지적인 2차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차원 두뇌가 존재해야 한다.
⑤ 컴퓨터 회로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와 뇌의 구조는 유사하다.

13. (가)로 미루어 볼 때, 아디언이 할 수 없는 운동은?

① 마라톤 ② 등산 ③ 훌라후프
④ 수영 ⑤ 스노보드

14. ㉡이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② 기술적으로 제작할 수 있음
③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④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⑤ 허구적으로 상상할 수 있음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말에 브로카는 왼쪽 뇌의 전두엽(브로카 영역) 손상으로 인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이해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브로카의 표현성 실어증 사례는 여러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 과정이 뇌의 다른 영역에서 각각 일어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 베르니케에 의해 왼쪽 뇌의 측두엽(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 사례가 보고되었다.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을 입은 실어증 환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말소리는 변별할 수 있지만, 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베르니케는 브로카가 보고한 실어증 사례와 자신이 발견한 실어증 사례를 이용하여, 언어 산출 영역과 이해 영역이 신경해부학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영역은 '궁형속(弓形束)'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표현성 실어증이 되고,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이해성 실어증이 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 모형은 궁형속이 단절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전도성 실어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르니케 모형은 실어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언어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 영역들은 특정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해부학적 국재화(局在化) 가설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재화 가설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실어증 환자가 일부 언어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언어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든 관계없이 뇌의 모든 부분이 협응하여 관련된 언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전체주의 가설이라 불린다. 전체주의 가설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 장애가 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베르니케 모형이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언어 기능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가설도 문제점을 갖는다. 실어증 환자를 언어 장애의 정도로 설명한다고 해도, 표현성 실어증과 이해성 실어증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언어 장애가 기능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 국재화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슈빈트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 과정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 처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도입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베르니케 모형을 보완하여, 실어증 장애를 뇌 영역의 신경해부학적 손상이 아니라 인간 정보 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을 제안하였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에서는 특정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단어의 이해와 산출 기능은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기능적 단원성(functional modularity) 가설이라고 부른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은 기능상으로 상이한 형태의 언어 장애를 보이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국재화되어 있지 않은 실어증 사례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브로카는 국재화 가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② 베르니케는 브로카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③ 전체주의 가설은 베르니케의 가설을 부정하였다.
④ 게슈빈트는 전체주의 가설을 보완하였다.
⑤ 게슈빈트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수용하였다.

16. 베르니케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① 궁형속이 손상된 환자의 언어 장애 사례
② 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 실어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
③ 문장 이해에 장애가 있고,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사례
④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순수하게 표현성 실어증의 증상만 나타나는 사례
⑤ 단어의 이해에 장애가 있는 환자와 산출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뇌 손상 영역이 동일한 사례

17. ㉠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단어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상대방의 문장 정보를 자신의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자신의 의미 산출 정보를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자신의 문법 정보를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카린시의 소설 <연쇄>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다섯 명의 연쇄적인 친분 관계를 통해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인공은 전혀 모르는 포드 자동차 공장의 한 노동자와 자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작년에 파스토라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어. 그런데 파스토는 허스트 출판사의 한 임원을 잘 알고 있지. 그 임원은 또 포드 자동차의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사장은 회사의 관리자와 쉽게 연결되지. 그리고 관리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를 매우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지."

이 소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곧 멀어졌다. 그러나 다섯 개 이내의 연쇄적 친분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카린시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섯 단계의 분리'로 알려진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67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에 의해서 재발견되었다.

밀그램은 미국 내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즉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밀그램은 캔자스 주 위치타,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등지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한 여자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밀그램은 편지를 가장 잘 전해 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편지를 가장 잘 전달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편지를 전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여자가 편지를 전달받으면 실험은 끝나게 된다.

밀그램은 편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후, 편지가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의 사람 수를 계산한 결과, 5.5명이라는 수치를 얻었다. 이것은 예상 밖으로 작은 수치였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카린시의 추측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이 수치를 반올림하면 6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여섯 단계의 분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노트르담 대학의 바라바시 교수는 밀그램과 비슷한 방법으로 웹 문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예컨대, 바라바시의 대학원 학생의 웹 페이지는 그의 웹 페이지와 바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한 클릭만큼 떨어져 있다. 반면에 그의 웹 페이지에서 특정 철학자의 웹 페이지로 무작위로 클릭하여 이동하는 데에는 대략 12클릭 정도가 필요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거리가 웹의 크기에 견주어 볼 때 결코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이었다. 노트르담 대학의 웹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웹 문서 사이의 클릭 수는 놀랍게도 평균 11클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학의 웹은 전체 웹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1999년 당시 전체 웹은 이보다 적어도 3,000배 이상 컸다. 이 사실은 전체 웹에서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3,000배나 더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전체 웹에서는 하나의 웹 문서에서 다른 웹 문서로 이동하기 위해서 33,000클릭이 요구된다는 의미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전체 웹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가) 바라바시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우선 웹에서 10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작은 부분을 떼어 낸 다음, 이 작은 샘플에서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했다. 그런 다음, 100개의 노드로 구성된 좀더 큰 부분을 떼어 내어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성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샘플의 크기를 1,000개, 10,000개로 계속 늘려 가면서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한 다음, 이들 사이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드 간 평균 거리의 증가율은 웹 문서 수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경향은 규칙적이며 아주 단순한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에 따라, 전체 웹에서의 문서 수만 알 수 있으면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NEC 연구소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전체 웹 문서 수는 대략 10억 노드 정도이며, 위에서 얻은 수식에 이 값을 대입하면 웹 문서 사이의 클릭 수로 약 19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웹을 서핑하면서 받는 직관적 인상과는 달리, 어떠한 웹 문서도 평균적으로는 자신의 웹 문서와 19클릭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18.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① 밀그램의 실험은 '여섯 단계의 분리' 현상의 원인을 밝혔다.
② 밀그램 실험에서의 편지 전달은 바라바시 실험에서의 클릭에 대응한다.
③ 밀그램은 카린시의 주장에 근거하여 실험한 결과, 5.5명이라는 수치를 얻게 되었다.
④ 바라바시의 연구 목적은 전체 웹 지도를 작성하는 데 있었다.
⑤ 바라바시 실험에서 웹 문서 사이의 거리는 웹 문서의 수에 정비례한다.

19. (가)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밀러는 원시 지구를 나타내는 물,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크에 번개를 대신하는 전기 방전을 가하여 이들 물질이 아미노산, 지방산, 당 등의 유기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베게너는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석탄층에서 아열대 기후에서 자란 나무의 흔적을 발견하고, 세계의 대륙이 원래 하나였는데 서로 떨어져서 지금의 위치로 움직여 갔다는 대륙 이동설을 제창하였다.

③ 배런은 핵무기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한 후, 각 노드가 소수의 허브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그물처럼 얽힌 인터넷을 고안하였다.

④ 멘델레예프는 여러 가지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든 후, 이들 원소의 성질을 비교하여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러 원소들의 존재를 예측하였다.

⑤ 밀리컨은 전압이 걸려 있는 금속판 사이에 전하를 띤 기름 방울을 불어 넣고 현미경으로 낙하 속도를 반복 측정한 후, 이를 물리 공식에 대입하여 전자의 전하량이 $1.6\times10^{-19}$ 쿨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사회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밖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압축 성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하게 전개된 국가 주도의 대외 의존적 산업화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급격하게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형태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막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사회 운동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운동은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운동'의 전개와 여성·환경 등을 쟁점으로 하는 '신(新)사회운동'의 출현이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다.

서구에서 경제적 관계를 중심적인 대립축으로 하는 구사회운동은 분배적 정의, 균형적 계급 관계,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등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참여하는 계급 타협과 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복지 국가의 출현에 의해 그 목표를 상당 정도 실현하였다. 그리고 구사회운동의 목표가 충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면서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 냉전과 군사주의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부각되었고, 이것의 해결을 겨냥한 신사회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은 경제적 관계 대신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대립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대,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의 특징을 보인다.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사회 성원들과 가치들을 동원하여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구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 즉 구사회운동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제도화되어 계급 타협을 이끌어 내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전에 신사회운동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양한 부문들에서 사회 성원들을 탈계급적으로 동원하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 변혁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훼방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대립축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면서 사회 성원들의 이익 표현과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완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사회 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사회 성원의 기본권 확보 및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의 기획'을 넘어서려는 탈근대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한계뿐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근대조차 완성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신·구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 위 글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진술은?

①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
②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완성과 극복을 함께 지향한다.
③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
④ 한국의 사회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발생하였다.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발전에 관하여 단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② 전체 사회 구조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한국의 구사회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④ 사회 운동의 역기능을 부각시키는 보수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⑤ 상이한 사회들에서의 사회 운동 조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민 지배 이전 나이지리아 티브 족의 경제는 생계 영역, 위세 영역, 극상(極上) 영역이라는 서로 독립적이고 위계적인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생계 영역에 속하는 재화는 식량, 가구, 농기구 등으로, 이것들 간에는 선물 교환이나 물물 교환 방식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세 영역의 재화로는 노예, 가축, 약, 의례적·주술적 직위, 놋쇠막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놋쇠막대는 불완전한 화폐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극상 영역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위세재(prestige goods)인 여성에 대한 권리 영역으로서 혼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티브 사람들은 재래 시장에서 식량과 같은 하위 영역의 재화를 소나 놋쇠막대와 같이 위세를 높여 주는 상위 영역의 재화들과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 영역 내의 재화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재화의 교환은 여러 가지 도덕적 제약 하에서 놋쇠막대를 매개로 해야만 가능하였다. 가령 놋쇠막대를 주고 식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놋쇠막대를 주고 부인을 얻는 것은 불완전한 혼인으로 간주되었다.

식민 통치 이전의 티브 사회에서 놋쇠막대는 부분적으로만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의 화폐처럼 모든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티브 사회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식민 통치와 더불어 범용(汎用) 화폐가 도입되면서 모든 재화의 교환 가치가 하나의 공통된 척도로 표시되는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티브 사람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직접 교역에 뛰어들거나 외부 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환금 작물을 재배하여야만 했다. 티브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고, 예속성이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위세를 높이려는 남성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신부값을 지불하여 여성을 얻거나 위세 영역의 다른 재화들을 구입하였다. 그 결과 식량은 더욱더 외부로 수출되었고, 티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생필품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부채 개념이 없던 생계 영역에서 부채 개념이 등장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식민 통치와 함께 티브 사회의 혼인 관습도 변화하였다. 식민 통치 이전의 티브 사회에서 이상적인 혼인은 서로 누이를 주고받는 형태의 교환혼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접 누이를 주고받는 교환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줄 누이가 없는 남자들은 누이 대신에 다른 여성을 보내고 상대 역시 누이가 없으면 누이에 상당하는 여성을 보내 주었다. 이렇게 누이 대신에 상대방에게 아냇감으로 보낼 수 있는 여성을 '잉골(ingol)'이라고 한다. 서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소규모의 부계 종족(父系宗族)은 잉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잉골 공유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남성들은 각각 한 명 이상의 잉골을 관리하였다. 만일 잉골이 마음에 맞는 남성과 도망치거나 잉골을 받은 쪽이 다른 잉골을 보내지 않으면 보낸 쪽에 대해 부채를 지게 되며, 그 잉골의 공유 집단의 위세는 약화되었다. 이때는 대개 놋쇠막대로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소를 주어 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다. 그렇지만 놋쇠막대나 소가 잉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을 받은 대가는 오직 또 다른 여성으로만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딸을 아내가 원래 속했던 잉골 공유 집단에 보내 부채를 갚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때로는 두세 세대가 지난 후에야 부채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범용 화폐의 도입으로 상품 시장 경제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티브 경제의 각 영역 간의 구분은 사라졌고, 여성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재화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교환혼이 신부값 혼인으로 바뀐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신부값을 화폐로 받게 된 잉골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교환혼을 통해 형성할 수 있었던 친족 집단 간의 사회 문화적 유대감과 결속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여성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신부값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내를 얻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22. 식민 통치 이후 티브 사회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놋쇠막대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② 친족 집단 간 유대를 유지, 강화하는 요인이 늘어났다.
③ 전통적인 위세 영역에서 부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④ 식량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었다.
⑤ 현금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23. 티브 사회의 변동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 변동에서 내적 동인을 중시하고 있다.
② 여성의 삶에 대해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③ 개별 사회가 지닌 사회 문화 체계의 고유성에 주목하고 있다.
④ 경제 체제의 변화보다 정치 권력의 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⑤ 공동체 질서의 교란과 가치 체계의 혼돈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

24. ㉠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잉골 확보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여성을 얻더라도 위세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
③ 영역별 위계 질서의 동요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④ 잉골과 화폐의 교환 추세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⑤ 새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1766~1834)와 리카도(1772~1823)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맬서스는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리카도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 문제를 놓고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곡물법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영국의 곡물법은 식량 가격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가(穀價)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시 수요는 크게 둔화된 반면, 대륙 봉쇄가 풀리면서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국력의 유지와 국방의 측면을 위해서도 국내 농업 생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관세가 인상되면 곡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하여 마침내 제조업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곡물법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맬서스와 리카도는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맬서스는 곡물의 수입 제한을 주장하였다. 곡물 수입은 곡가 하락을 초래하여 국내 농업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전쟁 등의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맬서스는 곡가 하락이 상공업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곡가가 하락하면 농업 이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축소되면 농업 부문의 고용이 감소함은 물론, 지대의 감소에 따라 ⓒ 지주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수요 부족에 따른 상공업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리카도는 이른바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 곡물 수입 개방을 주장하였다. 즉 농업 생산에서 영국보다 우위에 있는 프랑스의 곡물을 수입하는 대신, 영국은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다른 생산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곡가의 상승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농부들이 아니라 지주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높은 곡가 때문에 지대가 인상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지주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 형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주장 모두 그 나름의 경제적 논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주와 귀족이 다수였던 당시의 영국 의회는 맬서스의 주장대로 결국 곡물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5. 곡물법을 둘러싼 각 경제 주체의 입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공장주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자유 무역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② 노동자는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의 가능성 때문에 곡물법의 유지를 원했다.
③ 정부는 탄력적인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곡가보다 수입 곡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④ 농부는 곡물법을 통해 물가 상승과 지주의 착취에 따른 손실 보전을 기대하였다.
⑤ 지주는 경제적 차원보다 국방 차원에서 곡물법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26. 맬서스와 리카도의 논지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맬서스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 반면, 리카도는 귀납적 추론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맬서스는 상공업의 발전에서 지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리카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맬서스는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리카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맬서스와 리카도는 모두 지주들의 증대된 부와 자본이 공업 부분에 투자되어 공업의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⑤ 맬서스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상공업 촉진 정책을 주장한 반면,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에 기초한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 곡물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② ⓑ: 곡물 수입에 따른 공급 증가량보다 곡가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량이 더 적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③ ⓒ: 지주의 소득이 주로 상공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출됨을 전제한 것이다.
④ ⓓ: 경작지 확대의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⑤ ⓔ: 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높아져 자본과 노동이 농업 부문에 편중될 것임을 뜻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후기 역사학에서 정통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홍여하(洪汝河)의 『동국통감제강』에서였다. 이는 17세기 중엽, 명·청 교체라는 동아시아 '천하' 질서의 근본적 동요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중화(中華)가 공석이 되었다는 의식과 함께, 주자학을 수용하여 도학을 밝힌 조선이 이제 소중화(小中華)로서 중화를 대위(代位)한다는 각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효종 대의 북벌론을 사상적·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다수의 노론 계통 사상가들도 화이(華夷)의 구분은 지리 경계나 종족에 있지 않다고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중화'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자에 의해 확립되고 조선 왕조에서도 그동안 굳게 신봉되었던 화이관, 즉 중국 강역에서만 그리고 중국족에 의해서만 '화(華)'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화이관은 크게 변질되었다. 나아가 중국 밖에서도, 비중국족에 의해서도 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역사 인식에서 보면 '존조선(尊朝鮮)' 의식의 성립, 강목체(綱目體) 서술의 강화,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의 조선사 적용 등이 그 반영이었다.

이익(李瀷)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는 우선 "지금의 중국은 대지 중의 한 조각 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통적 화이관의 대들보였던 중국 중심의 '천하' 사상을 분쇄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중국 중심의 '천하'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각기 하나의 독자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 즉 유일한 '천하'로서의 '중국 천하'는 병렬된 개별 국가로 분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였다. 여기에서 이익의 ㉠'삼한 정통론'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통론의 적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익의 정통론이 북벌론자들이나 노론 계열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중화의 현실적인 대위라는 '존아적 자기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었을 뿐 중국 중심의 '천하' 의식은 여전했던 데 반해, 전자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로서의 조선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이익은 중국 중심 '천하'의 부정을 전제로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자는 예악(禮樂)을 기준으로 하되 조선만을 소화 내지 중화로 보았던 데 반해, 이익은 예악이 요(遼)·금(金)·원(元) 등 만리장성 바깥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이익은 중국족의 습속까지 예악에 포함시켰던 노론 계열의 소화 의식과는 달리, 예악을 유교적인 것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소화 의식을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한편 이익은 결과를 가지고 역사의 성패를 논하면 착오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원인이나 객관적 여건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하의 제반 역사 운동이나 역사 사실의 전개에서는 시세(時勢)가 기본적 요인이고, 인간 행위는 부차적이며, 도덕적 시비는 천하사의 전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때 시세는 어떠한 형태의 법칙성도 거부하는 우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특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역사에 개입된 인간 행위의 성패는 시세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요컨대 그에게 시세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여건·정세로서, 무법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관계없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익은 ㉡당시까지의 역사 서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이미 결정된 성패를 뒤쫓아가면서 '성(成)'은 곱게 꾸미고 '패(敗)'는 더럽게 만들며, '선(善)'에 대해서는 허물을 숨기고 '악(惡)'에 대해서는 장점을 버려서, 그 성패가 마치 '우지(愚智)에 의한 성패의 판가름'과 '선악응보(善惡應報)'라는 인과 법칙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의 인간 행위를 선악 이원론이나 현불초(賢不肖) 이원론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역사 서술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가 역사적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을 도덕적 선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분리하고, 인간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선악의 시비 문제를 가리고자 했다. 즉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선은 선으로 여기고 악은 악으로 여기되, 그 선악이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도덕의 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실제적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의 기준도 내면적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인의에서가 아니라 외적·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28. 위 글에서 제시한 정통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를 때, '천하'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은?

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찌 내외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각기 자기 사람들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에 편안해 하는 것이니, 화와 이는 한 가지인 것이다.

② 내 생각으로는 이른바 중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중(中)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른바 동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동(東)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대저 이미 동서남북의 가운데라면 어느 곳이나 중국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니, 동국이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③ 어찌 유독 중화에만 군주가 있을 것이며, 어찌 이적(夷狄)에는 군주가 없겠는가. 천지는 넓고 넓어 한 사람이 홀로 주인노릇 할 수 없으며, 우주는 광대하니 한 사람이 오로지 할 바가 아닌 것이다. 천하는 곧 천하인의 천하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④ 비록 이적의 사람들이라도 이적의 행동거지를 버리고, 중국의 도를 사모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중국일 뿐이다. 지금 우리 조선만이 주자학을 종주로 삼고 있으니, 주례(周禮)가 노(魯)에 있는 격이다.

⑤ 중국인은 중국을 정계(正界)로 여기고 서양을 도계(倒界)로 여긴다. 서양인은 서양을 정계로 여기고 중국을 도계로 여긴다. 그러나 하늘 아래 땅을 밟은 이상, 다들 처한 곳에 따라 정계라고 하는바, 횡계(橫界)도 도계도 없으며 모두 다 같은 정계인 것이다.

29. 이익의 역사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간 행위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의 전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③ 시세의 변화는 인간 행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⑤ 시세는 선악의 도덕 기준을 벗어나 있다.

30. ㉠의 성립 배경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중국 중심 천하관의 극복
②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
③ 명·청 왕조의 교체
④ 국경 관념의 변화
⑤ 자존 의식의 고양

31. 이익의 역사관으로 ㉡을 읽을 때, 독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 속에도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있는 경우를 숙고한다.
② 역사서에 보이는 성패의 결과에서 현실 문제의 추이를 전망한다.
③ 오래 전 과거를 다룬 역사서에 서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한다.
④ 역사서에 드러나 있는 도덕적 시비가 사실 인식을 방해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⑤ 훌륭한 지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졸렬한 계획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성찰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주가 조릉(雕陵)의 금지 구역에서 어정거리다가 한 마리 특이하게 생긴 까치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가 7척은 되었고, 눈의 크기도 1촌이나 되었지만,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가 생각했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가 넓은데도 멀리 가지 못하고, 눈이 커도 알아보지 못하네." 바지를 걷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엿보았다. 매미 한 마리가 호젓한 그늘을 차지하고 제 몸을 잊고 있는데, 사마귀가 몸을 가리고 후려치려고 하였다. 사마귀는 사냥감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까치는 그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까치도 이익을 보고 참된 자신을 잊고 있었다. 장주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 개체들이란 본래 서로 얽어매고, 다른 것들 사이에 서로 부르는구나!"라고 탄식하고 활을 버린 채 달아났다. 조릉의 관리자가 쫓아와서 장주를 꾸짖었다. 장주는 집에 돌아온 뒤 3개월 동안 뜰에 나오지 않았다.

**(나)**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았다. 가지와 잎새가 무성하였다. 벌목하는 자가 그 나무 곁에 멈추었지만 베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묻자, "쓸모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자는 말했다. "이 나무는 재목감이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산에서 나와 옛 친구의 집에 묵었다. 친구는 기뻐하면서 하인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하였다. 아이가 물었다.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에서 본 나무는 재목감이 못 되어서 수명을 다 누렸는데, 지금 집주인의 거위는 재주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로 대처할까.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는 그럴 듯하지만 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얽매이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도(道)와 덕(德)을 타고서 노닐면 그렇지 않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사는 일도 없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때와 더불어 변화할 뿐, 내가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가 되기도 하면서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조를 맞추고, 만물이 나오는 근원에서 노닐며 ㉠ 외물을 외물로서 응대해 주고 외물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면 [物物而不物於物], 어찌 외물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얼마 뒤에 자여가 병이 났다. 자사가 방문하자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다, 조물주여! 나를 이처럼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굽어서 등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오관이 있고, 턱은 배꼽에 숨었다.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목뼈는 하늘을 가리켰다. 음양의 기(氣)가 어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가롭고 근심하는 것이 없었다. 비틀비틀 우물가로 가서 비추어 보고 말했다. "아, 조물주가 또 나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너는 그것이 싫으냐?"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점차 나의 왼팔을 변화시켜 닭으로 만들면 나는 시간을 알릴 것이요, 점차 나의 오른팔을 변화시켜 탄환을 만들면 나는 그 탄환으로 올빼미구이를 구할 것이요, 점차 나의 꽁무니를 변화시켜 바퀴를 만들고 신(神)을 변화시켜 말로 만든다면 나는 그대로 타고 달리리니 멍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명을 얻은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생명을 잃는 것도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변화에 순응하여 처한다.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옛 시대에 말했던 ㉡ 현해(懸解 :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장자(莊子) -

32. 위 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① 타자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도리어 침해를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②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외물에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인간에 대한 속박은 외물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대응 방식에 의해 초래되기도 한다.
④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
⑤ 도와 덕은 외물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도가 된다.

33. ㉠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禮)를 좋아한다.
ㄴ. 물의 흐름과 같이 상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대처한다.
ㄷ.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래에 처하는 방식을 취한다.
ㄹ.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도, 일찍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는 거울처럼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34. ㉡에서 '현(懸)'은 어떤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 즉 속박을 뜻한다. 이 '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가)~(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까치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망각한 것이나, 장자가 까치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상황을 잊은 것은 '현'의 사례이다.
② (가)에서 관리인이 장자를 꾸짖은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현'의 상태에 빠진 자를 비판한 것이다.
③ (나)에서 재목감이 못 되어 살아남은 것이 곧 '현'의 상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현'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⑤ (다)에서 자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여 유유자적하는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5년 4월 15일, 21세의 미국 여성 카렌 퀸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9일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카렌은 신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성 클레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초기부터 카렌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인공 호흡기로 호흡을 했다. 카렌에게는 처음에는 입으로, 나중에는 비위관(鼻胃管)으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었다. 다섯 달이 지난 후 카렌에게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종류의 신경원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은 경직되고 수축되었으며, 체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성 클레어 병원 측에서는 카렌이 회복될 확률이 백만 분의 일이라고 했다. 마침내 가족들은 카렌이 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렌이 자신의 몸을 이런 상태로 계속 놓아 두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렌의 부모는 카렌이 이전에, 만약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면 기계에 의존해서 식물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본당 신부는, 교황 비오 12세에 따르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인공 호흡기 같은 특별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도덕적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마침내 카렌의 부모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렌의 주치의였던 모스와 야베드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의사들은 카렌의 부모가 나중에 변덕을 부려서 의료 과오 소송에 휘말리게 될까 걱정했다. 그들은 카렌의 전원(轉院)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딸의 호흡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렌의 아버지 조셉 퀸란은 암스트롱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사건은 처음에 뉴저지 주 검인 법원(檢認法院)의 뮤어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단순히 호흡기를 떼는 데 동의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카렌을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암스트롱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택했다. 그는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조셉 퀸란은 딸의 호흡기가 제거되기를 원한다고 밝히자, 뮤어 판사는 ㉡카렌의 부모가 더 이상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암스트롱은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야만 했다. 처음에 그는 카렌이 법적으로 뇌사라고 주장했다. 뮤어 판사는, 그녀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신경학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카렌의 뇌간(腦幹)이 아직 기능하고 있으므로, 뉴저지 주의 법에 따라 전뇌사(全腦死)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렌의 주치의는 호흡기를 떼어 낸 의학적 전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모스의 변호사 포르지오의 변론 요지는, 타인이 평가한 카렌의 삶의 질에 기초해 카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비로운 죽음'으로 미화하려는 이 일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한, 나치의 가스실을 작동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법정을 환기시켰다.

카렌이 입원한 지 거의 7개월이 지난 1975년 11월에 뮤어 판사는 카렌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카렌의 의사가 서면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렌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며, 그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부모의 증언도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죽을 권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카렌의 부모는 항소하였고, 상급 법원인 뉴저지 주 최고 법원은 1976년 1월에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죽어 가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서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허용할 정도로 넓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뮤어 판사의 판결과 더불어 의학적·법적·윤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락사 찬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5. 뮤어 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채택한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신경학자들은 카렌이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증언했다.
ㄴ. 카렌의 뇌간이 기능하고 있다.
ㄷ. 문서화된 카렌의 유언이 없다.
ㄹ. 가족들이 카렌의 평소 의사에 관해 증언했다.
ㅁ. 헌법에 죽을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ㅂ.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ㄹ, ㅁ

36. 다음은 카렌 퀸란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한 기자의 수첩이다. 정확한 보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카렌의 부모 : 회복 불능 - 호흡기 제거를 요청.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신부의 유권 해석이 도덕적 부담감 덜어 준 듯. ①
모스와 야베드 : 카렌의 회복 가능성 없다고 판단. 카렌의 전원을 허락하지 않음. 의료 과오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 ②
앰스트롱 : 죽게 내버려 달라. 전원 요청보다 어려운 소송 선택. 카렌을 뇌사로 주장한 것은 전략적 실수. ③
포르지오 : 호흡기 제거를 가스실에 비유. 선정적 변호. 카렌이 뇌사의 기준상 살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④
최고 법원 : 프라이버시권 적용 → 기존 판결 번복. 기존 헌법 조항의 확대 해석 → 뇌사의 새 기준 제시. ⑤

37. 뮤어 판사가 ㉠을 듣고 <보기>와 같은 추론을 거쳐 ㉡에 도달하였다고 하자. 이때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호흡기를 제거하면 카렌은 죽을 것이다. ↓ A ↓ 카렌의 후견인은 카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

① 카렌의 죽음은 카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② 카렌만이 호흡기의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카렌의 후견인만이 카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카렌 후견인의 이익은 카렌의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
⑤ 카렌의 부모라도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코난 도일의 이야기에서 셜록 홈즈는 뛰어난 통찰로 범행의 단서들을 추적하면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간다. 범행 단서들에 관한 홈즈의 설명은 언제나 경찰이 제시하는 설명보다 완벽하고 포괄적이다. 이러한 홈즈의 명쾌한 설명은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의 설명이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옳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뛰어나다면, 그것은 그 주장이 옳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의 추론을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라고 부른다.

이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추론 방법으로서, 과학의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과학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들이 여럿 있을 때, 어떤 이론을 더 좋은 이론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과학 이론은 관측으로 직접 검증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므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령 어떤 과학 이론이 다른 과학 이론들에 비해 현상을 더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더 좋은, 나아가 올바른 이론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 과학적 실재론이란 과학 이론이 외부 세계를 참되게 혹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서술한다고 믿는 관점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학 이론 안에 가정된 이론적 존재자들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표상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과학 이론이란 자연 세계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이다. 그런데 자연 세계 안에는 현상

이면에 그 현상을 일으킨, 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는 없는 사물들이나 원리들이 존재한다. 과학 이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인 언어들로 서술된다. 따라서 어떤 과학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과학 이론 안에 가정된 이론적 존재자 역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된 허구일 뿐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원자 핵 속의 미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쿼크(quark) 이론은,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쿼크라는 입자들의 덩어리로 가정하고, 핵의 물리 현상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쿼크 이론에서 가정하는 쿼크 입자는 현재로서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쿼크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학적 실재론자는 쿼크 이론이 미시 세계를 참되게 혹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서술하며, 쿼크와 같은 이론적 존재자들이 실제의 사물을 지시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과학 이론을 보는 하나의 철학적 관점이자 신념이다. 다시 말해 과학 이론이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적 세계든 직접 관찰 불가능한 세계든, 그것에 관한 참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자체를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학적 실재론자가 그러한 믿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제 역사 속에 드러난 과학 이론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과학적 실재론이야말로 과학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님을 보여 주는 유력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사를 보면 많은 과학 이론들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별의 운행과 관련하여 점성술의 설명보다는 천문학에서의 설명이 훨씬 더 성공적이며,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실재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들은 이러한 성공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과학적 실재론자는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이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통해 옹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합당한 추론 방법으로, 일상적인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나,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8. 위 글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①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의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인가?
②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가?
③ 과학에서의 이론적 존재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④ 과학 이론은 세계에 관한 참된 서술인가?
⑤ 과학 이론은 검증 가능한가?

39.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제 우리 부서 회식 때 모두가 옻닭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나와 김 과장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옻이 올라 치료를 받았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나와 김 과장은 별 의심 없이 우리가 옻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② 우리 축구 대표팀은 혹한의 러시아에서 치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열사의 이집트에서 벌어진 경기에서도 승리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수중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의 고산 기후를 걱정하지만, 나는 내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③ 용기 안에 두 물질 A와 B의 혼합물이 들어 있다. 철희는 A를 분리해 내려고 B하고만 반응하는 물질 C를 용기 안에 집어넣고 가열했다. B와 C의 화합물은 휘발성이 높다. 한참을 가열하여 생겨난 기체를 모두 밖으로 빼고 나니 용기 밑바닥에 흰색 침전물이 남았다. 철희는 이 침전물이 A라고 결론 내렸다.
④ 어제 한밤중에 벽을 긁고 천장에서 달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 잠을 설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이 엉망이고 치즈 덩어리가 없어졌다. 어머니는 쥐, 아버지는 도둑고양이 때문이라 하셨다. 하지만 밤새 부엌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치즈 부스러기가 있던 곳에 찍힌 발자국이 고양이 것보다 훨씬 작았다. 어머니 생각이 옳았다.
⑤ 영수는 역사를 잘 모른다. 최근 불거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한국사와 해양사를 전공한 저명한 김 교수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도 대개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노골화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영수는 동해 표기가 올바르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40. 과학적 실재론을 비판할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과학의 성공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다.
ㄴ. 과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실패하는 이론들이 매우 많다.
ㄷ. 한 현상을 똑같이 잘 설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과학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
ㄹ.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 가정하는 이론적 존재자들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의 유화에는 여성이 그 중심 소재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범주가 있다. 누드화가 바로 그것이다. 누드화를 통해 우리는 유럽 전통에서 여성이 그림의 주제가 될 때의 관습과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클락의 『누드(The Nude)』(1959)에서 시도되고 있는 누드에 대한 설명은 소위 '상식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누드를 예술의 형식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누드'라는 단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하등의 불편한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누드를 단순한 벌거벗음(nakedness)과 구별한다. 누드와 달리 벌거벗음은 그 일반적인 의미대로 옷이 벗겨졌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 우리들 대부분이 느끼게 되는 어떤 당혹감을 함축한다고 본다. 반면 누드는 이 벌거벗음을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봄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 우선 누드라고 해서 모두 예술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이 아닌 누드 사진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누드가 보는 방식에 따른 관습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서는 클락이 옳다. 하지만 이들 관습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화가 넬리가 찰스 2세의 밀명을 받아 그렸다는 <비너스와 큐피드>를 보자. 그림 속의 여인과 소년은 비너스와 큐피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누드화에서 비너스로 그려진 여인은 넬 구인이라는 후궁이다. 그림 속에서 그녀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럽 전통 누드화의 전형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누드는 성(性)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저 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누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채 보여지지만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누드가 되기 위해서라면 벌거벗은 몸은 하나의 대상으로 보여져야 한다. 벌거벗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드는 전시하는 것이다. 벌거벗는 것은 가식이나 숨김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품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외관인 피부와 체모를 가장(假裝)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누드에서 이러한 가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누드는 벌거벗는 것이 아니다. 누드는 일종의 복장이다. 누군가가 누드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드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 누드화들을 보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절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주인공이란 그 그림 앞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주인공은 대개 남자였으리라. 모든 것이 그가 거기 있음을 상정한 채로 그려져야만 한다. 그림 속의 여성이 누드가 된 것은 그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보여질지 모른다. 그녀를 보는 그는 낯선 이이며, 게다가 옷을 입고 있다. 비록 그림 속에 그녀의 연인이 등장하더라도 누드화 속의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그녀의 시선은 그를 피하고 있다. 아니면 그녀는 아예 그림 밖에 있을 연인에게 복종적인 눈길을 주고 있다.

누드화를 둘러싼 관습을 따르지 않는 유럽 누드화가 있기는 하다. 누드화라는 전통을 형성해 온 수십 수백 만의 그림들 중 아마 백여 점이 될까 말까 하는 이 극소수의 그림들은, 사실 누드화로 분류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누드화의 규범을 파괴한 것들이다. 그들은 대개 ㉡화가의 연인이 벌거벗은 채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다. 이 경우, 그려진 여인에 대한 화가의 개인적인 영상이 너무도 강해서 거기에는 관람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관람자는 그들의 관계를 목격할 뿐이다. 그는 그림 속의 여인이 자신을 위해 벌거벗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는 그녀를 누드로 바꾸어 버릴 수 없다. 화가가 그녀를 그린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화가는 그녀의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또 그녀의 자세와 표정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 그녀의 의지와 감정이 포함되어 있도록 그렸던 것이다.

41. 글쓴이가 누드에 관한 클락의 설명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클락의 설명은 유럽 전통의 누드화들에만 적용된다.
② 클락은 누드와 성의 명백한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③ 클락은 예술이 아닌 누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④ 클락은 벌거벗음이 당혹감 같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⑤ 클락이 분류한 누드화 중에는 누드화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42. 문맥상 ㉠이 의미하는 것은?

① 누드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자의적이다.
② 누드 모델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③ 가식적인 표정과 자세는 누드의 필수 요소이다.
④ 누드는 보는 방식이므로 옷을 입은 누드도 있다.
⑤ 보여지는 전시품은 그 자체로 이미 꾸며진 것이다.

43. ㉡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델의 시선이 작품의 감상을 방해한다.
② 모델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
③ 모델이 성욕의 주체로 묘사될 수도 있다.
④ 모델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⑤ 모델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누드로 분류되어 왔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둡고 습했다. 목이 말랐다. 숨쉬기가 곤란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호흡이 전혀 트이지 않았다. 땀방울들이 종기처럼 떼거리로 돋아났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이 암흑인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빛이 보였다. 나의 쓸모없는 눈에 잡힌 그 빛은 금방이라도 그림자가 되어 풀썩 쓰러질 것처럼 희미하게 흐느적거렸다. 나는 갑갑하고 안타까웠다. 나는 저 빛이 검은 재가 되어 아주 가라앉기 전에 이 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빛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향해 날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어깻죽지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날개를 활짝 펴 보았다. 크고 힘찬 나의 날개가 나를 황홀하게 했다. 나는 목마른 것도 잊고, 숨이 가쁜 것도 잊고, 나의 날개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볼수록 대견하고 신이 났다. 나는 날개를 펄럭였다. 크고 힘찬 날개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차고 올라갈 것만 같았다. 나는 빛이 스러지기 전에 서두르자고 다그쳤다.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다시 맹렬한 기세로 날갯짓을 해 보았다. 하지만 나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날개뿐이었다. 크고 가벼운 날개뿐이었다. 나의 다리는 땅 속에 심겨져 있었다. 마치 나무처럼 땅에 박혀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히고 목이 말랐다…….

**(나)** 꿈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았다. 꿈을 꾸면서도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거기다가 나는 꿈속에서 그 꿈의 출전(出典)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H. M. 호프의 책이었다. <예술가>라는 그 소설의 한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었다. 날개를 퍼덕이지만, 몸이 땅에 심겨져 날지 못하는 한 사람의 그림. 이상한 그림을 다 그려 놓았구나, 생각하며 들여다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내 꿈속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나는 김기홍에게 전화를 걸어 어째서 상대 후보가 조찬 구라는 걸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기홍은 나의 항의를 무시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도 결국 알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누구면 어떠냐고 말했고, 오히려 잘 아는 상대이니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과 나의 특수한 관계를 자꾸만 상기시키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말 것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

"일은 이미 시작됐어. 어차피 할 거면서 혼자 의로운 척, 순결한 척 위장하는 거, 제발 고만 하자고. 피차 시간 낭비야. 나는 너를 알아. 너도 나를 알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지?"

그는 좀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 마치 징징거리는 어린애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야단치는 듯했다. 그의 뜻밖의 힐난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속의 가장 부끄러운 부위를 억지로 보여 준 것과 같은 치욕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우리 안을 휘젓고 다녔다.

몇 시간 후 사무장은 내 앞에 봉투를 내놓았다. 나는 무어냐고 묻지 않았다. 사무장은 액수를 말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가 받은 것보다 두 배쯤 많은 금액이었다. 큰 돈이었다.

"변호사님께서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어디, 함부로 이런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우정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차피 남의 집일망정 내 서재가 따로 있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의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또……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았다. 좀처럼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버렸다. 잠을 자고 싶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잠을 청할 때마다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가 충족되곤 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몹시 심각하게 마음을 끓이던 일도 자고 일어나면 아주 시시한 일로 바뀌어 있곤 했다. 오늘이야말로 더욱더 그와 같은 잠의 신비한 마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참이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를 몇 바퀴 굴렀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와 같이 야릇한 꿈을 꾼 모양이었다.

나는 애써 정신을 수습하고 책상 앞으로 다가가 H. M. 호프를 찾았다. 그림이 나오는 페이지를 펼쳤다. 내 꿈을 복사한 것 같았다. 나는 책상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채 읽지 못한 부분을 마저 읽어 나갔다. <예술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꿈속에서 보았고 그의 책 한복판에 그려진 그 이상한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다)** …… 추장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그는 다시 동굴에 갇혔다. 추장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 격인 한 젊은이를 저주하라고 시켰다. 그 젊은이의 가슴에 칼을 꽂아 피를 토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라고 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미소년이었던 그가 사냥을 면제받은 대신 맡아 하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들소나 산양이나 사슴에 대해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까지 언제나 명령에 잘 복종했다. 여자를 바꿔 가며 불러들이는 추장의 침소를 치장하라는 요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림만은 그릴 수 없었다. 주술로서의 그림을 그런 일에 쓸 수는 없었다. 추장은 동굴에 감금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에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렸다는 이유로 갇혀 지낸 적

이 있는 동굴이었다.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동굴에 갇히는 쪽을 택했다.

동굴 속으로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다. 먹다 남은 뼈다귀들이, 그것도 아주 조금씩 던져질 뿐이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조차 먹지 않았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가끔씩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진종일 벽을 마주보고 앉아 지냈다. 그의 몸은 점점 허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면벽(面壁)의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몸이 거의 지푸라기처럼 가늘어졌을 때, 갑자기 그가 바라보고 있는 벽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떤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벼락처럼 동굴 벽에 매달렸다. 그의 몸 속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서운 힘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몸의 피를 조금씩 빼내어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릴 동굴 벽만은 환하게 밝았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동굴 벽에 매달렸다. 날개를 그렸다. 그의 붉은 피로 그렸다. 날개가 달렸지만, 날개는 퍼덕이지만, 몸이 나무처럼 땅에 박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얼굴이 유난히 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인물을 그렸다. 그림은 그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는 순간에 완성되었다. 아니, 그 반대인지 모른다. 그의 피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의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조리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그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몸은 날개처럼 가벼워졌다. 그의 날개처럼 가벼운 몸은 공중으로 둥둥 떠서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 이승우, 동굴 -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나'의 내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② (나)는 '나'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예술가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나)와 (다)는 인물 설정 및 갈등 해소에 있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⑤ (가)는 (나)와 (다)를 하나의 이야기로 접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5.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호프의 소설에서 세속적 욕망의 뿌리를 발견하고 있다.
② '나'는 선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③ 김기홍은 자신의 요구가 '나'에게 관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④ 김기홍은 금력과 친분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⑤ '나'와 김기홍은 둘 다 조찬구를 알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46. (다)에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술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② 개인이나 집단의 소망 또는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③ 도덕적으로도 비도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技術)이다.
④ 현실적 사물을 소재로 삼되, 그려진 내용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⑤ 외적인 억압에 정면으로 저항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의미를 띤다.

47.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위기는 김기홍에게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야. 그의 유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야.
② 김기홍을 하나의 단순한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거야.
③ 동굴은 징벌의 장소인 동시에 재생의 공간이기도 해. 동굴에서 '그'의 육체적 생명은 안타깝게도 없어졌지만, 정신적 생명은 그림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지.
④ 추장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로 그려졌군. 그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기로 삼아, 예술을 정의롭지 않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있어.
⑤ 예술은 결국 '그'에게 하나의 도피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드높은 이상과 비루한 현실의 모순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환상적인 예술의 세계로 숨어들었던 거야.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 무대로 돌아가면 여자 간호사, 가운을 가져다준다. 가운을 입고 재판석에 앉는다. 라이트가 재판정에 비춰지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재판장이 배석한 재판정이 된다.)

작가 : 지금으로부터 피고인 김기창 씨에 대한 유괴 살인 사건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 박사 : 잠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 : 그게 뭡니까 박사님!

서 박사 : 이 재판은 언론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돼 버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 그 점을 먼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작가 : 말씀하시죠.

서 박사 : (신문철을 재판장석에 가져다 놓는다.) 신문은 검사의 공판 청구 이전에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요. 피고인 체포 당시의 신문 머릿기사만 간추리면 "철수 군 살해 진범 체포", "드디어 잡힌 살인귀", "철수 군 살해범 일망타진" 등 모두 피고인을 진범으로 몰고 있거든. 경찰이나 검찰에 공판 청구 이전에 이미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네.

작가 : 기자! 기자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지요?

(환자 중의 기자 한 사람, 열 밖으로 나와 선다.)

환자 3 : 접니다.

(여자 간호사, 빵모자와 파이프 담배 가져다준다.)

작가 : 김기창 씨에 대한 체포 기사를 쓴 사실이 있지요?

환자 3 : 예, 있습니다.

작가 : 진범이란 뜻이 뭔가요?

환자 3 : 진짜 범인이란 뜻이죠.

작가 : 그럼 가짜 범인도 있습니까?

환자 3 : 기사의 박력을 주기 위해선 그냥 범인이라기보다 진범이라고 해야 사회면 대가리 기사가 되기 때문에.

작가 : 진범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뭡니까?

환자 3 : 그 당시엔 진범인 줄 알았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귀띔을 했습니다……. 기자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과 확신만 있으면 써야 돼요! 기자라고 다 사실을 파헤칠 수는 없어요! 기자는 사실을 해결하는 수사관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사실의 신속한 전달, 이것만이 기자의 임무요! 특종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오보를 내는 게 기자에겐 낫소.

(중략)

작가 : 그럼 진실이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문의 기사는 몇 퍼센트가 진실입니까?

환자 3 : 진실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진실이 뭐 말라비틀어진 겁니까? 이 세상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작가 :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환자 3 : 아니 할 얘기 더 있어요. 나도 신문에 대해 일가견이 있단 말이오. 더구나 오늘 이 연극에 대비해서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갑시다.

작가 : 아니, 글쎄 그만하면 됐다니까요.

환자 3 : 야, 니가 신문이란 것이 무언지 그걸 얘기하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왔는데 중간에서 끊어? 야 이 새끼야 난 적어도 진실하게 연구했어. 이거 도무지 내가 얘길 하면 모두 중간에서 끊어 버리는데…… 나 내 마누라 죽이지 않았어. 보트가 뒤집혔을 뿐야……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데 남들이 날 미친놈이라구 제 여편넬 죽였다구 손가락질하는 게 견딜 수 없어…….

(중략)

작가 : (일어선다) 철수군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피고인 스스로! 박사님.

서 박사 : 이 군, 여긴가?

작가 : 네, 그렇습니다.

서 박사 : 김기창 씨 이리 나오세요. (작가 내려온다. 재판복을 벗긴다. 그리고 김기창에게 입힌다.) 기창 씨 올라가세요.

김기창 : 네?

서 박사 : 올라가세요. (데리고 재판석에 앉힌다. 작가를 피고인석에 앉힌다.) 자, 판결하세요. 피고인 김기창에 대해 판결을 내리세요. (김기창 멍하니 앉아 있다. 작가 피고인석에서 쳐다본다. 서 박사, 자기 자리에 앉는다. 모두 침묵 속에 김기창을 본다. 김기창, 서서히 일어선다. 모든 사람을 둘러본다. 작가를 본다.)

김기창 : 피고인…….

작가 : (일어선다) 네.

김기창 : 피고인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작가 : (주저하다가) 없습니다.

김기창 : 피고인은 남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있는가?

작가 : 없습니다.

김기창 : 그런데 왜? 왜 거기 있지?

작가 : 나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김기창 : 한밤중에 자다 말고 불려 나가 심문 당한 적이 있지?

작가 : (주저하다가) 예, 있습니다.

김기창 : 뺨을 맞고 발길로 정강이를 걷어채인 적이 수없이 많았지?

작가 : 예.

(중략)

김기창 : 피고는 왜 알리바이를 주장하지 않았지?

작가 : 아무도 내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나를 일단 범인으로 본 이상 혜숙이를 끌고 들어간다고 날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이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헤어졌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김기창 : 그만! 그만해요! 피고인은 바보다! 죽어 마땅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버려라!

작가 : 재판장!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억울한 생명이 암흑 속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김기창 : (정신 차린다) 철수 군 유괴 살해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피고인은…… 무죄!

서 박사, 작가 : (김기창에게 다가서며) 이제 재판은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기창 씨, 축하해요.

(중략)

김기창 : (환자들에게) 여러분! 이웃 여러분! 나를 전처럼, 교도소 들어가기 전의 김기창으로 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환자 : 난 자넬 몰라! (피한다) 아는 척하지 마!

김기창 :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여자환자 : 에구, 징그러워.

환자들 : 전과자!

환자들 : 살인자!

환자들 : 누명을 썼다는데 누가 알아?

김기창 : 아버지!

환자들 : 난 아버지가 아니야!

김기창 : 어머니!

환자들 : 네 어머닌 죽었어!

김기창 : (부른다) 혜숙아!

환자들 : 없어졌어! 떠났어! 너는 혼자야!

환자들 : 전과자야!

환자들 : 살인자! (기창 귀 막는다.)

(환자들 "살인자" 유니송으로 합창하며 기창의 주위를 돈다.)

김기창 : (발작하듯) 난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결백합니다. 아버지! 으흐……. (울부짖다가 웃기 시작한다. 서막의 웃음)

서박사 : 간호사! (남자 간호사 기창을 잡아끈다. 기창 악— 비명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한다.)

김기창 : 난 아니야! 날 잡아가지 마! 난 죄가 없어!

(질질 끌려 나가는 기창을 보고 있는 환자들)

- 윤대성, 신화 1900 -

48.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언론과 일반 대중은 김기창을 진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② 김기창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③ 김기창은 사건 발생 당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혜숙과 함께 있었다.
④ 환자 3은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 기자직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⑤ 서 박사는 김기창이 범인으로 지목된 데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9. 김기창과 '작가'의 재판정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장면은 '연극 속의 연극' 부분으로 전체 줄거리와 분리된 독자적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② '작가'의 대사는 일종의 연극 놀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된 것으로,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김기창과 '작가'의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은 현실적으로도 이 둘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김기창이 '작가'에게 하는 고압적인 말투는 그의 내면에 '작가'에 대한 적대감이 숨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⑤ 이 장면은 김기창이 재판장의 역할을 맡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적 강박증과 피해 의식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자 3은 원작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반어적인 방식으로 풍자한다.
② 김기창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개인이나 운명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③ '작가'는 여러 역할을 바꾸어 연기함으로써,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작품 끝에 등장하는 환자들은 정의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맹목적 편견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을 대표한다.
⑤ 서 박사는 외부 이야기로부터 내부 이야기에 개입하여 장면을 편집하고 인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객이 이 연극의 극적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번 예비검사에서는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 제1교시 언어추론 정답표

## 공통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③ | 11 | ① | 21 | ① | 31 | ② | 41 | ② |
| 2 | ④ | 12 | ② | 22 | ⑤ | 32 | ④ | 42 | ⑤ |
| 3 | ③ | 13 | ③ | 23 | ③ | 33 | ⑤ | 43 | ① |
| 4 | ④ | 14 | ③ | 24 | ② | 34 | ② | 44 | ④ |
| 5 | ⑤ | 15 | ④ | 25 | ① | 35 | ③ | 45 | ① |
| 6 | ② | 16 | ⑤ | 26 | ② | 36 | ⑤ | 46 | ⑤ |
| 7 | ② | 17 | ① | 27 | ② | 37 | ① | 47 | ⑤ |
| 8 | ① | 18 | ② | 28 | ④ | 38 | ① | 48 | ④ |
| 9 | ③ | 19 | ④ | 29 | ① | 39 | ④ | 49 | ⑤ |
| 10 | ③ | 20 | ② | 30 | ④ | 40 | ⑤ | 50 | ③ |

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 입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서는 어떻게 유발되는가? 20세기 초 심리학자 제임스는 정서란 자율 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각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신체에 일어나는 특정한 생리적 각성이 그에 연결된 특정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62년 샤흐터와 싱어는 정서가 유발되기 위해 생리적 각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리적 각성이 기계적으로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성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즉 생리적 각성을 일으킨 맥락에 대한 해석이 정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생리적 각성도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 반응을 유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샤흐터와 싱어는 1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A, B 두 집단에게는 생리적 각성을 일으키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게 하고, C 집단에게는 생리적 각성을 야기하지 않는 식염수 주사를 맞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 B 집단에게만 그 주사 때문에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생리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물론 실험의 진의를 숨기기 위해, 세 집단의 피험자들 모두에게 그 주사액의 성분은 복합 비타민이며 이 실험은 비타민이 시각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해 주었다.

주사를 투여한 이후, 피험자들은 각 집단별로 (가)와 (나)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들과 동일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위장한 실험 협력자와 함께 실험실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피험자와 실험 협력자 모두에게 비타민과 시각 효과에 대한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 그룹의 실험 협력자는 피험자와 같이 있는 동안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나) 그룹의 실험 협력자는 몹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피험자들에게 생리적 각성을 일으킨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실험자는 관찰 창(窓)을 통해 피험자들의 정서 반응 양상을 기록하였다. 실험 요인들의 조작에 따른 각 집단의 정서 반응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실험 협력자의 행동에 대한 피험자의 정서 반응

| | A 집단 | B 집단 | C 집단 |
|---|---|---|---|
| (가) 그룹 | ㉠ 점차 행복해 함 | ㉢ 정서 반응 없음 | ㉤ 정서 반응 없음 |
| (나) 그룹 | ㉡ 점차 화를 냄 | ㉣ 정서 반응 없음 | ㉥ 정서 반응 없음 |

A 집단 :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약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집단.
B 집단 :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약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C 집단 : 식염수 주사를 맞은 집단.
(가) 그룹 :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실험 협력자와 함께 있었던 그룹.
(나) 그룹 :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는 실험 협력자와 함께 있었던 그룹.

9. 샤흐터와 싱어의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험자에게 실험 목적을 숨긴 이유는 그 정보가 피험자에게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② 에피네프린 주사액의 효과를 알려 주지 않은 집단이 필요한 이유는 생리적 각성에 의해서만 정서 반응이 유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③ 식염수 주사를 맞은 집단이 필요한 이유는 주사액 성분과 관계없이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정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④ 실험실에서 질문지를 제공하고 피험자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질문지의 내용이 피험자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⑤ 피험자와 동일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위장한 실험 협력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의해 피험자의 정서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0. <표>의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은 생리적 각성만으로는 정서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② ㉢, ㉣과 ㉤, ㉥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만으로는 피험자의 정서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③ ㉠, ㉢, ㉤은 주사액의 효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여부와 생리적 각성이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④ ㉠, ㉡과 ㉤, ㉥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와 생리적 각성이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⑤ ㉠, ㉤과 ㉡, ㉥은 주사액의 효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여부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가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11. 제임스의 정서 이론에 따를 경우, 위 실험에서 나타났어야 할 결과는?

① A 집단과 B 집단은 실험 협력자의 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② A 집단과 C 집단은 실험 협력자와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③ B 집단과 C 집단은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④ C 집단은 실험 협력자의 태도에 따라 상이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⑤ A, B, C 집단 모두 각각의 실험 협력자가 보이는 것과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유부남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둘은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들렀다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가)** 당신,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점촌 아주머니를 혼자 살게 한 점촌 아저씨의 그 여자, 그 중년 여인으로 하여금 울면서 에어로빅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 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 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당신.

노여워만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남겨 놓은 이미지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제가 더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은 개인 신상 카드를 나눠 주며 기록을 해 오라 했습니다. 그 개인 신상 카드 어느 면에 장래 희망을 적어 넣는 칸이 있었지요. 장래 희망. ㉠저는 그 칸 앞에서 오빠 볼펜을 손에 쥐고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심어 놓고 간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추려서 뭐라고 써야 하나? 이것이 고민스러워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던 것입니다. 끝끝내 그걸 간추릴 단어를 저는 그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은행원,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 어느 때는 발레리나라고 써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때그때의 희망들은 모두 그 여자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 여자,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당신을 믿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말 중에 지금껏 기억에 남는 말은 유일하게 이 한 마디입니다. 그 여자의 당신이었던 아버지를 믿었으면서,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어머니께서 잠시 다녀간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거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께서 견디는 방법이셨는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젖을 먹이셨어요. 어머니 젖은 퉁퉁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참을 빨고 나니까 그 힘줄이 가셨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젖 먹이는 어머니와 그 곁에 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어머니는 젖을 빨다 잠이 든 어린애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눕혀 놓고,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제게로 오셨어요. 그때, 제 손에 그 여자가 만들어 준 설기떡이 쥐어져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어머니께서는 한 칸씩 위로 채워진 제 윗옷 단추를 다시 끌러서 제대로 채워 주시고, 벗어 놓은 제 신발에 담긴 흙 부스러기를 털어 내주시고서는 물끄러미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가셨어요. 삼십 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뒤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실에 꿴 감꽃을 주렁주렁 목에 매달고 있는 제 손을 그 여자는 잡아당겼어요.

점심상은 방에 차려 놨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구.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 봐서 오줌 쌌거든 얼른 갈아 줘…… 그러구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꿔 입고 있더군요. 분을 옅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욱 뽀얬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중략)

그때 제 눈에 띈 게 칫솔통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 여자의 노란 칫솔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키를 세워 그 칫솔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큰길과 소롯한 수리조합 둑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수리조합 길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 없이 뛰어 그 여자 뒤에 섰어요. 제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음직도 한데 그 여자는 그저 여민 치마 한 끝을 싸쥐고 뒷모습만 보이더군요. 그 여자 뒤에 바짝 서서 그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는 돌아다봤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의 얼룩진 얼굴이라니. 눈물에 분이 밀려나서 그 여자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칫솔을 내밀자 그 여자는 웃을락 말락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있는 칫솔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손을 그대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나…… 나처럼은…… 되지 마.

**(다)** 사랑하는 당신!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저를,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다니요? 싫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그 여자가 떠나던 날, 그 여자에게 칫솔을 건네주던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 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 여자가 떠나 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무데나 마구 토해서 부축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때는 그 여자가 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다라고 여길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이 이 마을에는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저는 그 불편함에 의해 끔찍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것밖에 달리 제 마음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요. 양잿물을 들이마신 것같이 쓰라리게 당신이 그리워요.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을 교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②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③ 편지투를 활용하여 인물의 고민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말줄임표와 쉼표는 인물의 심적 갈등을 드러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⑤ 인물의 심리 변화에 '이 마을'과 '그 도시'의 공간적 대립이 작용하고 있다.

13.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① 어린 '나'는 '그 여자'에게 매혹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② '당신'은 과거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③ '어머니'는 무던한 성격이어서 '아버지'의 외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④ '그 여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회한이 없었다.
⑤ '나'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믿고 있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됨
② ㉡: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견뎌 내겠다는 다짐
③ ㉢: '그 여자'에게 아내의 지위 대신 어머니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
④ ㉣: '당신'과의 사랑을 반성하는 데 따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
⑤ ㉤: 상처가 있다 해도 소중히 가꾸어 온 가족 간의 평온한 관계

15. 위 글의 '나'가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위 글의 주제 의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당신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겠지요.
② 당신의 섬세하고도 여성다운 마음씨는 제가 가장 닮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은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당신이 준 소중한 꿈은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③ 당신과 옛날에 한 약속을 힘들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을 주고 제 마음도 이토록 아픈 것을 생각하면,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④ 당신이 떠났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덕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팠던 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⑤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든 마음의 짐으로 내내 남았을 거예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 있는 세포는 DNA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정교한 분자 구조물인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과학 기술은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합성하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이 미래의 전자 소자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 팀은 로켓 모양의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폭 7nm, 길이 800nm) 개체들 중에서, 꼬리가 반도체 물질에 강하게 점착되는 것들을 반복적인 유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 내고, 이것에 반도체 입자를 포함한 선구 물질(precursor)을 부어 주면, 꼬리 부분을 구성하는 짧은 단백질인 펩티드에 의해 지름 2~3nm의 점 모양 결정인 양자점(quantum dot)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바이러스의 DNA에서 이 펩티드를 합성하는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고, 이를 다시 몸통 부분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에 대치시키면, 몸통이 이 펩티드로 구성된 바이러스 변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바이러스에 선구 물질을 부어 주면 몸통의 외막(coat)을 따라 반도체 결정막이 형성되는데, 이 상태에서 고온으로 바이러스 몸통을 연소시키면 남아 있는 반도체 결정막은 10nm 굵기의 나노 선(nano wire)이 된다. 연구 팀은 머지않아 이 펩티드 외막을 가진 '전선 바이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노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선 바이러스를 전자 소자 제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특정 위치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전선 바이러스를 얻는 방법과 같이 유도 진화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전선 바이러스의 머리와 꼬리 부분이 금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변형시킨다.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를 이것의 몸체 길이 정도 떨어진 두 금 전극이 설치된 기판(wafer)에 넣어 주면, 바이러스의 머리와 꼬리 부분이 두 전극에 각각 달라붙게 된다. 여기에 나노 선을 얻는 과정을 적용하면 두 전극을 이어 주는 반도체 다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때 두 전극 사이의 절연물 속에 또 다른 전극이 묻혀 있으면, 전체 구조물은 반도체 다리에 의한 폭 10nm의 전도 채널을 가지는 완전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 트랜지스터는 대규모 집적회로를 만드는 기본 소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만들어 내는 결정체들은 현재의 전자 소자 제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균질하고 정교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나노 전자 소자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제조법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프로그램된 미생물들이 스스로 완전한 소자를 만들어 내는 ㉠'생화학적 춤'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나노 소자 제조 방법은 박테리아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생화학적 춤으로 완성시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세포의 유전자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명령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대신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하면 복잡한 구조물을 세포의 활동만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자를 만들어 내는 것뿐 아니라 소자의 검사와 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과 부제는?

① 바이오 시대의 도래
- 신기술의 첨병, 바이러스

② 나노 세계로의 초대
- 나노 와이어의 제조와 이용법

③ 바이오 트랜지스터의 출현
- 나노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의 실용화

④ 생물학과 나노 공학의 만남
-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자 소자 제조

⑤ 나노 회로 설계의 새로운 지평
- 고성능 소자를 얻는 첨단 기법

17. 유전자가 조작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의 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기판을 고온으로 가열한다.
ㄴ. 기판 위에 변형된 전선 바이러스를 넣어 준다.
ㄷ. 기판 위에 금 전극들을 설치하고 절연물을 채운다.
ㄹ. 기판 위에 반도체 성분을 포함한 선구 물질을 부어 준다.

① ㄱ, ㄹ, ㄷ, ㄴ
② ㄷ, ㄱ, ㄹ, ㄴ
③ ㄷ, ㄴ, ㄹ, ㄱ
④ ㄹ, ㄴ, ㄷ, ㄱ
⑤ ㄹ, ㄷ, ㄱ, ㄴ

18.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회로를 검사하고 수리하도록 프로그램된 미생물의 활동 과정
② 미생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나노 전자 소자의 구조체 형성 과정
③ 살아 있는 세포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복합적인 반도체 결정의 형성 과정
④ 주어진 생존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유도 진화시키는 과정
⑤ 비생물학적 반도체 제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조직을 얻는 과정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직립 보행을 했을 때부터 요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문헌에도 요통 치료 처방이 남아 있다. 현재에도 요통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성인의 8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겪게 된다고 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병가(病暇)를 내는 경우, 상당 부분은 상기도 감염(上氣道感染)에 의한 질환,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증세 때문인데, 요통 역시 그에 못지않은 병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요통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약 일수는 평균 23.5일이고 노동 공백 일수는 약 8일이라고 한다.

요통은 증상이면서 병명이다. 일시적인 통증으로부터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요통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여러 가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령은 요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요통은 30대에서 50대에 주로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증세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생활의 제약도 커진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르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작업 요건은 요통과 관련이 깊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역시 요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 요통으로 이행된 환자들은 정신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 의해 실제로 요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요통에 대한 치료 방법 역시 다양하다. 대체로 단순 요통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4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존 치료를 시행한다.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 찜질이나 핫팩을 이용하여 열 치료를 하는 것, 통증을 줄이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것 등은 보존 치료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강한 허리를 갖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운동이다. 그런데 흔히 "다른 사람의 요통은 몰라도 내 요통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여 운동을 권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는 환자들도 있지만, 운동 처방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한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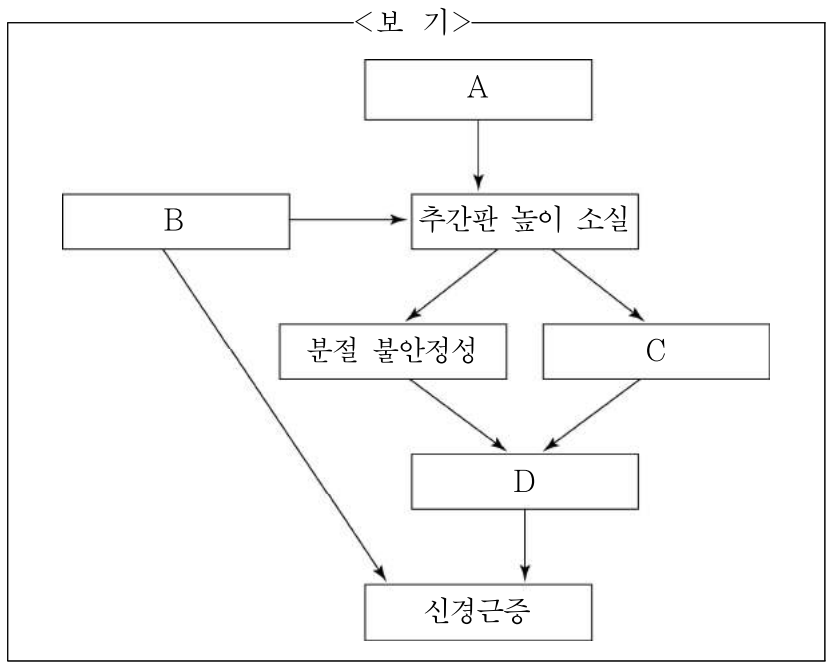
(가) 보존 치료나 수술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 및 요통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척추는 추체(椎體)라 부르는 뼈가 여럿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이 있어 척추에 운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만성 요통은 추간판의 탈출이나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로 말미암아 추간판의 높이가 소실되어 척추 분절이 불안정해지거나 주위의 뼈에서 비정상적인 뼈, 즉 골극(骨棘)이 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척추로부터 빠져나오는 신경근이 지나가게 되는 추간공(椎間空)이 좁아져서 신경근이 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신경근증은 해당 신경 지배 영역에 감각 이상 및 방사통을 일으킨다. 물론 추간판 조직의 탈출은 직접적으로 신경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척추 구조물 안에서 어느 부위가 압박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요통의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수술 치료는 보존 치료보다 효과가 크다.
② 직업에 따라 요통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다.
③ 사람은 신체 구조상 누구나 요통에 걸릴 수 있다.
④ 요통은 환자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⑤ 보존 치료에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20. (가)를 읽고 <보기>와 같이 도시할 때 A~D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 A | B | C | D |
|---|---|---|---|---|
| ① | 추간판 변성 | 추간판 탈출 | 추간공 협착 | 골극 성장 |
| ② | 추간판 변성 | 추간판 탈출 | 골극 성장 | 추간공 협착 |
| ③ | 추간판 탈출 | 골극 성장 | 추간판 변성 | 추간공 협착 |
| ④ | 추간판 탈출 | 추간공 협착 | 골극 성장 | 추간판 변성 |
| ⑤ | 추간판 탈출 | 추간공 협착 | 추간판 변성 | 골극 성장 |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칸딘스키는 자신이 추구해 온 추상화 운동을 보완할 새로운 사실주의의 출현을 예견했다. 사실적 회화는 대상을 재현한다. 현대 추상화가들에 의해 선, 면, 색채 같은 순수한 형식만으로도 그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모든 그림은, 그 내용이 꽃이든 전쟁의 이야기든 세계를 묘사한 재현적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림에서의 묘사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또한 형식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장미 꽃잎의 붉은색과 윤곽선, 그것과 항아리의 흰색 면과의 대조 등이 작품의 형식적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추구해야 할 미(美)란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라고 믿었던 아카데미의 화가들은 재현과 형식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균형을 통한 미의 달성이라는 미술의 이상은 더 이상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재현과 형식은 각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 예술이 있는 것처럼,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는 예술도 출현할 것을 예언했다.

드러낸다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실재를 가리는 것은 실재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이다. 우리는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세계를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신발과 마주치지만, 신발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한 우리가 신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신발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본다면, 그 형태나 낡은 가죽의 재질, 닳아 버린 뒤축 등 이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미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와의 관련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우리에게 세계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과제인데, 칸딘스키는 전통적인 예술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과제가 충족될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추상이다. 추상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드러내는 힘을 최대로 고양하기 위해 재현적 요소를 최소로 줄인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그려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새롭게 창조된 실재로서의 예술 작품을 본다. 그러나 예술가는 추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사물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끔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시도된 미술은 ㉠그것이 과일을 그렸든 풍경을 그렸든 근본적으로 초상화이다. 대상의 실재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성, 보잘것없는 것에서 미적인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의 특성이다.

사실주의는 자연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지만, 새로운 사실주의는 엄밀한 재현을 거부할 것이다. 드러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려지는 대상은 변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실재를 보는 데에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와 같은 변형을 실재로부터의 이탈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의 오용이 된다. 실재를 꿈으로 변형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형이야말로 인간의 눈을 실재에로 열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전환은 실재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실재를 향한 전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21. 위 글의 중심 내용을 표와 같이 정리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공통점 | 차이점 |
|---|---|---|
| 추상화 운동과 새로운 사실주의 | (가) | 그림 속에 재현적 형상이 등장하는지 여부 |
| 사실주의와 새로운 사실주의 | 그림 속에 재현적 형상이 등장한다. | (나) |

| | (가) | (나) |
|---|---|---|
| ① | 그림의 목표가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그림 속에서 친숙한 사물이 발견되는지 여부 |
| ② | 그림의 목표가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 그림이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변형되는지 여부 |
| ③ | 그림의 목표가 보잘것없는 사물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 그림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 |
| ④ | 그림의 목표가 대상에 대한 경이로운 주목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 그림 속에 등장한 재현적 형상이 변형되는지 여부 |
| ⑤ | 그림의 목표가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 그림이 세상과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지 여부 |

22. 문맥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름답게 꾸민 대상을 그리기 때문에
② 배경보다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③ 묘사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④ 그림을 수단으로 해서 대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의 친숙한 외관을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23. 새로운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① 화가의 임무는 꿈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지 평범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보이는 대로의 자연에 충실하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 이상에 따른 기획이다.
③ 예술은 항상 무언가에 관한 것이므로, 재현적 내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
④ 친숙한 사물에 대한 왜곡 없이는 작가의 정서를 드러낼 수 없다.
⑤ 극단적이지 않았을 뿐, 예술은 언제나 형식을 추구해 왔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보고(張保皐)와 정년(鄭年)은 신라 사람들로서 둘 다 싸움을 잘했는데, 그 용맹함과 기세를 겨룬다면 장보고가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정년은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무예로 우위에 있어 매사에 의견이 맞지 않았고, 서로 지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당(唐)에 가서 무령군소장이 되었는데, 말달리며 창을 쓰는 데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 뒤 장보고는 본국으로 돌아와 대왕을 뵙고 말하기를, "중국을 두루 다녀 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노비가 되어 있는지라, 바라옵건대 저에게 청해(淸海)를 지키게 하신다면 도적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을 중국으로 약탈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니, 이후로는 바다에서 신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이 없어졌다.

장보고는 이렇듯 귀하게 되었으나, 정년은 관직을 떠나 굶주리고 헐벗은 채 사수(泗水)의 연수현(漣水縣)에 있었다. 하루는 정년이 연수현의 수비 장수 풍원규(馮元規)에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 장보고에게 의지해 살아야겠다."

"네가 장보고에게 믿는 바가 무엇이기에, 어찌하여 돌아가 (가) 그의 손아귀에 죽으려 하는가?"

"굶주리고 헐벗어 죽느니보다는 창칼 아래 죽는 것이 장쾌할 뿐더러, 게다가 고향에서 죽을 수 있지 않은가?"

마침내 중국을 떠나 장보고에게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는데, 미처 술자리가 다하기도 전에 왕이 시해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임금조차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장보고는 군사 5천 명을 정년에게 나누어 주더니 정년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년이 도성에 들어가 반역자를 처단하고 왕을 세웠다. 왕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해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천보(天寶) 연간 안녹산(安祿山)의 반란 때, 삭방절도사 안사순(安思順)을 안녹산의 종제라 하여 사형에 처하고, 곽분양(郭汾陽)에게 조칙을 내려 그를 대신하게 한 다음, 열흘 만에 다시 이임회(李臨淮)에게 삭방의 군사 절반을 나누어서 동쪽 방면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안사순이 절도사로 있을 때 분양과 임회는 함께 아문도장(牙門都將)으로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 해도 늘 서로 흘겨보면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제 분양이 안사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임회는 도망가고자 했으나, 마침 그에게 조칙이 내려 분양의 군사 절반을 나누어 동쪽을 토벌하라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임회는 분양에게 간청하기를, "내 한 몸 죽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처자식만은 살려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분양은 자리에서 달려 내려와 손을 붙잡고 자리로 이끌어 말하기를,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주상께서는 피난을 다니시는지라, 그대가 아니고서는 동쪽을 정벌할 수 없거늘 어찌 사사로운 원분을 생각할 때이리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작별할 때가 되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충성과 의리로 격려하였으니, 거대한 도적을 평정하게 된 것은 실로 두 사람의 힘이었다.

대저, 평소에 원분이 쌓여 있으면 그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원분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단점만 보이는지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장보고와 곽분양의 현명함이 비등하다. 정년이 장보고에 투신하면서 틀림없이 생각하기를, '저이는 고귀하게 되었고 나는 비천하니, 내가 몸을 낮추어 그를 높인다면 의당 옛 감정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지는 않으리라.' 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과연 그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리고 임회가 분양에게 죽음을 자청한 것 역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이다. 한편 장보고가 정년에게 일을 맡긴 것은 오직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임회에게 일을 맡기게 된 명령이야 천자에게서 나왔던 것이니, 장보고의 경우에 견주어 본다면 분양 쪽이 결단하기가 더 용이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질고 의로운 마음과 잡스러운 감정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가 잡스러운 감정이 이기게 되면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이기게 되면 잡스러운 사념은 사라지는 것이니, 저 분양과 보고 두 사람은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이긴 데다가 자질이 총명했던 까닭에 마침내 공을 이루었던 것이다.

-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장보고·정년전(張保皐鄭年傳) -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위의 자발성 여부를 인물에 대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② 행위 주체의 자질과 일의 성패를 인과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③ 사람의 심리에 작용하는 보편적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인물이 처한 역사적 사례의 유사성에 착목하고 있다.
⑤ 왕조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25. (가)에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① 풍원규는 정년의 귀국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② 풍원규는 장보고와 정년의 평소 관계를 잘 알고 있다.
③ 장보고는 정년을 죽이고 살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④ 정년은 장보고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정년은 귀국 후에 처지가 더 나빠질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6. 위 글의 독자를 군주(君主)로 상정할 때, 결미 부분에 덧붙일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러므로 "남을 이용할 것이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적으로 하여금 험난을 감수하고 오게 할 일이지, 내가 위험을 밟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본래 살던 언덕으로 향하나니, 그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무릇 현사(賢士)는 군자를 찾아 길을 재촉하고 충신은 임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③ 그러므로 "천시(天時)와 지리(地利)가 인화(人和)만 못하다."라고 했으니, 나라는 복으로써 흥하고 화로써 망하는바,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 대하기를 상처를 위하듯이 하며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흙 검불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로우며 충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라고 했으니, 탕 임금과 무왕에게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기에 창성하였고, 걸(桀)과 주(紂)에게는 영합하는 신하만 있었기에 망했던 것이다.
⑤ 그러므로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녕 그 나라가 망할 즈음에 현명한 이를 쓰지 않기 때문이요, 만일 그런 이를 쓸 수만 있다면 한 사람만으로도 넉넉한 것이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仁)은 두 사람입니다. 옛 글자에서는 사람 인(人)을 중첩시켜 썼는데, 그것은 아들 자(子)를 중첩시켜서 손(孫)을 표기한 것과 같습니다. 효(孝)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자식과 부모가 두 사람이요, 충(忠)으로써 군주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신하와 군주 두 사람입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현들이 인(仁)을 해설할 때 모두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맹자』에서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도 "인(仁)은 사람이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인(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임금을 아끼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 등이 모두 인(仁)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여러 인(仁) 중에서도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義)는 ㉠'자신을 선하게 하는 것[善我]'입니다. 의는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어서 인(仁)과는 다릅니다. 응소(應劭)의 『풍속통의』에 "남을 아껴주면 인(仁)이라고 하고, 나를 선하게 하면 의(義)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훈고(訓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명입니다.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선하게 될 수 있으면 받고, 받아서 선하게 될 수 없으면 물리쳐 나를 선하게 하는 데로 귀착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찌 곁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어떤 때는 아내와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仁) 자는 사람을 뜻하는 인(人)을 부수로 하고, 의(義) 자는 자신을 뜻하는 아(我)를 부수로 한 것이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인의예지는 모두 구체적 사태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 명칭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심(心) 속에 있는 이(理)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맹자』의 "인의예지근어심(仁義禮智根於心)" 일곱 글자에 대해서는 바로 조기(趙岐)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根]는 초목의 근본입니다. 그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번성하는 것은 땅 위에서이고, 그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뿌리 근(根) 자를 빌려서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인의예지가 심(心) 속에 있는 뿌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뿌리가 발육시키는 대상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기는 이 구절을 풀이하여 "네 가지는 그 뿌리가 심(心) 속에 생겨, 그 형색이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매우 정밀한 것으로 지금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맹자』의 학문은 오로지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호연한 기상을 기르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자 역시 '의를 모은다[集義]'는 것을 선행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를 모으고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곧 인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인을 실천하고, 내일 한 가지 의를 실천하여, 이에 호연한 기상이 길러지면 얼굴이 윤택해지고 몸이 넉넉해집니다. 따라서 맹자가 그 점을 일러, "그 근본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인품은 얼굴에 환히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구체적인 일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인의가 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理)라고 이해한다면, 고기 팔고 술 파는 사람조차도 또한 반드시 얼굴이 윤택하고 몸이 넉넉한 형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의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정약용, 이재의에게 보내는 답장 -

27.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전의 주해(註解)
② 용어의 원의(原義)
③ 선인(先人)의 권위
④ 일상의 경험적 사실
⑤ 논쟁의 역사적 추이

28. ㉠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선(善)을 행하는 일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② 노인을 편안하게 봉양하고 친구를 미덥게 유도하고 젊은이를 진취적으로 포용한다.
③ 선행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듯이 행동하고, 악행을 보면 끓는 물에 들어가듯 여긴다.
④ 자신이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지만, 몸을 바쳐 인(仁)을 이루는 일은 할 때가 있다.
⑤ 배우는 것은 넓게 하고 뜻을 가지는 것은 독실하게 하면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자신의 경우에서부터 미루어 생각한다.

29. 위 글은 이재의의 견해에 대한 정약용의 반박을 담고 있는 편지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재의가 주장한 바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맹자』에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니 인의예지를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② 맹자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으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어찌 인의예지의 본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③ 인의예지를 논하면서 심(心)의 본원이 되는 이(理)를 빼놓는다면, 근본은 간과하고 말단만 논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④ '의를 모은다[集義]'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행의 간단없는 실천으로 인의예지를 쌓아 호연한 기상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⑤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버젓이 이루어져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영화 등급보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 대신 '제한상영가'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다. 제한상영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내용 및 표현 기법이 18세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성 표현물에 대해서는 상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이나 폭력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가능한 한 그 제작과 상영을 억제하고자 제한상영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18세관람가 영화는 광고나 상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를 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할 수 없으며,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음란한 영화는 형법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 지나친 폭력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한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행정 기관이 '일반상영관에서 자유롭게 보아도 좋은 영화'와 '제한상영관에서 약간 떳떳치 못한 기분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로 구분하는 것은 애매한 잣대에 근거한 ㉠ 후견적 간섭이라는 것이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 기관의 임의적 잣대에 따라 영화적 표현물을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해할 수 있는 성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물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성 표현물에 대하여 역겨움을 느끼는 성인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관람가 등급은 허용하는 표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와 같은 영화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을 보호할 수 없다. 둘째,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중에서도 가치가 낮은 표현은 다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셋째, 광고적 표현은 상업적 언론으로서, 다른 표현과 비교할 때 민주적 가치나 개인의 인격 완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는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이 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될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제한상영관 제도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게시하되 제한상영관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영화 제작자가 제한상영가 영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성도덕의 보호가 충돌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30.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물 상영은 금지되어 있다.
②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고 있다.
③ 반사회적 내용의 유무는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의 하나이다.
④ 18세관람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의 관람 허용 대상은 다르다.
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으로 성적 표현물의 허용 범위가 과거에 비해 넓어졌다.

31. ㉠만을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① 간통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② 인공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③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④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신상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환경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처벌해야 하는가?

32.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한 세 견해의 논거를 표로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견 해 | 논 거 | |
|---|---|---|
| 위헌이라는 견해 | ○ 다른 형태의 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br>○ 영화적 표현물의 상영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① |
| 합헌이라는 견해 | ○ 영화적 표현물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해야 한다.<br>○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장소적 제한이 가능하다.<br>○ 상업적 언론에 대해서는 폭넓은 규제가 인정될 수 있다. | ②<br>③<br>④ |
|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되면 위헌일 수 있다는 견해 | ○ 제한상영관 제도는 영화적 표현물의 광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⑤ |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우리 시에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 타자(他者)로 밀려나 있던 것들, 예컨대 자연, 몸, 여성, 감각 등의 범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되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명, 정신, 남성, 이성을 중심으로 진보해 온 근대 기획에 의해 주변부로 물러나 있다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탈(脫)근대적 사유의 물결을 타고 시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資源)'의 차원에서 '스스로[自]' '그러한[然]' 존재라는 본래적 위상으로 되돌리려는 시적 움직임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관을 보여 주었다. 이를 두고 시에서의 '생태적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의 생태적 상상력은 인간 중심의 도구적 이성이 자연을 비롯한 근대의 타자들을 억압해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미학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생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시적 성취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비판 시학이자 대안 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상상력의 시편들은 인간과 자연을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파악해 왔던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평등하고도 긴밀한 관계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표현한다. 이때 인간과 자연은 시적 형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화한다. 가령 정현종의 <좋은 풍경>이라는 시편은 이 같은 소통과 친화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늦겨울 눈 오는 날
날은 푸근하고 눈은 부드러워
새 살인 듯 덮인 숲 속으로
남녀 발자국 한 쌍이 올라가더니
골짜기에 온통 입김을 풀어놓으며
밤나무에 기대어 그짓을 하는 바람에
예년보다 빨리 온 올봄 그 밤나무는
여러 날 피울 꽃을 얼떨결에
한나절에 다 피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밤나무'와 '남녀 한 쌍'은 분명 이성적으로 파악하면 공간적으로 우연히 공존하는 사이일 뿐이다. 하지만 눈 덮인 숲 속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에로틱한 소통은 자연과 분리된 인사(人事)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고 섰던 '밤나무'가 소통과 감응(感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나무'는 자신의 몸에 기댄 남녀의 몸을 관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 '밤나무'는 시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과 적극 교감하는 인격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소통과 친화를 일러 시인은 '좋은 풍경'이라 명명했을 것이다.

결국 이 시편은 인간과 자연의 본능적 교감을 통한 원초적 조화의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적 생명의 자기 전개라는 거대한 운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흔치 않은 심미적 경험을 가져다 준다. 칠레의 국민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다음 시편에서도 우리는 그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생명은 흙,
흙이 우리의 핏줄 속에서 자랄 때
우리는 자라고
흙이 우리의 핏줄 속에서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생명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창세기> 증언의 반복으로 보이는 이 시적 진술은 '흙'이라는 무기물과 '핏줄'이라는 생명의 징후가 근원에서 맞닿고 있음을 알린다. 먹을거리를 생산하거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흙'에 대한 공리주의적 태도는 멀찍이 달아나 있다. 이때 '흙'은 만물의 어머니인 '가이아(Gaia)'로 비로소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생명의 대연쇄에 대한 감각을 이 시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태적 상상력이 단순한 환경 운동이나 문명 비판의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근원적 생명의 상태를 그려 보이려는 미학적 구심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례일 것이다. 이때 시는 우주적 연관에서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명상할 때 가장 적절하고도 긴요한 양식으로 각인되며, 예술적 언어 조직으로서의 양식적 특수성은 그 중요성이 반감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험들은 근대 문명이 부여해 온 물질적이고 선형적인 인간 중심의 욕망을 서서히 탈색시키면서, 삶과 세계의 신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 준다. 나아가 인간을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우주적 연관에서 폭넓게 바라보게 한다. 또한 근대 문명이 '나'와 '나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온 것에 비해, 이러한 시적 경험들은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거리를 지우면서, 그것들끼리의 불가분리성 혹은 상호 의존성을 강하게 감염시킨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와 한 송이의 들꽃 속에서 온 세계와 무한을 본다."라고 노래한 바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과 자연이 에로스의 충동으로 이루어 내는 깊은 우주적 교감,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엄연한 생태적 진실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 이것은 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시를 읽고 즐기는 가장 종요로운 까닭이다.

33. 위 글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아와 사물의 분별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상생의 시각
② 도구적 이성이 억압해 왔던 타자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
③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
④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물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음미하는 태도
⑤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

34. ㉠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시의 계몽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상상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시에서 자연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근대 문명과의 균형을 놓치고 있다.
④ 시에 자기 표현과 자기 성찰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⑤ 시에서 주제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형식미를 중시하는 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35. 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돋는 빗낯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①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비극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생명 현상의 활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② 자연에 대한 절제된 묘사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로 인해 유기체적 연관성을 놓치고 있다.
③ 자연에 대한 신비적 경험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형이상학적 접근으로 인해 사물의 구체성을 빠뜨리고 있다.
④ 자연에 대한 인간의 소통과 친화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문명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인간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⑤ 자연 사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화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생태적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년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AZT(azidothymidine)를 임신 중에 장기간 복용하면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임산부에게서 태아로 전이되는 위험이 ⅓로 감소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후속 실험을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실험의 피험자는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 임산부들이었다. 이 실험에는 피험자 일부에게 위약(僞藥)을 주어 그 결과를 AZT를 복용한 피험자 집단과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7년 미국의 저명한 의학 학술 잡지의 편집장인 엔젤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 실험의 비도덕성을 비판했다. 시민 단체도 실험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AZT 대신 위약을 HIV 감염자들에게 주어 신생아들이 감염된 채 태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AZT가 일단 바이러스의 전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로 증명된 이상, HIV에 감염된 임산부들 모두를 위한 표준적인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그 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코 AZT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변호했다. 그 여성들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엔젤과 시민 단체는 위약을 사용하는 실험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여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의료 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중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심의 기구의 승인을 받아 실험을 했으며, 피험자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보건 관리들도 미국의 윤리적 기준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제국주의'라며 연구자들 편을 들었다. 연구 지원 기관에서도 위약-대조군 실험을 통해 투약 기간을 단축해도 전이율이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매년 출산 전후의 전이에 의해 HIV에 감염되는 30만 명의 아이들 중 15만 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위약을 사용하지 않는 AZT-대조군 실험에 비해 위약-대조군 실험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고, 실험이 성공하면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는 HIV에 감염된 모든 임산부들에게 더 적은 용량의 AZT 치료 요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엔젤과 시민 단체는 위약-대조군 실험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결과를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실험 설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실험을 통해 더 적은 용량의 AZT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80달러에 달하는 AZT 요법은 아프리카 인 평균 의료 비용의 11배에 달하기 때문에,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의 가난한 임산부 모두에게 AZT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1998년 미국 보건 당국은 임신 기간의 마지막 4주 동안 AZT를 복용하면 전이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하면서 그 연구를 중단시켰다.

36. ㉠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실험이 성공한다면 AZT 투약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실험이 피험자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③ 고가의 AZT를 제공하는 것은 피험자들에게도 유익하다.
④ AZT-대조군 실험에 비해 위약-대조군 실험이 더 효율적이다.
⑤ 실험의 목표는 HIV에 대한 AZT의 약효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37. ㉡을 통해 알 수 있는 '개발도상국 보건 관리들'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학 연구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선진국의 의학 실험을 유치하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③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학 연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④ 목적이 아무리 고상해도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선진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38. 위 글의 위약-대조군 실험에 반대하는 편에서 <보기>와 같이 계획한 실험이 위약-대조군 실험보다 더 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 임산부들 가운데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동의한 이들을 무작위 배정 방법으로 AZT 표준 기간 투여 집단과 단기 투여 집단으로 분류한다. 실험 계획에 대해 심의 기구의 승인을 획득한다.

① 의학 실험은 심의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학 실험은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의학 실험에서 피험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학 실험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의학 실험에서 피험자의 위험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사회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회적 연결망은 이렇게 형성된 관계들의 망이라고 정의된다. 연결망은 행위자들, 곧 결절점(node)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들, 즉 연결 고리(link)들로 구성되며, 결절점들 사이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구조적 공백으로 불린다.

연결망은 기회와 정보의 공유, 상호 통제, 사회적 승인, 협력과 유대 등의 연결망 효과를 만들어 내며, 구성원들은 이 효과를 공유한다. 연결망 효과의 핵심적 원천은 구성원과 비구성원 간의 구별과 차별이다. 연결망으로 결속된 행위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평판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연결망이 강한 연결망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연결망에 속한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결망은 구별과 차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외부의 비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침묵할 때, 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연결망이 그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뚜렷하게 차별할 때, 연결망에서 배제되는 행위자들은 적극적으로 대항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소극적으로 연결망에 대해 반발이나 적대의 반응을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연결망의 효과에 대응하게 된다.

연결망 효과의 또 다른 원천은 연결망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인정이다. 연결망은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들의 집합체로서,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 인정과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이것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는 기회가 공유되고 정보가 흐르며 신뢰가 형성되고 협력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연결망의 정체성과 경계를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그렇지만 통제의 강화는 의사소통을 경색시키고, 이것은 연결망의 분열 또는 파편화로 이어져 사실상 연결망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

**(나)**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구직 및 취업에 관한 연구에 유익하게 활용된다. 미국 보스턴 지역의 전문 기술직, 관리직 취업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그라노베터는 구직과 취업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취업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주요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 구실을 하며, 또한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 구직자들은 연결망으로부터 직장에 대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취업 과정에서는 약한 연결이 더 효과적이다. 약한 연결은 친밀도가 낮고 지속 기간이 짧으며 호혜적 서비스가 적은 연결을, 강한 연결은 그 반대의 것을 의미하는데, 취업 과정에서는 약한 연결이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즉 약한 연결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정보를 중첩적으로 공유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구직자와 고용주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취업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독특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문 기술직, 관리직 취업자는 연결망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비율이 낮으며, 아는 사람의 주선보다 시험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생산직 취업자는 공식적 경로보다는 개인적 연고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단순 사무직이나 노무직 취업자도 직접 접촉보다 연결망을 통해 취업하는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취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서열화되어 있고, 또한 직장의 고용주가 선호하는 취업자의 출신 학교와 전공도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서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즉 기업의 규모와 평판은 공개된 취업 정보이며, 출신 학교와 전공은 취업자의 여러 특성에 대한 표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3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행위자들 사이에 구조적 공백이 없는 연결망이 더 큰 연결망 효과를 낳는다.
② 현대 사회에서는 약한 연결보다 직접 접촉이 행위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③ 비공식적 관계에 기초한 연결망은 사회의 분열과 파편화를 초래하며 공정성을 해친다.
④ 집단 경계가 뚜렷하고 통제가 강력한 연결망이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⑤ 사회적 연결망이 비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이익이 감소한다.

40. 밑줄 친 용어의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 (가) | | (나) |
|---|---|---|
| ① 결절점 | - | 직접 접촉 |
| ② 연결 고리 | - | 공식적 경로 |
| ③ 구조적 공백 | - | 약한 연결 |
| ④ 연결망 효과 | - | 사회적 보증서 |
| ⑤ 상호 인정 | - | 아는 사람 |

41.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① 강한 연결은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고용 과정에서 연결망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
②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약한 연결의 역할을 대신한다.
③ 고용주가 연결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지원자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④ 미국 사회에서 전문 기술직 구직자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기보다는 공식화된 경쟁적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한다.
⑤ 미국 사회에서 구직 및 취업 과정에 동원되는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승인의 정도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견고하지 못하다.

**[42~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기술할 뿐 아니라, 왜 발생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설명이다. 20세기 전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상적인 과학적 설명은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부터 현상을 연역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설명 모형에 따르면, 예컨대 일식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만유인력의 법칙, 빛의 직진 원리 등[법칙]과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 위치가 언제 어떠했다고 말하는 진술[초기 조건]로부터 연역함으로써 설명된다. 즉 법칙들과 초기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면, 현상은 그것들로부터 개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가)

| | | | |
|---|---|---|---|
| 법칙들 | : | $L_1, L_2, L_3, \cdots$ | (설명항) |
| 초기 조건들 | : | $C_1, C_2, C_3, \cdots$ | (설명항) |
| | | | ↓ 연역 |
| 현상 | : | E | (피설명항) |

ⓐ 이때 현상 E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E의 연역은 곧 E에 대한 '설명'이 되지만, E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E에 대한 '예측'이 된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설명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예컨대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방향으로 뻗는 것은 수분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은 당시 핍박받고 있던 농민들이 외세를 축출하고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설명 유형들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설명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부터의 모든 연역이 곧바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깃대가 땅 위에 수직으로 서 있고 태양이 그 깃대에 빛을 비추어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깃대의 높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및 빛의 직진 원리로부터 그 깃대의 그림자 길이를 연역해 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동일한 정리 및 원리로부터 우리는 깃대의 높이를 연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 이 두 연역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므로, 모두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둘 모두를 설명이라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깃대 높이를 그림자 길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법칙으로부터의 연역'이라는 설명에 대한 자신들의 통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이 진정한 설명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2. (가)의 설명 모형에 부합하는 사례는?

① 기린의 목은 왜 길까? 목이 길면 높이 있는 나뭇잎을 다른 초식동물보다 더 잘 따먹을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하다. 기린의 목은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길어진 것이다.

② 얼음물로 가득 찬 유리잔 표면에는 왜 습기가 찰까? 얼음물이 든 유리잔의 온도는 주변 공기 온도보다 훨씬 낮은데, 공기 중의 수증기는 차가운 유리잔의 표면과 접촉하면 액체로 응결되기 때문이다.

③ 인간에게 왜 폐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산소가 꼭 필요한데, 만약 인간에게 폐가 없다면 공기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없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폐가 존재한다.

④ 현대 영어에는 왜 라틴 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한 후, 노르만 족 상류층이 사용하던 프랑스 어가 영어에 유입됨으로써 라틴 어의 흔적이 많이 남게 되었다.

⑤ 소나기가 내리는 날 벼락이 심하게 쳤다. 왜일까? 벼락은 공기 중의 전하를 띤 물방울들이 모여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하들이 지상으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기 중의 물방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인 먹구름이 있을 때 벼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43. ⓐ, ⓑ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 설명과 예측이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짐을 의미한다.
ㄴ. ⓐ: 설명이 아닌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이 아닌 설명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ㄷ. ⓐ: 초기 조건과 피설명항을 서로 바꾸면, 설명은 예측이 되고 예측은 설명이 됨을 의미한다.
ㄹ. ⓑ: 모든 연역은 설명이지만, 모든 설명이 연역은 아님을 의미한다.
ㅁ. ⓑ: 원인은 결과를 설명하지만, 결과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세기 언어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중심이었다. 사피어, 비트겐슈타인 등의 언어 연구를 통해, 인간의 언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서술적' 매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세계를 '구성'해 내는 '조형적' 매체라는 깨달음이 부각되었다. 각각의 문화는 그것들이 내장하고 있는 언어 체계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세계상을 갖게 된다는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그러한 언어관의 변모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나)**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모든 원시 종족들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추상적 개념과 보이지 않는 실체, 복잡한 추리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완전한' 언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모든 인간 사회에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선천적 능력과 관련 있다고 추측할 단서가 된다. 그러나 보편성 자체가 선천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여행자도 언어 없는 부족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TV나 코카콜라가 없는 인간 집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TV나 코카콜라처럼 인간의 언어도 보편적 용도 내지는 유용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 그러므로 언어가 선천적 능력의 일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가장 인상적인 자료는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성인들과 달리 대략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어느 언어권에 놓이더라도 어려움 없이 그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그 언어를 단순히 반복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대단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언어 자료로부터 훨씬 복잡하고 문법적으로 정연한 언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인상적인 예가 '크레올화(creolization)'라는 현상이다.

**(라)** 크레올화란, 다른 언어로부터 일관성 없이 차용한 단어들과 극도로 단순한 문법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임시변통 언어인 피진(pidgin)이, 문법적으로 견고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크레올(creole)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본래 피진은 식민지 농장의 노예나 무역업자, 여행자 같이 공통의 언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어제 나 개 물다"와 같은 표현이 피진의 어법인데, 여기서는 문법 대신 단어들 간의 연상이나 대화의 맥락 등이 의미를 해석하는 주된 자원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성인들은 피진을 크레올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크레올은 피진의 언어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린이들이 어떤 훈련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크레올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신 내부에 언어적 알고리즘 같은 것이 미리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마)** 만약 이러한 선천성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언어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역사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언어가 서로 다른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가진다 해도, 그것들의 심층에서는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언어의 선천성에 대한 깨달음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생물학적 상수 항 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라는 과제를 남겨 준다.

44. (가)~(마)의 중심 화제와 내용 요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가) :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의문 — 언어의 조형성과 연관된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 (나) :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 — 모든 사회에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런 보편성이 곧 선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다) : 언어의 선천성 — 어린이들이 어떤 언어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크레올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④ (라) : 언어의 선천성의 증거 — 피진에 노출된 어린이가 크레올을 발달시켜 가는 것은 선천성의 증거가 된다.
⑤ (마) :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 —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바탕에 선천적 언어 기제가 깔려 있다는 각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45. 피진과 크레올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진이 없어도 크레올은 만들어질 수 있다.
② 크레올을 이해하는 어린이는 피진도 이해할 수 있다.
③ 피진을 쓴다고 해서 모국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크레올에 비해 피진의 의사소통은 상황에 많이 의존한다.
⑤ 크레올은 인간의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46. ㉠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물로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언어 정보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② 언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 보면, 친숙하고 편리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 언어의 이면에 매우 복잡한 문법 체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언어는 순수한 본능이 아니다.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과도 다르다. 어린이에게는 술을 빚고 빵을 만들려는 본능적 경향이 없는 반면, 그들의 지껄임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려는 본능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④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분간하여 언어로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자체가 미리 그런 식으로 분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에 의해 미리 설계된 선을 따라 자연을 분간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⑤ 북극권 언어에 눈의 형태나 색깔을 뜻하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해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포착된 사물의 다양한 모습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며, 이는 종마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말[馬]에 관한 단어를 풍부하게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운동학의 토대를 마련한 갈릴레오는 정지 상태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의 역학적 차이를 그 상태 내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파리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금붕어가 헤엄치는 어항이 있는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 방은 사실은 큰 배의 선실이다. 이제 갈릴레오는 이런 선실의 모든 상황이 배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거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파리와 나비는 배가 움직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날아다닐 것이고 금붕어도 유유히 헤엄칠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지만 ㉠ 지구가 돌아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실은 가속 운동이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구 가속의 효과는 매우 작으므로, 이 사실은 등속 운동하는 물리계, 즉 관성계에 대한 갈릴레오의 논점을 잘 예시해 준다. 결국 갈릴레오에 따르면,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자신의 속도는 알 수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속도란 자신에 대해 측정한 다른 물체의 상대 속도일 뿐이고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속도란 정의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나)** 라이프니츠는 등속 운동에 대한 갈릴레오의 생각을 물체 사이의 거리 관계에까지 밀고 나갔다.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속도가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위치 개념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위치란 속도와 마찬가지로 항상 어떤 특정 물체로부터의 상대 거리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시간은 사건들의 선후 관계에 의해 주어지며, 공간이란 매 시각마다 '동시(同時)'에 발생한 사건들 사이의 거리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 이에 비해 뉴턴은 운동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간 척도와 시간 척도를 원했다. 이를 위해 뉴턴은 '절대적인 의미로 정지'한 공간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운동의 '절대 속도'는 절대적으로 정지한 그 공간에 대해 정의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양이 된다. 이는 마치 해수면이 높이의 절대 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산이나 빌딩의 높이가 절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갈릴레오의 논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공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두 입장을 보게 된다.

**(라)** 뉴턴의 제자였던 클라크는 스승을 대신하여 라이프니츠와 논쟁을 벌였다. 클라크는 회전 운동과 같은 비관성 운동을 동원하여, 공간이 실체로서 절대적으로 존재함을 옹호하려고 했다. 손잡이가 없는 양동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양동이가 비어 있는 상태로 돌고 있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양동이가 돌고 있는지 아니면 양동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돌고 있는지를 판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동이에 물이 담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우리는 양동이의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돌고 있는 것이 양동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클라크는 이 지점에서 양동이의 물이 어디에 대해 회전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답은 라이프니츠가 부정했던 절대 공간이라는 것이다. 일단 논쟁은 이 단계에서 절대 공간이 실재한다는 쪽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마)**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 마흐는 저 멀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 회전 운동과 같은 비관성 운동에만 작용하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구태여 절대 공간을 상정하지 않고도 회전하는 물의 쏠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 만약 전 우주에 물이 든 양동이만 있고 그 상태에서 양동이가 돌고 있다면 물은 바깥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실험을 직접 해 볼 수는 없지만, 마흐의 주장은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비관성 운동에 대해서도 정합적 해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47. (가)~(마)의 내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에서 새로운 주제에 적용되어 발전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가)를 근거로 하여 (마)로 발전되고 있다.
④ (라)는 (나)를 비판하고 (다)를 강화하고 있다.
⑤ (마)는 (라)를 비판하고 (나)를 옹호하고 있다.

48. ㉠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에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지구의 가속 운동이 역학적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운동의 비관성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ㄷ. 갈릴레오의 예에서, 금붕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것에 대응된다.
ㄹ. 만약 지구가 절대 공간에서 움직이는 관성계라면,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9. 마흐가 ㉡과 같이 주장하게 된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물의 회전 운동이 비관성 운동이기 때문이다.
② 회전하는 양동이는 공간이 상대적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③ 양동이와 물 사이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④ 회전하는 물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속도의 상대성에 대한 갈릴레오의 논점이 양동이의 물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50. 위 글을 토대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바르지 <u>않은</u> 것은?

<보 기>

영희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했다. 철수는 그 동안 내내 영희 옆자리에 앉아 물이 담긴 종이컵을 빙빙 돌렸다.

① 갈릴레오의 견해에 따르면, 태양계를 기준으로 할 때 영희의 이동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이다.
②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따르면, 기차를 기준으로 할 때 영희의 공은 상하 운동만 했다.
③ 뉴턴의 견해에 따르면,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영희가 이동한 거리는 서울과 대전 사이의 거리와 같다.
④ 클라크의 견해에 따르면,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철수의 종이컵에 담긴 물은 바깥쪽으로 쏠린다.
⑤ 마흐의 견해에 따르면, 영희를 기준으로 할 때 철수는 여행 내내 영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교시

# 언어추론 정답표

[계열공통]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② | 11 | ① | 21 | ④ | 31 | ③ | 41 | ② |
| 2 | ② | 12 | ② | 22 | ③ | 32 | ③ | 42 | ② |
| 3 | ④ | 13 | ⑤ | 23 | ② | 33 | ① | 43 | ① |
| 4 | ④ | 14 | ① | 24 | ⑤ | 34 | ① | 44 | ③ |
| 5 | ② | 15 | ⑤ | 25 | ① | 35 | ② | 45 | ① |
| 6 | ③ | 16 | ④ | 26 | ⑤ | 36 | ⑤ | 46 | ④ |
| 7 | ③ | 17 | ③ | 27 | ⑤ | 37 | ① | 47 | ③ |
| 8 | ② | 18 | ④ | 28 | ② | 38 | ⑤ | 48 | ③ |
| 9 | ④ | 19 | ① | 29 | ④ | 39 | ⑤ | 49 | ④ |
| 10 | ⑤ | 20 | ② | 30 | ④ | 40 | ④ | 50 | ③ |

2006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종께서는 빼어난 풍모와 영특한 자질을 가져 태조의 치우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히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왕위를 형제간에 계승하여 왕좌의 화미(華美)함을 전했습니다. 예(禮)는 아랫사람을 접함에 도탑고 관찰력은 사람을 아는 데 실수가 없었으며, 근친 왕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항상 호강(豪强)한 자들을 억눌렀습니다. 소원하고 미천한 자를 버리지 않고 홀아비나 과부에게 혜택이 빛나니, 즉위한 해로부터 8년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며 형벌과 은상(恩賞)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쌍기(雙冀)가 등용된 이래로 임금께서는 문사(文士)를 받들고 중히 여겨 은혜로운 예(禮)가 지나치게 풍성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사들이 적재(適才)가 아닌데도 분에 넘치게 진출하였고 차례를 뛰어 승진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해를 채우지 않고 고관이 되기조차 했습니다. 임금께서 밤마다 이들을 불러 접견하고 날마다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즐기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임무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酒食)과 연유(讌遊)가 잇달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북의 용렬(庸劣)한 자들이 기대 오기를 원하나, 그 지혜와 재주는 논하지 않고 모두 특별한 은혜와 예절로 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後生)이 다투어 진출하고 구덕(舊德)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의 풍속을 소중히 한다 하면서도 좋은 제도는 취하지 않았고, 중국의 선비를 예우한다 하면서도 어진 인재는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더욱 짜내었지만 오히려 사방에서는 헛된 명예만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는 정사를 걱정하며 힘쓰지 않고 빈료(賓僚)를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 가고 군신의 의논이 날로 막혀 마침내 감히 시정(時政)의 득실을 말하는 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불교를 깊이 믿고 과중하게 여겨, 상시로 치르는 행사가 이미 많은데도 따로 기원하여 향불을 피우고 불법을 닦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과 장수를 구하여 기원할 뿐이었고 한정된 재력을 다 써서 무한한 인연을 지으려 했습니다. 스스로 지존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작은 공덕 짓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 출입과 연유에 사치를 극도로 하였으나, 그 눈앞에 큰 일이 없음을 법력이 그렇게 해 준 것이라 하여 스스로 하는 바를 바르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실은 법도를 넘었고, 의복과 음식은 진귀하고 고운 것을 사용했으며, 토목 사업은 때를 가리지 않았고, 공예품의 제작은 쉴 날이 없었으니, 대략 계산해도 보통 때 1년의 경비가 족히 태조 때 10년의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말년에 이르러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만약 광종께서 처음처럼 공검(恭儉)과 절용(節用)을 생각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였다면 어찌 그 녹(祿)과 수명이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끝마침을 처음과 같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경신년부터 을해년 사이에는 간악한 자들이 다투어 나아와 참소와 중상이 크게 일어나니,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이 그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그 주인을 논하기에 이르렀으니, 상하의 마음이 서로 헤어지고 군신이 한 몸 같이 되지 못했으며, 구신(舊臣)과 숙장(宿將)이 잇달아 살해되고 그들의 골육과 인척이 또한 다 도륙되었습니다.

게다가 혜종께서 형제를 아끼고 정종께서 국가를 잘 보전한 것은 은의(恩義)로 논한다면 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임금이 모두 외아들이 있을 뿐이었는데 또한 그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단 그 덕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 원한을 깊이 맺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외아들에게조차 의혹과 시기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경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매일 불안해하다가 요행히 그 왕위를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어찌하여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고 일찍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

- 고려사 최승로전 -

5. 광종대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쌍기의 등용 후부터 경신년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② 광종은 즉위 8년까지는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처벌과 포상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③ 광종에게 억압받았던 세력이 쌍기의 등용 후 '문사', '후생'으로 일컬어지는 부류로 등장하였다.
④ 현실을 호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광종의 마음이 정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⑤ '구신', '숙장'으로 일컬어지던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으나 점차 이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6. 위 글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글쓴이가 광종에게 대책을 제시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사의 관직 제수에 원칙을 세워 외침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② 불교를 신앙 생활에 국한하고 현실적 통치 이념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③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형벌에 처하는 것을 금하여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④ 대대로 부를 축적한 호강한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십시오.
⑤ 중국의 제도보다 우리의 고유한 풍속과 문물을 소중히 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7. 글쓴이가 광종을 평가하는 데 고려한 요소를 찾을 수 <u>없는</u> 진술은?

① 학문을 닦지 않고서 좋은 정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② 신료들이 불만을 품지 않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악의 잣대를 보여 주는 데는 상벌을 공평히 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③ 밝은 임금은 측근의 신하가 왕명에 순종만 하는 것과,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선비가 물러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④ 올바른 정치는 목수가 재목을 그 성질에 맞게 제자리에 올려놓아 큰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려 쓰는 데서 출발한다.
⑤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써 속일 수도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종케 하려면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족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친족의 구성 양식과 범위는 사회에 따라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친족은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관계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극히 좁은 범위의 가까운 친족들로 친족 집단이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흔히 친족 관계를 보완하는 의사(擬似) 친족 제도가 나타난다. 혈통에 따른 친족 집단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인 멕시코의 콤파드라스고(compadrazgo) 체계도 이런 제도의 하나이다. 콤파드라스고는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등의 성사(聖事)를 통해 '대부모(代父母)-대자녀(代子女)'라는 종교 의례적이고 정신적인 후원 관계, 즉 '파드리나스고(padrinazgo, 대부자 관계)'를 형성할 때, '대부모-친부모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모-대자녀-친부모'를 묶는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멕시코의 콤파드라스고는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가톨릭의 이식과 함께 형성되었다. 식민지 통치자들은 원주민에게 가톨릭을 강제하면서 원주민의 신체나 가족 관계들도 규제하였다. 식민지 초기에는 세례, 성체 성사, 결혼 등 개인의 종교 생활 주기와 관련된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대부자 관계가 중심이었다. 17·18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가 약화되고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이 일정 정도 확보되자, 콤파드라스고는 원주민 사회에 잔존하던 의례적 친족 제도의 요소와 혼합되어 변형과 재창조를 거듭하면서 종교적 제도를 넘어 하나의 사회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콤파드라스고가 존재한다. 성사 콤파드라스고만 하더라도 세례와 관련하여 반지, 음식 등 세례에 필요한 각 부분을 나누어 후원함으로써 여러 명의 대부모가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콤파드라스고는 그 범위에서도 대자녀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조부모에까지 확장되어 마을 사람들 다수가 의례적 콤파드라스고로 얽혀 있으며, 개인 간의 쌍대적(雙對的) 관계를 넘어 친척과 2, 3세대를 포괄하는 다대적(多對的) 관계로 확장된다. 한편 성사와 관계없는 비성사(非聖事) 콤파드라스고도 형성되는데, 이는 크게 사람을 매개로 한 관계와 수호성인상(守護聖人像)과 같은 물건을 매개로 한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종교적 의례가 없는 편이고 권리와 의무가 약할 뿐, 구조적 측면에서는 성사 콤파드라스고와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후자는 물건을 매개로 하므로 물건과 대부모의 관계보다 물건 주인과 대부모가 맺는 관계가 중심축을 이루며, 이 경우 후원 여부에 따라 지속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변화는 콤파드라스고에서 대부자 관계보다 대부모와 친부모의 관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확장을 통해 콤파드라스고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대부모-대자녀-친부모'를 묶는 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어떤 콤파드라스고에서는 친족 집단 내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부모·형제·조부모의 역할을 모방하고 그 유대 관계를 지속시킨다. 또한 교회법에 따라 구성원 간의 금혼 규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콤파드라스고가 친족 관계를 상징적으로 모방하는 제도, 즉 의사 친족 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콤파드라스고에서는 많은 경우 대부모는 친족 내에서 선택되지 않으며, 구성원 간의 금혼 규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콤파드라스고가 혈연에 기초하는 친족 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연한 창조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콤파드라스고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족 관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케 함으로써 내적 통합과 외적 경계 짓기의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리하여 핵가족이 증가하는 오늘날에도 콤파드라스고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멕시코 콤파드라스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콤파드라스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② 다대적 관계의 경우에는 의사 친족 제도로서의 속성이 약하다.
③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과 이식된 종교적 제도의 결합에 기반을 둔다.
④ 대부모-친부모 관계가 중심에 놓임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었다.
⑤ 비성사 콤파드라스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성사 콤파드라스고의 경우보다 약하다.

9. 위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은?

<보 기>

◦ 이달리아는 호세의 외아들 루이스의 세례 대모이다.
◦ 라울의 딸 카르멘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호세는 학용품을 선물하여 라울과 콤파드라스고를 맺었다.
◦ 이달리아의 친척 로라는 이달리아 집의 수호성인상을 매개로 이달리아와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하였다.

① 루이스와 이달리아는 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통해 대부자 관계를 맺고 있다.
② 호세와 라울은 사람을 매개로 한 비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하고 있다.
③ 이달리아 외에도 호세와 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④ 로라는 이달리아와 친척이므로 로라와 호세의 관계도 콤파드라스고라 할 수 있다.
⑤ 이달리아 집 수호성인상과 관련된 후원을 통해 로라와 이달리아의 콤파드라스고가 지속된다.

10. 멕시코 콤파드라스고의 현실적인 유효성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① 통혼권을 확대하여 친족 결속력을 증대시킨다.
② 유대 관계를 확장하여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킨다.
③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이해 갈등을 완화시킨다.
④ 산업화의 진행으로 핵가족이 증가되는 추세를 완화시킨다.
⑤ 종교 윤리와 전통 가치를 융합함으로써 문화 수용 능력을 증대시킨다.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닮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닮은 것'과 '닮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러고 싶고 말고요."

"㉠ <u>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u> 생각해 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닮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닮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 부분의 '닮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봄세. 나는 자네가 이를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닮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반(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기하학자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말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게나.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나."

- 플라톤, 국가 -

11.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ㄹ. 칠판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분'이 나뉘는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면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13.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눈다.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눈다.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닮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눈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나—

나는 약 삼 분 가량의 지도(地圖)를 설계하였다. 우선 나는 순영의 정면으로 다가서 보는 수밖에—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삐뚤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불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실로 사 년 전 첫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警官)이 무엇 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이천오백 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다 펴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월광이 사라졌다.

아내가 삼천포에서 편지를 했다. 곧 돌아가게 될는지 좀 지체가 될는지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짐작이 서지 않는단다.

내 승낙 없이 한 아내의 외출이다. 고물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가 벗어 놓고 간 버선짝까지 모조리 팔아먹으려다가—

아내가 십 중의 다섯은 돌아올 것 같았고 십 중의 다섯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해서 사실 또 가랬댔자 갈 데가 있는 바 아니고 에라 자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싶어서 나는 저녁이면 윤(尹) 군을 이용해서는 순영이 있는 바[bar] '모로코'에를 부리나케 드나들었다.

아내가 달아났다는 궁상이 술 먹는 남자에게는 술 먹기 좋은 구실이다. 십 중 다섯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눈치를 눈곱만치라도 거죽에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재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가던 날 순영은 내게 술을 먹였다. 나는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 찢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인생은 허무하외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순영은 이것은 아마 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고 여기고 맥주 한 병을 더 청하는 것이었다.

반 년 동안 나는 순영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에 십 중 다섯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이 아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는 전의 열 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순영에게 향하여 잔뜩 곪은 애정이 이에 순영이 돌아오기 전에 터져 버린 것이다. 아내는 이런 나를 넘보기 시작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배앝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는 내 얼굴 위에다—

부질없는 세월이 사 년 흘렀다.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은 십 중 다섯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 나는 내 고독을 일급 일 원 사십 전과 바꾸었다. 인쇄 공장 우중충한 속에서 활자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생활을 찍어 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영이 그의 일터를 옮기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일급 일 원 사십 전에 팔아 버린 내 생활에 그래도 얼마간 기꺼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순영 앞에서 술잔을 주무르는 동안뿐이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은 순영의 마음은 남북 이천오백 리와 같이 차디찬 거리 저편의 것이었다. 그 차디찬 거리 이편에는 늘 나와 나처럼 고독한 송(宋) 군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영 앞에서 내 고독을 호소할 수조차 없어졌다. 나는 송 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 앞에서 울었다. 송 군의 직업은 송 군의 양심이 증발해 버린 뒤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한다.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하다. 나는 이런 송 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천만 어의 단자(單字)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봄다운 홍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 버리고 말았다.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내 위치를 다시 탈환했을 때에는 이미,

송 선생님이세요? 이상(李箱) 씨하구 같이(이것은 과연 객쩍은 덧붙이개였다) 오늘 밤에 좀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전화가 끝난 뒤였다. 송 군은 상반기 상여금을 받았노라고 한잔 먹잔다.

먹었다.

취했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머얼리 동경으로 가 버리리라.

갈 테야 갈 테야. 가 버릴 테야(동경으로).

아이 더 놀다 가세요. 벌써 가시면 주무시나요? 네? 송 선생님—

㉤ 송 선생님은 점을 쳐 보나 보다. 괘(卦)는 이상에게 '고기'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송 군은 나보다도 먼저 일어섰다. 자동차를 타자는 것이다. 나는 한사코 말렸다. 그의 재정을 생각해서도 나는 그를 그의 하숙까지 데려다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숙 이층 그의 방에서 그는 몹시 게웠다. 말간 맥주만이 올라왔다. 나는 송 군을 청결하기 위하여 한 시간을 진땀을 흘렸다.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유월의 밤바람이 아카시아의 향기를 가지고 내 피곤한 피부를 간질이는 것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토하면서 울고 울다가 잠이 든 송 군을 생각했다.

순영에게 전화나 걸어 볼까.

순영이? 나 상(箱)이야— 송 군 집에 잘 갖다 두었으니 안심할 일—

오늘은 어쩐지 그냥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단다. 집으로 가 일찍 잠이나 자리라 했는데 '멕시코'에—

와두 좋지— 헐 이얘기두 좀 있구—

조용히 마주 보는 순영의 얼굴에는 사 년 동안에 확실히 피로의 자취가 늘어 보였다. 직업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순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나는 정색하고,

송 군과 결혼하지 응? 그야말루 송 군은 지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오— 송 군이 가진 양심, 그와 배치되는 현실의 박해로 말미암은 갈등, 자살하고 싶은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송 선생님이 불현듯이 만나 뵙구 싶군요.

십 분 후 나와 순영이 송 군 방 미닫이를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 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아로날 서른여섯 개의 공동(空洞) 곁에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쏘으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쏘다녀 보았다.

- 이상, 환시기(幻視記) -

1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여 사건의 의미를 희화화하고 있다.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③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④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회적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5.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순영은 번민에 사로잡힌 송 군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
② '나'와 순영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이다.
③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④ 아내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함으로써 '나'와 순영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⑤ 순영은 아내와의 불화에 빠져 있는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16.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나'와 순영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② ㉡: 치사할 정도로 치근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③ ㉢: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다.
④ ㉣: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에 흡족해하였다.
⑤ ㉤: 주저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장수** 야,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다. 그놈들하고 어떻게 헤헤헤 웃으면서 일을 계속해. 그 분노가 금방 삭혀질 것 같애?

**횡 보** 그 사람들 탓하지 말어. 해고시키지 않고도 신제품 개발, 영업 세일즈 강화 등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었어. 회사가 오 개월째 적자라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근로자의 목을 쳐?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냐?

(중략)

**동 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해. 배 째면 아픈데?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냐. 옥살이시키면 괴로운데? 판사가 어떻게 무기 징역을 선고해. 기업가가 노동자의 작은 아픔까지 다 챙기다 보면 개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거야.

**횡 보** 야, 박장수. 남들 핑계대지 말어. ㉠ <u>부처님 살찌고 여위기는 석수 손에 달렸다.</u> 너 지금까지 남들이 돈 벌어라 장사해라 해서 기업했냐? 아니지? 삼화금속 팔어 말어? 니 뜻만 얘기해. 어서.

**재 보** 빨리.

**횡 보** 빨리 임마.

**재 보** 지금 당장.

**낭 보** 잠깐 잠깐 잠깐.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볶아 대면 얘 돌아버려. 지금 집에 불이 났어. 식구들이 다 타 죽을 판국이야. 그런데도 불지른 놈이 누구냐고 그놈만 찾고 있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

**동 보** 나도 과거 타령은 딱 질색이야. 중요한 건 미래야. 방향지(方向知)엔 두 가지가 있어. 거북이형과 독수리형. 거북이는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전전긍긍해. 석 자 앞도 못 내다봐. 붕 떠서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보자고. 박장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노사 분규도 없고 정리 해고도 없는 임대업을 해야 되잖겠어?

**횡 보** [가] 니 방향지는 틀렸어. 너야말로 거북이형이야. 코앞의 이익만 추구해. 당장 내 한 몸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구. 임대업을 하면 나 혼자 배불리 먹고사는 거고 공장을 한다는 건 인부들 팔백 명과 더불어 먹고사는 거야. 어떤 것이 더 훌륭한 방향지겠누?

**재 보** ㉡ <u>하루 잘 먹자고 한창 일해야 할 소를 잡어?</u>

**낭 보** (분신들을 보며) 잠깐만! 우리가 박장수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들도 알다시피 각자 달라. 동보 넌 무조건 돈을 벌어라, 재보 넌 착하게 살아라, 횡보 넌 본분을 지켜라, 난 아름답게 살아라.

**박장수** 그래서?

**낭 보** 아름답게 사는 길은 자기 일에 열중할 때야. 넌 누가 뭐래도 기업가고 장수야. 옛날엔 국경 지키려고 창칼 들고 싸우는 게 장수였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무역 전쟁 아니냐. 기업가가 장수지. 넌 애국지사고 현대판 이순신이야.

**동 보** 어랍쇼? 말이 이상해지는데?

**낭 보** 나도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나도 전에는 부황기를 싫어했어. 현실을 못 보는 허풍쟁이라고. 지금은 안 그래. 부황한 만큼 목표가 높아지고 야망이 생겨.

**재 보** 계속 얘기해 봐.

**횡 보** 어서!

**낭 보** '기도하라, 상상하라, 실행하라!' 기업가는 회사를 확장시키고 돈을 벌어야 해. 한국 돈 세계 돈 싹 긁어모을 야망을 불태워야 한다. 그게 재보가 틈만 나면 말하는 선(善)인 거구, 동보가 말하는 방향지구, 횡보가 말하는 본분을 지키는 거야. 기업가가 돈 벌길 포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어? 작가가 대표작 써냈다고 절필하는 거고, 스님이 득도했다고 더 이상 수행하길 포기하는 거고, 과학자가 기똥찬 발명품 만들었다고 "더 이상의 연구는 필요 없다." 선언하는 거야. 할 일이 왜 더 없겠어. 기똥찬 거 발명한 우수한 머리로 죽을 때까지 혼신을 다 해 더 좋고 나은 걸 만들어 내야지, 안 그래?

**재 보** 맞아. 기업가가 돈 버는 거? 분명히 선이야. 기업가가 더 이상 안 벌겠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악이지. 안현숙이도 죽으면서 그랬잖아.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횡 보** 치고 나가. 위기에 절망만 하고 있는 자, 자신에게 돌 던지는 놈이야. ㉢ 자신의 최대의 적은 자신의 부정적 사고야.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너.

**낭 보** 팔백 명이 아니라 팔천 명이 더불어 먹고사는 터전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장수여 일어나라!

**박장수** 그럼 다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거야?

**재보 · 횡보 · 낭보** 응.

**박장수** 동보 넌?

**동 보** ㉣ 낙숫물은 떨어진 데 또 떨어져. 앞으로 또 분규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낭 보** 이번 분규는 우리 잘못도 많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중략)

**박장수** 그만 그만해. 좀 내비 둬. 대갈통이 빠개질 지경이야. 분신들이 너희 네 명뿐인 줄 알어? 수천 수만이다. 난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사단장이야. 오늘도 난 지친 몸으로 석양 들판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수만 명의 분신을 끌고 꾸역꾸역. 하루에도 수십 번의 모함, 야유, 타협, 요령, 분노, 사랑, 호감, 갈등, 방황, 난투, 아양, 꾸지람, 희망, 절망이 교차하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어. 나뿐이겠어? 다들 이렇게 힘겹게들 살겠지. ㉤ 그래, 개별적 진실, 총체적 거짓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짐승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다시 짐승으로 돌변하고. 이대로 좋은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그 사이 어디메쯤 서 있어야 하는 건지.

- 이만희, 좋은 녀석들 -

17.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 재물 공양보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다.
② ㉡: 목전의 이익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③ ㉢: 자기 반성이 때로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⑤ ㉤: 개인은 저마다 진실을 추구하지만, 집단을 이루면 거짓이 개입된다.

18.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아와 분신(分身) 사이의 심리적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아와 사회 사이의 갈등 양상도 반영하고 있다.
② '박장수'의 분신 중에는 합리적 자아를 대변하는 분신이 있는가 하면, 탐욕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분신도 있다.
③ 자아로부터 분리된 분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심, 처벌이라는 윤리적 초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난 본능과 충동을 깊이 조명하고 있다.
④ '낭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삶의 윤리나 현실적 책무로부터 벗어난 미(美) 자체보다는 현실 속에서 추구되는 삶의 미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수만 명의 군사들 위에 군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사단장'의 비유를 통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19. <보기>의 A에 대한 B의 답변 방식이 [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A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안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던 과거지사는 아예 언급하지 맙시다.

B : _____

① 과거에도 당신은 늘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솔직한 대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당신의 주장이 오히려 솔직한 대화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③ 과거지사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불신과 기만 운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 문제를 들추어 서로 상처를 주는 언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④ 당신은 모든 잘못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그러나 정작 과거에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문제부터 따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⑤ 현안에 국한하자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년 외환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시장 개방으로 대규모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제도들이 확산되었다. 주주 대표 소송 등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사외 이사가 확대되고 사외 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다. 소유 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이 '주주 가치 경영'은 시장 질서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을 감시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주주 가치 경영의 전반적 확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질 수는 없다. 특히 지배 주주인 '총수'가 계열사 간 순환 출자와 복잡한 소유 구조를 통하여 자신의 출자분을 초과하는 과다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경우, 단순히 ㉠ 경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를 막는 장치만으로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총수는 자신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일반 주주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정비되지 않았다. 금융 계열사들도 총수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장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주주 가치 경영은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실제로 일부 재벌 총수들의 소유권과 의결권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외국 자본의 역할도 미미하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총수 중심의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주 가치 경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판론자들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주들이 경영자의 이익 추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주주 이익 극대화는 곧 기업 활동에 관련된 주주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제안한다. 주식 소유권에 기초한 기업 소유는 다른 재산의 소유와 다르며,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특수 투자의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반론을 피하기 힘들다. 아울러, 주주 이외의 이해 관계자가 기업 경영에 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극복하기 어렵다.

한편 기업들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외국 자본의 행동 때문에, ㉡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국부(國富) 유출을 막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 가치 경영 확산과 함께, 외국 자본의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설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계열사 간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열사 간 출자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간접화하여 총수의 지배력 행사를 쉽게 하는 방편이었을 뿐 아니라 지배 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 소속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도 '남의 돈'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 의결권도 '1주1표주의'의 근대법적 소유권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선주나 이사 시차 임기제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영권 방어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20. 주주 가치 경영에 관해 우리나라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 글쓴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 안에서 주주 가치 경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경영 감시 제도를 도입해도 지배 주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잠재적 우호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주주 가치 경영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ㄱ. 차등 의결권 제도의 도입
ㄴ. 계열 기업 간 내부 거래의 공시
ㄷ. 주주 대표 소송 제소 요건 완화
ㄹ.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규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의 근거 가운데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제도는 기업의 단기 수익 추구 전략을 수반한다.
②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능력이 소진되고 있다.
③ 기존 경영권 보호 장치는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
④ 출자 총액 제한 제도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정책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정립되는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은 입법 기관을 통해 제정되어 문자로 확정되는 법을 말한다. '성문'이라는 특성상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그것은 적용에서 고착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는 당연히 필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다시 그 법률이 개폐되거나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 그 틈이 메워진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적시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때 사회에는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관습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되면 관습법이라 불린다. 관습법의 이러한 개념은 법 체계에서 대체로 인정되며, 관습법은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우선, 관습법이 법률과 내용을 달리할 때 그 법률을 실효(失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변경적 효력설). 이는 관습법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법률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하였다면 그것은 성문법이 사회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의 필요에 응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관습법을 실증주의적인 태도만을 고수하여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옳은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원천인 ㉠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지지하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깔려 있지 않은 법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관습법이 효력상 법률과 대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곧, 성문법에 대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경적 효력설의 입장에서는, 성문법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얽매일 필요는 없고,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률 규정을 문언(文言)에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기본이라는 전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주장도 강하다. 이 입장에서는 위 민법 규정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습법을 적용하라는 규정이라고 본다(보충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에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법의 존재를 법질서의 결단이란 차원에서 파악한다. 곧,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는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법질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 민법의 입법자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부여하게 되면, 법률과 내용이 충돌하는 관습법은 논리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관습법은 성문법이 규율하지 않는 법적 문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어려운 문제는 관습법을 확인하는 일이다. 법전에 쓰여 있지도 않고 단순한 관행과도 구별되는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는 관습법이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한다. 이런 까닭에 관습법은 판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습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A]** 관습은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 승격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을 인정하는 경우, 그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시기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그 관습법은 존재해 왔다고 본다. 성문법과 달리 관습법은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다.

23. 관습법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① 관습법의 경우에는 법률에 대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적 확신이 결여된 법률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관습법도 법이므로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인 법원은 재판할 때 관습법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④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견 관습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⑤ 법률을 제정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적응한 관습법은 그 법률에 저촉되더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법 규범으로 기능한다.

24. <보기> 중 ㉠과 ㉡에 대하여 반론이 될 수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 법질서와 사회 관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관습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행위 양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 또한 법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 국회에서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는 실제 국민의 의사와 다를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국민의 자율적 법 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법률의 내용과 충돌하는 관습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의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 | ㉠에 대한 반론 | ㉡에 대한 반론 |
|---|---|---|
| ①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⑤ | ⓓ | ⓒ |

25. [A]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법 규범을 창설하는 공동체의 의사는 관습법을 통해 표출되며, 이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속한다.
②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성립된 법 원칙들로 규율할 수 있다.
③ 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이므로, 국가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관습은 법이 될 수 없다.
④ 일정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관습법의 존재 자체는 입법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⑤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어 이러한 판결이 언제나 내려진다는 신뢰가 자리잡았을 때 형성된다.

**[26～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은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렀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처음도 끝도 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지속해 왔다. 이를 운회(運會)라고 한다. 운(運)이라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말하며, 회(會)라는 것은 변화의 도중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이치는 동양의 ㉠ 옛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대운(大運)의 순환으로 보아,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며 미래는 현재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변화는 점진적이어서,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천지는 불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서양의 지학자(地學者)들은 화석의 조사를 통해 동식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 천도(天道)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 변화가 지극히 은밀하고 완만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도 장구한 시간의 짧은 순간만을 본 것이어서 감추어진 변화를 알 수 없었다. 여름날의 매미가 어찌 봄과 가을을 알겠으며, 하루살이가 어찌 그믐과 보름을 알겠는가? 그런데도 불변이라 말한다면 참으로 눈먼 사람의 이야기이다. ⓑ 천운(天運)은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천운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천연(天演)이 그것이다. 천연에는 물경(物競)과 천택(天擇)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이는 만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특히 생물에서 두드러진다. 물경이란 만물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천택으로 나타난다. 천택이란 경쟁 끝에 홀로 살아남는 것이다. 자연에서의 선택이지만, 누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힘[力]이라 하며,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을 지(智)라 한다. 사람은 지와 힘으로 만물을 이합(離合)시키면서 하늘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낸다. 사람이 이룬 일을 공(功)이요, 업(業)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인사(人事)라 한다. 사람이 꽃을 가꾸고 다리를 만드는 일 모두가 인사이다. 인사는 ⓓ 천공(天工)이 못 다한 것을 도와 주는 일이다.

하늘은 사람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루고, 사람은 하늘이 준 것에 기대어 일을 이룬다. 일단 각자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람이 가꾸어 놓은 꽃이나 만들어 놓은 다리를 돌보지 않으면, 하늘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꽃을 가꾸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지만 그 근본을 말하자면 저 들판에서 스스로 피고 지는 것만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사람이 가꾼 꽃과 나무, 만들어 놓은 다리라 한들, 상제(上帝)의 힘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사람이 천공을 빼앗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손으로 들고 발로 걷는 이 몸 또한 하늘이 내린 것이다. 어찌 다만 몸뿐이겠는가? 사려를 운용하는 재능과 행위를 제어하는 덕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나 금수와 달라졌지만, 사람이 ⓔ 천명(天命)에서 벗어나 홀로 존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미증유의 사업을 이룬 위대한 성인(聖人)이라 할지라도 본성과 재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점에서는 곤충이나 초목과 다를 바 없다. 귀천은 다를지라도, 천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엔푸(嚴復), 천연론 –

26. 위 글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제의 개념과 천연의 개념이 양립 가능하게 논의를 이끌고 있다.
② 진화론의 주요 내용을 동양의 전통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④ 자연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연에 내재하는 불변의 원리를 상정하고 있다.
⑤ 인간과 동물의 귀하고 천한 차이를 인간이 지닌 선천적 도덕성에서 찾고 있다.

27. ㉠의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요임금, 순임금이 죽자 성인의 도가 쇠퇴하고 이상적인 정치가 무너졌으며 이후 역사는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
②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비워 주되 배를 채워 주고, 백성의 심지를 약화시키되 신체를 강건하게 해 주어, 항상 무지와 무욕에 처하도록 한다.
③ 탕왕이 하(夏)나라 걸왕의 폭정을 평정하고, 주공이 무왕을 도와 은(殷)나라의 폭군 주왕을 토벌하였듯이, 안정과 혼란, 즉 치란(治亂)이 되풀이되었다.
④ 군주에게 인심(仁心)이 있고 또 그렇다는 명성이 있음에도 백성에게 은택이 미치지 못하고 후세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도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성왕(聖王)의 업적을 보려면 분명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후왕(後王)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의 후왕을 버리고 옛날을 말한다면, 자기의 군주를 버리고 남의 군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

28.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풀이한 것은?

① ⓐ 천도(天道) :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와 같이, 도덕의 근거가 되는 윤리적 '천'이 지닌 규범을 뜻한다.
② ⓑ 천운(天運) : "사생은 유명이요, 부귀는 재천이라."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운명적 '천'이 내린 운수를 뜻한다.
③ ⓒ 천연(天演) : "하늘이 명한 것이 성(性)이요, 성을 따르는 것이 도(道)이다."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이 따라야 할 인격적 '천'의 역할을 뜻한다.
④ ⓓ 천공(天工) : "하늘은 일하지 않고도 이루고, 구하지 않고도 얻는다."라고 할 때와 같이, 무작위의 자연적 '천'의 조화(造化) 능력을 뜻한다.
⑤ ⓔ 천명(天命) : "40은 불혹이요, 50은 천명을 안다."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이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할 주재적(主宰的) '천'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29~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나리자>는 아름답다."와 같은 미적 가치 판단에서 우리가 단언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미적 가치는 작품의 크기처럼 그 작품의 속성인가? 만일 가치가 작품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자주 어떤 것이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의 두 축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인데, 상대주의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이론적 문제들을 피하고자 한다.

상대주의는 객관주의가 시작하는 곳, 즉 미적 가치 판단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관한 언급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는 가치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주관주의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즉,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경험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상대주의자인 루이스는 우선 대상의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가치와 미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느낌으로서의 가치를 구분한다. 좋은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유쾌한'이라고 하든 '만족스러운'이라고 하든, 본유적 가치의 경험이다. 본유적 가치란 도구적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을 말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사물은 엄밀한 의미로는 본유적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경험만이 본유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물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좋거나 나쁜 것이다. 한편, 어떤 대상의 지각에서 본유적 가치가 아무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느껴질 때, 루이스는 그 대상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모든 미적 대상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루이스의 이론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이제 미적 가치를 루이스 식으로 정의해 보자. 미적 가치는 절대적인 속성도 아니고 즉각적인 느낌도 아니다. 그것은 본유적 가치를 경험케 하는 대상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이다. 이는 관계적 속성, 즉 인간과의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귀속되는 속성들 중의 하나이다. 그로 인해 미적 대상은 누군가가 지각할 때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대상이 인간과 실제로 접촉될 때에만 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잠재력은 그것이 경험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대상 안에 남는다. 이 점에서 상대주의는 객관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작품이 가진 가치의 잠재력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져야만 드러난다면, 똑같은 작품이 A에게는 즐거움을, B에게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적 가치 평가란 미적 경험을 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에 대한 진술, 즉 "나는 이것이 좋다."라는 틀릴 수 없는 판단과 동일하다는 것이 주관주의의 핵심이다. 반면, 상대주의자는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그 형식 그대로, 가치를 대상에 귀속시키는 판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미가 본유적 가치 경험을 자극하는 하나의 잠재력이라고 보는 상대주의자에게 이러한 판단은 객관주의자의 이해와는 달리 일종의 예측이다. 만약 다른 이들이 그 작품을 감상한다면 그들도 미적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측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상대주의자는 이로부터 모든 이의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더욱이, 루이스는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한 나의 현재 느낌을 잘못 판단할 리는 없겠지만, 그 음악이 그 느낌을 계속 불러일으키리라는 경험적 예측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에 대한 보고가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29. 루이스 이론의 성격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① 미적 가치를 잠재력으로 본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 잠재력을 대상의 속성으로 본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② 미적 판단이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다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느낌이 본유적 가치라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③ 미적 가치를 경험으로서의 가치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대상에 내재한 가치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④ 미적 가치를 미적 경험과 관계된 즉각적 느낌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판단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⑤ 미적 판단을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 수정될 수 없는 판단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수정될 수 있는 경험적 예측으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30. 위 글에 나타난 개념들 중, <보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가 빵을 먹으면 빵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물론 아무도 먹고 있지 않을 때에도 빵은 영양가가 있다. 하지만 빵은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영양가가 있지 그 자체로 영양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대상의 잠재력 ② 경험적 예측
③ 객관적 속성 ④ 본유적 가치
⑤ 경험적 증거

31. 루이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예측으로서의 미적 판단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지 않은가?
②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은 좋다."라고 의미 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③ 가치 판단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 이상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④ 평가 대상의 미묘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미적 판단은 경험적 예측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⑤ 대상이 붉다고 느낀 것이 조명 탓이었다면, 그 경험에 근거한 미적 판단은 철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2년에 푸리에는 모든 주기 운동은 적당한 진폭과 위상을 갖는 일련의 단조화(單調和) 운동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푸리에의 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1843년에 옴(Ohm)은 소리가 복잡한 주기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리 또한 단조화 성분들로 분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 옴은 기본 진동수의 배수의 진동수를 갖는 단음(單音)들의 특수한 조합으로부터 악기마다 나오는 소리의 독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옴은 일반적인 악기의 음은 단음의 합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이 분리되어 귀에서 감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옴의 주장은 곧 제벡의 비판에 직면했다. 제벡은 음이 단진동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옴의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음은 항상 종합적으로 감각될 뿐이라면서 음이 분석적으로 감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러한 제벡의 논박으로 옴의 청음 이론은 한동안 학계에서 잊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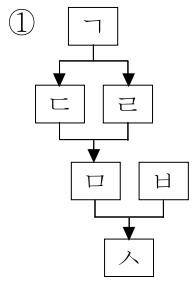
1855년에 헬름홀츠는 옴의 이론에 대한 제벡의 논박을 비판하면서 음향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헬름홀츠는 악기의 음 속에 존재하는 단음들을 분리해 내는 것이 옴의 이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우선적 단계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헬름홀츠는 이 과정에서 유리 공명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공 모양의 유리 공명기는 한쪽에는 귀에 댈 수 있는 좁다란 주둥이를, 다른 쪽에는 소리를 주입할 수 있는 좀더 넓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다. 이 유리 공명기는 자체의 고유 진동음을 성분으로 갖는 복합음이나 고유 진동수의 단음이 주입될 때에만 진동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동하지 않았다. 헬름홀츠는 공명하는 유리 공명기의 좁다란 주둥이를 귀에 댐으로써 악기의 음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음만을 증폭시켜 들을 수 있었다. 이로써 악기의 음 속에 특정한 단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나아가서 헬름홀츠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에서 나오는 다른 진동수의 단음을 합성하여 복합음을 만들어 내는 소리굽쇠 합성기를 개발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단음들의 조합으로부터 단일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음색을 가진 악기의 음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그는 분석과 합성의 양방향에서 복합음이 단음의 조합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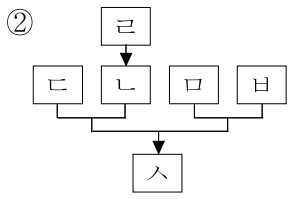
[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850년대 말에 헬름홀츠는 청음 메커니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옴의 주장을 받아들인 헬름홀츠는 귀가 어떻게 단음을 개별적으로 감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공명 현상에 깊은 인상을 받은 헬름홀츠는 귀가 공명에 의해 개별 단음을 감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 현을 이용하여 수행한 공명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귓속에서 이 실험의 현처럼 진동하는 기관을 찾고자 했다. 그는 코르티가 1851년에 발견한 코르티 막대들에 주목했다. 그는 크기가 각기 다른 수천 개의 코르티 막대들이 달팽이관 속에 피아노 현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863년에 헬름홀츠는 코르티 막대들이 특정한 단음들에 선택적으로 공명하고, 진동하는 코르티 막대마다 부착된 청신경이 자극을 뇌로 전달하여 소리를 감각하게 된다는 청각의 공명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적 개념이나 도구를 써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헬름홀츠의 생리학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헬름홀츠의 공명 이론은, 이후에 수정을 거치게 되지만, 청각의 메커니즘에 대한 현대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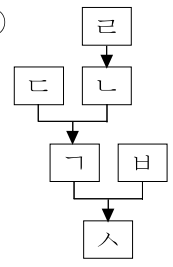
32. <보기>의 항목에서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헬름홀츠의 공명 이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바르게 도시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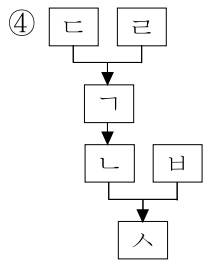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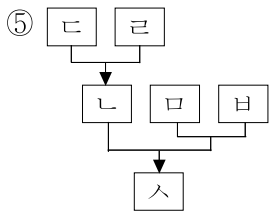
ㄱ. 옴의 청음 이론을 증명
ㄴ. 복합음이 단음의 합임을 입증
ㄷ. 유리 공명기 실험
ㄹ. 소리굽쇠 합성기 실험
ㅁ. 현의 공명 실험
ㅂ. 코르티 막대에 착안
ㅅ. 청각의 공명 이론 확립

① 


② 


③ 


④ 


⑤ 


33.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아노의 이웃한 두 건반을 함께 눌렀을 때, 현들에서 발생하는 음이 간섭하며 만들어 내는 소리를 관찰한다.
②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다른 악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음에 피아노의 현들을 노출시켰을 때 어떤 현들이 진동하는지 관찰한다.
③ 소리굽쇠를 진동시키면서 그 소리굽쇠의 한쪽 가지 끝에 고정된 렌즈를 통해 손으로 진동시킨 피아노 현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④ 공명 상자의 양쪽 끝에 세운 기둥에 현의 양 끝을 고정하고 현을 활로 진동시키면서 공명 상자 위에 고르게 뿌린 모래가 모이는 모양을 관찰한다.
⑤ 소리굽쇠의 한쪽 가지에 현의 한쪽 끝을 연결한 후, 현의 장력을 바꾸어 가면서, 전자석을 이용하여 소리굽쇠를 주기적으로 진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의 진동을 관찰한다.

34. [가]에 나타난 헬름홀츠의 탐구 방법과 가장 가까운 방법이 사용된 사례는?

① 뢴트겐의 엑스선 발견은 칼을 대지 않고도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학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② 볼타는 상이한 금속으로 된 두 전극에 의해 개구리 뒷다리가 수축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전지를 발명했다.
③ 파블로프는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 개가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는 현상으로부터 조건 반사를 발견했다.
④ 데카르트는 어두운 상자의 한쪽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바깥의 풍경이 상자 안의 스크린에 맺히게 하는 장치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사람의 눈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⑤ 파스퇴르는 효모 설탕액을 담은 플라스크를 가열하여 멸균시킨 후, 플라스크의 주둥이를 S자 모양으로 늘여 방치하였을 때, 플라스크 내부의 영양액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연발생설을 무너뜨렸다.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체의 발생을 설명하던 주된 이론은 전성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개체의 정자 또는 난자에는 성체의 구조가 이미 형성된 축소판이 존재하며, 이 축소판이 확장되면서 성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볼프는 수정란이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각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개체 발생의 후성설을 새로이 부각시켰다. 나아가 그는 성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별한 물질과 그것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수정란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뒤 루와 드리쉬는 수정란과 할구의 발생 능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볼프의 예측을 증명했다. 루는 각각의 할구들이 특이한 구성을 가진 인자를 물려받아 스스로 분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뜨겁게 달군 침을 이용하여 개구리의 2-세포기 배아에서 한쪽 할구를 죽인 후 그것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배양했을 때, 살아 있는 할구가 반쪽 신경능과 한쪽 귀만을 가진 배아로 발생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에 비해 드리쉬는 성게의 초기 배아인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배아의 할구를 분리한 후 이를 배양했을 때, 각 단계의 할구가 모두 온전한 개체로 발생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할구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증명했다.

한편 수정에 대한 자세한 관찰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질들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된다는 것과, 핵 속에 들어 있는 이 물질의 실체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이 염색체는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할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로써 유전자의 세대 전달과 개체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의 연속성 문제를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체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수정란과 초기 할구의 전발생(全發生)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개체가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발생 능력이 보존되는가 하는 의문이 싹트게 되었고, 나아가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의 재생 능력 차이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은 수정 이후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로 성장하며,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그들의 재생 능력은 다르다. 해면의 체세포가 다시 완전한 성체로 자라는 것에서도 확인되듯이, 하등 동물은 성체가 된 후에도 수정란의 발생 능력을 잃지 않지만 토끼나 사람과 같은 고등 동물에서는 이러한 재생 현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차이는 유전자 발현 조절 능력이 계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의 재생 능력이 지속되는 것은, 분화한 성체의 체세포가 수정란과 같은 종 특유의 온전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각 조직에서 그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발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고등 동물은 유전자 발현 조절의 메커니즘이 하등 동물에 비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재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등 동물에서 유전자 발현 능력을 제어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이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고등 동물의 체세포 역시 하등 동물과 같은 발생 능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하여 고등 동물의 체세포 유전자 발현 제한 요소를 직접 조절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체세포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한 후, 그것을 발생시켜 배아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성과가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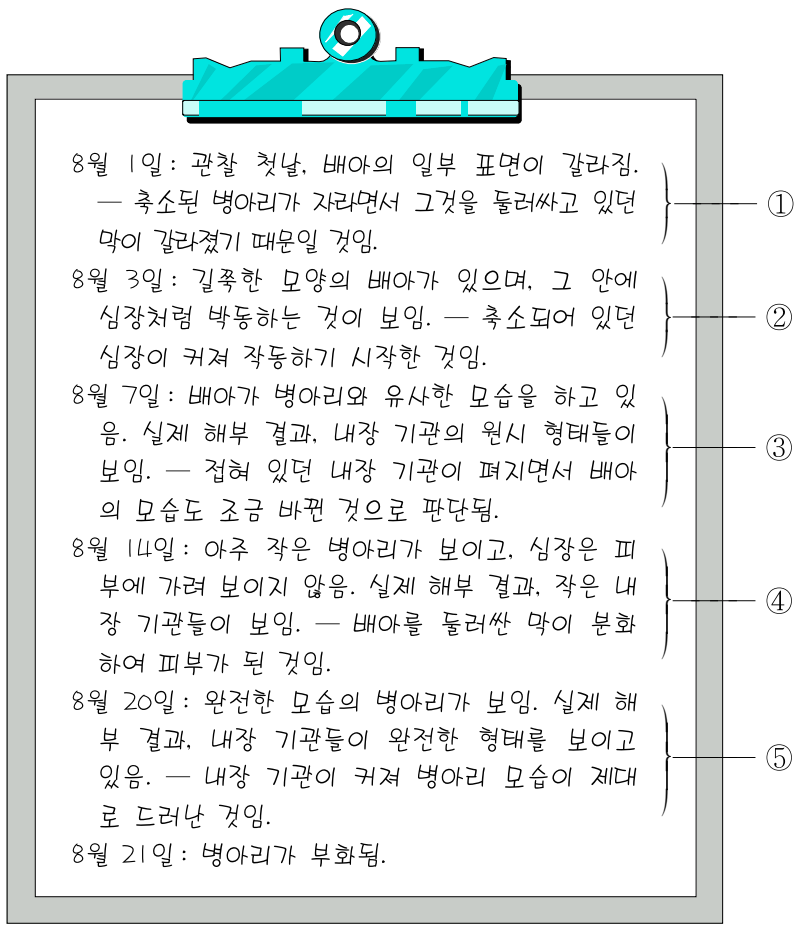
35. 위 글에서 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질문은?

① 발생과 재생은 어떤 관계인가?
② 개체 발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③ 유전자의 발현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④ 고등 동물의 재생 능력은 하등 동물보다 왜 제한적인가?
⑤ 생물체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36.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드리쉬가 루의 실험 방식을 적용하여 성게의 2-세포기 수정란의 한쪽을 죽이고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배양했다면 루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② 전성설 지지자들이 루의 실험을 알았다면, 그들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귀는 죽은 할구 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③ 볼프가 제기하였던 '특별한 물질'은 유전자이며, '어떤 메커니즘'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일 것이다.
④ 루와 드리쉬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험 대상 동물의 계통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⑤ 루는 할구의 운명이 수정 이후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성설 지지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7. 다음은 병아리의 발생 과정을 관찰·기록한 일지이다. 전성설의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허블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가 낮은 긴 파장 쪽으로 분광선들이 이동되는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이 결과는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표준 대폭발 이론의 형성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표준 대폭발 이론에서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은하들의 고유한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의 '뜨거운 대폭발' 이후 우주의 팽창에 따른 냉각 과정에서 별과 은하 등의 재료가 되는 정상적인 물질이 모두 생성되었고, 현재 관측되는 절대 온도 2.7도의 우주 배경 복사(宇宙背景輻射)를 만드는 빛이 방출되었다고 한다.

[가] 그러나 표준 대폭발 이론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 방향에 관계없이 아주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을 보이는 등방성(等方性)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보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가장 빠른 속도는 광속이므로, 한 지점으로부터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지평선 거리'보다 먼 지점과의 접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우주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두 영역은 방출될 당시 서로 지평선 너머에 있어 어떤 상호 작용도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거의 일치한다.

표준 대폭발 이론은 또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주의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할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 내는 밀도인 임계 밀도(臨界密度)에 가까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모든 것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우주의 팽창과 중력과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주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 가까스로 팽창을 계속하는 평탄 우주가 되고,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는 열린 우주가 되며, 임계 밀도보다 크면 어느 시점에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게 되는 닫힌 우주가 된다.

표준 대폭발 이론의 이런 문제점은 급팽창 이론이 제시되면서 해결되었다. 1980년대 구스는 우주가 탄생하고 $10^{-35}$초가 지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10^{50}$배 정도로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영역들은 탄생 직후에는 지평선 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상호 정보 교환으로 같은 온도가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후 공간의 급팽창으로 지평선 거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우주가 엄청난 크기로 급팽창했다면, 우주는 부분적으로 거의 평평하게 보이게 되어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우주의 질량이 우주의 평균 밀도에 관한 이론적인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천체들을 포함한 정상적인 물질의 질량은 임계 밀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의 수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질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성미자, 약간의 질량을 가진 가상적인 입자 등이 그 후보로 거론되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암흑 물질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인 1998년에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있는 초신성의 관측으로부터 우주의 팽창 속도가 한때 생각되었던 것만큼 느리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미지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어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내지 않는 한 설명하기가 어렵다. 결국 암흑 에너지라 불리는 이 에너지가 우주 밀도의 70여 퍼센트를, 암흑 물질은 20여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옳다면,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팀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주 나이가 지금의 두 배가 되면 우리 은하는 강한 인력에 끌려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 등과 합해져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수가 약 두 배가 된다. 그렇지만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져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측자는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게 되어, 우리 은하단은 거대한 우주 공간의 작은 '섬 우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38.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올바르지 <u>않은</u> 진술은?

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우주 팽창에 작용한다.
②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임계 밀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③ 우주의 미래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초기값에는 우주 평균 밀도가 포함된다.
④ 급팽창 이론은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 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⑤ 평탄 우주는 표준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 이론과는 양립 가능하다.

39. <보기>는 전체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추론한 것이다.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온도가 가속적으로 감소한다.
ㄴ. 우주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를 넘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ㄷ. 우주 안의 정상적인 물질의 총질량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40. <보기>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가]와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올바른 진술은?

<보 기>

1960년대 중반, 벨 연구소의 펜지아스와 윌슨은 극초단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에 방해가 되는 전파 잡음의 발생원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잡음이 안테나의 지향 방향과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안테나를 태양 방향이나 은하수 방향으로 맞추었을 때에도 잡음의 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잡음을 일으키는 전파 신호가 태양이나 은하수에서 방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전파 신호는 곧 표준 대폭발 이론을 연구하고 있던 디키 등에 의해 표준 대폭발 이론이 예측하였던 극초단파 복사임이 알려졌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주 초기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열이었던 것이다.

①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적이라는 사실은 표준 대폭발 이론으로 예측된 것이었으나, 극초단파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로 받아들여진 것은 급팽창 이론이 등방성을 설명한 이후의 일이다.

②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할 당시에 등방적이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에 그 등방성이 밝혀짐에 따라 표준 대폭발 이론의 지지 증거에서 반대 증거로 역전되었다.

③ 표준 대폭발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등장한 우주 배경 복사가 표준 대폭발 이론의 미해결 문제로 바뀌었던 것은, 후에 이 복사가 지평선 거리를 넘어서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④ 디키 등은 극초단파 복사가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대폭발의 잔열이므로 지평선 거리와 무관하게 등방성이 관측된다고 하였으나, 구스는 지평선 거리 너머의 등방성을 부인함으로써 급팽창 이론을 제시하였다.

⑤ 극초단파 복사는 등방성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로 확인되어 표준 대폭발 이론의 증거로 간주되었으나, 표준 대폭발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왜 등방적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 되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교시

# 언어추론 정답표

[공통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① | 11 | ① | 21 | ③ | 31 | ① |
| 2 | ⑤ | 12 | ④ | 22 | ① | 32 | ⑤ |
| 3 | ② | 13 | ④ | 23 | ③ | 33 | ② |
| 4 | ① | 14 | ⑤ | 24 | ⑤ | 34 | ④ |
| 5 | ③ | 15 | ① | 25 | ③ | 35 | ③ |
| 6 | ② | 16 | ④ | 26 | ⑤ | 36 | ④ |
| 7 | ① | 17 | ② | 27 | ③ | 37 | ④ |
| 8 | ② | 18 | ③ | 28 | ④ | 38 | ② |
| 9 | ④ | 19 | ② | 29 | ③ | 39 | ① |
| 10 | ② | 20 | ③ | 30 | ① | 40 | ⑤ |

2007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탈산업사회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 중의 하나는 생산성과 성장의 원천이 지식의 창출에 있으며, 이것이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모든 경제 활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산업사회론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는 실제로는 산업사회의 절정기인 미국의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는 지식에 기반을 둔 생산성과 성장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제조업 고용이 절정을 이루었던 산업 경제 시기의 특징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이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식을 기준으로 산업 경제와 탈산업 경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경제 구조를 역사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은 정보 기술 혁명이다. 이는 정보 기술이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 전파되어 하부 구조로서의 세계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성 계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탈산업주의보다는 그 흐름의 기술적 기반을 강조하는 정보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산업사회론자들은 또한 탈산업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 생산으로부터 서비스 생산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선진 경제에서 대다수 고용이 서비스 부문에 속하고 서비스 부문이 GN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다거나 서비스 경제의 활성화가 제조업의 역동성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GNP의 24%는 제조업에서, 25%는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또 다른 분석상의 혼란은 하나의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탈산업화를 주장해 온 분석가들은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간과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과 1997년 사이에 선진 국가들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주요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대폭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 이외 지역의 신규 제조업 고용 창출이 선진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분을 상쇄하거나 넘어섰던 것이다.

직업 구조에 대한 탈산업사회론자들의 전망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 정보와 관련된 직업이 성장하고 이 정보 직업군이 새로운 직업 구조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정보 직업군을 포함하는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직업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다. 1920년과 1990년 사이에 선진 자본주의 G7 국가들(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의 자료를 보면 탈산업사회로 여겨지는 국가들 간에도 직업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직의 경우, 1990년에 미국은 12.8%인 반면에 일본은 3.8%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미국의 경우가 탈산업사회론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잘 들어맞는 것은 그 모형이 미국의 사례를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탈산업사회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 그 가정에 관한 것이다. 탈산업사회론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직업 및 고용 구조상의 특징이 역사적 과정에서 서로 결합하고 변화되어 단일한 모형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 구조는 사실상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생산·분배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했던 것과 유사하다. 분업을 통해 부(富)가 증가된다고 보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영국의 산업화 경험에만 기초하였으며,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예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의 직업 구조와 고용 구조는 세계적 생산, 유통, 관리 등의 구조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반드시 동일한 모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가정하기는 힘들다.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국가별 직업과 고용의 변화는 미국의 경험에 기초한 탈산업사회론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4.** 글쓴이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① 세계화 시대에 정보 기술을 기준으로 선진국 경제와 후진국 경제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 탈산업사회론은 경제 부문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
③ 20세기 전반기에는 생산성과 성장의 원천이 지식이었으나, 20세기 후반기에는 그 원천이 정보 기술로 변화되었다.
④ 정보 기술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⑤ 산업 경제와 탈산업 경제는 모두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고용 구조의 차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구분되어야 한다.

**5.** <보기>의 사례 중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 기>

ㄱ.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ㄴ. 1990년 영국과 일본의 정보 직업군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ㄷ. 20세기 후반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조업 비중이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ㄹ. 20세기 후반 캐나다의 직업 구성에서 화이트칼라 직이 크게 늘어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을 탈산업사회론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술한 것은?

① 사회 변화의 동인이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② 사회 이론은 선진적인 국가를 모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③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산업화의 단계와 관계없이 여러 국가의 경제 구조상 주요 특징들은 지속될 것이다.
⑤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적 경험은 본질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다.

**[7~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연극은 현실의 재현을 의도했던 예전의 연극과는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눈에 보이는 것, 언어로 지시된 것만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었던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세계는 새롭고 낯설다. 현대 연극의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를 제시하기보다 관객 스스로 텍스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물론 관객의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의 가능성이며, 현대 연극 텍스트는 관객이 부여하는 의미로 그 두께를 더해 가게 된다.

현대 연극에서는 오브제도 이러한 해석 행위의 좋은 대상이 된다. 예전의 연극에서 오브제는 극중 인물의 형상화와 상황의 전개를 돕는 소품으로, 단지 리얼리티의 재현 도구로 사용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현대 연극에 이르러 오브제는 극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연극은 '오브제와의 유희'라고 할 만하다. 무대 공간을 자신의 창조력이 집중되는 터전으로 삼게 된 연출가는 오브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무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오브제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총 책임자로서 연출가는 새로운 의미 창조의 중심에 선다. 예전의 연극이 극작가 중심이었다면, 현대 연극은 연출가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 태생의 극작가 칸토르가 직접 쓰고 연출한 ㉠ <죽음의 교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죽음의 연극'이자, 죽은 자들과 산 자가 '교실'에서 만나는 '제의(祭儀)의 연극'이다. 나이가 든 모습의 연기자들은 아이 크기만 한 인형을 안거나 업고 무대인 교실에 등장한다. 교실 의자에 앉혀진 아이 인형들은 노인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 또는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을 상징한다. 무대 한편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들은 군인들에 의해 학살되는 인형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 인형들이 재현하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관망하기도 한다. 이들은 과거에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지만, 지금은 무대 위에서 연기자이자 사건의 관망자가 된다. 인형들에게 벌어진 사건은 무대 위에서는 연기자들이,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행복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 잔인한 전쟁의 참상,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과 피해 의식이 여러 시선을 통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연극에서는 인형들이나 연기자들에 섞여 무대 위에 선 연출가의 존재가 특이하다. 무대 위의 연출가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의 오브제로 제공한다. 이러한 행동은 '왜 나는 무대 위에 올랐는가? 연극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연출가 자신의 반성적 성찰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일지 모른다.

이와 같은 연극을 접한 관객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작품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 중에서 오브제가 지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오브제는 이제 관객들의 해석을 기다리는 기호, 곧 관객과 무대를 이어 주는 가교가 된다. 관객은 오브제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내거나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브제는 공연의 영역에 속해 있는 동시에 관객들의 삶에 속해 있는 것이다.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현대 연극은 극작가에서 연출가로 중심이 변함에 따라 텍스트보다 오브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② 현대 연극은 작가, 연출가, 관객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오브제의 심층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③ 현대 연극에서는 관객의 자유로운 의미 해석을 위해 작품 속에 작가와 연출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삼간다.
④ 현대 연극에서 오브제는 무대와 관객이 공유하는 기호이지만 그 기호의 의미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⑤ 현대 연극에서 관객은 오브제 덕택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무대 공간에 몰입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교실'은 관객이 과거의 사건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장(場)이 된다.
② 인물들의 분신인 인형들이 중요한 오브제로 활용될 때, 배우와 오브제의 전통적인 위계질서는 바뀐다.
③ 작가이자 연출가인 칸토르가 무대 위에 등장할 때, 그는 연기자로서 작품의 다층적인 해석을 한 몸에 통합시켜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한다.
④ 연출가는 회상하는 자아와 회상되는 자아 사이의 만남의 계기를 제공한다. 연출가 자신도 과거의 인물이자 회상하는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⑤ '제의'는 죽은 이들의 사연을 담되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주관된다는 점에서 현재적이다. 관객과 배우, 연출가는 모두 이 제의의 참여자가 된다.

**9.** 위 글의 '아이 인형'과 <보기>의 '아이 인형' 사이의 공통점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보 기>

소 무: (해산하려고 진통을 시작한다.)
취바리: (해산모를 부른다.)
해산모: (해산 제구와 아이 인형을 싸 가지고 깨끼춤으로 입장한다. 소무의 배를 문질러 주고 아이를 받는다.)
취바리: (까치걸음으로 마당을 돌면서) 이것아, 어서 빨리 해산시켜라. (아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허! 이거 봐라. 삼신님이 나 어려운 줄 알고 한 벌 옷을 다 해 보냈구나. (노래조로) 거지 거지 거지야, 굴레, 저고리, 행전, 토시, 고무신꺼정 몽조리 신었구나.
취바리: (아이 소리로) 아버지—.
취바리: 왜?
취바리: (아이 소리로) 나 좀 업어 주—.

① 해학을 유발하는 오브제로서 연극의 유희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② 경험적 시간 질서를 초월해 무대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게 해 준다.
③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함으로써 제의적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④ 인물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다의적인 의미 해석을 유도한다.
⑤ 연기자의 분신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0～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나라에서 온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치세(治世)의 음(音)은 평안하고 망국(亡國)의 음은 애처롭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안정과 혼란은 정치에 달려 있고, 성음(聲音)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애수의 감정은 금석(金石)에서 나타나고, 안락한 감정은 관현(管絃)에서 드러납니다. 공자는 소(韶)라는 음악을 듣고 순임금의 훌륭한 공덕을 알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고, 선현이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소리에 슬픔과 기쁨이 없다고 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오랫동안 아무도 뜻을 풀고자 하지 않아 명실(名實)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합해져 만물이 생겨나며, 추위와 더위가 갈마들어 오행(五行)이 생겨나고, 또 오미(五味)와 오음(五音)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음이 생겨난 것은 천지 사이에 맛이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성음의 좋고 나쁨은 본래 스스로 그러함이니, 혼란한 세상을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음조가 바뀌고, 슬퍼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장단이 바뀌겠습니까? 오음의 질서와 성음의 조화는 인간의 마음이 진실로 원하고 인간의 감정이 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감정이 방종으로 흐르거나 욕심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감정을 조절하여 슬퍼하더라도 몸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즐거워도 음란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에 맞도록 이름을 부여하고 사물에 적절한 호칭을 붙입니다. 곡(哭)하는 소리를 슬픔이라 하고 노래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할지라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반드시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반드시 곡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지역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면 노래와 곡하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지역을 바꾸어서 들려주면, 곡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거나 노래를 듣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기쁨의 감정은 어느 곳이나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서도 온갖 갈래의 소리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는 성음과 감정 사이에 일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음의 조화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힘든 자는 노래를 통해 자기의 사정을 드러내고 즐거운 자는 춤을 통해 자신의 일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비통하면 애절한 말을 드러내고, 말을 늘어놓으면 시가 되고, 소리는 음악이 됩니다. 여럿이 모여서 읊조리고 함께 들어 보면 조화로운 소리에 마음이 감동하고 쓰라린 가사에 감정이 움직여 한없이 감탄하고 끝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슬픈 감정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나 드러난 것입니다. ㉠ 조화로운 소리에 드러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슬픈 감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드러냄이 없는 조화의 소리로 인해 마음속의 슬픈 감정이 드러나고, 이때 느끼는 것은 오직 슬픔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현명하다 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어리석다 해서 미워한다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그들에게 속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여 그를 사랑스런 사람이라 하거나 미워한다 하여 그를 미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음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 뿐, 기쁨이나 슬픔과는 무관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 명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혜강, 혜강집(嵇康集) -

**10.** 위 글에 나타난 말하기 전략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손님'은 다수에 호소하고 권위에 기대어 음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② '주인'은 오음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맛의 존재에 빗대어 주장하고 있다.
③ '주인'은 음악에 대한 옛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④ '주인'은 음악의 문제를 현명함과 사랑함의 관계에서 유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⑤ '주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지역에 따라 성음과 감정의 대응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11.** '주인'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순임금은 시절(時節)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여 천하를 다스렸으나, 은나라 주왕은 시절에 맞지 않는 음악을 즐기다가 결국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였다.
② 상고 시대의 성왕이 음악을 제정할 때, 궁음은 성(聖), 상음은 의(義), 각음은 인(仁), 치음은 예(禮), 우음은 지(智)의 덕을 표현하게 하였다.
③ 안연이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묻자, 공자는 주나라의 복색(服色)을 사용하고 정나라의 음란한 음악을 금하라고 말하였다.
④ 신하가 음악에 관해 묻자, 황제(黃帝)는 좋은 음악은 천리를 따르고 자연의 질서에 맞으며 인간을 감동시킨다고 말하였다.
⑤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연주하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니 신라인들은 이 피리를 나라의 보물로 여겼다.

**12.** '주인'의 관점에서 ㉠의 의미를 바르게 진술한 것은?

① 감정이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여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드러낸다.
② 감정이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기쁨과 슬픔'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여 자신의 '좋음과 나쁨'을 드러낸다.
③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지만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기쁨과 슬픔'이며, 조화로운 소리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좋음과 나쁨'을 드러내게 한다.
⑤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조화로운 소리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게 한다.

**[13～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사용했던 달력은 흔히 '음력'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해와 달의 운행을 모두 고려한 '태음태양력'이다. 태음태양력에서는 약 29.53일인 삭망월을 한 달의 길이로 정하고, 해와 달이 한 줄로 늘어서 있어 달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매월 1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큰달은 30일, 작은달은 29일이 되었으나 그 순서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달의 운행만을 고려하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므로 해의 운행에 따른 24절기를 별도로 정해 날짜와 함께 사용했다.

그렇지만 해와 달의 운행을 동시에 고려하면 그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해의 운행에 따른 일 년의 길이는 약 365.25일이고, 달의 운행만을 고려한 일 년의 길이는 약 354.36일(29.53×12개월)이어서 11일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윤달은 이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달을 윤달로 정할까를 결정하기 위해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이 고안되었다. 무중치윤법에서는 해가 운행하는 궤도인 황도를 12등분하여 각각에 24절기를 순서대로 두 가지씩 배당하는데, 각 달의 전반부에 배당된 입춘, 경칩, 청명 등을 절기, 후반부에 배당된 우수, 춘분, 곡우 등을 중기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12등분된 황도는 각각 태양력의 12달에 해당하고, 매달의 길이는 약 30.44일(365.25일÷12개월)이 되어 태음력에서 정한 한 달의 길이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 특정한 달에 중기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를 무중월(無中月)이라 했다. 무중월에 윤달을 배치하는 방법이 바로 무중치윤법으로, 윤달은 대개 19년에 7번씩 들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 달력에 관한 일은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분야였던 '역법(曆法)'에 속했으며, 역법은 천명(天命)을 받은 최고 통치자 곧 군주(君主)의 통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군주는 자신에게 명을 내려 준 하늘의 뜻을 천체의 운행을 통해 헤아리고자 했는데, 역법은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단이자 상징이었다. 동시에 군주는 정확한 역법을 제정하여 달력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함으로써 천명을 실천하고자 했다. 나아가 군주는 더 좋은 역법, 다시 말해 하늘의 뜻에 더 잘 부합하는 역법을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역법에서 해와 달의 운행뿐만 아니라 행성의 움직임까지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역시 역법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관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하는 일은 태양력일 경우에는 해의 운행, 태음력일 경우에는 달의 운행에 대한 지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태음태양력일 경우에도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며, 행성의 운행은 달력의 제작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들은 일찍부터 행성의 운행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늦게 잡아도 한(漢)나라 때부터는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모든 행성 곧 오행성의 운행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계산하는 일도 역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달력은 이러한 역법의 산물이었으므로, 날짜를 알려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 예컨대 태양력을 통해서는 황도 위에 있는 해의 위치만을 알 수 있는 데 비해, 동아시아의 달력을 통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날짜를 월일(月日)이 아닌 연월일(年月日)로 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때 해[年]를 표시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흔히 세성(歲星)이라고 불렸던 목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미 기원전부터 세성의 운행 주기가 약 12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아시아인들은 12년을 주기로 하는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을 사용했는데, 이는 마치 12등분으로 구획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것처럼 하늘에서 목성이 머무는 위치를 이용하여 해를 아는 방법이었다.

**13.**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① 동아시아 달력에는 해와 달의 위치뿐 아니라 행성의 위치까지도 표시되었을 것이다.
② 태음태양력에는 일 년의 길이를 해의 운행 주기에 맞추려는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③ 세성기년법을 사용했던 것은 오행성 중에서 목성이 한 해의 계절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④ 역법에서 행성의 움직임까지 중시한 까닭은 행성의 운행을 통해서도 하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⑤ 태양력에서 2월 29일과 같이 약 4년마다 하루씩 윤일(閏日)을 설정했던 까닭은 달력을 해의 운행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14.** 무중치윤법에 고려된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삭망월　　ㄴ. 해의 운행 속도
ㄷ. 24절기의 황도 배당 방법　　ㄹ. 해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글에 제시된 역법에 관한 관념이 가장 잘 드러난 진술은?

① 하늘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임금의 명을 받아 하늘의 변화를 살펴 계절의 순서를 바르게 정하자, 이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② 오행성의 움직임은 서로 같지 않으며, 때로 거꾸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별이나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날줄과 같고, 오행성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늘의 씨줄과 같은 것이다.
③ 천운은 삼십 년이 되면 작게 변하고, 백 년이 되면 조금 크게 변하며, 오백 년이 되면 아주 크게 변하는데,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세 번 거치면 자연의 변화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④ 해와 달과 오행성은 하늘에서 운행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굳건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북극성이 밝은 빛을 잃는 것은 임금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나라마다 대(臺)를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게 하였는데, 그 관측대의 모양이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글었으니 이는 곧 하늘과 땅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16～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때 월남하여 부산으로 온 네 명의 동향(同鄕)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화차간을 거쳐 삼아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만, 광석이 사고로 죽고 셋만 남는다.

다시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다. ㉠ 광석이가 있을 땐 그래도 더러 웃을 때가 있었으나 요샌 피차에 통히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가끔 혼자서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흘러가는 구름 저편……."

㉡ 화차간이 찌렁하게 울렸다. 그것으로 나는 조금 기분이 풀렸다. 그러나 두찬이는 싫은가 보았다. 상을 잔뜩 찌그러뜨리고 나를 건너다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뚝 그쳤다. 일 나갈 때가 되면 두찬이는 누운 채 화차 천장을 올려다보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러고는 나와 하원이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구."

셋이 가지런히 일판으로 나갔다. 하원이는 노상 울먹거렸다. 내 허벅다리를 쿡쿡 찔렀다. 둘만이 어서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모르는 체했다.

일판에선 여전히 우리를 사촌끼리처럼이나 여겼다.

"사촌끼링교? 비슷하네."

처음 우리 넷이 부두 앞에 나타났을 때 가지런히 훑어보며 지껄였듯 지금도 저희들끼리 키들거리며 지껄이곤 했다. 그러고는 북쪽 얘기를 하라고 자꾸 졸랐다. 두찬이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모로 젓기만 했다. 얘기할 줄 모른다는 뜻이리라. 풀이 죽은 낯색이었다. 일이 끝나면 셋이 가지런히 돌아왔다. 어두운 화차간. 내가 가운데 눕고 두찬이와 하원이가 양 가장자리에 누웠다. 하원이더러 가운데 누우라니까 두찬이 모르게 아얏 소리를 지를 만큼 내 허벅다리를 꼬집어 뜯었다.

어느새 봄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초량 뒷산 마루에는 제법 아른아른한 기운이 어리었다.

밤이 어지간히 늦었는데도 두찬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원이는 기쁜 듯이 지껄였다. 여느 때의 하원이 같지 않게 활발스럽기까지 했다.

"두찬이 형 아주 갔나 부다, 잉잉."

"……."

"야하!"

"……."

"넌 왜 늘 아무 말도 안 헌?"

"……."

"벌써 여긴 봄이다 야. 이북은 아직도 굉장히 추울 끼다."

"……."

"……?"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또 가까워 왔다. 하원이는 흠칫 놀라 또 내 허벅다리를 조심스럽게 찔렀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었을 땐, 싸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무레하게 또 화차간에 찼다.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술 마셔, 술. 탁배기다 조오치! 안주? 여깄어, 있구말구, 안주 없이야 술이 있나, 암 있구말구, 허허, 이 새끼덜, 개구리들처럼 오그리구 누웠구나."

나는 서슴지 않고 술병을 받아 들었다. 나팔을 불었다. 괜히 다급하게 서둘렀다.

"하…… 하원아…… 넌, 넌 안 마시니?"

"난 마실 줄 몰라요."

"마실 줄 모르다니, 아직 술두 못 마셔? 자, 빨리."

내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하원이 쪽으로 갔다.

"난 마실 줄 모른단데, 힝힝."

하원이는 또 울먹거렸다.

"놔요, 놔, 놓으란데. 내 손 쥐문 안 돼, 내 손 쥐문 안 돼."

나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하원아, 마셔, 마시라는데, 어서."

"흐흐…… 응, 마실게, 흐흐흐……."

한참 동안 조용했다. 별안간 두찬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두찬이 우는 김에 하원이의 쿨쩍거림이 뚝 그쳤다.

(중략)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간 속에서 하원이는 지껄였다.

"야하, 우리 이젠 꼽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지어두 일없닝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폭은 못 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젠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꼽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와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와 나만 암말두 안 헌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마. 낼부터 나 진짜 꼽대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지껄였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핸. 참 부산은 ㉤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우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젤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꼽대가리 : 밤낮을 거푸 일하는 것.

- 이호철, 탈향 -

**16.**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나'는 '하원'에 비해 고향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② '하원'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서 '두찬'을 비판하고 있다.
③ '나'는 '하원'에 대해 현실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④ '하원'은 '두찬'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⑤ '두찬'은 '나'와 '하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식하고 있다.

**17.** 위 글의 ㉠~㉤과 <보기> 시의 ⓐ~ⓔ를 연결할 때,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우리 청산포 사람들, / 창경원의 벚꽃이 함빡 구름처럼 피는 날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들만 구석지에 모여 / 언제나 기가 꺾였다. /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술잔을 엎었다. / ⓑ 가설무대에서 마이크가 울고 / 삼류 가수보다 못한 굳세어라 금순이가 울고 / 흥남 부두에 눈발이 쳤다. /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적고 번지수를 건네받다 보면 / 새로 끼인 얼굴도 한둘, / 산 속의 ⓒ 댕댕이넝쿨처럼 모진 인연들만 얽히고설켰다. / 이 잣돈에 차용증 재판 건이 나오고 / 저희들끼리 치고받았다. //

(중 략)

아, 결국은 조금씩 취해서 돌아오는 길 / 못난 놈들만 고향 냄새를 풀어 놓고 돌아오는 밤길 / 해마다 이맘때면 ⓓ 구로공단 막바지 언덕길엔 / 하늘 높이 둥근 달이 떠서 / 내 고향 성천강 ⓔ 물소리만 귀에 부서졌다.

- 송수권, 면민회(面民會)의 날 -

① ㉠ 광석이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
② ㉡ 화차간 ——— ⓑ 가설무대
③ ㉢ 염주동 산꼭대기 —— ⓓ 구로 공단 막바지 언덕길
④ ㉣ 돌개바람 ——— ⓒ 댕댕이넝쿨
⑤ ㉤ 눈 ——— ⓔ 물소리

**18.**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등장인물들은 귀향을 가로막는 사회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②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③ '술'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④ 고향은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치유할 현실적인 대안을 상징한다.
⑤ 실향민의 문제를 실존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19~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현대 진화생물학의 두 가지 입장을 기술한 글이다.

(가)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하는 중심 문제는 생물 개체의 적응에 관한 것이다. 적응은 자연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진화생물학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자연선택은 근본적으로 복제자에 작용한다.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하다. 유전자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운반자를 통해 생존 경쟁을 한다. 운반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생물 개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운반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성적 매력, 신진대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더 자주 복제될 것이다. ㉠ 어떤 유전자는 운반자를 둘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여 자신의 복제 기회를 넓히기도 한다. 심지어 운반자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무법 유전자'도 있다. 유전자는 이렇듯 다양한 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자연선택이 근본적으로 운반자가 아닌 복제자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진화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 소(小)진화적 사건의 끊임없는 축적이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생명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진화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동물 계통은 신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 계통에 비해 진화에 의한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계통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이러한 '진화 가능성' 자체가 때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택은 유전자보다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나)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대멸종'일 것이다. 대멸종은 진화 계통수(系統樹)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페름기 말에는 당시 종의 90% 이상이 사라졌다고 추정된다. 공룡의 멸종은 백악기의 소행성 충돌의 결과였으며, 이는 포유류가 지배적인 종이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종의 생성 역시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종은 부모 종의 분포 지역 주변부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립된 개체군들 중에서 급속한 종 분화를 통해 생성되며, 이후 새로운 종 분화나 멸종이 일어나기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개체군에 발생하는 변화는 축적되지 않고 평균치에서 진동할 뿐이며, 대규모 개체군은 근본적으로 정체적(停滯的) 성격을 지닌다. 화석 기록은 이러한 단속 평형적인 진화의 양상과 잘 부합된다.

화석 기록은 또한 캄브리아기에 주요 동물 분류군이 한꺼번에 출현했음을 보여 준다. 5억 3천만 년 전의 화석 기록이 보여 주듯이, 캄브리아기 이후 생명계는 종의 차원에서는 다양해졌지만, '문(phylum)'의 차원 즉 신체적 기본 구조의 종류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종 다양성은 증가했지만 이질성은 감소한 것이다. 이 역시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진화의 다양한 양상을 자연선택에 의한 소진화의 점진적 축적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물론 자연선택은 중요하며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진화의 큰 틀에서는 급속한 종 분화, 종의 안정성, 멸종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연선택이 개별 유전자에 작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선택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 여러 종들로 구성된 한 계통에서 어떤 종은 멸종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종 분화를 더 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체 수준이 아닌 종 수준에서 나타나며 종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연선택이 진화의 기제임을 인정한다.
② (가)는 종의 생성 원리에, (나)는 종의 소멸 원인에 주목한다.
③ (가)는 유전자를, (나)는 개체를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로 본다.
④ (가)는 진화 과정이 연속적이라고 보는 반면, (나)는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⑤ 인접 종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면, (가)의 입장은 강화되고 (나)의 입장은 약화된다.

**20.**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ㄱ. 뇌충은 개미의 뇌 속에 침투한다. 이후 뇌충의 유전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로 하여금 풀잎 위에서 쉬도록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켜 소에게 먹히도록 만든다. 뇌충의 궁극적 숙주는 소다.
ㄴ. 아프리카인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들끼리 쌍을 이루면 악성 빈혈이 유발되지만, 정상 유전자와 쌍을 이루면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된다.
ㄷ. 수컷을 결정하는 Y염색체 상의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자보다 운동성이 더 커졌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정자가 더 많이 수정되어 수컷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성비의 균형이 깨져 짝짓기가 힘들게 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1. ㉡과 부합하는 진술은?

① 지질학적 격변과 같이 급격한 생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체군은 그렇지 못한 개체군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② 개체들은 성공적 번식을 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데, 이때 개체들은 성(性)에 따라서 선택에 유리한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 사이에 형태학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③ 사회적 동물군에서 친족을 위한 이타성은 자연선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타적 개체 자신은 희생될지라도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가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어떤 새의 부리 형태는 건기와 우기에 따라 정반대의 선택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긴 시간 단위로 보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므로 부리 형태의 차이는 누적되지 못하여 종 변화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⑤ 공격성, 영역 구분, 사회 체계 등과 같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들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이는 인간 종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행동들도 유전적·진화론적 틀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2~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서기 (중략) 솔매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문둥이 집이 한 채 있고 생배로 넘어가는 삼거리 채 못 가서, 거위를 기른다고 거위집이라고 하는디, 한씨여, 사람은 생불이구만, 안사람이 간질이 심해 갖고, 그래 남 뵈기 사납다고 외채로 지낸 것이 이십 년이 돼 가지, 아마. 집 뒤로 뭘 좀 심어 보겠다고, 그래 개간 허가 내는 일 좀 거들어 줬구만, 내가 토지를 어디서 떠다 준 줄 아는 모양이여, 나 보고 절하는 것이 이 사람 일과여. 저 보소. 야밤인디 목 빼물고 섰어.

탱자 울타리 너머로 상체를 내놓고 서 있던 한씨가 울타리를 돌아 나온다. 도시락만 한 꾸러미를 들었다. 그것을 윤서기의 자전거 뒤판에 묶는다.

윤서기 뭐라우.
한 씨 더덕 좀 캐 봤구만. 잘아서 젯상엔 오르지도 못하겠네.
윤서기 어허, 뇌물 받았다고 나 쫓겨나.
한 씨 (소매 끝에 접어 두었던 쪽지 꺼낸다.) 아께 집 애들이 읽어는 주드만, 세상에 엄두가 나야지.
소녀 소리 날씨 맑음. 감자 두 개 썰어 지영이 공작 숙제 만들어 줬다. 오후반 애들이 지나갔다. 읍내 쪽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온다. 올라가는 기차 — 내려가는 기차? 나는 어느 기차를 타게 되나. 모른다.
한 씨 두째여. 열네 살 먹은 것인디.
윤서기 언제 나갔나.
한 씨 점심 지나구서 안 뵈드레. 지 말대로 찰 탔으면 대처로 나간 모양이구먼. 세상에 이것이, 이것이 뭔 변이여.
윤서기 대처에 누가 있나.
한 씨 누가 있어, 읍내 장이도 한 번 안 가 본 애여.
윤서기 이거 큰애가 줍디여? 뭔 말 없고?
한 씨 질질 짜기만 허지.
윤서기 내가 좀 보드라고.
한 씨 (담 너머로) 야어, 거깄냐. (울안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거위 우는 소리 울안에서 한참 소란하다. 거위를 모느라고 두런거리는 한씨 소리와 함께 뒤꼍으로 멀어져 가자 스무 살 넘어 보이는 처녀가 나온다. 궁색한 차림새보다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지 않는 거동이 먼저 눈에 띈다. 처녀의 말은 때로 윤서기를 개의치 않고 하는 혼잣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처 녀 (잠시) 동생은 지가 내보냈시유.
윤서기 내보내다니.
처 녀 작년에 갓난애가 들어왔구만유, 앞집에서.
윤서기 앞집 문둥이한티서?
처 녀 그 애가 막내 동생으로 입적되는 걸 보고, 동생이 여간 아니게 놀랬던 모양이라우. 지난달에, 하루는 자기도 앞집이서 왔냐고 내게 묻더만유.
윤서기 앞집에서 온 애가 또 있나?
처 녀 (잠시, 끄덕인다.) 머스매, 올해 학교 들어갔구만유. 머스매 입적할 때 동생이 어렸은게 몰랐지유. 입적이 뭔지.

윤서기 어쨌나……. 저도 앞집에서 온 애로 여기는 눈치던가?

처 녀 앞집이 여기서 보기보다 솔찬히 멀어라우. 그런디, 뭐가 그 집 문밖에 힐끔 비치기만 해도 애가 사시나무 떨듯 하는디, 영낙 엄니 간질하듯 그래라우. 밤에 자다 보면 내 얼굴을 자꾸 더듬어라우. 지 얼굴 만져 보고. 나 노려볼 때 보믄 무서워서 —(흠칫 몸을 떤다.) 내가 무서워서 내쫓았구만요. 그 애도 그렇게는 못 살 것이고, 못 살아라우.

윤서기 내쫓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 가라고 내쫓아. 앞집에 가라고?

처 녀 (흠칫 놀랜다. 상체를 쓸어 잡고 쪼그려 앉는다. 사레가 걸린 듯 몇 번 헛구역질을 한다.) 야가 앞집에 갔을라나……. 한번은 거위 목을 비틀고 있어라우. 꿈에 앞집이서 즈이 엄니가 왔는디, 거위가 손가락을 문게 쑥 빠지더래요. 그거 내노라고, 엄니 갖다 준다고, 거위 목 잡고.

윤서기 그 애도 앞집서 들여왔나?

처 녀 그 애가 나 여섯 살 때 생겼구만유. 모르겄어라우. (문득 빤히 본다.) 걔도 데려왔다우?

윤서기 내가 물어본 게.

처 녀 내가유, 꿈에 저 집 불 질렀어라우. 꿈에.

윤서기 얘가 정신이 있나, 지금.

처 녀 빨래를 널 수 없어라우. 그것이 바람에 날려도 앞집 사람들 본 것 모냥 속이 울렁거려서. 불 때다 삭정이만 부러져도 손가락 세어 본다우, 손가락 분질러 땐 줄 알고. 지가 이럴 바에 그 어린 것이 오죽이나 죽겄을 것이요, 불쌍한 것이. 내 저 죽으라고 내쫓은 것 아니라우. 저라도 살라고, 멀리 가라고, 엄니고 언니고 다 잊으라고.

윤서기 낫살이 그만하면 세상 물정 알 것이구만, 그 어린 것이 어찌 살 것이라고 내쫓아. 한디서 밥이나 빌어먹을 줄 아냐. 밥도 못 먹어.

처 녀 지 팔자가 그런게요.

윤서기 ㉠<u>이 사람 말하는 거 좀 보소.</u> 자네 아버지는 뭘 받고 애들 맡아 기르는가.

처 녀 (분해서 몸을 떤다.) 집 나간 애는 그런 소리 안 했어라우. 애 업어 재우고 씻기고, 지 동생들 끔찍히 알았어라우. 그저 무섭다고, 무섬 타다 나간 것이라우. 무서서.

몸을 돌려 들어간다. 거위 우는 소리 두세 번 치솟고 잠잠해진다. 적막.

- 오태석, 자전거 -

**22.** 등장인물의 대사가 모두 참이라는 가정하에, <보기>의 사건을 과거부터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한씨'가 앞집의 '갓난애'를 입적한다.
ㄴ. '한씨'가 앞집의 '머스매'를 입적한다.
ㄷ. '처녀'의 '동생'이 거위의 목을 비튼다.
ㄹ. '윤서기'가 '처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ㄱ-ㄹ ④ ㄹ-ㄱ-ㄴ-ㄷ
⑤ ㄹ-ㄴ-ㄱ-ㄷ

**23.**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말이 씨가 된다고, 기어이 일이 그리 될 줄 알았다.
②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더니, 너희 집 인심도 참 고약하구나.
③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이냐?
④ 말로는 못할 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야 되겠냐?
⑤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는 법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늘어놓지 마라.

**24.** 위 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거위 우는 소리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환기하는 동시에 미묘한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거위 목을 비트는 '동생'의 행동에는 그녀가 자신을 '엄니'의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③ '처녀'가 말하는 꿈 자체를 독자로 하여금 불신하게 함으로써,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에 비판적 거리가 형성된다.
④ 등장인물들은 에둘러 말하거나 혼잣소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 생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재현된다.
⑤ '문둥병'은 질병 그 자체의 실상보다는 훨씬 과장되게 일반인에게 인식되기 쉬운데, 이 작품에서도 공포와 죄의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25~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이 실현해야 할 가치를 법이념이라 한다. 법이념은 실정법 위에 있는 하나의 지도 원리이며,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평가 원리이다. 법이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는 말하지 않고, 취급의 비례를 지시할 뿐,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하나의 질서이어야 한다. 법을 통한 사회 질서의 확보, 즉 법적 평화는 인간 사회의 존속 요건이며 법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리하여 정의와는 다른 법이념이 요구되는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한다. 법적 평화는 확고한 법질서를 전제하고, 이는 법의 실정성(實定性)을 요구한다. 실정성은 사회적 사실이고, 실정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힘을 전제한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실정법의 정당성은 그것에 의하여 달성되는 '안정성'에, 서로 다투는 법적 견해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는 '평화'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는 '질서'에 근거한다.

법이념들의 요청은 서로 보충적이고 협력적이지만,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나아가 어떤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 때문에 실정법은 그것의 내용이 정의로운가에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을 요구하지만, 정의는 변화된 사회관계에 법이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실정성이 항상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의 변화도 적응의 필요가 계속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것이다. 혁명 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법을 희생시켜 사실상 시행된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현행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관되고 안정된 상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오히려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법적 견해의 다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결론이 참으로 정의로운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법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의 일차적 과제는 법적 안정성, 즉 평화와 질서이다. 법관은 법의 효력을 실현시키고, 법의 명령에 자신의 법 감정을 희생시켜야 한다. 법관의 직무는 다만 무엇이 법인지 물을 일이지 결코 그것이 정당한가 묻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법관과 정의롭지 않은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이 대립할 수 있다.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이다. 양심의 의무는 한 인간에게 범죄를 요구했다. 법은 법관에게 형벌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법은 양심에 따른 범죄 때문에 과해질 형벌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요구할 것이다. 오판(誤判)의 집행을 면(免)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였던 소크라테스는 법의 깨뜨릴 수 없는 성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한 나라에서 일단 내려진 판결이 아무런 효력도 거두지 못하고, 한 개인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파괴될 경우, 그런 나라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5.** 위 글에 쓰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사회 질서와 법은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② 법의 효력은 법적 평화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다.
③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동등한 수준의 개념이다.
④ 실정성은 법적 안정성의 하위 개념이다.
⑤ 법이념은 정의의 상위 개념이다.

**26.** 법이념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은 법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법관은, 초범이고 반성의 빛이 뚜렷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갑을 집행 유예로 석방하였다.
②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신규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임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였다.
③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동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사면하였다.
④ 갑은 15년 전에 을에게 1년 기한으로 빌려 준 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을은 15년 동안 갑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갑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을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⑤ 도로에서 자동차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통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좌측통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변경하려 하였으나 사회 혼란의 우려 때문에 그대로 우측통행 제도를 유지하였다.

**27.** 글쓴이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법이념의 여러 측면은 등가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경우 개인의 양심 이외에 다른 해결 기준을 찾기 어렵다.
② 흠 없고 정당한 하나의 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이러한 법은 실정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③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못한 곳, 실정법의 제정에서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식적으로 부정된 곳에서의 법이란 아예 법적 성격이 없는 것이다.
④ 실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의가 보장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의해 법적 평화가 바로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⑤ 법관은 직무상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법관은 일반 조항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자신의 법 감정을 끌어들여 판결하기도 한다.

[28~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 역사학계에서 일상사(日常史) 연구는 사회사(社會史)에 대한 비판으로 1970년대 말에 등장하였다. ㉠ 위르겐 코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사 연구는 근대화 이론과 비판 이론을 바탕으로 민족 국가, 산업화, 계급 사회 등 거대 담론을 도입하여 근대 사회의 구조와 과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일상사가들은 근대화가 초래한 희생과 부담에 주목하여 익명의 구조와 과정보다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역사의 주체와 해방자로서 서민들의 생활과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를 주창했다. 그 후 일상사 연구는 점차 그 연구 대상과 관점을 다양화하며 풍부한 연구 영역을 개척해 왔다.

오늘날 일상사적 역사 이해 및 서술과 관련하여 '종속'의 관점과 '자율'의 관점이라는 두 관점이 있다. ㉡ 카린 하우젠은 사례 연구를 통해 근대 이래 대중들의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구조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960년 무렵 대도시 근교의 고층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적 시설과 장치들'의 정상적 작동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집합체 안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형성하며 해석한다. 본질적인, 어쩌면 실제로 결정적인 조치는 ⓐ '등 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체주의적 지배가 대중의 일상을 철저히 종속시켰던 나치 시대에 관한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도 하우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철저한 조직화와 빈틈없는 통제, 게르만 종족 공동체 이상과 반(反)유대주의의 결합,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대중 동원은 **'사생활(私生活)의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했던 폴란드 지역에서 전개된 유대인 학살의 일상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이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살 작전에 관련되었던 관료 조직, 방위군, 나치 친위대와 평범한 독일인들로 구성된 경찰 특수 기동대 등이 보인 참여도와 동기는 기관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몰살 정책'을 언제나 충실히 따른 것도 아니었으며, 잦은 과잉 학살에서 보듯이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조차 있었다. 여러 일상사 연구에 의해 밝혀진 자발적 밀고, 폭력에 대한 방관, 혹은 노골적 약탈과 같이 통제되지 않은 폭력 등 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 사실 또한 브라우닝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함의를 지닌다. 게다가 어떠한 저항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던 극단적 폭압 체제에서도 대중들의 일탈적 행위, 정치에 대한 무관심, 사적 영역에의 몰입, 노골적 불복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 행위들은 발견되었다.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치의 사생활화'**로 명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나타나는 종속 구조와 자율 행동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료하지 않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조와 일상적 실천을 명확하게 가르는 인습적인 양분법은 문제를 드러내고 만다.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는 동시적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 반 라크가 예시했듯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들은 체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때로는 스스로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일상사 연구는 이러한 역관계(力關係)의 동시성과 긴장을 읽어냄으로써 근대 사회 구조와 지배의 성격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나아가 구조와 지배의 틀 속에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된 주체를 해체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역사화하고, 이를 통해 거대 역사 담론에 의해 짓눌리고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와 가능성을 가시화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시대인과 행위자 자신은 물론, 훗날 자취와 흔적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상성 속의 다양한 층위와 복합성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행위자가 구조에 동조하거나 따를 때에도, 반대로 억압되거나 강제될 때에도,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는 일상에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를 묘사하는 언어들이 암시하는 것보다 언제나 커 보인다. 일상성에 관한 논의 결과는 '주어진 것'과 '스스로 만든 것'의 배합 비율에 기술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일상사 서술의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

**2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① 사회사는 일상 세계의 심층 구조를 해체한 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② 소시민의 일상 세계는 다층적 일상성의 유형을 법칙화함으로써 역사화된다.
③ 근대 국가 권력이 일상 세계의 미세한 영역에까지 미쳐서 자율 영역은 점차 사라진다.
④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일상을 계층적으로 역사화하면 근대 사회 구조가 새롭게 규명된다.
⑤ 일상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거대 담론이 왜곡한 노동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이 회복된다.

**29.** ⓐ '등 뒤'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감지할 수 없는 구속성
② 검증할 수 없는 인과성
③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④ 저항할 수 없는 절대성
⑤ 회피할 수 없는 숙명성

**30.**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생활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생활화'의 집적을 통해 실현된다.
② '사생활의 정치화'는 체제 비판적이고, '정치의 사생활화'는 체제 순응적이다.
③ '사생활의 정치화'란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 영역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정치의 사생활화'란 일상 행위 일반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을 이른다.
⑤ '사생활의 정치화'를 통해 일상 세계의 전면적인 식민화가 이루어진다.

**31.** 나치 시대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 ㉠~㉤이 제시한 해석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 코카: 나치 시대 말기, 군수 공장에서 나타난 근무 태만과 불량품 증가는 노동자의 도덕관념이 해이해진 데에서 비롯하였다.
② ㉡ 하우젠: 유대인 '몰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과잉 학살 사례들은 '합리적' 집행 계획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③ ㉢ 브라우닝: 민간인의 폭력이 통제되지 않고 증가한 것은 나치 체제의 결함 때문이었다.
④ ㉣ 포이케르트: 지하 서클, 재즈 클럽과 같은 청소년 하위문화는 나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
⑤ ㉤ 라크: 평범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가한 잔학 행위는 전체주의 지배 구조가 조장한 반유대주의의 결과였다.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행성이나 위성이 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탄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유기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 화합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물은 넓은 온도 범위 내에서 액체로 유지되므로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을 용이하게 해 준다. 생명체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으로 대상의 화학 물질 소비가 분석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생화학적 정의대로,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는 화성뿐 아니라,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타이탄 등에도 많은 탐사선이 보내졌고, 앞으로도 보내질 것이다. 만약 이들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외계 생명체 탐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생명체는 조건만 맞으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일반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계 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태양 같은 항성(恒星)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어야 한다. 태양계와 유사한 외계 행성계가 존재한다면,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의 특성 때문에 외계 행성은 직접 관측이 용이하지 않으나, 외계 행성의 공전으로 생기는 항성의 위치 변화나 식(蝕) 현상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약 200개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목성처럼 큰 가스형 행성들이다.

현재 지상의 대형 망원경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발견하려는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밀한 관측을 하기 위해 우주 망원경들이 발사될 예정이기도 하다. 2014년 발사 예정으로 NASA에서 개발 중인 '지구형 행성 탐색기'는 직경 3.5 m의 망원경 5기가 편대 비행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배치되어, 항성 주위에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전파를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이 보내는 전파 신호는, 무작위적인 자연 발생 전파와 구별되며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한 전파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용이하게 탐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호를 탐색하는 데에는,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을 보기 위해 하늘 전체를 탐사하는 방법과 가까운 곳의 특정 항성 주위를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천체나 성간 가스들의 특성은 이들에서 발생되는 전파의 수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수소 원자(H)와 수산기(OH)가 우리 은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천체나 성간 가스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1,420 ㎒와 수산기에서 나오는 1,721 ㎒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가진 전파를 관측에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수소 원자와 수산기는 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는 '물의 구멍(water hole)'이라 불리는 이 대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는 미국 국립전파 천문대의 26 m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태양에서 가까운 500여 개의 항성들에서 오는 외계 전파를 포착하려는 오즈마 계획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1984년에는 미국의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연구소가 설립되어 전파 신호의 반복성과 신호 검출 지역, 신호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의 후보를 선정하는 탐사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은하 내에서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고등 문명의 수는 얼마나 될까?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런 문명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고등 문명의 존속 기간과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항성의 생성률의 곱에 항성이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행성에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존재를 알릴 통신 기술을 가질 확률 등의 인자들을 곱한 방정식을 고안하였다. 이 방정식은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식에 포함되는 인자들 중 그 어느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주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고등 문명의 수가 이를 통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32.**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물의 구멍'의 전파를 발생하는 지역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② 태양계 밖의 지구형 행성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③ 생명체가 있는 외계 행성은 지구와 같은 화학 에너지 순환 체계를 가진다.
④ '지구형 행성 탐색기'의 탐색 결과를 근거로 태양계 행성들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⑤ 고유 밝기를 지닌 항성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밝기 변화에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낸다.

**33.** SETI 연구소의 탐사 계획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적 생명체로부터 수신된 전파는 항성 주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지적 생명체가 발신한 전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파와 신호 패턴이 다르다.
③ 지적 생명체는 자신의 주성분 원소에서 나오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것이다.
④ 수신되는 전파의 강도가 큰 것일수록 그 전파는 지적 생명체가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⑤ 지적 생명체는 우리가 천체 관측에 주로 사용하는 전파와 비슷한 대역의 전파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

**34.** <보기>에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우리 은하 내의 통신 가능한 고등 문명의 수를 예측하는 데에 고려할 요소를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성의 온도　　ㄴ. 은하의 개수
ㄷ. 항성의 평균 수명　　ㄹ. 은하 구성 원소의 종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존중하며 자랐다. 자유 무역을 옹호했던 19세기 사람들은 국제 분업이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나아가 자유 무역이 특권과 독점에 맞서는 진취적 정신을 북돋우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자유 무역이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적지 않게 달라졌다.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하자는 편보다는 극소화하자는 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저울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먼저, 대규모의 이민과 함께 구대륙의 기술과 저축도 신대륙으로 함께 건너갔다. 영국의 저축과 기술로 건설된 철로와 기차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미국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영국으로 환류되었고, 검약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시카고의 투기자가 독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들 사이에 산업화의 수준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현저하게 달랐던 때는 국제 분업의 고도화가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제 분업의 경제적 이익이 오늘날에도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천연 자원, 문화 수준, 인구 밀도, 타고난 기질 등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 특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경제적·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豪奢)가 된 것이다.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理想)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는 가능한 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즐겨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물론 사적 수익성의 논리로 보자면, 국경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 자신의 저축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본 탈출'의 위협으로 인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을 행하자면,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다. 버려야 할 것은 재무장관을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처럼 보는 통념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자족적 국민 경제 -

**35.** 글쓴이가 주목한 시대적 변화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②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③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었다.
④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되었다.

**36.** ㉠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① 자족적 국민 경제는 사회적 가치들이 제고되는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민 경제의 성장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③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공공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제하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은 확대해야 한다.
⑤ 자족적 국민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37.**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②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주가 거품 등을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손할 것이다.
③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
④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도 완화될 수 있다.
⑤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톨의 밀알이 곡식 더미를 이루는가? 아니다. 두 톨이면? 역시 아니다. 세 톨은? …….. 그렇다면 만 톨은? 밀알이 충분히 많이 쌓이면 곡식 더미를 이룬다. 하지만 한 톨만으로 더미가 안 된다면, 거기에 한 톨 더 보탠다 한들 여전히 더미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식이라면 만 톨이라도 더미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는 기원전 4세기 에우블리데스가 고안했다고 전하는 '더미의 역설(paradox of heap)'이다. 이러한 연쇄 논법 퍼즐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역사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에 회의론자들이 스토아학파의 독단적 인식론을 공격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감각 인상이 대상과 일치한다고 우리가 동의할 때 지식이 성립한다. 이때 분명한 감각 인상은 동의를 강력히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불분명한 감각 인상은 그리 강력하지 않다. 범인(凡人)들은 불분명한 인상에도 동의하면서 억측에 빠지는 반면, 인상의 분별을 단련해 온 현자(賢者)는 분명한 인상에만 동의하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더미의 역설'처럼 각각의 인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흡사한 인상으로 점차 대치하면서, 분명한 인상에서 불분명한 인상으로 나아가는 연쇄 고리를 구성해 스토아학파를 공략하였다.

모든 명제는 참이 아니면 거짓이어야 한다는 배중률(排中律)을 스토아학파는 철저히 적용했다. 따라서 "n은 적은가?", "n+1은 적은가?"라는 연쇄 형식의 질문에 대해, 스토아학파의 답은 "예."가 일정 횟수 계속된 다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아니요."가 계속되어야 한다. 만일 "n은 적은가?"의 답이 "예."이고 "n+1은 적은가?"의 답이 "아니요."라면, 바로 그 n이 적은지, 적지 않은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스토아학파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자도 정확한 기준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토아 학도들은 아는 것만 진술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그러니 "모른다."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앎 곧 지식은 '분명한 것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성립하므로, 인식된 것은 분명하며 분명한 것 또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른다'는 답은 '불분명하다'와 다름없는데,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이는 다시 'n이 적은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나 쓸 수 있는 답이다. 그러나 '적음'의 뚜렷한 기준점이 있다 해도, n이 적다는 분명한 인상과 n+1이 적다는 불분명한 인상이 너무 흡사할 때에는 "불분명하다."라는 대답조차 하기가 곤란해진다.

분별력은 단련으로 향상되지만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숙련된 현자라도 때로 실수를 예방하고자 분명한 인상에도 동의를 삼간다. 그렇다고 그것을 항상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가는 때로 실수할 테니까, 현자는 "불분명하다."라는 말도 안 하고 침묵에 빠진다. 스토아학파의 제3대 수장 크리시포스는 낭떠러지에 다다르기 전에 말을 잡아당기는 똑똑한 마차꾼에 자신을 비유하며, 분명한 경우들의 끝에 이르기 전부터 침묵하라고 충고했다고 전해 온다. 이는 '예'가 답이 아닌데 "예."라 하는 것보다 '예'가 답이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지나침보다는 미치지 못함을 택하라는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가 침묵할 때인가? 회의론자라면 의문이 생길 때마다 판단을 중지하면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의문이 가실 리는 없겠지만. 크리시포스의 경우엔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침묵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언제가 그런 경우인지 때로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분별 가능한지를 분별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침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급하다 보면 미치지 못함이 지나침보다 더 낫다 할 것도 없어 보인다.

**38.**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① '적음'과 '적지 않음'은 기준점이 같다.
② '적음'을 알 수 없으면 '적음'은 불분명하다.
③ '적음이 분명함'과 '적음이 불분명함'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
④ 'n이 적음'이 불분명할수록 'n+1이 적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⑤ '분명함'과 '불분명함'의 기준 문제는 기준 자체가 분명한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39.** '더미의 역설'과 같은 형식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은?

①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기고자 하니 이웃에서 비웃었다. 이에 우공은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그 다음엔 손자가, 이렇게 대대로 하다 보면 마침내 다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② 그의 뜻이 어머니의 뜻이요, 어머니의 뜻이 테미스토클레스의 뜻이며, 테미스토클레스의 뜻이 아테네인들의 뜻이니, 그의 뜻이 아테네인들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할 길이 없었다.
③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기리는 뜻에서 그의 목선을 영구 보존하고자 썩은 판자가 생길 때마다 새 판자로 갈아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④ 굶주린 당나귀가 먹이를 찾았다. 공교롭게도 먹이는 좌우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똑같이 나뉘어 있었다. 왼쪽부터 먹자니 오른쪽 것을 나중에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지라 고민하다가 당나귀는 굶어 죽었다.
⑤ 장자가 산에서 큰 새를 잡으려 활을 겨누다가 문득 매미를 노리던 버마재비를 보았다. 그 뒤에서 까치가 버마재비를, 장자가 겨냥했던 큰 새가 까치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서 몽둥이를 든 산지기가 장자를 쫓아내려 달려오고 있었다.

**40.**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더미의 역설'은 기준점을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모른다는 것이 분명한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③ 기준점의 존재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확신은 배중률의 철저한 고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배중률을 고수하더라도 아는 것만 말한다는 원칙을 양보한다면 '더미의 역설'은 생기지 않는다.
⑤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 데에는 지식과 분명함을 동일시하는 지식 개념도 관련이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교시

# 언어추론 정답표

[공통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② | 11 | ④ | 21 | ① | 31 | ④ |
| 2 | ② | 12 | ⑤ | 22 | ② | 32 | ⑤ |
| 3 | ③ | 13 | ③ | 23 | ④ | 33 | ③ |
| 4 | ④ | 14 | ② | 24 | ③ | 34 | ② |
| 5 | ① | 15 | ① | 25 | ④ | 35 | ⑤ |
| 6 | ③ | 16 | ③ | 26 | ④ | 36 | ④ |
| 7 | ④ | 17 | ⑤ | 27 | ⑤ | 37 | ① |
| 8 | ③ | 18 | ③ | 28 | ⑤ | 38 | ④ |
| 9 | ② | 19 | ② | 29 | ① | 39 | ③ |
| 10 | ③ | 20 | ① | 30 | ⑤ | 40 | ④ |

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일에 요란 떠는 것도 유행을 타긴 하지만 이런 실속 없는 것을 시골에까지 돌릴 것은 뭔가 하며 이번에는 수건을 펴 보다가 선호는 그만 낯이 화끈해지고 말았다.

'동해 피혁 주식회사 김복만 사장. 귀향 기념 197× 중추절 POKMAN KIM.'

"허허, 요새 사장 되면 거동이 이렇게 요란한가?"

"누가 이쁘다고 해서 이 꼴이여? 이쁘잖은 며느리 달밤에 삿갓 쓰고 나온다더니, 허허 잔내비 딴스 하는 걸 보제. 눈꼴 시려 못 봐 주겠네."

달중이와 만득이가 한참 복만이 악매에 서릿발이 섰다.

"유치하기는 해도 아직 ㉠ 순진한 촌티가 남아 있는 게 나는 그렇게 밉잖은걸."

선구가 능갈을 치고 나섰다.

"㉡ 가재는 게 편이더라고 하기야 자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패거리였으니까."

"가만있자. 이럴 것이 아니라 있는 술에 복만이도 오라고 해서 같이 마시세."

"㉢ 그런 밥맛없는 새끼하고 같이 술을 마셔? 그 새끼 보기만 해도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거꾸로 기어 나올라고 허는디."

"이 사람아, 그러는 것 아녀. 선호야 가서 말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한잔 하게 오라더라고 데리고 와!"

"올까 모르겄소, 옛날 복만이가 아닌디."

"가 봐, 내가 오란다면 틀림없이 올 거야."

선호는 떠름한 표정이었으나 형의 말이라 마지못해 엉덩이를 일으켰다. 선구는 사립문께 나가는 선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지켜 섰다가 같이 와야 해! 꼭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디 이장 능력 한번 보자."

달중이와 만득이는 마뜩찮은 표정이었으나 더 참견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만이가 본색이야 어디 나쁜 놈인가? 전에 굽혀 살던 뒤라 지금도 마음이 ⓐ 굽죈데다가 서로 오래 말이 막히니까 좋잖은 감정이 쌓인 거야.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양 명절에 집에 온다 하더라도 부모 뵙고 성묘하고 나면 아까 달중이 말마따나 금방 돛 달아 부칠 궁리뿐이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실 여유가 없더라구. 자네들하고 일 년 만에나 어쩌다가는 이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길거리에서 고개나 한 번 까딱하고 헤어지니 사이가 뜰 밖에 더 있던가?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이러고 앉은께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가 말이야. 복만이하고도 술 한잔 나누면서 한번 웃고 나면 막혔던 감정이 여름 소나기에 수챗구멍 터지듯 할 테니 두고 봐."

"고향 배반하기로는 ⓑ 한속이라 싸고도는 가락이 그럴싸하구먼, 잔이나 받어."

"하하, 아까 복만이가 내 책보나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억지고 우리 동네서야 나하고 복만이 사이만한 ⓒ 옴살이 있었나. 하여간 기왕 역성든 김에 말인데 지나 내나 이 숭악한 산골에서 나서 산골 너구리 사촌으로 자란 놈이 ㉣ 긴다 난다 하는 놈들만 몰려 사는 서울 바닥에 부비고 들어 그만한 돈을 잡았다면 무조건 알아줘야 해. 기고 나는 재주를 지녀도 그냥 한두 가지 지니고서야 억대토록 돈을 모으기가 쉽겠나?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는 놈이 그렇게 돈을 모은 비결이 뭔 줄 알아? 제깐 놈이 유별난 셈속을 타고났을 까닭도 없고 특별하게 다른 재주를 타고났을 까닭도 없어. 재주는 딱 한 가지, 손에 돈이 들어왔다 하면 부라퀴같이 그저 오그라 쥐는 재주, 이것 하나뿐이라구. 한 닢 쥐면 손에서 비지땀이 솟고 두 닢 쥐면 뽀드득 소리가 나게 그저 거머쥐는 재주, 이것이여. 내가 곁에서 보든 안 했지만 복만이 속이라면 불 본 만치나 환해."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물 쏟아지듯 했다.

"그럴 때 아침저녁 끼니를 제 끼니 찾아 먹었겠어. 국 따로 밥 따로 밥상 구색을 제대로 갖춰 먹었겠어. 외입 나가 돈 벌었다면 어디 가서 쥔 없는 물외밭 넉걸이하듯 ⓓ 걸태질하는 줄 알제마는 다 뼉다귀 곰 곤 돈이라구.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고 그저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부지런히 나대고 아껴서 번 돈이면 그만큼 알아줘야 한다구."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너무 ⓔ 오도깝스럽다 싶었던지 조금 멋쩍게 웃으며 만득이한테로 잔을 넘겼다.

"그거야 누가 아니래나? 부자 하나가 나려면 옛말에는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럴 째비가 못 되기도 하제마는 남의 것 넘보잖고 제 손으로 번 것만도 장한 일이긴 하지."

만득이가 술잔을 꼴깍하며 말했다.

"그런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소리는 그것이 벌기는 어떻게 벌었든 쓰기를 쓸 데다 씀속 있게 쓰라는 소린디 저 아래 의병비 같은 건 오죽이나 생색나는 일이냔 말이야."

달중이 말에 다시 만득이가 나섰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을 어느 부자 한 놈 돈을 넘보고 생각하는 우리덜 정신이 첨부터 넋쪼가리가 빠진 것 같어. 설사, 끼니를 몇 끼니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덜 키우고 사는 놈덜이 여적지 저기다 비석 하나 못 세웠으니 내남적없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게 됐어. 짝 하면 입맛이더라고 비석이 꼭 거창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담에는 찬물 떠 놓고 절을 해도 제 정성인께 명색만이라도 갖추는 것인디, 우리 선대들부터 괜연스리 거창하게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손주 턱에 수염이 나버렸잖어. 이제라도 못난 조상 탓 듣지 않으려면 이번 세안에는 조리 장수 체곗돈을 내서라도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구."

그때 문이 열렸다. 복만이었다.

"다들 여기 모였네."

복만이는 선구 혼자 있을 줄 알았다가 얼핏 당황하는 눈치였다.

"복만이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복만이는 만득이 손을 잡아 흔들고 나서 달중이 손을 잡아 역시 흔연스럽게 흔들었다. 도시에서 굴러먹던 너름새가 있구나 싶게 흔연스러웠다.

"그런께, 아까 그 ㉤ 고장난 차 타고 오던 것이 자네였던가? 하하."

"망할 작자."

달중이의 능청에 복만이는 지레 주먹질 시늉을 했다.

"이 사람아. 그런께 기왕 차를 사서 타고 댕길라면 쪼깐 쓸 만한 차를 타고 댕게사제. 자네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헌털뱅이 차를 줏어 타고 댕길 중 누가 알았을 것이여? 하하."

모두 흐들갑스럽게 웃었다.

- 송기숙, 재수 없는 금의환향 -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97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을 그리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현재 심정,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고 있다.
③ 유년기를 함께 한 인물들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에 호소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④ '의병비' 건립 건을 통해 갈등의 한 요인을 제시하는 한편, 인물들의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게 한다.
⑤ 고유어와 사투리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상황에 맞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4.** ㉠~㉤과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을 <보기>의 ㉮~㉰에서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왠지 잘 빚어진 항아리보다
좀 실수를 한 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를 따라와 옹기를 고르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몸소 질그릇을 굽는다는
㉮ <u>옹기점 주인</u>의 모습에도
㉯ <u>어딘가 좀 빈 데</u>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넉넉해 보였다
내가 골라 놓은 질그릇을 보고
㉰ <u>아내</u>는 곧잘 화를 내지만
뒷전을 돌아보면
그가 그냥 투박하게 웃고 섰다
가끔 생각해 보곤 하는데
나는 ㉱ <u>어딘가 좀 모자라는 놈</u>인가 싶다
질그릇 하나를 고르는 데도
실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 <u>실패한 것</u>을 택하니

- 정희성, 옹기전에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달중을 따라 복만을 욕하다가 선구의 말만 듣고 다시 마음을 바꾸는 데서, 만득의 소신 없는 성격이 드러난다.
② 복만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면서도 직접 대면해서는 인사말로 농담을 던지는 데서, 달중의 능청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다.
③ 복만이가 보낸 수건을 보고 낯 뜨거워하고 형 선구의 심부름에 떠름해 하는 데서 보듯, 선호는 복만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④ 좌중의 의견과 달리 복만을 부르게 한 뒤 복만에 대한 제 생각을 장황하게 풀어내는 데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예상치 않은 동석자들이 있어서 잠시 당황하지만 곧 너름새 있게 넘어가는 데서, 복만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을 알 수 있다.

**6.** ⓐ~ⓔ의 뜻을 <u>잘못</u> 풀이한 것은?

① ⓐ 굽죄다 : 떳떳하지 못하여 기를 펴지 못하다.
② ⓑ 한속 : 같은 셈속.
③ ⓒ 옴살 :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④ ⓓ 걸태질 :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구걸하는 짓.
⑤ ⓔ 오도깝스럽다 : 경망하게 덤비는 태도가 있다.

[7~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 고급 주택가(저녁)

비탈진 길을 오르는 미끈한 최신형 세단 1대.

#3. 차 안(저녁)

달리는 차 안 한쪽 구석에 지쳐 푹 파묻히듯 기대앉은 윤.

㉠ 창 밖으로 지나가는 대도회의 저녁 거리 풍경.

운전수 Ⓔ* 언제 돌아오시나요?

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정신이 돌아온 듯) 이쪽 형편에 달렸지. 전보 받는 대루 올라오게 될…… (얼른 말을 바꿔) 한 일주일 쉬게 될 걸세.

운전수 Ⓔ 그러면 전 그동안 좀 시간을 얻겠네요. 저의 집 여편네가 어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또 딸 쌍둥이랍니다. 그저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윤 (무뚝뚝하게)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나?

운전수 (머리를 긁으며) 아니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구…….

윤 의논해 보게! 혹시 아나? 도움이 될지…….

#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의 상반신.

윤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믄 대 회생제약주식회사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5. 같은 방 창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6. 이모집 마루(밤)

(회상) (과거)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이와 불나방들이 모인다.

— C.U.*** —

#7. 침대차 안(밤)

㉢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 달리는 기차의 굉음 소리.

장인 Ⓔ 비행기로 가서 바꿔 타구 가믄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 여행이란 위험헌 것이니 기차루 가두록 허게 (명령조)!

윤 Ⓔ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8. ○○시 역(이른 아침)

윤, 대합실을 나오다가 미친 여자를 본다. 나이롱 치마저고리에 핸드백과 파라솔 등 제법 진한 화장의 멋쟁이다.

구두닦이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수 아이들이 어울려 여자 뒤를 줄줄 따르고 있다.

소리1 Ⓔ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디야.

소리2 Ⓔ 아녀, 남자한테서 채여서여.

소리3 Ⓔ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 한다. 물어 볼끄나?

구두닦이, 집적거리면 비명을 지르는 미친 여자.

#9. 바닷가 집 방 안(밤)

(과거)

비명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

식은땀을 흘린다. 방문을 열면 바닷가.

파도들이 밀려와서 밀려가고(시간이 공허하게 흐른다).

#10. 이모집 건너방(낮)

(과거)

골방 문 벌컥 열리며 비명을 지르고 뛰어 나오는 윤.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본다.

윤 더 이상 못 숨어 있겠어요! 미칠 것 같단 말예요. 미치드라도 일선에 나가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내가 미치거든 ㉣ 내 일기책 첫 장에 적어 놓은 이유들 때문일 터이니 그걸 참고해서 치료해 보세요!

옷고름에 눈물 닦는 어머니.

돌아앉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윤.

#11. 시골 자동차길(낮)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12. 버스 안(낮)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휙휙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13. 이정비 근처(낮)

이정비 : 무진 10킬로미터 : Mujin 10㎞

㉤ 버스 고장으로 사람들이 내린다.

이정비를 보고 있는 윤이 이정비 뿌리를 발로 차 본다.

* Ⓔ : 효과음.

** 인서트 : 삽입 화면.

*** C.U. : 클로즈 업.

- 김승옥, 안개 -

**7.** 위 글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효과음을 활용하여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② 인서트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③ 등장인물들을 골고루 카메라로 포착하여 그들의 표정이 드러나도록 지시하고 있다.
④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감상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⑤ 피사체를 확대하여 화면 전면에 부각시키는 수법으로 관객들이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8.** 위 글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2에서 #3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4에서 #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방 안에 있는 아내의 시선을 표현해야 한다.
③ #6에서 #7로의 전환은 날벌레와 기차라는 공통 매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8~#10에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공통 매개 요소는 비명이다.
⑤ #10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방 안에서 시작하여 방 밖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9.** ㉠~㉤ 중, <보기>의 '회의'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좁고 답답한 무진을 벗어나고 싶어 하던 윤은 도회로 나와 대 제약회사 경영자의 사위가 된다. 하지만 윤은 화려한 도회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얻는 대신, 영혼의 자유를 잃고 세속적인 가치들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동시에 여러 개의 스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스토리를 **주(主) 스토리**라고 하는데, 주 스토리는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들과 얽히기 마련이다.

스토리를 쓰는 것은 일련의 선택을 하는 일이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하고** 다른 요소들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한다. 시나리오에서 서사란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이며, 외화면*과 **생략**을 사용하여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거나** 감추는 방법이 이용된다.

* 외화면 : off screen. 화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건.

① 위 글에서 '주 스토리'는 윤이 집을 떠나 무진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② #3은 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결정권이 없다는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로군.
③ #3 다음에 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일 거야.
④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면, #8에서 '미친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10에서 '미칠 것 같'은 심정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
⑤ #11에서 #13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12를 '생략'하지 않은 것은, 부수적인 스토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일 거야.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에 수립된 뉴턴의 체계에 따르면 물리적 실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질점(質點),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물리적 사건은 공간상에서 질점이 만유인력과 일정한 운동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운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체계에서는 물리적 사건을 다룰 때 물체로부터 모든 특성들을 제거하고 질량과 병진 운동만을 고려하며, 거기에 입자 사이의 원격 작용, 곧 빈 공간을 뛰어넘어 직선을 따라 미치는 힘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구도는 입자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입자론적이고, 물질의 기계적 작동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역학적이다.

이 체계의 가장 불만스러운 측면은 빛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었다. 뉴턴은 그의 체계에 따라 빛도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빛이 물체에 흡수될 때 빛 입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더욱이 질량이 있는 물질과 질량이 없는 빛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입자를 가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불만스러웠다. 나중에 이전의 입자들과는 또 다른 성질의 전기 입자가 제3의 종류로 추가되자 논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전기 입자는 질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빛과 달리 서로를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특이한 행동 양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 라플라스 학파는 뉴턴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뉴턴의 중력 이론을 더욱 확장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자연 현상을 특정한 성질만 갖는 질량 없는 입자나 원격 작용에 의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뉴턴주의에 대한 도전은 19세기 초에 빛의 입자 이론에 대립하여 빛의 파동 이론이 부정할 수 없는 관찰 사실을 통해 확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파동 이론은 빛을 입자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매질인 에테르의 진동으로 설명하였다. 그 후 에테르는 고유한 역학적 특성을 갖는 연속체로 상정되었다. 전기와 관련한 입자론적 해석의 폐기는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힘의 전달 방식으로 역선(力線)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역선은 유체의 흐름과 같이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므로, 역선이 존재하는 공간인 장(場)은 연속적인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물리적 실재의 개념은 입자론적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역학적이었다.

패러데이의 독창적인 개념을 수학화할 수 있음을 보인 인물이 맥스웰이다. 그는 공간을 메우는 매질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어 전자기적 영향력이 전파되는지를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당시에 전자기 현상에 대해 알려진 것 대부분을 몇 개의 '맥스웰 방정식'의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맥스웰 방정식은 서로 결합되었을 때, 광속으로 공간을 퍼져 나가는 전자기적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해 줌으로써 빛이 일종의 전자기파라는 발견에 이르게 하였다. 처음에 맥스웰은 이 방정식들을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공간을 메우는 연속체의 역학적 모형들을 동원하였지만, 방정식들만으로 관련된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자 그 모형들을 폐기했다. 이로써 그의 방정식이 표현하는 전자기장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궁극적인 실재가 되었다. 이렇게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역학적 함축을 벗어 버렸고, 연속적 장 개념은 물리적 실재를 기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후 물리학에 근본적인 변혁을 유발하는 토대가 되었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뉴턴의 공간은 비어 있으나 맥스웰의 공간은 매질로 채워져 있다.
② 뉴턴의 빛 입자 개념은 빛의 매질로서의 에테르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③ 뉴턴은 원격 작용에 의해, 패러데이는 역선에 의해 힘이 전달된다고 보았다.
④ 맥스웰에 따르면, 세계는 연속적인 장 속에서 운동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장을 기술했을 뿐 아니라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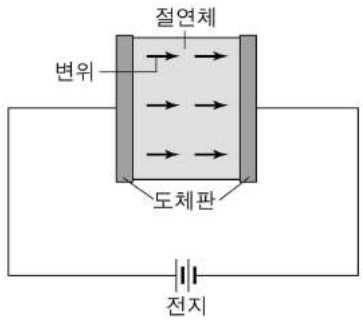
**12.** ㉠의 입장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를 가진 전기 입자들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 잡아당긴다.
②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 공간의 매질이 힘을 받으면서 도선 옆의 나침반이 편향된다.
③ 고온인 물체에서 밀려나온 열 입자인 칼로릭이 저온인 물체로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된다.
④ 달의 무게 중심과 지구의 무게 중심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달의 공전이 일어난다.
⑤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들 사이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 결합과 분해가 결정된다.

**13.** <보기>는 19세기에 저술된 책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전기 현상에 관한 위 글의 관점들을 참고하여 <보기>의 설명을 평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평행판 축전기의 양단에 전압을 걸어 주면 도체판 사이의 절연체는 전기장 속에서 전기력선을 따라 힘을 받아 변위를 일으킨다. 이것은 용수철이 당기는 힘을 받아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같은 힘을 받아도 용수철 상수에 따라 용수철마다 늘어나는 값이 달라지듯이, 절연체의 특성에 따라 축전기 안의 변위의 크기가 달라진다.




① 도체판을 전기 입자를 전달하는 연속적 매질로 간주하였다.
② 절연체의 작용을 연속적 매질의 역학적 모형으로 해석하였다.
③ 절연체를 도체판 사이의 원격 작용을 전달하는 매질로 간주하였다.
④ 전기적 영향력이 빈 공간 속에서 역선을 따라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⑤ 원격 작용인 전기력에 질점의 집합체인 절연체가 반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면역의 메커니즘은 몇몇 중요한 역사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정립되었다. 예컨대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그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까지는 면역의 특성과 메커니즘 이해에 필요한 효과적인 실험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병원성 균주나 인위적으로 면역을 유발하는 실험적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 말 병원성 균주의 발견과 파스퇴르의 면역화 방법의 발견은 면역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파스퇴르는 ㉠ 오랜 기간 배양액 속에 방치되어 병원성이 약화된 조류 콜레라균을 수탉들에 주사하였다. 그러자 닭들은 콜레라 증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죽지 않았으며, 회복한 후에는 병원성이 강한 콜레라균을 주입하여도 질환을 앓지 않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을 보였다. 파스퇴르의 실험은 개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병원균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이 면역 반응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개체 내에 들어온 병원균에 대한 면역에서는 각각의 병원균이 표현하는 특정한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과 그것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링은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같은 병에 대한 개체의 면역은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중화하는 물질, 즉 항체에 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항체와 면역 반응을 그는 각각 항독소와 항독소 면역이라 명명하였고, 항독소가 그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동물로 접종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기 말에는 ㉡ 말의 혈액으로부터 추출한 항디프테리아 혈청을 주사하여 디프테리아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게 되었다.

항체는 독소를 중화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퍼는 ㉢ 약화된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접종하여 면역화된 쥐의 복강에 콜레라균을 주입하면 균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면역성이 없는 쥐의 복강에 콜레라균을 주입할 경우 그 쥐는 감염되어 죽지만, ㉣ 면역화된 쥐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 혈청과 함께 주입하면 콜레라균이 죽는다는 사실도 관찰하였다. 파이퍼의 실험에서 면역 혈청은 콜레라균이 생성한 독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항체와 면역을 각각 용균성(bacteriolytic) 항체와 용균성 면역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험에서 용균성 면역 반응은 체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용균성 면역 반응에 항체와 연관되어 작용하는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르데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보르데는 파이퍼의 실험과 달리 콜레라균에 대한 신선한 면역 혈청은 체외에서도 용균성 면역 반응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 장기간 보존된 혈청 또는 짧은 시간 동안 56℃에 노출된 면역 혈청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만, 이때에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정상 동물의 신선한 혈청을 소량만 첨가하면 면역 반응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보르데는 콜레라균에 대한 용균성 면역 반응에는 두 가지 물질의 조화로운 작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하나는 내열성을 지니고, 면역성을 가진 동물에서 생성되며, 혈청 내에 존재하는 항체이다. 다른 하나는 열이나 장기간 보존에 견디지 못하고, 정상 동물에 이미 존재하며, 면역 반응을 통해 양이 증가하지 않는 물질이다. 후자는 현재 보체(complement)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4.** 위 글의 관찰 및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의 경우에 그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을 것이다.
② 파스퇴르의 실험으로는 수탉이 보인 면역 반응이 항독소 면역인지 용균성 면역인지 알 수 없다.
③ 베링은 디프테리아 항체가 독소를 중화하여 개체가 병에 대한 저항성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④ 파이퍼의 실험에서 면역이 없는 쥐에 면역 혈청과 함께 주입된 균은 주입된 혈청 속의 항체에 의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였다.
⑤ 보르데의 실험에서 56℃에 노출된 혈청은 항체가 파괴되어, 면역 반응을 위해서는 신선한 혈청의 항체가 필요하였다.

**1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1>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설명할 때, <보기 2>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태아적아구증은 $Rh^-$ 혈액형의 엄마가 $Rh^+$ 혈액형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생길 수 있다. 혈구에 Rh 인자가 없는 엄마가 Rh 인자를 가진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의 혈액 속에 Rh 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들어가면 태아의 혈구가 파괴된다.

$Rh^-$ 혈액형의 엄마가 $Rh^+$ 혈액형의 아이를 처음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적아구증이 생기지 않지만, 두 번째 임신한 경우에는 3%, 세 번째 임신한 경우에는 10%의 확률로 질병이 발생한다.

<보기 2>

ㄱ. 엄마의 혈액으로부터 태아로 전해진 항체는 일종의 용균성 면역 반응을 보였다.
ㄴ. 반복된 임신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 증가는 태아의 보체 형성의 증가가 원인이다.
ㄷ. 파스퇴르의 실험에서 사용된 조류 콜레라균처럼, 태아 혈구의 Rh 인자는 엄마에게 항원으로 인식되었다.
ㄹ. $Rh^-$ 혈액형의 엄마가 임신 전에 $Rh^+$ 혈액에 노출이 된 경험이 있다면 첫 번째 임신의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6.**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에서 '수동 면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획득 면역은 면역화 방법에 따라 개체 내의 면역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여 면역을 유발하는 능동 면역과, 다른 개체에서 생성된 항체를 주입하여 면역을 유발하는 수동 면역으로 나뉜다.

① ㉠, ㉡ ② ㉠, ㉢ ③ ㉠, ㉡, ㉣
④ ㉡ ⑤ ㉡, ㉣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격권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 목적 또는 사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은 표현 자유권 내지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면 상품 판매와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다시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적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에 대한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통해 쌓아 온 명성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격권과 동일하게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이나 초상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을 권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퍼블리시티권의 혼합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퍼블리시티권은 생존 중에 성명, 초상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사후에도 존속되는 권리이다.
② 신문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③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④ 퍼블리시티권은 양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격을,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18.** ㉠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은?

① 권리자가 상품을 후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② 소비자들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떤 후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이 불식될 것이다.
③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아지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이용자 수익의 사회 환원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④ 이용자는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권리자가 상품의 질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규제할 것이다.
⑤ 권리자는 이용자의 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의 명성은 우연보다는 본인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인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시간, 자금, 기술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 명성을 얻게 된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ㄴ. 인격권은 성명, 초상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ㄷ.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표현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에 따라서 혹서 또는 저온의 여름이 출현하고, 겨울의 기온과 강설량에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 기후의 특성을 미리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수일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예보의 정확도에 비하여, 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는 장기 기후 예측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장기 기후 변화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수 온도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해양의 열용량은 육지보다 훨씬 크며, 대기의 열용량의 사백 배에 달한다.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북유럽은 같은 위도대에 위치하면서 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 기온이 훨씬 높고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해류가 기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 예측의 대상 기간이 길수록 해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수 표면의 온도인데, 표면 온도를 포함하여 해수의 온도는 해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해류 운동이 매우 불규칙하여 해수 온도의 공간 분포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해류 운동에는 다양한 주기를 가진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자는 100년 이상의 주기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이 서로 간섭하여 상승 혹은 상쇄 효과를 내며 해류 운동의 불규칙성을 낳는다.

해양 수중 온도의 관측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된다. 대기와 달리 해수는 전자기파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수중에서는 전자기파를 통한 원거리 정보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상 관측에서 사용하는 라디오존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직접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 관측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수중 온도 분포 자료가 기후 예측에 매우 중요한데도 실효성이 있는 자료를 기후 예측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양-대기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바람은 해수 온도의 공간 분포 차이로 발생하고, 발생한 바람은 해류를 만들어 해수 온도 분포를 바꾼다. 즉, 바람과 해류는 서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 인과적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계 각지에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는 엘니뇨현상의 경우, 그것을 유발하는 해류와 바람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 엘니뇨현상이 언제 발생할지를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후 시스템이 ⓑ 카오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기 기후 예측을 어렵게 한다. 카오스적 성질이란 초기 조건의 미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초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였던 상태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 가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후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 관측 자료에는 필연적으로 오차가 포함되기에,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보 결과는 사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20.** 위 글로 미루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은?

① 해수의 표면 온도가 높은 해역이 낮은 해역보다 해수의 열 저장량도 많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③ 엘니뇨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된다면 장기 기후 예측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약화된다.
④ 수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의 관측소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된다면 장기 기후 예측의 어려움이 줄어든다.
⑤ 장기 기후 예측은 초기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 계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후의 카오스적 성질에서 오는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21. <보기>의 현상들을 인과 유형에 따라 ⓐ와 ⓑ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열섬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의 기온이 상승하면 냉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서 폐열의 배출이 많아지고, 이 폐열이 도시 온도를 더욱 높인다.

ㄴ. 해상에서 공기의 냉각과 습윤화로 해무가 발생하면 이 해무가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야간 복사 냉각을 증가시키는데, 그 결과 공기의 냉각과 습윤화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해무가 발생한다.

ㄷ. 지구 온난화로 열대 해양의 수증기 증발이 증가하였을 때, 증발한 수증기가 그 지역 기상 조건의 차이에 따라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상공에서 응결되어 열을 방출하면 태풍 발생이 감소한다.

ㄹ.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아마존 우림의 식물들이 기공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우림의 증산량(蒸散量)이 감소하여 강우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림의 면적이 줄어들면 광합성 양의 감소에 따라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 | ⓐ 인과적 상호 작용 | ⓑ 카오스적 성질 |
|---|---|---|
| ① | ㄱ, ㄴ, ㄹ | ㄷ |
| ② | ㄱ, ㄷ | ㄴ, ㄹ |
| ③ | ㄱ, ㄹ | ㄴ, ㄷ |
| ④ | ㄴ | ㄱ, ㄷ, ㄹ |
| ⑤ | ㄴ, ㄷ, ㄹ | ㄱ |

22. <보기>는 지구와 화성의 특성에 대한 정보이다. 위 글과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성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 | 지구 | 화성 |
|---|---|---|
| 지상 기압 | 1,013 hPa | 8 hPa |
| 대기 구성 주성분 기체 | $N_2$ 78%<br>$O_2$ 21% | $CO_2$ 95%<br>$N_2$ 2% |
| 표면 상태 | 토양 32%<br>해수면 68% | 토양 100%<br>해수면 0% |
| 표면 온도 범위 | -60℃ ~ 30℃ | -140℃ ~ 20℃ |
| 자전 주기 | 24.0 시간 | 24.6 시간 |
| 공전 주기 | 1.0 년 | 1.9 년 |
| 공전 궤도면에 대한 자전축의 기울기 | 66.5° | 64.8° |

① 행성 표면의 열적 조건이 장기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보다 클 것이다.

② 동일 위도대에서 지역 간의 연평균 기온 차이는 지구보다 작을 것이다.

③ 대기 온도 관측 자료의 전송에 전자기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장기 기후 예측은 지구보다 어려울 것이다.

⑤ 기온의 일교차는 지구보다 작을 것이다.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를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이야기라고 폭넓게 정의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다룬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는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인은 문자 이전의 사회에서 축적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 즉 신으로부터의 영감에 '사로잡혀' 노래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인 호메로스는 단지 뮤즈 여신들과 아폴론이 준 영감, 즉 기억의 중계자일 따름이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신들린 상태', 즉 집단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결정적 계기는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다. 그 결과 비로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지닌 기억 혹은 세계관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수정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이 바탕 위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술되었다. 역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historia*의 의미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탐구'로 변하게 되는 것도 이 즈음이다.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동시대인이 경험한 최대의 사건, 즉 페르시아 전쟁과 그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여 기록하였다. 그 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역시 전쟁을 주제로 삼은 호메로스와 겨루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집단 기억의 구전으로 남았을 뿐 더 이상 탐구의 여지가 없는 아득한 과거의 일을 소재로 삼았다면, 헤로도토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과 증언을 수집하여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시기의 사건을 다루었다. 9권으로 된 『역사』를 서술하면서 헤로도토스는 1~4권은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5~9권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 할당한다.

헤로도토스는 서술을 위해 기록과 증언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경우 기록과 증언을 불신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대로 열거하며 소개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후세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서술이 잦은 방담으로 교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1~4권의 서술에서 작가는 그리스 이외의 세계를 다루며 부단히 풍토와 풍습, 지리, 전설 등을 거론한다. 이런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구체적 정보를 분석하고 추상하는 사유가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중을 모아 놓고 작품을 구연하던 당시의 관행 탓이기도 했다. 그는 청중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후대인들에게 '모범적인 역사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투키디데스 역시 자신의 세대가 겪은 사건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지리적 정보나 각 민족의 풍속 등에 대한 서술로 종종 논점이 분산되던 헤로도토스와 달리, 그는 정치사와 전쟁사에 오롯이 집중했다. 이는 작품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8권 분량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직접 설명에 제1권을 할애할 뿐, 나머지는 전쟁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개인적,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구연물이 아닌 독서물로 글을 썼으며, 청중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서술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기록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만을 정보로 간주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 인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선별하고, 상충하는 정보들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독자에게 제공했다. 즉 그는 과거사(過去事)와 그에 대한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인식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책의 서문과 첫머리에서만 잠시 1인칭으로 등장할 뿐, 그 후로는 텍스트 사이로 모습을 감춘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텍스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그 박진감의 효과 때문에 독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이는 화자의 권위에 동의하게 되고, 차츰 그 동의는 습성화된다.

이후의 역사학은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보이며 논점이 집중되어 있는 투키디데스의 서술 방법론을 본받았다. 투키디데스에 대한 후세 역사가들의 호의는 ㉠ "헤로도토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를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라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베르낭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을 배제한다.
② *historia*의 의미가 변화해 간 것은 현장 확인 및 증언 수집과 관련이 있다.
③ 역사 서술 주체로서의 개인은 다른 문화권의 존재를 인식할 때 나타난다.
④ 호메로스 서사시는 공유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⑤ 집단 기억의 서술로서의 서사시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24.** ㉠에서 '유혹'을 느끼는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목격자의 증언 수집
ㄴ. 작품 내용의 집중성
ㄷ. 정보의 비판적 제어
ㄹ. 당대사 서술의 창안
ㅁ. 명료한 분석적 서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5.** <보기>는 두 역사가의 작품 기획 의도이다. 위 글의 내용과 연관시켜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가 탐구한 바를 보여 준다. 일어난 일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뇌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스인과 이민족이 보여 준 위대하고 경이로운 행적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 헤로도토스 -

아마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내 작품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므로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작품이 유익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 역사는 한 번의 구연물이 아니라 영대(永代)의 재산이다.

- 투키디데스 -

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배경과 원인 설명에 사용했다.
② 헤로도토스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한 것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③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독자층을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해 교훈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상정했다.
④ 투키디데스는 '전설'이나 '구연물'이라는 말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암시하며 자신의 작품이 그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모두 역사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므로 중요한 사건은 탐구해서 남겨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26~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대량 소비 풍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 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인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 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 FRB는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더라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불태화(sterilization) :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

**26.** 위 글로부터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7.**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28.**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③ FRB의 금융 긴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29~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커진다.

A 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 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외면당하면, B 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 기업이 B 기업과는 차별화된 제 가격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 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분리 균형 상태와 혼합 균형 상태는 경제 주체의 전략, 시장의 규모, 정보 비대칭의 정도, 시장 참가자의 신호와 선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유지되거나 소멸한다. 이를테면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 혼합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9.**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①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
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시장 균형의 형태
③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의 생성 과정
④ 정보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손익 변화

**30.**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비자 협회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비싸게 팔린다.
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ㄹ. 낯선 곳에 가면 현지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상점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ㅁ.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업무 능력이 낮은 지원자는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봐 지원하기를 꺼린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31.** 위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기>의 시장이 도달할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어떤 상품 시장의 두 기업 '갑'과 '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기업은 이 표의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 기업도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기업이 신호 발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고가격을, 신호 자제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저가격을 책정한다. 표에는 두 기업의 선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순이익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각 셀의 두 수 중 처음 것은 갑, 두 번째 것은 을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경우에 갑은 5, 을은 10의 순이익을 얻는다.

| | | 을의 전략 | |
|---|---|---|---|
| | | 신호 발송 | 신호 자제 |
| 갑의 전략 | 신호 발송 | (5, 10) | (6, 8) |
| | 신호 자제 | (7, 8) | (7, 7) |

① 갑과 을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혼합 균형 상태
② 갑과 을 모두 신호를 자제하는 혼합 균형 상태
③ 갑은 신호를 발송하고 을은 신호를 자제하는 분리 균형 상태
④ 갑은 신호를 자제하고 을은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 균형 상태
⑤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제가 책문을 내려 물었다.

삼대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어디에 있는가?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왜 일어나는가? 사람의 성질과 수명의 실상을 보면, 혹은 어질고 혹은 비루하며, 혹은 장수하고 혹은 요절하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 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

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지나간 사례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도리를 잃어 패망에 가깝게 될 때에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면 또 괴이한 현상을 내보여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에야 손상과 패망이 이르게 합니다. 하늘은 어진 마음으로 군주를 사랑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리를 잃은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니, 우리가 할 일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도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덕은 날로 일어나고 공적이 크게 쌓일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으로 가는 길로서 인의예악(仁義禮樂)은 모두 그 도구가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치란과 흥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제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서경』에서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들어오고, 불이 일어 대왕의 지붕으로 깃들어 까마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서(祥瑞)를 보고 주공이 "보답이로다! 보답이로다!" 하셨고, 공자는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방탕과 나태로 쇠퇴해진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못하여 사악한 기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아래 쌓이니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생겨 상하가 조화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양이 뒤틀리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명(命)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요, 성(性)이란 생명체의 본바탕이라고 신은 들었습니다. 수명의 장단, 성질의 어짊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이 그릇을 빚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만들듯이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순 임금께서 덕을 베풀자 백성들은 어질게 되고 장수했으며, 걸·주 임금이 폭정을 행하자 백성들은 비루해지고 요절했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글을 살펴 왕도의 시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정(正)에 있었습니다. '春王正月'이라 하여, '정'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고, '왕'은 '봄[春]'의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위로는 하늘이 행하는 바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바르게 함으로써 왕도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

**32.** 무제의 질문에 대한 동중서의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악으로써 다스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
②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나타난다.
③ 제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는 하늘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
④ 절후(節候)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면 제왕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을 본받아 정월을 제정하듯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⑤ 사람의 성질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왕은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33.** 동중서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며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
② 옛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홀연히 새것이 된다. 선왕의 예교(禮敎)는 시대의 용도에 따른 것이니, 시대가 지났어도 폐기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요괴가 된다.
③ 사물이나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것을 피하고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각기 서로 끌리어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다.
④ 자연계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한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물리지 않으며,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 하여 광야를 거두지 않는다.
⑤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으니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천지는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짐승은 풀을 뜯고, 사람을 위해 짐승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다.

**34.** 위 글의 맥락에서 ㉠을 이해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② 온 백성이 고루 제왕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③ 제왕의 덕치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정치 운영에서 제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왕과 백성의 자질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의 기원은 무엇인가. 예술은 번식과 생존에 선택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이 처음에 주목하였던 것은 성 선택 현상이었다. 동물이 생존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배우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아름답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꾸미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번식을 위해서 적절한 짝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다를 게 없다. 남성은 자손을 낳아 길러 줄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여성은 임신, 수유, 양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구애 전략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성실하게 보이려 하고, 여성은 자신을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예술과 연관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구애 전략이다. 이는 여성이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는 일로부터 예술이 발생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구애를 위한 여성의 화장, 장식, 치장 등의 소산물이다. 예컨대 카밀라 파워 ⓐ 같은 이론가는 거의 모든 원시 부족의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색의 보디 페인팅이 여성의 임신 능력을 상징하는 생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 관점은 예술의 역사에서 어떻게 남성 예술가가 등장하였고, 심지어 여성 예술가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차별로 인해 여성 예술가의 기근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남성 예술가가 여성 예술가보다 많은 이유는 설명해 주어도 남성 예술가의 출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남성 예술가의 출현과 번성은 남성에게도 예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여성의 구애 전략이라는 모델로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번식을 위한 예술'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예술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오프레이 밀러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구애 경쟁이 있었고 이것이 예술을 출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보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이 원시 부족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 난점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화심리학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성실한 남성이다. 그런데 맹아적 예술 행위인 보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술의 기원을 성 선택으로 좁히지 않고 예술이 인간의 생존 전략에 부여하는 차별적 이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원시 예술에서 흔히 보이는 기하학적 문양은 거칠고 위험한 자연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적 표현이며, 화장이나 장식은 거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예술적 기술이다. 예술 행위를 통해 인간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연을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생존의 기술은 아니지만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 <보기>의 관점에서 예술의 기원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비판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예술 작품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술 작품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가능한 듯이 보인다. 아름다운 형식이다. 각각의 작품 속에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선들과 색채들, 특정한 형태들과 형태들의 관계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일체의 관심과 이익에서 벗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① 원시 예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와는 다른 현대 예술의 특징을 도외시하였다.
② 예술이 실용적 목적을 벗어난 순수한 형식의 구현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③ 걸작과 졸작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④ 예술이 아름다움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을 보지 못하였다.
⑤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36.** '번식을 위한 예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성의 구애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이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② 남녀 사이의 맹아적 예술 행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예술이 인간의 보편적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③ 여러 동물의 예에서 보이듯이, 경쟁에서 이긴 남성들이 여성 집단을 차지할 뿐 짝짓기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없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④ 화장이나 보디 페인팅 같은 신체의 장식이 대개의 원시 사회에서 구애 행동의 일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종교적 제의의 일부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⑤ 원시 예술을 발전시켰던 시기의 경제·사회 체계에서는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남녀의 구애 행동이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37.** <보기>의 사전 뜻풀이 중, ⓐ를 설명한 항목은?

<보 기>

**같다**[갇따] 〔같아, 같으니〕 1【…과】 ((…과' 성분은 주로 '과'가 생략된 단독형으로 쓰인다)) 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백옥 같은 피부. ②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여행할 때엔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2【선행 명사는 단독형으로만 쓰인다】 ① ((같으면' 꼴로 쓰여)) '…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같으면 남녀가 한자리에 앉는 건 상상도 못 한다. ② ((같은' 꼴로 동일 명사 사이에 쓰여)) '기준이 될 만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③ ((같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나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욕심 같아서는 모두 사 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

① 1 – ①　② 1 – ②　③ 2 – ①
④ 2 – ②　⑤ 2 – ③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세 가지 도덕적 상태로 '악덕', '짐승 같음'과 더불어 아크라시아(akrasia)라고 불리는 '자제력 없음'을 든다. 통상 자제력 없음은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에 의하면 모든 악행은 무지의 탓일 뿐이다. 그러니 ㉠ 통상의 의미에서의 자제력 없음이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서 보면 성립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실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할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고 본다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를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경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통제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압한 듯이 보인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모욕을 당했음을 이성이 알려 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감정이 이끌어 가서 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이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보다 더 부끄러운 이유는 이성의 역할이 훨씬 더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크라시아는, '악덕' 중의 하나로 아콜라시아(akolasia)라고 불리는 '무절제(방종)'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크라시아와 아콜라시아는 육체적 욕구와 쾌락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격정, 명예, 승리 등 육체적인 쾌락이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아크라시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라시아가 관련되는 대상의 영역이 더 넓다.

대상의 영역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 그것도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쾌락 자체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무릇 이런 사람은 뉘우침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뉘우침이 없는 것은 확고한 이성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확고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제력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알면서도 자신의 앎과 다르게 실천한다고 하는 경우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만큼 욕구와 분노에 지배당하지만, 그 쾌락을 무한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쉽게 설득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보다는 낫고, 또 무조건 나쁘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가 당초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8.**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아크라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이 감정에 양보해야 한다.
② 아콜라시아의 촉발에 관련되는 대상은 아크라시아의 경우보다 다양하다.
③ 아크라시아의 경우에 겪는 이성과 욕구의 갈등이 아콜라시아의 경우에는 없다.
④ 아크라시아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 전에 내린 이성적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⑤ 아콜라시아 상태에서는 이성적 선택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39.** 아콜라시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험생 A군은 컴퓨터 게임만 시작하면 날밤을 새우는데, PC방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PC방에 들어간다.
② 속도광 B씨는 질주할 때 느끼는 스릴을 사랑하는데, 스피드에 대한 그의 멈추지 않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③ 자신의 패션 감각이 남보다 낫다는 평판에 자부심이 대단한 C군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지출한다.
④ D씨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해마다 연초에 금연을 시도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한 지가 벌써 십 년이다.
⑤ 국가 대표 선수 E군은 국위 선양을 위해 가까운 친지의 장례식 참석도 포기한 채 매일 연습에 매진한다.

**40.** ㉠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콜라시아의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② 악행은 결국 행위자 자신에게도 나쁘다는 것을 함축한다.
③ 인간이 이성적인 한 나쁜 것을 원할 수는 없음을 전제한 진술이다.
④ 앎은 좋음이요, 무지는 나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견해이다.
⑤ 아크라시아는 '둥근 사각형'처럼 일종의 모순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1교시

# 언어추론 정답표

[공통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② | 11 | ④ | 21 | ① | 31 | ④ |
| 2 | ③ | 12 | ② | 22 | ② | 32 | ⑤ |
| 3 | ① | 13 | ② | 23 | ① | 33 | ③ |
| 4 | ① | 14 | ⑤ | 24 | ④ | 34 | ① |
| 5 | ① | 15 | ⑤ | 25 | ⑤ | 35 | ② |
| 6 | ④ | 16 | ⑤ | 26 | ① | 36 | ① |
| 7 | ③ | 17 | ③ | 27 | ⑤ | 37 | ② |
| 8 | ④ | 18 | ① | 28 | ③ | 38 | ③ |
| 9 | ③ | 19 | ⑤ | 29 | ② | 39 | ② |
| 10 | ⑤ | 20 | ③ | 30 | ④ | 40 | ④ |

2009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은 질병·치료 관련어들의 묶음이다.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때, 의미상 이질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보 기>

'고치다, 교정하다, 다스리다, 뜨다'는 [질병·치료] 관련어 중에 [치료 행위]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끼다 동 | 결리다 동 | 따끔따끔 부 | 가라앉다 동 | 병간호 명 |
| 따다 동 | 쑤시다 동 | 새큰새큰 부 | 내리다 동 | 병구완 명 |
| 트다 동 | 아리다 형 | 옥신옥신 부 | 솔다 동 | 병구원 명 |
| 헐다 동 | 자리다 형 | 저릿저릿 부 | 아물다 동 | 병시중 명 |

**2.**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버 지 :** 엄마 어디 가셨니?
**아 들 :**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 아프셔서 모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아 버 지 :** 젊으셨을 때 전쟁에서 다치셨단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고생이시구나.
**아 들 :** 좀 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요. 집으로 오는 버스를 ㉡ 타고 있는데, 금방 도착할 거라고 하셨어요. 참, 심하지는 않으시다는 말씀도 ㉢ 계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장)
**아 들 :** 할아버지, 조금 전에 아버지 ㉣ 퇴근했어요.
**아 버 지 :** (안방에서 나오며)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 :** 괜찮으니, ㉤ 너무들 걱정 마라.

① ㉠의 '아프다'의 주어가 '할아버지께서'가 아니라 '허리가'이므로 '아프셔서'를 '아파서'로 고쳐야 한다.
② ㉡의 '타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이라는 의미 또는 완료된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
③ ㉢과 관련하여, '어른의 말씀이 있다.'에서 '있다'의 높임 표현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④ ㉣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인 '퇴근하셨어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한 것이다.
⑤ ㉤에서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들'을 '걱정' 뒤에 붙여도 문장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3.** <보기> 안의 '예'로 추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손, 발, 귀, 코, 눈, 입, 어깨' 등의 신체어는 다른 말과 어울려 관용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신체어를 포함한 관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 그 사람하고는 발이 맞아 무슨 일이든 척척 진행된다.
(⇠ 손이 맞아)
항상 돈을 흥청망청 쓰는 저 집은 돈이 손에 걸리나 보다.
(⇠ 발에 채나)

① 사건이 탄로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을 맞춰야 해.(⇠ 코를 맞대야)
② 그는 아랫사람에게도 어깨를 낮출 줄 아는 인격자다.(⇠ 귀를 줄)
③ 너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해 보아라.(⇠ 눈을 돌리고)
④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코가 빠져서 돌아왔다.(⇠ 어깨가 처져서)
⑤ 설마 그가 입을 씻고 모른 체하지는 않겠지.(⇠ 귀를 씻고)

**4.**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소화관 내벽의 점막은 소화된 음식물의 흡수와 내벽 안쪽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구강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질환이 바로 충치와 풍치이다.
③ 운동은 병균을 막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며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④ 순환기계의 기능은 세포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 등을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설 기관으로 운반한다.
⑤ 원시인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열기에 노출시켰으며 해당 부위를 누르는 압박법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퀴비에, 조프루아, 라마르크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물학자들이다. 이들의 이론이 가진 공통점은 '조직화(organ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직화는 당시 생물 이론에서 주목하던 구조, 기능, 환경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와 기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달리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주장한 생물 이론도 달라졌다.

퀴비에는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보다 기능을 중시했다.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으며, 각 기관의 기능은 창조 당시에 부여되었다고 믿었다. 그 기능에 따라 각 기관의 구조가 결정되고 기관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다. 퀴비에는 이를 '부분들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생물체가 독립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며, 부분은 전체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통합성으로 인해 생물체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변화가 발생하면 몸 전체가 치명적 손상을 입으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전의 생물학자들은 어떤 생물이라도 부분들의 무작위적 집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퀴비에는 통합적 전체로서의 생물이 환경이 요구하는 생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물의 경우 그 기능을 중심으로 네 가지 제한된 유형만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네 가지 유형은 척추, 연체, 체절, 방사형 동물 문으로, 퀴비에는 이들을 바탕으로 불연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본 체계를 세우고 분류의 기초로 삼았다.

반면, 조프루아는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기능보다는 구조를 중시했다. 그는 생물이 가장 하등한 것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일 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존재의 연쇄'를 믿었으며, 이를 '단일 도안(plan)' 개념과 연결시켰다. 그에 따르면, 생물의 구조는 단일 도안에 기초하여 통일성을 갖지만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존재의 연쇄 위에서 조금씩 다르게 연속적으로 배열되고, 이러한 생물의 구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에 따라 환경이 변하면 기능과 외관이 변화함으로써 생물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조프루아는 골격 구조는 같으나 기능과 외관이 다른 기관을 '상동기관'으로 불렀으며, ㉠이의 형성을 자신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퀴비에의 불연속적 분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마르크는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를 중시했으며, 이 면에서 조프루아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화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광범위한 원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라마르크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생명을 설명하고자 했던 당시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체계에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조직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은 세포 등의 '내부조직', 혈액 등의 '내부유체', 전기·자기 등의 '자유유체'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무기물로부터 점진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조직과 유체들은 상호 작용하여 기관을 형성한다. 그에게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물의 질서를 통제해 생물을 형성하는 조직화가 생물을 무생물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생물관에 기초하여 라마르크는 동물, 식물, 광물의 삼분법을 동식물을 합한 생물계와 무기계의 이분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생물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5.** 위 글을 바탕으로 가상의 대화를 꾸몄을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퀴 비 에 :** 조직화는 생물체의 각 부분들이 무작위적 집합을 통해 몸을 구성하는, 생물의 고유한 원리야.
**조프루아 :** 아니야. 조직화는 무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원리야.

② **퀴 비 에 :** 동물의 각 기관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기관의 구조는 기능에 따라 형성되었어.
**라마르크 :** 아니야. 기능보다는 구조가 더 본질적이야.

③ **조프루아 :** 생물의 연속성을 생각해 볼 때 퀴비에 당신의 분류 체계는 자의적이야.
**퀴 비 에 :** 아니야. 나의 분류는 환경이 요구하는 생존 조건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거야.

④ **조프루아 :** 환경이 변하면 생물 종도 변해.
**퀴 비 에 :** 아니야. 환경이 변하면 생물 종은 멸종할 수는 있어도 변화하지는 않아.

⑤ **라마르크 :** 탐사 팀이 지난번 발견한 공룡 다리뼈 몇 개로 전체 골격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퀴 비 에 :** 부분은 전체에 통합되고 전체는 부분에 흔적을 남겨. 그래서 이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어.

**6.** ㉠의 설명에 필요한 조프루아의 논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구조는 환경에 맞게 변한다.
ㄴ. 기능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ㄷ. 환경이 변하면 기능과 외관이 변한다.
ㄹ. 단일 도안에 기초한 구조적 유사성은 항상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위 글에 나타난 세 사람의 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을 중심으로 기관들을 비교하고 이에 기초해 생물 종을 분류한 퀴비에의 방식은 조상 종과의 진화적 계통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현대 생물학의 분류 체계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② 생물체와 무기체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었다는 라마르크의 견해는 생물과 무생물이 동일한 물리·화학의 법칙을 공유한다는 현대 생물학의 개념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③ 연속성과 단일 도안 개념에 근거한 조프루아의 생물 체계는 모든 생물 종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현대 진화론의 공통 조상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④ 조직화 개념에 기초한 라마르크의 생명관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출현한 것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현대 생명 기원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⑤ 조프루아의 구조적 통일성 개념은 모든 생명체가 이중 나선 구조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현대 생물학의 발견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64년 워홀(A. Warhol)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릴로 비누의 종이 포장 상자와 외관상 흡사하게 만든 나무 상자들을 작품으로 전시한다. 이 전시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렸지만, 단토(A. Danto)에게는 이것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브릴로 상자들과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시각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데, 왜 후자만 예술 작품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단토 예술 비평의 출발점이 된다.

워홀, 〈브릴로 상자〉

단토에 의하면 예술 작품과 물리적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은 지각적 식별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에 따르면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일 수 있는 조건은 예술가의 특수한 심적 상태에 그 기원을 둔다. 그렇다고 어떤 예술가가 특정 물리적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람자가 그것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 즉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술가가 그 대상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예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예술 이론과 규약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관람자는 예술가가 제시한 의미를 작품을 통해 읽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작품의 제목이다. 제목은 그 작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거나 암시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해석을 통해 비로소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달라지면 예술 작품도 달라진다. 새로운 해석은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실체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대해 그 작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물리적 실체는 각기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석은 예술가가 의존하는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해석이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토의 성찰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로서의 대상이 가지는 지각적 성질에서 미의 본질을 추구했던 예술의 역사는 워홀 이후 종언을 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회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본질로 삼게 되는데, 단토는 이를 ㉠ '예술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예술의 역사적 변천은 예술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밝혀질 때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예술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본질적인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이 필연적으로 그러해야만 하는 방식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8.**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 대한 단토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술가의 제작 의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이다.
②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③ 예술계가 공유하는 인식의 맥락 속에서 대상을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④ 이 상자들은 만들 당시에 예술가가 가졌던 특수한 심적 상태를 보여 준다.
⑤ 물리적 대상과 예술 작품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9.** <보기>와 단토의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미메시스(Mimesis) 이론은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를 모방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이건 사물이나 풍경의 모습이건 이상적인 원형이 따로 있으며, 그 원형을 최대한 모방하고 재현하여 감상자들에게 원형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는 예술을 진리에 부속된 것,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기는 시각이다.

① <보기>는 원형의 물리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보았고, 단토는 원형에 담겨 있는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보았다.
② <보기>는 예술 작품이 원형의 미를 추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의미에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③ <보기>는 모방의 대상 자체보다 그것의 표현에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모방 대상 자체의 의미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④ <보기>는 원형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단토는 원형을 토대로 하여 작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⑤ <보기>는 예술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10.** 단토의 입장에서 ㉠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의 변화를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술 작품이 갖는 정체성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② 예술은 대상의 미적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통념이 무너진다.
③ 예술가의 해석이 예술 작품의 외관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④ 작품에 대한 해석이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⑤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물리적 대상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운석은 소행성 혹은 다른 행성 등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가 지구 표면에 떨어진 것으로 우주에 관한 주요 정보원이다. 1984년 미국의 탐사대가 남극 지역에서 발견하여 ALH84001(이하 ALH)이라고 명명한 주먹 크기의 운석도 그것의 한 예이다. 여러 해에 걸친 분석 끝에 1996년 NASA는 ㉠ ALH가 화성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속에서 초기 생명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미세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운석이 화성에서 왔다는 증거는 ALH에서 발견된 ⓐ 산소 동위 원소들 간의 구성비였다. 이 구성비는 지구의 암석에서 측정되는 것과는 달랐지만, 화성에서 온 운석으로 알려진 스닉스(SNCs)에서 측정된 것과는 일치했다.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스닉스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화산암으로, 산소 동위 원소 구성비가 지구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물질은 아니다. 소행성은 형성 초기에 급속히 냉각되어 화산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에 화산암 운석을 보낼 수 있는 천체는 표면이 고체인 금성, 화성, 달 정도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 원소로 측정한 결과 스닉스는 약 1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질학적 분석 결과 그 시기까지 달에는 화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화산암이 생성될 수가 없었다. 금성과 화성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계산 결과 어떤 화산 폭발도 이들 행성의 중력권 밖으로 파편을 날려 보낼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커다란 운석의 행성 충돌만이 행성의 파편을 우주로 날려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성은 농밀한 대기와 큰 중력으로 인해 파편 이탈이 쉽지 않으므로 화성이 유력한 후보로 남게 된다. 그런데 스닉스에서 발견된 모(母)행성 대기의 기체 일부가 바이킹 화성 탐사선이 분석한 화성의 대기와 구성 성분이 일치했다. 따라서 스닉스는 화성에서 왔을 것이며, ALH 역시 화성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ALH에서 발견된 ⓑ 이황화철($FeS_2$)도 화성의 운석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이다.

ALH의 기원이 밝혀진 이후 이 운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먼저 루비듐(Rb)과 스트론튬(Sr)을 이용한 방사성 연대 측정을 통해 ALH의 나이가 화성과 비슷한 45억 년임이 판명되었다. ALH가 화성을 언제 떠났는지는 우주 복사선 효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운석이 우주 공간에 머물 때는 태양과 은하로부터 오는 복사선의 영향으로 새로운 동위 원소인 ⓒ 헬륨3, 네온21 등이 생성되는데, 그들의 생성률과 구성비를 측정하면 운석이 우주 공간에 머문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ALH는 1,600만 년을 우주 공간에서 떠돌았다. ALH가 지구에 떨어진 시점은 ALH에 포함된 또 다른 동위 원소인 탄소14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 ALH는 13,000년 전에 남극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LH의 표면에는 갈라진 틈이 있었고, 이 안에서 20㎛～250㎛ 크기의 둥근 ⓓ 탄산염 알갱이들이 발견되었다. 탄산염은 물에 의해 생성되거나 생물체의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생명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 탄산염이 혹시 지구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연대 측정을 해 본 결과 36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었다. 생물체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탄소 화합물인 '여러고리방향족탄화수소(PAH)'도 검출되었다. PAH 역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ALH에서 PAH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안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탄산염 안에서 발견된 ⓔ 자철석 결정도 박테리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철석 입자들이 모여 생성된 것과 그 형태가 흡사했다. 생물체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전자 현미경 분석에서 나왔다. 지구의 박테리아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크기는 매우 작은 25㎚～100㎚ 정도의 미세 구조물들이 탄산염 알갱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 이것을 36억 년 전 화성에 살았던 미생물이 화석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1.** 위 글에서 추측할 수 있는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 연구 | 결과 해석 |
|---|---|---|
| ① | 달에 대한 지질학적 분석 | 스닉스가 달에서 오지 않았다. |
| ② | 금성의 중력과 대기 밀도 측정 | 스닉스가 금성에서 오지 않았다. |
| ③ | 스닉스의 암석 성분 분석 | 스닉스가 소행성에서 오지 않았다. |
| ④ | 스닉스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 구성비 분석 | 스닉스가 지구의 것이 아니다. |
| ⑤ | 스닉스의 형성 연대 측정 | 스닉스가 우주에서 10억 년 동안 떠돌았다. |

**12.** ALH에서 발견된 ⓐ～ⓔ 중, ㉠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의 'ㄱ～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때, ㉡에 대한 반박의 증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ALH를 제외한 화성에서 온 다른 운석에서는 탄산염 알갱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ㄴ. 생명 현상과 무관한 화학 물질 혼합물에서도 50㎚ 정도의 미세 구조물이 생길 수 있다.
ㄷ. 우주 복사선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분자를 파괴하여 생명 현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ㄹ. PAH는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생성된 탄소질 운석에서도 발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가상 국가에 있는 어느 마을의 전범자 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청년 아벨만이 전범자로 몰린다. 해방국(解放國)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그를 풀어 주고 대신 마을 유지들을 체포한다.

작 가 (……) 이걸 보세요.
(작가가 연락관에게 종이를 넘긴다.)
연락관 이게…… 사령관 각하…….
(연락관의 표정이 글을 읽어 가며 묘하게 변한다.)
작 가 기분이 좋죠? 사령관에게 당신의 능력, 우정 뭐 그런 걸 칭찬하고 당신 같은 우수한 연락관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글입니다.
연락관 그래서요?
작 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건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들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진본 밑에 우리 자치위원회의 전원이 서명을 해 발송할 것입니다. 어때요? 문장이 좋죠? 10년 만에 처음 써 본 명문장입니다. 당신은 또 출세를 합니다.
연락관 이런 걸 내가 요구했던가요? 과분한 칭찬에다 말씀대로 훌륭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작 가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 20년의 역사가 담긴 글이니까요. 이것도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발송하는가? 이것은 나와 또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읽어 보세요.
(연락관은 의자에 앉아 글을 읽는다. ㉠ 작가는 일어나 연락관의 표정을 읽으며 제자리걸음을 한다.)
작 가 귀찮겠지만 끝까지 읽으세요.
㉡ (연락관이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흥, 당장 효과가 있군요.
(연락관이 종이를 던진다.)
어떻습니까? 왜 다 읽을 생각이 없습니까?
(연락관이 일어나 뒷짐을 지고 움직인다.)
……기대가 빗나가는데요. 당신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연락관 이런 글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몰라도…… 무서운 글이군. 내가 정신병자에다 폭군에다 복수의 화신에다…… 여기에 온 목적이란 오직 20년 전의 일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흥, 국가 간의 신의를 좀먹고…… 흥…… 식량 배급과 원조 물자를 미끼로…….
작 가 ㉢ 아벨만의 재판을 악용, 지도급 인물을 체포하고…….
연락관 닥쳐…… (작가의 멱살을 쥐고) 쓸모가 없는 놈! 나는 언제든지 너 같은 놈을 죽일 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작가를 밀어 버린다. 작가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역시 이 고장의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글을 믿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작 가 믿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글을 썼으니까요. 설사, 믿지를 않아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해방국의 인종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얻고 귀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약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출세했습니다. 하는 일에 실수가 없었고, 주위에서 잡음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당신을 규탄하는 그 글이 최소한 잡음은 일으킬 겁니다. 뿐인가요? 내 글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쓸데없는 소립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창작을 하지 않는 작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 연락관 당신에 대한 찬사나 고발장을 다 읽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발송될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소. 한쪽 글은 당신의 출세를 촉진시키고 또 한쪽은 당신 주위에 잡음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흥, 어떻습니까? 참 비열한 수단이죠? 그렇지만……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열한 수단이 척척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좋고 너 좋고. 아직도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수단을 쓰지만 당신이야 도도한 태도로 양자 간을 취사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충격을 주었으니까. 무서운 집념도 가상할 만하지만 그러나 집념이 지나치게 가열되면 유치한 결과를 내지. 당신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유치합니다. 원수를 때려잡고, 아버지의 새로운 전기를 써서 효자가 되는 유치한 결과를 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이 발송됩니다.
(㉣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작가가 술병을 든다.)
이런! 술이 다 떨어졌군! 따라서 나의 용기도 시들겠군. ……20년 전의 그 땅을 도로 찾고 싶습니까? 지금은 아까, 그 미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 같으면 …… 고향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했을 겁니다.
연락관 ㉤ 그 미망인은 젊더군.
작 가 죽은 남편과 한 30년의 연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지. 당신을 싫어할 테니까. 글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면 몰라도…….
(읍장 일행이 나온다.)
읍 장 실례가 안 됩니까?
작 가 우리의 우정에 찬 대화는 다 끝났습니다.
읍 장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관 나한테요?
읍 장 네, 우리 넷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옛날 사건 때문인데…… 그때 그 일은 누가 악의에 차서 한 일도 아니고…… 뭐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물결 때문에 다 말려든 것이지만…… 그 일 때문에 연락관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우리 사과합니다.
(교장이 머리를 끄덕인다.)
우리야 괜찮지만…… 가능하면 이 여자 분들이라도…….
연락관 좋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석방합니다.
(모두 놀란다.)

- 이근삼, 아벨만의 재판 -

14.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상 국가는 해방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② '연락관'은 해방국으로 귀화한 후 자기의 고향에 부임하였다.
③ '작가'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10년 전에 창작 활동을 포기하였다.
④ '연락관'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 유지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⑤ '미망인'의 남편은 20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관'의 부임 이후에 죽임을 당했다.

15. 위 글을 연극으로 상연할 때,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작가'의 행동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해.
② ㉡: '연락관'은 글 내용에 대한 불쾌감과 '작가'의 저의를 의심하는 심리를 표현해야 해.
③ ㉢: '작가'는 차분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자기의 의도대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드러내야 해.
④ ㉣: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뒤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이 표현되어야 해.
⑤ ㉤: '미망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더불어 '연락관'의 심경 변화가 어조를 통해 나타나야 해.

1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특정인의 대사를 통해 사건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ㄴ. 현재의 장면과 과거의 장면을 교차시키며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ㄷ. 현실 정치 세계의 냉정함과 비열함을 우의적(寓意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등장인물 내면의 움직임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사람이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에 관해 물었다.

"그분은 ㉠ 도(道)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넓고 남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晉) 지방에 살았는데, 그의 덕(德)에 감화되어 선량하게 된 이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대신이 이를 듣고 천자께 추천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영예로운 일로 여겼으나 홀로 기쁜 기색이 없었고, 벼슬자리에 5년이나 있었지만 그 덕을 보면 초야에 있던 때와 같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부귀 때문에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 "『역경』에 이르기를 '덕이 항상(恒常)되면 바르나 남자로서는 흉할 것이다.' 하였으니, 양성을 어찌 도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경』 고괘(蠱卦)에서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일을 고상히 지킨다.' 하였고, 건괘(蹇卦)에서 말하기를 '임금의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하니 자신을 위한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신하는 때가 같지 않고, 그에 따라 덕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성이 벼슬에 나아간 지 꽤 지나 정치에 관해 익히 알고 있으며, 천자의 대우도 융숭합니다. 그런데도 정치의 득실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하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자 하니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책을 다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 했는데, 지금 그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가 녹봉을 위해 벼슬을 맡은 것입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벼슬은 가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높은 자리는 사양하고 낮은 벼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나) "아닙니다. 그는 윗사람을 비방하기 싫어하고, 신하로서 임금의 잘못을 들추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저어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간언(諫言)도 하고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좋은 생각이나 꾀가 있으면 곧 들어가 안에서 임금께 고하고, 그대는 밖에서 이에 따르면서 그 생각과 꾀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다) "만약 그의 마음 씀이 그렇다면 이야말로 미혹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대신과 재상들이 할 일이지, 양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간관(諫官)이라면 마땅히 그의 직무를 받들어 사방의 사람들과 후손들로 하여금 조정에 곧은 말을 하는 강직한 신하가 있어, 천자께서는 함부로 상(賞)을 내리시는 일이 없고, 간언을 물 흐르듯이 따르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숨어 사는 선비들이 이를 듣고 궁궐 아래로 나아가 의론을 펼치고자 할 것이니, 임금의 명성이 요순(堯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양성의 마음이 어찌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같이 하면 임금을 그 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양성은 명성이 나기를 구하지 않았으되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임용을 원하지 않았으되 임금께서 그를 썼습니다. 부득이 벼슬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의 도리를 변함없이 지켜 왔거늘, 어찌 그대는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성인이나 현명한 선비들은 알려지거나 쓰이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를 깨치면 홀로 간수하지 않고 반드시 온 천하를 건지고자 쉬지 않고 노력하여, 죽은 뒤에나 그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는 스스로 편안히 지내는 즐거움을 알면서도,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곤궁함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라)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군자는 남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곧다고 여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논의는 곧기는 하나, 덕을 손상시키며 말을 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다해 남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는 것은 옛날 국무자(國武子)가 제(齊)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까닭이니, 당신도 그 일을 들으셨지요?"

(마) 이에 내가 대답하였다.

"군자는 지위에 있으면 죽음으로 관직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고, 지위를 얻지 못하면 말을 다듬어 도를 밝힐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올바른 도를 밝히려는 것이지 곧은 체하면서 남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자는 선인(善人)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어지러운 나라에서 할 말을 다하기를 좋아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양성은 비록 도를 터득한 선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한유, 쟁신론(爭臣論) -

**17.** ㉠의 자세에 대해 '어떤 사람'과 '내'가 공유하는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덕행의 방식을 바꾼다.
ㄴ. 스스로 곧은 체하면서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ㄷ. 벼슬자리에 있더라도 명성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ㄹ. 직책을 수행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하고, 그럴 의지가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가)~(마)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고전(古典)이 언급하는 바와 대상 인물의 처신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상대방을 비판한다.
② (나)는 상대방이 대상 인물의 처신을 오인했음을 지적하고, 고전의 언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들어 재반박한다.
④ (라)는 상대방의 말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경고한다.
⑤ (마)는 상대방이 활용한 고사를 보충 해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반박한다.

**19.** 신하의 행태에 관한 다음 진술 중 '내'가 바라본 양성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세상사에 초연한 듯 임금의 공과를 보고서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고상한 덕만을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게을리 한다.
② 나라만을 생각하여 자기의 집은 잊어버리고, 용감히 나서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만 충성을 다한다.
③ 고금의 학문에 정통하고 언변에도 능하지만, 조정의 일에는 어두워 그 배운 바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④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감싸 주어 신망이 높으나, 기회를 보아 전원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기를 원한다.
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며, 어질고 신의가 있어 뭇 백성이 그를 어버이처럼 따른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개의 진술이 동시에 옳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두 진술은 서로 대립한다고 말한다. 그 진술들이 대립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순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 관계'이다. 모순 관계는 어느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은 그를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반대 관계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는 있는 관계이다.

이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문제가 한 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를 믿는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때,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때 나는 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유 의지가 없다면 나는 로봇과 다름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정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결정론이 옳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앞선 원인의 결과이므로 사람들은 자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신이나 운명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결정론에서는 현재 상태가 달라지면 미래도 바뀐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결정론은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결정론은 그런 행동은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유 의지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사건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그것은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자유 의지가 없다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자유 의지는 결정론과 비결정론 어느 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 중 하나는 결정론과 비결정론 이외에 제3의 길이 있어서 그리로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한다.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주장이므로 두 이론 중 하나는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 결정론을 '엄격한 결정론'과 '온건한 결정론'으로 구분하면 된다. 엄격한 결정론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온건한 결정론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행동에 원인이 있으면 그 행동에는 자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이 있다고 해서 꼭 자유 의지가 없다고 해야 할까? 그 원인이 외부의 강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자유 의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인이 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자유 의지는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우에 행동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온건한 결정론자들은 자유 의지 주장과 모순 관계인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 강제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자유 의지와 결정론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비결정론자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 비결정론자는 자유 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엄격한 결정론자는 강제에 의한 행동에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④ 온건한 결정론자는 원인이 있다는 것과 강제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⑤ 온건한 결정론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 ㉠의 추론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가) 결정론이 성립하거나 비결정론이 성립한다.
(나) 결정론이 성립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다) 비결정론이 성립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라) 따라서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① <보기>의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과 반대 관계가 되는 이론을 대입하면 딜레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가 필연적으로 옳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온건한 결정론자들은 (나)의 진술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여 딜레마에서 빠져나온다.
④ 진술 (가), (나), (다)가 옳다면 (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⑤ (라)가 도출되는 것은 진술 (나)와 (다)가 서로 반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22.** 온건한 결정론자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어디까지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강제에 의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데, 당신은 자유 의지와 강제를 구별한다.
②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노력을 하든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 의지가 없게 된다.
③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한 행동도 나쁜 결과에 대해 위협을 느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행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자유 의지에 의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유 의지가 있다는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다.
⑤ 행동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의 연쇄를 내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종합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모여서 본부 김 실장의 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순규 선생은 그 연배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편에 속하고 있었다. 그는 정실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촌지에 의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후배에게 기술 전수도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박힌 터였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인물은 중심 세력에 들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 인물이 이제 와서 책임자 급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백욱현은 과장의 심정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긴 했지만 과장이 너무 오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일이 즐겁지 않음은 사실이었다. 그는 과장의 잔을 채웠다.

"많이 마셨어. 조금만……."

과장은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잔을 입에 대는 시늉을 하고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 친구가 되어서는 말이야…… 대외적으로도 낯이 서질 않아. 더욱이 자릴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한다면 후배들한테도 좋은 관례가 되지 못하는 게야."

"그렇습니다. 저는 본부에다 편지를 내야겠습니다."

윤기호 선생은 한순규 선생을 책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연판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욱현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김 실장임을 잊지 않은 때문이었으리라. 백욱현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학문에의 전념 그 외의 것은 한사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싶은 터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여론 조성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야."

윤기호 선생이 말했다. 어차피 이곳의 동태가 모조리 그쪽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형편인 만큼. 덧붙였다.

"그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역반응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백욱현의 말이었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

"사태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쪽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겠지."

윤기호 선생은 두 눈을 부릅떴다. 홍진기 주임의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실소가 떠올랐다. 내 원수 남이 갚아 준다.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었다. 그때 박 실장이 그를 향해 눈을 찡긋했는데 홍진기 주임은 못 본 척했다. 윤기호 선생의 분개가 어느 면에서는 고소하면서도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의 끓는 냄비 속 같던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어떤 요구 사항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본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떤 변화도 용납지 않는다는 본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검사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질 않았던가. 무엇보다 그는 A, B, C 세 파트 중 C파트의 주임으로 격하된 것이었다. A, B의 주임은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맡았었다. 그러면서 4년제 출신들은 그들끼리 원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A, B파트의 주임들은 주임이 되기 전 누구보다도 검사실 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했던 터였지만 주임이 되면서 태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중략)

"윤 선생 말이 옳은 게야."

적어도 우리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문제만큼은 이쪽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과장의 말이었다. 상징적인 의미. 얼마 동안 백욱현은 그 부분에 공감했다. 집단과 집단이 부딪칠 때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됨은 자명한 일일 터였다. 그러나 김 실장 측은 그와 같은 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곳의 원로들은 별반 신뢰하지 않는 터인 듯했다. 행정적인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백욱현은 크게 부정할 수도 없질 않았던가. 그가 아는 대부분의 원로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 매진할 수 없는 입장들 때문인지 행정 직함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승되는 한 학문적인 발전은 더딜 게 자명한 일이었다. 백욱현은 그런데 본업에 전념하고 싶었으므로 행정직을 대단하게 여기는 듯한 발상을 무너뜨리고 싶기도 한 터였다. 또한 이와 같이 둘러앉아 열을 내어 분개하고 목청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본부의 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매진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가 되든 그런 것은 다 허울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과장의 눈에 배반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의 복합적인 감정이 떠올랐다 스러졌다. 그는 문득 소문이라는 것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형편없이 젊은 축들을 부상시킨다. ㉠ 젊은 축들은 난데없이 떨어져 내린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젊지 않은 젊음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앙금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백욱현을 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진 과장과 윤기호 선생의 시선이 저절로 부딪쳤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

**2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사 문제에서 발단한 화제가 직장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② 사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자기중심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③ 사건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차적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④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초점이 되는 등장인물이 교체되고 있다.
⑤ 등장인물의 행동보다 그들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2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윤기호와 과장이 시선을 부딪치는 것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순규를 비난하는 과장에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백욱현이 한순규의 승진을 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로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본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본부와의 마찰을 회피하고 싶은 백욱현의 속내를 알 수 있다.
④ 홍진기가 흘리는 실소를 통해, 백욱현에 대한 윤기호의 비판이 홍진기와 윤기호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과장에 동의하지 않는 백욱현의 행동과 그를 껄끄럽게 대하는 과장의 태도를 통해, 둘의 오랜 적대 관계를 알 수 있다.

**25.** ㉠에 근거하여 '과장'이 '젊은 축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과 시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바람 소리 한 가닥
모래 위에 떨어져 있다
그걸 주워서 만져 보고
귀에도 대 본다

②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 간다는 것입니다

③ 이따금
바람은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④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⑤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년부터 미국에서 수행된 '여성건강연구'는 50세에서 79세의 여성 16,608명을 대상으로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PHT)'의 질병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대조군 임상 연구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 중 8,506명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복합 제제를 투여하고, 8,102명에게는 위약(僞藥)을 투여하였다. 피험자들은 두 군에 무작위로 배치되었으며, 눈가림법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약을 투여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연구는 2002년 5월, 원래 예정했던 추적 관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여성들에게서 이 요법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위약 투여군과 비교할 때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26%,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29%,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41%, 폐혈전색전증(혈전으로 인해 폐혈관이 막히는 병)의 위험성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자궁내막암의 발생 빈도는 호르몬 대체 요법군과 위약 투여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위약 투여군과 비교할 때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 엉덩이뼈 골절의 위험성이 33%, 대장암의 위험성이 37%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 해로운 사건이 15% 더 많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 대체 요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10,000명의 여성이 있다면, 받지 않는 여성에 비해 연간 유방암은 8명, 심장 혈관 질환은 7명, 뇌혈관 질환은 8명, 폐혈전색전증은 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대장암은 6명, 엉덩이뼈 골절은 5명 정도가 각각 감소한다.

이 '여성건강연구' 결과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여성에 대한 이전의 일반적인 관찰 연구 결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인 관찰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은 받지 않는 여성보다 체중이 덜 나가며, 혈압이 낮고 지질 대사도 더 양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건강한 소비자 효과(healthy user effect)'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다른 변수로 인해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의사들 또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유방암 위험 요소가 있는 여성에게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 때문에 관찰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숫자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잘 먹는, 즉 순응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한다. '순응도 바이어스(compliance bias)'라고 하는 이런 현상 역시 일반적인 관찰 연구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여성건강연구'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경구 투여(經口投與)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복합 투여 방식이 가장 널리 처방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피험자의 월경이 재개되지 않아서 눈가림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프로게스틴은 지질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긍정적인 작용을 저해하고, 또한 유방암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 제제를 경구 투여하면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

을 경구 투여하면 간에서 일차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혈액 응고 인자의 생산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6.**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호르몬 대체 요법은 암에 걸린 여성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었을 것이다.
② '여성건강연구'에는 '건강한 소비자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여성건강연구'에서는 위약을 투여함으로써 피험자의 순응도를 높였을 것이다.
④ '여성건강연구'에서 눈가림법을 쓴 것은 피험자의 월경 재개를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⑤ 이전의 일반적 관찰 연구에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7.** <보기>의 연구를 통해 ㉠의 가설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　　)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연구 A :** 에스트로겐을 단독 투여하여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틴'의 복합 투여 결과와 비교한 연구
→ ( ㄱ )에서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더 ( ㄴ ).

**연구 B :**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틴'을 피부 패치를 통해 투여하여 경구 투여 결과와 비교한 연구
→ ( ㄷ )에서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비율이 더 ( ㄹ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복합 투여군 | 높다 | 경구 투여군 | 낮다 |
| ② | 복합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높다 |
| ③ | 단독 투여군 | 높다 | 경구 투여군 | 높다 |
| ④ | 단독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낮다 |
| ⑤ | 단독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높다 |

**28.** 의사인 김 박사에게 55세 여성 박 여사가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여성건강연구'의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김 박사의 상담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박 여사 :**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 박사 :**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약간은 높아지지만 ⓐ 이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대장암 같은 것은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 여사 :** 다른 문제는 없나요?
**김 박사 :** 글쎄요. ⓑ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있다면 이 치료는 안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 뼈가 약하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박 여사 :**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박사 :** 먼저 기본적인 검사를 좀 해 보죠. 그런 다음 이 치료가 박 여사님께 정말 필요한지 따져 봐야겠습니다. ⓓ 지금 보아서는 체중이 좀 나가고, 혈압도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사회적 양극화로 표현되는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 붕괴 문제뿐 아니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산층 위기의 본질을 고찰하려면 먼저 중산층의 범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차원의 계층을 판별하고 주관적 차원의 계층 의식을 측정하여 두 차원 간의 조응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전체 계층 구조 속에서 중산층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계층적 위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와 사회 문화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 지표로는 직업·종사상의 지위, 가구 소득, 자산을 사용하고 사회 문화적 지표로는 교육 연수(年數)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중산층 판별에는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하며, 점수의 합이 3 이상이면 '핵심적 중산층', 2이면 '주변적 중산층', 1 이하이면 '하층'으로 분류한다.

〈중산층 판별 점수표〉

| 측정 지표 | 판별 기준 | 점수 |
|---|---|---|
| 직업·종사상의 지위 | 고용주 및 상층 화이트칼라 | 2 |
| | 소규모 자영업자 및 하층 화이트칼라 | 1 |
| 가구 소득 |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90% 이상 | 1 |
| 자산 | 국민 주택 규모 소유 이상 | 1 |
| 교육 연수 |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 1 |

㉠ 이러한 계층 측정 방식은 계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중산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측정 지표로 선정된 판별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측정 시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을 판별하는 지표로는 계층 귀속 의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중산층 귀속 의식'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는 집단과 동일시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측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계층 구조 속에서 개인의 주관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층 귀속 의식'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층에서부터 상층에 이르는 계층의 단계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범주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 상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이 '중간층'으로 간주된다.

㉡ 귀속 의식을 이용한 계층 측정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객관적 차원의 계층 판별이 보여 주지 못하는 상대적 측면을 포착하며, 중간층 또는 중산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변화하는 추세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계층을 인식하는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객관적 차원의 측정과 주관적 차원의 측정은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이들 두 차원의 측정을 결합하면 객관적 차원의 계층과 주관적 차원의 계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괴리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관적 차원의 측정에서도 중산층 귀속 의식과 중간층 귀속 의식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 통상적으로는 후자가 전자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으로 평가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주관적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29.**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판별에 관한 진술로 타당한 것은?

① 중산층으로 판별된 사람의 가구 소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90% 이상이다.
② 고졸 학력이면서 상층 화이트칼라인 사람은 핵심적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없다.
③ 직업·종사상의 지위와 자산은 중산층 판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핵심적 중산층이 될 수 있다.
⑤ 중산층 판별 점수의 합의 최댓값은 6점이다.

**30.**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계층 구조상의 상층을 판별할 수 없다.
② 계층 판별의 단위가 ㉠에서는 가구이지만 ㉡에서는 개인이다.
③ ㉠은 계층의 양극화를 측정하고 ㉡은 계층의 불일치를 측정한다.
④ ㉠에서는 지표의 판별 기준이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에서는 계층을 인식하는 잣대가 모두에게 동일하다.
⑤ ㉠에서는 다수의 지표를 결합하여 단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에서는 단일한 지표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31.**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2006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비율은 핵심적 중산층 약 35%, 주변적 중산층 약 32%로 두 층 모두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주관적 차원의 경우 중간층 귀속 의식과 중산층 귀속 의식은 각각 약 74%와 약 20%로 두 수치 모두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리고 핵심적 중산층의 약 35%, 주변적 중산층의 약 12%, 하층의 약 6%만이 자신을 중산층과 동일시하고 있다.

①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이 증가한 것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② 중간층 귀속 의식에 비해 중산층 귀속 의식이 낮은 것은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판별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③ 중간층 귀속 의식과 중산층 귀속 의식이 이전에 비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보아, 중산층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④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의 과반수가 자신을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괴리 정도가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더 큰 것으로 보아,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계층의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2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형제는 이 도시의 지도자를 결정하기 위해 새점[鳥占, *augurium*]을 친다. 새점의 결과에 불복한 레무스는 로물루스가 만든 도시 경계선을 무시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가 형인 로물루스에게 살해된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왕이 되어 로마를 건국한다. 왕정은 폭정을 일삼던 마지막 왕이 쫓겨나면서 끝나고,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원로원을 통해 타협과 견제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공화정 체제가 성립되었다.

공화정 시기의 대부분 동안 로물루스의 이미지는 좋았다. 그는 대업 앞에서 혈육의 정을 돌보지 않은 엄격한 지도자였고, 전장에서는 탁월한 지휘관이었다. 특히 적장을 죽이고 빼앗은 전리품을 신전에 봉헌한 장군의 이미지가 공화정 시기 내내 강조된 것은 로마의 지속적인 팽창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로물루스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실체가 모호한 신화적 존재였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조작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승 작가들은 기원전 3세기 이래 임의적으로 그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고, 그것들은 차츰 계통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버렸다.

그 후, 공화정 말기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기가 되면 로물루스의 이미지에 다른 측면이 덧붙여지게 된다. 이는 전공을 세운 장군들의 권력 장악 의도와 위상이 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원로원 의원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로물루스를 "독재가 더 편리하다고 여겨 (……) 동생을 죽인, 우애도 인정도 저버린 자"로 묘사한다. 한편 이 시기에 '제2의 로물루스'를 자처하던 장군들 중 가장 로물루스에 근접했다고 여겨지던 카이사르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로마 인민의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 (……) 모든 살인 행위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조국의 살해'일진대,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로물루스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변형된 설화도 이때 나타났다. 결국 종신 독재를 꾀하던 카이사르는 바로 그 '로물루스의 죽음'을 맞았다. 물론 내전 중에 로물루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새로워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 새로이 강조된 로물루스의 이미지는 '원로원 의원들의 권위와 조언에 힘입어 군림했던' 국부(國父)와 같은 것이었다.

기원전 30년,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일인자가 되었다. 그의 통치 시기에는 로물루스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예술 작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내전과 혼란이 종식되고 국가의 재건이 추진되던 상황은 불가피하게 건국자의 재림을 상정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 아우구스투스라는 경칭을 수여하기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로물루스라는 경칭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로물루스라는 경칭을 단념한다. 이는 로물루스와의 동일시가 영예와 정통성을 강화하는 선전 효과를 갖는 반면, 내전 속에서 형성된 로물루스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물루스의 선전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양가적(兩價的)인 로물루스 신화의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즉, 로물루스와의 직접적 동일시를 포기하고 간접적 동일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선전 전략은, 실질적으로는 군주정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프린켑스(제1 시민)'라는 이름을 내세워 공화정의 외양을 취한 그의 통치 체제와 존재 양태가 매우 흡사했다. 신의(神意)를 묻는 새점을 치기 위한 의식을 통해 성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augustus*'라는 단어가 경칭으로 채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32.**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신화는 한 국가가 걸어온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② 신화는 앞선 시대의 실제 인물과 사건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③ 신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변한다.
④ 신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건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나타난다.
⑤ 신화는 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타 국가를 정복하는 명분으로 사용된다.

**33.** ㉠이 채택된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로물루스의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ㄴ. 신의 가호를 받는 성스러운 지도자임을 내세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ㄷ. 엄격한 지도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민의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ㄹ. 실질적으로 군주정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4.** 로마 시대에 쓰인 <보기>의 두 시를 위 글과 연관 지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저 맹수들도 동족 간에 그처럼 분풀이를 하지는 않노라.
처절한 숙명,
형제를 죽인 사악한 행위가 로마를 이리 내몰고 있는 것이니.
부당하게 흘린 피가 이 땅을 적신 뒤,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씌워진 것이리라.
- 호라티우스, 단시(기원전 40년경) -

(나) 당신이 세운 성벽은 동생이 뛰어넘었지만, 그분은 그 성벽을 지켜 위대하게 만드셨지요.
당신은 지배자로 불렸습니다만, 그분은 프린켑스라는 호칭을 지녔습니다.
- 오비디우스, 파스티(서기 2년경) -

① (가)에서 '맹수들'은 독재를 기도하는 장군들을 가리킨다.
② (가)에서 '숙명'은 내전이 형제 살해의 원죄에서 비롯했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③ (나)에서 '당신'은 카이사르를, '그분'은 아우구스투스를 지칭한다.
④ (나)에서 성벽을 뛰어넘은 행위는 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나타낸다.
⑤ (가)에서의 '형제'와 (나)에서의 '동생'은 서로 다른 인물을 가리킨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일까? '유연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과 관련된 유연성과 안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연성 개념은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적으로 조정하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해고를 자제하되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작업 조직의 재편과 다기능 숙련 향상을 강조하는 '기능적 유연성' 등으로 세분된다. 안정성 개념도 동일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안정성', 동일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실업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된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소득 안정성', 출산이나 재충전 등의 기회를 확보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결합 안정성'으로 나뉜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의 특정 형태들 중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조건과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하려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는 예전부터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유롭고 노동 이동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체감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사회적 타협의 오랜 전통을 통해 실직 기간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약속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시장과 높은 사회 보장의 이러한 조합에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덴마크 시스템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에 참여한 실업자는 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며, 직업 훈련에 부정적인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강화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 모델의 또 다른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는 이와 다른 유형의 유연안정성을 달성했다. 네덜란드 노동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이 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자들은 일과 가사 그리고 여가 사이에서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과 고용 불안을 막으려는 노조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 노조는 고용보호법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 대신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노동자와 대등한 수준의 고용 보호를 얻어 냄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직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육아나 재충전 등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 시장 불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생산성도 유럽연합 평균을 상회한다. 이들 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경제 전체에 순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 형태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신장될 수 있다.
②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③ 유연성은 노동 시장 상황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④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보다 노사 간의 타협을 더 중시한다.
⑤ 유연안정성 모델에는 고용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36.**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① 나라별로 노동자가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가를 조사해 보면 덴마크가 네덜란드보다 직장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네덜란드에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커졌으며, 전일제 노동의 확대로 인해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③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통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과 직장 안정성에 기여했다.
④ 덴마크에서는 자유로운 해고에 따른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의 부작용을 소득 안정성으로 완화했다.
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늘려 내부적-수량적 유연성과 결합 안정성을 높였다.

**37.**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유연안정성 모델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운 일부 국가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ㄴ.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간과한다.
ㄷ.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통한 이익보다 크다면, 유연안정성 모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ㄹ. 실업률이나 생산성은 노동 시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업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순기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샤일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삼천 두카트의 돈을 받지 않고 1파운드의 썩은 살점을 원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소인의 기질 탓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면서 그들을 당나귀, 개, 노새들처럼 비참하고 천한 일에 혹사하죠. 그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겠지요.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다." 소인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이 요구하는 1파운드의 살점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소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베니스 법령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것이 됩니다. 소인은 법률을 요구합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포　셔　그렇군. 약속 날짜가 지났군. 베니스의 어떤 권력으로도 정해진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샤일록의 주장은 법적으로 흠이 없는 정당한 요구이다. 자, 이제 살을 떼어 낼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도려내는 살점은 정확히 1파운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저울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기울더라도 그대는 사형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압수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샤일록은 이 한마디로 법과 권리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미를 어떤 법철학자보다도 더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의 권리 주장에서 비롯된 한 개인의 사건은 곧바로 베니스의 법률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위의 말을 할 때 샤일록의 모습은 얼마나 힘차고 당당했을까.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유태인이 아니며,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베니스의 법률 자체이다. 그의 권리가 베니스의 법률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 비열한 술수로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에 샤일록이 무너졌을 때 베니스의 법률도 함께 쓰러졌으며, 법정에서 내몰린 사람은 유태인 샤일록이 아니라 법을 향해 외친 사회적 소수자 샤일록이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결과도 불확실하고 값비싼 대가가 예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 소송에 따르는 희생, 비난, 번거로움은 이미 권리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까닭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침해에 따른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물건이 아니라 인격, 명예, 법 감정, 자존심 등을 위해 소송하라고 외친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서 소송은 단순한 이익의 문제에서 인격 문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기보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에게는 수고스럽게 주장해야 할 권리보다는 오히려 평온이 더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소송을 좋아하며 또 어떤 이는 평화를 선호한다. 권리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권리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가 일반화되면 결국에는 권리가 소멸하고 말 것이다. 법과 권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 불법에 대해 용감히 저항하도록 요구하지만, 위의 견해는 불법으로부터 비겁하게 도피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는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38.** 위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② 권리의 행사에 게으른 사람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③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
④ 권리의 실현에서 이익과 인격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⑤ 평온을 선호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39.** 포셔가 판결에서 행한 ㉠'비열한 술수'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① 증서에 쓰여 있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피 없는 살은 없으므로 살을 베어 낼 권리에는 피까지 포함되는데도 피를 제외하라고 선고하였다.
③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는데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권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약속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⑤ 사람의 살점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하였다.

**40.** 글쓴이가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동결 약속과 달리 등록금이 오르자, 학생들이 인상분에 대하여 납부 거부 운동을 하였다.
②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합의를 권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다.
③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햇볕이 안 든다고 시위를 벌였다.
④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한테 채무가 있는지 모르겠으니 입증이 있어야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⑤ 액수가 매우 적은 사건의 소송에서 복잡한 과정을 면해 주고자 법관이 그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지만, 원고는 거절하였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1교시

# 언어추론 정답표

[공통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① | 11 | ⑤ | 21 | ⑤ | 31 | ④ |
| 2 | ① | 12 | ③ | 22 | ② | 32 | ③ |
| 3 | ④ | 13 | ④ | 23 | ③ | 33 | ① |
| 4 | ③ | 14 | ⑤ | 24 | ③ | 34 | ② |
| 5 | ① | 15 | ① | 25 | ⑤ | 35 | ④ |
| 6 | ③ | 16 | ② | 26 | ② | 36 | ⑤ |
| 7 | ① | 17 | ② | 27 | ④ | 37 | ④ |
| 8 | ① | 18 | ③ | 28 | ② | 38 | ② |
| 9 | ② | 19 | ① | 29 | ④ | 39 | ② |
| 10 | ④ | 20 | ⑤ | 30 | ⑤ | 40 | ④ |

2010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이 홍화문에 나아가 대소 신료와 유생 및 서민들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였다. 지금 나라의 근본이 과연 튼튼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백성들이 편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양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임금이 되어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어버이라 하겠는가? 과인이 즉위한 지 30년이 되는 동안 익히 그 ㉠ 폐단을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한 것이 어찌 백성을 소홀히 여겨서였겠는가? 법을 고침에는 반드시 폐단이 따르게 되고, 또 오래된 법만 못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했더니, 제시된 안의 하나는 가호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호포(戶布)요, 하나는 전답에 세금을 매겨 거두는 결포(結布)이다. 결포는 징수가 간편할 것 같기는 하나, 세를 더 얹는 인상을 준다. 이에 호포를 거두는 것으로 하되, 시행은 호포를 호전(戶錢)으로 바꾸어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둘은 근원이 하나이니, 납부하기 편한 쪽을 택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 소회를 다 말하라."

또 유생들을 불러 특별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유생에게 호전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지만, 위로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선비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과인이 볼 때에는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니, 어찌 애증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왕이 되지 않고 사저에 있었다면, 나 역시 호전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한집에서 노비나 주인이 똑같이 호전을 내는 것은 명분을 문란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호가 있으면 역(役)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또 양민은 오래도록 고역에 시달려 왔기에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다. 과인이 이미 군포 한 필을 감하겠노라고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에 유생 이봉령이 아뢰었다.

"호포와 결포가 모두 ㉡ 폐단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역질이 돌고 있으니 성상께서는 의당 애처로운 마음으로 더 돌보아야 하실 터인데, 도리어 온 백성을 전에 없던 새로운 역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성상의 뜻은 비록 백골징포를 없애려 하시지만 차후의 폐단은 자못 더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규응 역시 "호전의 폐단은 앞으로 양인의 군역보다 더 심할 것이니, ㉢ 작은 폐단을 고치려다 ㉣ 큰 폐단을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 하였고, 정양원도 "호전은 심히 불편합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받는 경비를 억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없애며 하릴없이 포를 축내는 군관(軍官)을 도태시키고 토지 대장에 빠져 있는 전답을 찾아내는 것이 변통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이서는 "송의 청묘법은 천하에 돈을 뿌렸다가 일시에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돈 가치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였는데, 이번의 호전은 그 폐단이 청묘법보다 더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유생들도 일제히 호전은 시행할 것이 못 된다고 아뢰었다.

왕이 인근 방(坊)에 사는 서민들에게 들어와서 소회를 말하라고 하시니, 호전이 편하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왕이 다시 신료들을 부르셨다.

이보혁이 "호전이든 결포든 모두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베의 수량은 어염세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김상적은 "호전은 행할 수 없으니, 결전(結錢)으로 바꾸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조명리와 김선행, 김문행 등도 같은 내용으로 아뢰었으나, 유독 사간 윤광찬만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윤광찬이 내수사의 혁파를 청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랴마는 난처한 바가 있다."라고 하니, 우의정 정우량이 "사간의 소청을 대신은 마땅히 시행하자고 청해야 하겠으나, 내수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소속되었던 사람 역시 갈 곳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다른 구멍을 뚫을 염려가 있으니, 이 점이 민망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사관(史官)은 평한다. "임금이 궐문에 임하여 ㉤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을 널리 물었으나, 신하들 가운데 누구도 묘책을 내어 걱정을 덜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윤광찬만이 내탕(內帑)의 혁파를 청하였다. 내탕은 대궐의 사사로운 비용을 맡은 곳이다. 이렇듯 크게 변통할 때를 당하여 해당 관청에 맡겨 그리 시행하게 했다면 성덕의 사심 없음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대신이라는 자가 혁파를 청하기는커녕 도리어 소속된 자들의 돌아갈 곳 없음을 말하였다. 대신이 이러하니 어떻게 나라 일을 도모하겠는가? 균역이란 동쪽에서 쪼개서 서쪽에 보태 주는 것인데, 근본은 버리고 끝만 취하여 경장(更張)의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돌아서기도 전에 폐단이 매우 컸으니, 슬픈 일이다."

**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왕은 양반에게도 호전을 물리는 사안과 관련하여 서민에게까지 직접 의견을 묻는다.
② 신료들 가운데 일부는 호별 징세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자도 많다.
③ 서민들은 군포를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호전제 시행에 찬성하는 자가 많다.
④ 유생들은 호전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⑤ 사관은 내수사 혁파를 통해 왕실에서 먼저 자기희생을 보여 주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6.** 호전제에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대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동전 대신 현물 화폐인 포로 거두자.
②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세수를 늘리자.
③ 노비에게도 역을 지워 포를 거두도록 하자.
④ 어염세를 줄여 백성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자.
⑤ 청묘법을 고쳐서 시행하여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기존의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② ㉡이 지칭하는 내용 속에는 ㉢과 ㉣이 모두 포괄된다.
③ ㉢은 토지에 세금이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④ ㉣은 군역의 부과가 고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뜻한다.
⑤ ㉤은 향후 발생할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학적 해석은 법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문헌학적 해석과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문헌학적 해석은 인식된 것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텍스트 생산자가 주관적으로 의도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해석의 대상인 작품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현실적 인간이 현실에서 생각한 사상을 확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작품과 원고, 일기와 편지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에 근거하여 그의 실제 사상을 탐구한다. 이는 순수하게 경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법학적 해석은 법률 제정자가 의도한 의미를 확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법률이라는 작품에는 다수의 제정자가 관여한다.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하여 관여자마다 갖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적용에 봉사해야 하는 법학적 해석은 일의적(一義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라 할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이념적으로 법률의 의사와 일치한다. 이는 입법의 모든 내용이 의인화된 단일 의식 속에 반영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 입법자의 의사는 해석의 수단이 아니라 해석의 목표이자 해석의 결과로 된다. 또한 전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해야 하는 선험적 요청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법률 제정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도 입법자의 의사라고 확정할 수 있다. 해석자는 법률을 그 제정자가 이해한 것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제정자의 사상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명확하고 모순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석자는 온갖 법률 사건에 대하여 명료하게 모순 없는 해결을 법체계에서 끌어내어야 한다. 법학적 해석을 통해 해석자는 자기가 입법자였다면 제정하였을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적 해석은 문헌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다. 결국 법률을 실제로 제정하는 경험적 입법자는 법률 자체 속에서만 사는 이념적 입법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재판은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가 그러하다. ㉡ 다음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A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만화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전신을 노출하는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검찰은 이 그림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다. 이 규정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이 실제의 청소년을 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라는 구절까지 연결되는 것으로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곧, 다의적(多義的) 해석의 여지가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법률의 제안 이유서를 확인하였다. 거기에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되면서 특별히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표현되어 있다. 이에 표현물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입법 시에 전제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더구나 위 법률은 다른 규정에서 대상 청소년이나 피해 청소년의 신상 유출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또한 법률안 초안에서는 위 조항의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다음에 '그림'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다가 최종안에서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그림, 만화 등의 음란물은 일반 형법상의 규정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제정자의 태도라고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입법 경과, 입법 목적, 다른 규정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 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법률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문헌학적 해석은 법률 제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② 문헌학적 해석은 주관적인 의사의 다의적인 해석을 추구한다.
③ 법학적 해석에서 주관적인 실제 의사는 수단이라기보다 목적이다.
④ 법학적 해석은 텍스트 배후의 은유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⑤ 법학적 해석은 문헌학적 해석을 넘어서서 직관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모색한다.

**9.**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헌 법률 심사 과정은 이념적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② 입법자의 의사는 법률을 탄생시키는 일회적인 과정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③ 입법에 관여한 전원이 의견을 같이한 경우 그것은 입법자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
④ 법학적 해석을 통해 끌어내는 입법자의 의사는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⑤ 입법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입법자의 의사는 확정될 수 있다.

**10.**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례의 조항을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보았다.
② 법률 해석의 결과로 A 씨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검찰이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와 연결된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④ 사례의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인의 노출이라도 그것이 청소년의 수치심 유발을 의도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⑤ 헌법재판소가 사례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란 표현은 모호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만화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계 현상은 물리적 시스템이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에 의해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또는 한 질서와 다른 질서 사이에서 전이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바크하우젠 효과'는 임계 현상의 좋은 예로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적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다. 바크하우젠은 자석을 코일에 삽입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며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 변화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 자석을 감싼 코일에 유도 기전력을 생성시킨다. 이 경우 코일에 삽입된 자석이 없을 때와는 달리, 연속적인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 불규칙하며 갑작스럽게 유도 전류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바크하우젠 효과라 한다.

어떤 원소의 자기적 성질은 그 원자의 전자 스핀으로 결정된다. 스핀은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되는 전자의 고유한 양으로서 자성의 근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철, 코발트, 니켈과 같은 강한 자성을 띨 수 있는 원소의 경우 스핀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정렬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가해 주면 스핀은 초기 상태를 벗어나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여 높은 질서도의 상태가 된다. 만일 가해지는 자기장이 초기 정렬 상태의 역방향이 되면 스핀의 정렬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며 다시 높은 질서도의 상태가 된다. 이때, 스핀의 방향 전환은 개별 스핀 단위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같은 스핀 방향을 갖는 군집 영역인 자기 구역(magnetic domain)을 형성하며 진행된다. 어떤 크기의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 구역이 불규칙하게 거동하면서 바크하우젠 효과가 나타난다. 바크하우젠 효과가 관찰될 때 가해지는 자기장을 임계 자기장이라 한다.

불규칙한 군집형 요동은 임계 현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불규칙성 때문에 임계 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의 동적 특성은 해석적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통계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계 현상에서는 상호 작용이 유효하게 미치는 거리가 시스템의 중요한 동적 요소이며, 이 거리를 상관 길이라 한다. 통계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바크하우젠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상관 길이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스핀 간 상호 작용에 의해 자기 구역이 형성되므로, 바크하우젠 효과에서 상관 길이는 대략 자기 구역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상관 길이의 극적 증가는 일부 스핀의 변화가 이웃한 영역에서부터 시스템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정보가 시스템 전체에 퍼지는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지배하는 상호 작용의 영역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관 길이의 척도를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상관 길이의 척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임계 현상의 통계적 특성이 시스템의 미시적 특징보다는 차원이나 대칭성과 같은 시스템의 거시적 특징에 의존하게 된다. 척도가 없는 분포는 멱의 법칙*으로 표현된다. 최근 바크하우젠 효과에서 나타나는 자기 구역 요동의 통계적 분포가 멱의 법칙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바크하우젠 효과를 비롯한 여러 증거를 통해 임계 현상에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은 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그마가 바위로 굳을 때, 금속이 자석이 될 때, 또는 도체가 초전도체로 전이할 때도 동일 형태의 멱의 법칙이 등장한다. 즉 물리계가 다르더라도 임계 현상이 발생하면 매우 보편적인 동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멱의 법칙을 발생시키는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멱의 법칙에 대한 증거는 물리계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사려는 세력과 팔려는 세력이 충돌하는 주식 시장, 두 지각판 사이에 압력이 쌓이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 생체의 복잡한 세포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연결 분포 등과 같이 자연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숨겨져 있던 멱의 법칙이 발견되고 있다.

* 멱의 법칙(power law) : 변수의 거듭제곱이 상수 지수로 표현되는 법칙.

**11.** '바크하우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개별 스핀의 독립적 전이로 인해 발생한다.
② 패러데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 관찰되며 일정한 크기의 검출값을 갖는다.
③ 자기 구역 거동은 멱의 법칙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④ 코발트와 같은 자성 원소에서 관찰되며 동적 특성이 해석적 방법으로 설명된다.
⑤ 스핀들이 정렬된 후 자기장을 역방향으로 임계 자기장의 크기만큼 가할 때 관찰된다.

**12.** 위 글에서 추론할 수 <u>없는</u> 것은?

① 질서도의 변화가 없다면 임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자기 조직화의 거시적인 특징은 상관 길이의 척도에 의존한다.
③ 상호 작용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임계 현상은 유사한 동적 특성을 보인다.
④ 임계 현상에서 군집 영역의 전이가 없다면 요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동적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특정한 척도의 상호 작용을 갖는다.

**13.** 다음의 ㉠~㉤을 바크하우젠 효과와 대비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물이 끓는 현상은 ㉠ <u>온도 변화</u>에 의해 ㉡ <u>물 분자</u>들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며 질서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임계 현상이다. 물의 상태는 ㉢ <u>100℃</u> 1기압에서 ㉣ <u>액체 상태</u>로부터 기체 상태로 불규칙한 ㉤ <u>기포</u> 발생과 함께 전이한다.

① ㉠ – 자기 조직화
② ㉡ – 스핀
③ ㉢ – 임계 자기장
④ ㉣ – 초기 스핀 정렬 상태
⑤ ㉤ – 자기 구역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9년 독일의 제약 회사가 출시한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은 세포 내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COX)의 억제제이다. 아스피린은 COX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COX가 세포막의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과 트롬복산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한다. COX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거의 모든 세포에 늘 존재하는 COX-1,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면역 세포와 혈관 내피 세포에서 적절한 자극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 COX-2, 그리고 중추 신경계에서만 발현되는 COX-3이 그것이다. COX가 활성화되면 각각의 세포는 고유의 기질과 관련 효소들에 의하여 각기 다른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 점막 세포, 면역 세포, 중추 신경의 시상 하부 세포 등은 각각 점막 보호, 통증, 발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_2$를 주로 생성한다.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는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보이는 프로스타글란딘 $I_2$를, 혈소판은 혈액 응고 유도 작용을 보이는 트롬복산 $A_2$를 주로 생성한다.

아스피린의 임상적인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염증이 진행될 때 면역 세포에서 발현되는 COX-2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시상 하부 COX-3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해열 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활성화되는 혈소판의 COX-1을 억제하여 혈액의 응고를 억제한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비가역적으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억제된 효소를 새로 생성하지 못하는 혈소판에서는 지혈 장애가 지속된다. 그러나 하루 75~350 mg 정도의 적은 용량을 투여하면 혈소판의 COX-1 활성 최고치를 줄일 뿐, 가벼운 출혈 시에는 지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1970년대 시행된 임상 시험들은 심혈관계 환자에게 적은 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간 투여하면 혈전에 의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아스피린은 이들 환자에게 예방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스피린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위장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위 점막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피린은 이러한 보호 기능을 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산 과다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경우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류머티즘 환자와 같이 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스피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 역시 수술을 받는 환자와 혈우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스피린과 통증 억제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가역적으로 COX에 결합하는 이브프로펜이나 COX-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같은 진통제들이 개발되어 시판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 작용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심혈관 계통 관련 환자에게 혈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아스피린의 또 다른 작용 메커니즘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암세포들이 성장할 때 증가되는 COX를 억제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산화질소(NO)를 생성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DNA 조절 인자 NF-κB를 억제하여 면역력을 조절하는 작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앞으로 아스피린이 적용될 수 있는 임상 질환이 더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4.** 아스피린의 작용 메커니즘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① 혈소판의 COX-1 억제 ⇨ 트롬복산의 생성 억제 ⇨ 통증 완화
② 면역 세포의 COX-2 억제 ⇨ 트롬복산의 생성 억제 ⇨ 염증 완화
③ 중추 신경계의 COX-2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발열 감소
④ 혈관 내피 세포의 COX-2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통증 완화
⑤ 위 점막 세포의 COX-1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위 점막 보호 작용 약화

**1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셀레콕시브는 아스피린과 통증 억제 메커니즘은 같지만, 작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② 이브프로펜의 임상 작용은 아스피린의 경우와 같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③ 이브프로펜은 가역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스피린보다 위 점막 손상과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이 작다.
④ 아스피린은 저용량에서는 진통 작용과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보이지만 고용량에서는 혈액 응고 억제 작용만 보인다.
⑤ 로페콕시브는 트롬복산에 의한 혈액 응고 작용에는 영향이 없고,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혈액 응고 억제 작용만을 차단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한다.

**16.** 위 글을 고려할 때, 다음 진료 기록부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진료 기록부 | |
|---|---|
| 성명 | ○○○ (남/40세) |
| 진단/의증 | 뇌하수체 종양(양성 선종) |
| 과거 병력 | • 5년 전 동맥 경화와 고혈압 진단<br>• 2년 전 류머티즘성 관절염 진단<br>• 현재 5년째 아스피린, 아테노롤(고혈압 치료제), 2년째 셀레콕시브 복용 중 |
| 주 증상 | 양안 외측 시야 결손 |
| | |
| 치료 계획 | 수술에 의한 종양 적출 |

① COX 억제제가 중복 처방되었으니 수술 후 처방에서 셀레콕시브를 뺀다.
② 동맥 경화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후 아스피린을 다시 처방한다.
③ 오랜 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으니 위장 계통 검사의 필요성을 알려 준다.
④ 혈액 검사 결과, 지혈 작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 전 혈소판 수혈도 고려한다.
⑤ 수술 시 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지시킨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종교적 관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신화에 의해 표현되고 제의를 통해 재현되는 성스러운 패러다임 속에서 변화의 의미를 읽어 내고자 하였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수렵을 하면서 사냥감을 찾아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죽임'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희생 동물 사이에 '신비로운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사냥 행위의 기본적 구조는 '스스로가 살기 위해 타자를 죽이는 것'이다. '죽여야만 산다'는 삶의 조건은 사냥꾼과 사냥감(동물) 사이의 '신화적 통합성'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켰다. 즉, 죽은 자의 영혼은 동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 특정 인간과 동물 사이에 '수호신 신앙' 같은 신비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동물의 뼈를 신성시하는 행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냥 의례나 희생 제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농경이 시작된 후, 동물계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이러한 종교적 질서는 인간과 곡물 사이의 '신비로운 연대감'에 의해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곡물의 씨앗이 썩어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죽음과 재생'에 대한 관념을 불러일으켰으며, ⓐ 이러한 관념은 인간의 종교적 구원 개념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아울러 여러 신화 속에 담겨진 '곡식이 희생된 신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관념은 '종교적 희생' 개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과 여성의 성스러움이 격상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지의 풍요가 여성의 다산성(多産性)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창조의 신비를 담지하고 있는 여성이 풍작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창조의 신비가 생명의 기원과 식량의 공급, 그리고 죽음까지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지는 여성과 동일시되었으며, 나중에 ㉠ 쟁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밭갈이가 성행위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 대지모신(大地母神)은 처녀 생식을 통해 혼자 힘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다. 그 외에도 무수한 신화와 민간 설화에서 인간이 대지로부터 탄생한다거나, 갓난아기를 대지 위에 누인다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 대지에서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어머니인 대지로 돌아간다.

구석기 시대에 여성과 모성의 신성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 힘이 놀라울 정도로 증대되었다. 성(性)생활의 성(聖)스러움은 불가해한 창조의 신비와 하나가 된다. 신과 인간이 서로에게 투사된다는 관념은 여성과 여성의 성을 달의 주기, 대지 및 식물의 신비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시킨다. ㉣ 인간 존재는 식물의 생명과 동일시되어 '식물의 드라마'에서 따온 이미지와 비유로 표현되기도 한다.

농경의 시작으로 초래된 이런 모든 종교적 관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종교적 창조성은 농사를 짓는다는 경험적 현상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물의 주기적 변화와 동일시되는 탄생, 죽음 그리고 재생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확을 위협하는 위기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들을 신화적 이야기로 각색하였다. 이 신화들과 의례 행위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엘리아데는 ⓑ 세계의 주기적 갱신이라는 중심적 신비에 착안하여 소위 '우주적 종교'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우주의 리듬을 읽어 내고 이를 통해 인간이 처한 존재론적 정황을 더욱 의미 있게 통찰하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우주적 종교 개념은 우주의 보편적 질서와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통찰을 통해 빚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엘리아데의 우주적 종교론의 핵심에는 우주의 신성성이라는 신비가 자리하며, 인간은 그러한 신비한 질서에 참여하면서 우주와 통합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우주목(宇宙木)'이다. 우주목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그 뿌리는 지하 세계로 뻗어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다고 여겨졌다.

**17.**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성의 신성성은 알려져 있었다.
② 농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종교적 희생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③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 사후의 삶에 관한 종교적 관념이 형성되었다.
④ 천상, 지상, 지하 세계가 연결된다는 관념이 우주목으로 표상되었다.
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이 신화적 상상력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18.** ⓐ가 반영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리스는 황금 사과를 만들어 거기에 '최고의 미인에게'라는 문구를 새긴 뒤, 한창 흥겨운 연회장에 던져 놓았다. 여신들이 너도 나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② 하이누벨레라고 불리는 반신반인적 존재가 팔다리가 절단된 채 매장되었는데, 그 몸에서는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식물, 특히 알뿌리 식물들이 솟아 나왔다.
③ 로크는 죽어 가면서 쿠쿨레인에게 자기의 시신을 코나크트 땅에 있는 한 개울가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다. 쿠쿨레인은 자신을 상대한 맞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④ 옥수수 알들이 어찌나 큼직하게 잘 자랐는지 농부가 한 번에 한 개씩밖에는 운반할 수 없을 정도였다. 면화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채 성장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케찰코아틀의 치세를 '아나후악의 황금 시대'로 기억했다.
⑤ 점술사는 아이네아스에게 "밤의 여신에게 검은 황소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충고했다. 제단의 연기가 솟아오르자,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다. 점술사가 황금 가지가 달린 나무를 가리키면서, 여행길에 나서기 전에 그 가지를 꺾으라고 충고했다.

**19.** ㉠~㉣ 중, ⓑ의 근거가 되는 것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인 가치나 규범이 여타의 자연적인 사실과 동일하거나 그것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을 자연주의라고 한다. 자연주의는 과학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한 후, 스펜서는 진화론에서 도덕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어떤 행위가 더욱 진화되면 도덕적으로 더 좋은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적자생존은 치열한 경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스펜서의 주장이 최신 과학 이론을 도덕과 연결시켜 주는 훌륭한 이론처럼 보였다.

그러나 1903년 영국 철학자 무어는 사실에서 가치를 끌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누군가에게 "A는 A인가?"라고 물으면 그 물음은 의미가 없는, 하나 마나 한 물음일 것이다. 반면에 "A는 B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다. A가 B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는 B인가?"라는 물음도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A와 B가 같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서 그 물음이 "A는 A인가?"라는 물음과 같을 때가 그렇다. 스펜서의 주장대로 '더욱 진화됨'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좋음'이라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하나 마나 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물음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어는 '더욱 진화됨'과 '좋음'이 같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이 논변은 '좋음'을 어떤 다른 자연적 사실과 동일시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적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 무어의 논변은 자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받아들여졌다. 만약 무어가 옳다면 가치는 사실과 독립적이므로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은 도덕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무어는 자연주의자들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스펜서가 '좋음'의 정의를 찾고 있다고 해석할 때는 무어의 논변이 성립한다. 그러나 스펜서는 '좋음'의 정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이용하여 실제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찾은 것이다. '더욱 진화됨'은 '좋음'의 정의는 아니어도 그 외연이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어도 '더욱 진화됨'은 '좋음'과 동일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춘원은 춘원이다."라는 명제와 "춘원은 이광수이다."라는 명제를 비교해 보자. 첫 번째 명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두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생길 사람도 있다. ㉡ '춘원'과 '이광수'는 정의 관계여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해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좋음'과 '더욱 진화됨'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무어의 반자연주의 논변이 실패함에 따라 스펜서가 해석한 진화론이 도덕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가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윈의 이론에서 진화는 특정한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만이 있을 뿐이지 '더욱 높은' 진화의 단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진화됨'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틀렸으므로 '더욱 진화됨'은 '좋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가) 결국 자연적 사실이 도덕적 가치와 동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부터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도덕 판단을 위해 자연적 사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적 사실이 곧바로 도덕적 가치를 대체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 자연적 사실이 과학적으로 옳은지 검증되어야 하고 또 도덕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무어는 스펜서와 달리 진화론 이전의 전통적인 도덕을 지지하기 위해 진화론에 반대했다.
② 무어의 비판은 도덕적 가치를 특정 자연적 사실로 정의하려는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③ 스펜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사회는 더 진화된 사회라는 다윈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 했다.
④ 무어는 어떤 두 개념이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와, 외연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⑤ 스펜서가 '더욱 진화됨' 대신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른 사실을 '좋음'과 동일시한다면 자연주의적 오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21.** ㉡을 이용해서 ㉠을 비판할 때, 다음 (  )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무어의 논변 방식을 따르면 (  )
> 그러므로 무어의 논변은 잘못되었다.

①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질문이므로 '춘원'과 '이광수'가 같은지 과학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춘원'과 '이광수'는 정의 관계가 아니므로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질문이다.
③ '춘원'과 '이광수'는 외연이 같으므로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된다.
④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춘원'과 '이광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⑤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므로 '춘원'과 '이광수'는 같은 사람이 된다.

**22.** (가)의 논지에 따라 다음 주장에 대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령 사람은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이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을 차별 대우해도 괜찮다.

① 사람과 동물을 차별 대우해도 괜찮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사람이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②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임'이 '차별 대우해도 괜찮음'으로 환원되고 둘 사이의 외연이 같은지 조사한다.
③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실에 관한 영역이고 차별은 도덕적 가치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그 차이가 과학적으로 검증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④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고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증명한다.
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그 차별은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사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화 이해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와유(臥遊)'가 있다. 와유의 형성, 발전, 분화 과정이 바로 산수화의 역사를 이룬다. 와유는 『송서』「은일전」에서 종병(宗炳)을 두고 "누워서 노닌다."라고 기록한 데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관련 있는 것이다. 종병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산수화가이자 이론가이면서 불교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학과 불학 사이에서 일어났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즉 형신(形神)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혜원의 여산불교(廬山佛敎) 영향을 받아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하였다. 그는 젊어서 유명한 산을 마음껏 유람하고 산에 투영된 영혼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러한 유람을 할 수 없자, 과거에 그가 노닐었던 산을 그려 감상하면서, 인연을 만든 '정(情)'과 '식(識)'을 줄여 나가 점차적으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후대에 이 '와유'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산수화와 관련된다. 하나는 감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직업 화가인 화원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적인 창작 과정을 즐기는 문인들의 그림이다. 이러한 분화는 북송 이후 사대부들의 의식 세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두 자아는 내면적으로 서로 모순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사회적 자아란 "나라에 도가 있으면 함께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겸제천하(兼濟天下)를 추구하며, 개인적 자아는 "나라에 도가 없어 홀로 그 몸을 닦는다."라는 독선기신(獨善其身)을 지향한다. 사대부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겸제천하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현실화하기도 하고, 독선기신을 삶의 가치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북송 시대에 화원화와 문인화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북송 시대 대표적 화원인 곽희(郭熙)의 저서 『임천고치』에서는 화원화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곽희가 살았던 시대는 태평성세였다. 사대부는 충과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자연에서 노닐며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사대부들은 화원들을 구해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산수를 그리게 하였다. 화원은 사대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작품 구상을 위해 시에 의존하고, 사대부들이 작품을 통해 와유할 수 있게끔 대상의 사실적 묘사와 삼원법(三遠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삼원법은 상이한 시점들을 서로 교차시켜 감상자가 산수화의 '산수'에 들어가 자연에서 느꼈던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화법이다. 또한 삼원의 '원(遠)'은 바로 무한의 세계로 확장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감상자는 이를 통해 산수의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무한한 곳으로 확장하여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원'을 통해 자유의 경지를 실현하면서 개인적 자아의 추구에로 치우쳐 또다시 사회적 자아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사대부는 두 자아의 균형을 위해 ㉠ 산수에 사회적 가치가 투영되도록 하였다.

문인화 이론은 북송의 문인이었던 소식(蘇軾)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소식에게 문인화는 창작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나를 위한 그림'이다. 소식은 '안'과 '밖'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마음의 주체적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자연과 일체된 마음의 움직임이 손에 반응하여 필묵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일관된 기세를 가지면서 창조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사물의 외형보다 필묵의 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청나라 초기 석도(石濤)는 문인화의 창작 과정을 일획론(一畫論)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획론이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우주 창조의 원리이면서 창작 행위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화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관계들에 대하여 석도는 ㉡ "획은 먹을 받고, 먹은 붓을 받고, 붓은 팔을 받고, 팔은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늘이 이치를 주재하고 땅이 그 이치를 완성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받는다[受]'고 한 이유이다."라고 말하였다. 석도는 하나의 획이 마음에서 일어나 만 가지의 획으로 분화되고 그로부터 자연 형상이 묘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곽희의 와유론은 소식에게 계승되었고 석도의 일획론에서 이론적인 완성을 이루었다.
② 북송 시대의 문인화는 겸제천하와 독선기신의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경향으로 나뉘었다.
③ 문인화 이론에 따르면 그림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붓을 놀리는 것과 대상의 정확한 묘사가 함께 구현되어야 했다.
④ 창작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한 화원화는 '안'과 '밖'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기세를 중시하였다.
⑤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종병은 산수화를 통해 인연의 원인을 줄여 나가면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24.** ㉠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① 석양 비낀 현산의 철쭉길 계속 지나 / 깃털로 꾸민 수레가 경포로 내려가니 / 십 리에 펼친 비단 다리고 다시 다려 / 울창한 솔숲 속에 끝없이 펼쳤으니 /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를 세겠구나
② 행장을 다 버리고 돌길에 막대 짚어 / 백천동을 옆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십 리까지 들리니 / 들을 때는 우레더니 보니까 눈이로다
③ 연꽃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고 있는 듯 /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④ 천 길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 실같이 풀어 내어 베같이 걸었으니 / 산수 도경 열두 구비가 내 보기엔 여럿이라 / 이태백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 하리라
⑤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 잠시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 북두성 기울여 바닷물 부어 내어 / 저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 바람이 산들산들 양 어깨 치켜드니 / 구만 리 하늘에 웬만하면 날겠구나

**25.** ㉡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나의 마음에서 일획을 바로 세워 창작의 원리로 삼는다.
② 우주 창조의 원리인 일획은 나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
③ 몸과 마음의 일체가 문인화를 그리는 기본 원리이다.
④ 그림에 구현된 하늘의 이치를 보고 자연과 합일한다.
⑤ 마음과 손, 그림 사이에 간격과 쉼이 없어야 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짐작은 했지만, 와서 보니,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동안 너무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여성 잡지(주로 천연색 화보)하고요. 사실은 겨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텔레비전에서 암시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사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사자는 태어날 때, 어미 배를 찢고 나온대요.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한 번밖에 못 난대요. 바닷가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시상자에서 나왔는데, 막상 바닷가에 와서 보니,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지금 우린 여기서 뭔가를 직접 만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 그것이 자연인지, 삶인지, 삶 속의 신비나 경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바보상자에 가려서 간접적으로만, 그것도 뒤틀려서 나타났던 것이 눈앞에 직접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달을 겨를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 속에 폭 파묻혀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그 속에 있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벌써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바보상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들은 지금 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 그것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백치상자의 추악함을 ㉢ 그것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 사물의 미·추는 그것 자체의 미·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미·추를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추악한 사물도 그 사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추악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도 그 사물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똥은 구리지 않고, 며느리의 발뒤꿈치는 계란 같아서 흉하죠. 우리들은 어젯밤 비치호텔에서 묵었어요. 비치호텔! 우리들은 그만 그 이름에 깜빡했어요. 물위에 솟아 있지 않은 한 더 이상 바닷가로 갈 수 없을 만큼 백사장 뒷길에 붙어 있으니, 물가여관은 분명 물가여관이죠. 그리고 전면이 바다로 향해 있고, 그 전면에 베란다가 삼층에까지 있으니, 바닷가여관도 목 좋은 바닷가여관이죠. 나는 거기에 투숙한 것을 백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저 시멘트 반죽으로 발라 올린 삼 층 회색 건물을. 저건 여인숙이에요. 비치호텔은 아침 햇빛 속에서 해안여인숙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옆으로는 뒤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가건물들이 내보내는 더러운 하수가 흘렀어요. 도대체 해안여관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다와 모래 말고는. 텔레비전 속의 삶이 박살이 났어요. 텔레비전은 바다와 모래의 아름다움만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안여인숙의 추악함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어요. 해안여관만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길래 그동안 그것에 가려서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 그것에 가려서 뭔가를 못 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껍데기의 삶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말짱 껍데기였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의 삶이 전혀 추악하게 비치지를 않아요. 천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다시 멍청상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니면 이야깃거리가 없고, 그거 아니면 쇼핑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축에 끼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상 동창들인데요, 얜 농협 단위 조합에 나가고, 난 타자 학원 경리를 보고 있어요. 처음엔 한타 강사 노릇을 했지만, 원장의 눈에 들어서 관리직으로 옮겼어요. 강사는 노무직이거든요. 우리들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안방에 앉아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입원도 하고, 실연도 해요. 어쩌다 초대권이 생겨서 전람회나 운동장 같은 데를 가보면, 허리도 아프고 햇볕도 따갑고 짜증스러워요. 연애도 김이 빠져요. 흉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린 절대 등산 안 가요. 왜 가요, 도로 내려올 것을? 여행도 완행버스 여행은 맥 빠져요. 그렇지만 여행은 더러 해요. 그리고 더러 여행이 맥 빠지는 것은 여행 탓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잘못된 바라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깨달은 다음에는 안심하고 다시 텔레비전에 폭삭 빠지거든요. 불이 났을 때 물을 조금 부으면 소리를 내면서 더 잘 타는 거 있죠? 과음으로 위장을 상한 사람이 의사한테 빨리 병을 고쳐 달라더래요. 다시 술 마시게요. 악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악을 고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악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악을 오래가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적금도 하고, 계도 하고요. 그게 거의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멍청상자가 보여 주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치와 편의와 편리뿐만 아니라, 미덕과 선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멍청상자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서, 좋은 일 하자는 운동까지도 무슨 협찬, 무슨 협찬 해서,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많은 전구들을 뻐뜩거리고 연기를 피우고 물방울들을 수없이 날려서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이 휘황찬란한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 그것은 불편하고 귀찮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바다로 산책도 나오고, 이름난 명승지도 찾아서, 그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깨어나요. ㉤ 그것을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 서정인, 달궁 -

**26.** 위 글의 화자, 바닷가, 텔레비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을 떠나서 직접 바닷가를 찾아왔지만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텔레비전이 떠나지 않는다.
② 왜곡된 이미지에 현혹된 상황을 텔레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추악하게 보인다.
③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바닷가를 찾아오게 만든 조건이면서 바닷가를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하는 인식의 장애물이다.
④ 바닷가의 비루한 풍경을 경험한 화자는 텔레비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겠지만 앞으로도 바닷가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직접적 경험을 대체해 온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닷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27.** ㉠~㉤ 중, ⓐ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사회는 비판적 성찰을 체제 내부에 귀속시켜 오히려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점진적인 교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는 욕망의 매개항이며 사람들의 욕망은 기호와 이미지의 흐름을 좇아서 움직여 나간다.
④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인 자각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축조는 '해안여인숙'에서 '바닷가여관'으로 다시 '비치호텔'로 그 호명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은 인간 행위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이러한 도구적이고 인간학적인 정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술의 본질을 밝혀 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시(詩)란 단어들의 집합이다.'라는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점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술의 참된 특징을 밝혀야 하는가? 세계 내의 존재인 인간은 세계 안에서 기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도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정의하면, 이러한 정의로는 기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 기술은 단지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세계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열어 밝혀 주는 진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기술의 어원인 '테크네'는 본래 수공적인 행위와 능력만이 아니라 예술도 의미한다. 제작과 창작의 공통적인 성격은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는 일'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잘 알아 그것을 해명해서 밝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탈은폐인 것이다.

이러한 탈은폐로서의 기술의 본질 규정은 현대 기술의 본질을 규정할 때도 여전히 타당하다. 단, 탈은폐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현대 기술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탈은폐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끌어내어 앞으로 내어 놓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전개되지 않는다. 현대 기술의 탈은폐는 안에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는 도발적 요청이다. 이는 자연을 비롯한 세계 일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과거에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생장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이제 공기는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곡식 공급을 강요당한다. ㉠ 과거 기술의 탈은폐는 현실을 현실로서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풍차의 날개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직접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풍차는 기류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반면 ㉡ 현대 기술의 탈은폐는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고, 캐낸 것을 변형하고, 변형된 것을 저장하고, 저장한 것을 다시 분배하고, 분배된 것을 다시 한 번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술적 요구에 맞추어 자연을 끄집어내려는 도발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 도발적 요청은 세계에 있는 존재에 폭력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때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본래적인 존재를 포기하고 단순히 에너지 공급자로서, 재료로서, 기능으로서 하나의 부품처럼 탈은폐된다. 온전하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의 한 부분만이 드러나 보이게 되거나 또는 본질이 왜곡되기도 한다. 부품은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에 따라 탈은폐되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탈은폐를 수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달하여 자연적인 것을 포함한 세계의 존재하는 것들을 부품으로 탈은폐시키는 주체이다. 더 나아가 탈은폐의 과정에서 이 과정의 주체인 인간도 하나의 부품으로 자신을 탈은폐시킨다. 주체가 객체로 전도된 것이다.

현대 기술이 수행하는 탈은폐의 방식으로는 기술이 잘못 드러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기술이 어떻게 강요된 탈은폐가 아니라 본래의 탈은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술이 테크네로서의 탈은폐 그 자체로 돌아가서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주게 하면 된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진리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 기술로 돌아가면 된다. 예술적 의미에서 테크네는 참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근원적 의미에서의 예술은 최고의 탈은폐이다. 예술로서의 기술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소리를 잘 듣고 이를 형상으로 가장 잘 드러낸다. 기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테크네의 성격을 다시 갖게 되면, 비로소 기술은 자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간과 기술 그리고 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29.** 위 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기술의 본질에 대한 탐색 방식으로, 어원 분석 방법과 통시적 사례 비교 방법의 상충을 검증하였다.
② 기술의 본질 규정을 위해 수단과 행위 영역 사이의 차이점을 해명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를 명료히 하였다.
③ 기술이 자연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바와 자연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비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④ 기술의 내재적 속성이 대상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인간의 창의성 정도에 따라 제작과 창작 능력을 차별화하였다.
⑤ 기술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술의 본질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 기술을 그 자체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연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② ㉡은 자연의 고유한 본래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을 변형한다.
③ ㉡은 탈은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 테크네 개념을 확장한다.
④ ㉡은 ㉠보다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더 온전하게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는다.
⑤ ㉠과 ㉡은 자연이자 현실인 세계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31.** 위 글의 논지에 따라 다음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력 발전소가 강에 세워졌다. 이 수력 발전소는 강의 수압을 이용하며, 이 수압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어 있고, 이 터빈의 회전으로 기계가 돌며, 이 기계의 모터가 전류를 산출해 내고, 이 전류를 송출하기 위해 육지의 변전소와 전선망들이 세워져 있다. 전력 공급을 위한 이처럼 얽히고설킨 맥락에서는 강 역시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처럼 나타날 뿐이다. 수백 년 동안 강의 양안을 연결해 주던 낡은 나무다리처럼 사람들이 강 물줄기에 수력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 물줄기가 발전소에 맞추어 변조되었다.

① 수력 발전소는 인간이 강을 도발적으로 닦달하는 방식이다.
②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후, 강의 정체성은 수력 발전소라는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
③ 수력 발전소는 그 동력을 강에 의존하면서 강의 본래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④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후, 강의 존재는 수압 공급자라는 기능으로 한정되고 있다.
⑤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기 전, 강은 자신의 본질과 다르게 존재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거석 무덤은 지중해의 크레타와 같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주민의 이주나 아이디어의 전파에 의해 서유럽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 그러나 콜린 렌프류는 서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여러 거석 무덤에 근거하여 이주설이나 전파설 대신 자생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자원과 토지가 부족해졌으며, 부족한 토지를 둘러싸고 공동체 간 경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거석 무덤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평등한 친족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의 취락은 산재한 형태로 분포했으며, 거석 무덤은 그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면서 영역 표시의 기능을 했다고 한다. 특히 거석 무덤의 인골은 무덤을 축조한 친족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거석 무덤은 영역 내에서 제의를 통해 조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살아 있는 후손들은 그 조상의 땅을 소유하고 이용할 공동의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러한 기능은 점차 스톤헨지처럼 규모가 큰 제의용 거석 기념물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종교적 특수 계층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나) 한편 크리스 틸리는 연장자나 남성 가운데 일부 개인들이 친족 공동체에서 그들의 주도적 역할과 그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거석 무덤 및 그와 관련된 의례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일정한 육탈(肉脫)의 기간을 거친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골 중 다시 갈비뼈와 같은 특정 부분만을 모아서 무덤 안에 섞어 놓아, 실제 존재한 경제력에 따른 권력 및 지위의 차이를 은폐하였다는 것이다. 거석 무덤은 당시 사회의 두 가지 사회 편성 원칙, 즉 친족 관계 내에서의 평등과 정치적 관계에서의 실제적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후자는 뒷날 시신을 직접 매장하는 개인의 단독 무덤을 출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구조의 무덤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시신이 놓이는 방향의 차이와 함께 부장품의 양과 질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 존 바렛은 거석 무덤이 일상생활과 장례 의식 및 그 밖의 제의의 과정에서 갖는 역할에 주목하여, 당시 사람들은 거석 무덤의 축조 과정과 축조 후 그곳에서 행해졌을 장례 의식이나 기타 제의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형성하고 재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석 무덤에서 치러지는 장례 의식 과정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지위와 의무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결정되었다. 즉 장례 의식에서 거석 무덤의 출입구를 통해 조상들의 시신과 유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였고, 이러한 구별을 통해 재조정된 지위와 의무는 이후 계속적인 제의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정당화되고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거석 무덤의 출입구를 막아서 무덤 내 시신과 부장품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거석 무덤은 기념물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상에 대한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하여 영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거석 무덤은 산 자로 하여금 조상과의 관계를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안 호더는 유럽 중부와 서부 지역의 거석 무덤은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집들과 형태나 내부 공간 구조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농경이 중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서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하여 쟁기질 같은 새로운 농경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고, 몇 개의 혈연 집단이 느슨한 형태로 하나의 친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단계에서 남성 중심의 계보적 혈연 집단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특정 집단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집인 거석 무덤의 축조와 제의를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 여타 집단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상으로 대표되는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토지 등의 상속에서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 (가)~(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견해는?

① 거석 무덤의 출현 배경으로 경제적 변화를 중시한다.
② 거석 무덤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③ 거석 무덤의 축조를 통해 직계 혈연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이해한다.
④ 거석 무덤에서의 제의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⑤ 거석 무덤의 축조는 공동체 내에서 유력 개인의 등장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3.** 거석 무덤의 축조 관습이 소멸되면서 나타났을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골을 추려서 이차적으로 매장하는 풍습이 사라졌을 것이다.
② 시신이 한곳에 집단 매장되는 대신 개별 무덤에 매장되었을 것이다.
③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의 매장 방식에서 남녀의 구별이 나타났을 것이다.
④ 공동체의 제의가 수행되는 공간이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⑤ 주변의 다른 무덤에서 볼 수 없는 귀중품이 특정 무덤에만 집중적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다.

**34.** (가)~(라) 중, 다음 사례가 그 타당성을 보강해 주는 것은?

>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거석 무덤이 발굴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통해 볼 때, 축조 시기는 지중해 지역의 거석 무덤보다 앞서고 중부 유럽의 것보다는 후대라고 판명되었으며, 형태와 구조는 후자와 유사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출입구의 개폐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인골들이 확인되었다. 그 인골들에서 추출한 스트론튬 농도의 비교를 통해 이 무덤에 묻힌 집단 사이와 남녀 사이에 식단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무덤 주위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절부절못하는 상태의 독재자, 걸어 다니면서 문고판 「리어 왕」을 읽고 있다.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한 손으로 파이프 속을 채우려 한다. ㉠ 한 손에 책, 다른 손에 파이프, 문 두드리는 소리. 독재자, 책상으로 돌아가 책을 집어 든 후 미소 짓는 연습을 한다. 늙은 연극배우 들어선다. 리어 왕 의상에 검은 외투를 걸쳐 입었다. 그를 극장에서 여기로 데려오기까지 옷을 갈아입을 시간적 여유를 안 준 모양이다.

(중략)

연극배우 요즘 관객들은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하.

독재자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다니 그럼 도대체 어떤 연극이 환영받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오.

연극배우 ㉡ 「아가씨와 건달들」이지요.

독재자 뮤지컬 말이오? 난 차라리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겠소.

연극배우 그것두 공연 중입니다. 「심수일과 이순애」로 바뀌었지만 …….

독재자 이렇게 집구석에만 갇혀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군.

연극배우 무사태평 태평무사하지요.

독재자 (부아가 치밀지만 억제한다.) 흥, 그렇겠구려. 나 같은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연극배우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독재자 (더욱 부아가 치민다.) 오호.

연극배우 돌을 던질 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독재자 적? 내가 그들의 적이었나? 흥, 그렇담 그 녀석들도 심심하겠군.

연극배우 그래서 아가씨와 건달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독재자 경박한! 그런 세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연극배우 그렇겠지요.

독재자 (어떤 실낱같은 희망)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세월이 지나 봐야 판가름 나게 되어 있지. 언젠가 당신들은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연극배우 글쎄요. 지금 아가씨와 건달들에게 밀려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중략)

독재자 "모르겠는데, 어디 내게 그걸 가르쳐 주렴." …… 오늘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소. 나는 당신이 연출하고 직접 리어 왕으로 출연한 연극을 보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소. 왜 관객들은 리어에게 열광하는가? 저 권력에 눈먼 독재자에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똑같은 입장인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리어 양반, 난 결코 당신에게, 그리고 한때 나를 떠받들고 굽신거렸던 인간들에게, 지금은 모두 등 돌리고 날 욕하는 혓바닥들에게, 구차한 동정심을 얻고 싶지 않소. 난 자기 동정을 경멸하오! …… (한탄) 그래요, 음모자들은 결국 또 다른 음모에 의해 파멸되고 말지. 이건 「리어 왕」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의 역사적 공식이지. 말하자면 악인은 서로를 죽이지. 그러나, 덕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 "강력한 악이 오히려 비겁하고 나약한 선보다 나을 때가 있다. 왠 줄 알아? 나약한 선은 세상을 회의할 뿐이지만, 강력한 악은 희망을 제공해. 그건 강력한 에너지, 위대한 권력에의 의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 니체가 한 말이오, 이건!

연극배우 독서량이 대단하십니다.

독재자 왜 세상 사람들은 내 파멸에 즐거워하면서, 리어의 파멸에는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인간들은 날 비웃으면서 리어는 비웃지 않는 것인가? 그가 정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천만에! 그가 정의로웠다면, 나 또한 그랬소. 그러나, 통치자의 정의로움이란 게 얼마나 가당찮은 엉터리인 줄 아시오? 그건 결국 통계적 개념이오. 백성들 배불리 먹인 작자에게 정의는 돌아가게 마련이지. 리어의 통치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는 거지? 그건 ㉣ 셰익스피어의 영리함 때문인가? 아니라면, 당신의 그 멋진 연기술이 리어를 정의의 인간으로 둔갑시킨 것인가? 당신은 관객을 리어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소. 리어는 희생자요 순교자다? 관객들은 리어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객석에서 한두 시간 감동의 순간을 즐기지. 어떻게 리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게 권력에 집착하였으며, 도대체 몇 개의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그래요, 통치자에겐 ㉤ 가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적을 처치하기 위해선 통치자는 온갖 기만과 위선과 증오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남는 것은 이 기만과 위선과 증오뿐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독재자들은 역사의 시궁창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리어 왕이었고 아마 수백 수천의 리어들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런데, 왜 관객들은 리어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관객들은 리어의 파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연극배우 전 리어 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어 역시 각하처럼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에 대해 의혹을 갖습니다. 그는 후회하죠, 각하처럼.

독재자 그러나, 리어는 관객에게 사랑받고 감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도, 차라리, 독수리에게 내 눈알이 파먹히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리어처럼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싶소. 그 비결을 내게 전수해 주시오.

(중략)

독재자 내가 걸은 길은 리어와 똑같아, 이건 비유가 필요 없을 지경이지. 내가 당한 배신과 모욕은 리어의 대사들 속에 모조리 들어 있단 말이오. 나는 오늘 밤 이 장면들을 당신과 연기해 보고 싶소.

연극배우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독재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병이란 말인가? 밤새 여행을 했단 말인가? 그건 순전히 구실이다. 그건 나를 등지겠다는 속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더 재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오라."

연극배우 "폐하, 아시다시피 공작은 불같은 성격이시라 한번 침묵하면 요지부동입니다."

독재자 "두고 보자! 염병에나 걸려라! 뭐져라! 뭐 불같은 성격이라고. 이봐 글로스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 부부를 만나야겠다."

연극배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재자 "그렇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권력을 쥐어 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야! 나한테 지킬 예를 다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박대받고 쫓겨날 수 없어. 두고 보자, 이 더러운 배신자들, 언젠가 손 좀 봐 주리라!"

연극배우 잠깐, 그렇게 진행되면 『리어 왕』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리어의 주제는 권력의 무상함과 체념입니다. 리어는 퇴위하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물려받은 자들은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박대하자 놀랍니다. 화가 나서 저주하고 복수가 마음을 사로잡지만, 평민이 되어 버린 그에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한숨) 각하, 이제 무기력한 분노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 이윤택, 우리 시대의 리어 왕 -

**3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작품 내에 고전적 연극을 패러디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
② '밤'과 '실내'라는 제한된 시공간 배경을 통해 극 중 현실의 비현실성을 암시하고 있다.
③ 독재 권력에 대한 논평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물의 내면적 갈등 구조가 부각되지 않는다.
④ 극의 지배적인 줄거리를 지연하거나 역행하는 이야기를 개입시켜 극의 중심 내용을 분산한다.
⑤ '독재자'에게 순응하면서도 그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연극배우'를 통해 연극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36.** 위 글에서 '리어'에 대한 '독재자'의 생각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리어는 독재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② 리어는 기만과 위선과 증오로 가득 찬 통치자이다.
③ 리어는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아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④ 리어는 질투심과 선망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⑤ 리어는 본모습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동정받는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지식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물의 안정적 심리를 암시하는 소도구
② ㉡: 연극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동시에 세태와 민심 변화를 암시하는 소재
③ ㉢: 인물의 현학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극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존재
④ ㉣: 창조적 정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 작가의 전형
⑤ ㉤: 인물의 또 다른 자아를 암시하는 동시에 내면 속의 갈등과 증오를 해소해 주는 수단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슘페터의 경제 발전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이란 인구 증가, 자연계의 변동, 전쟁 등 경제 외부로부터 온 충격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범주의 태내에서 생긴 동인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혁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는 동물 유기체의 혈액 순환과 같이 매년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돌고 있는 순환적 흐름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혈액 순환은 유기체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변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경로 내에서의 연속적인 작은 변화들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경제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기존의 순환적 흐름의 경로를 비연속적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경제 발전이라 부른다. 경제 발전은 순환 경로의 변경이며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대체한다.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인 변화와 균형 이동은 산업 생활과 상업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망의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자생적이고 비연속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가의 점진적 적응 이외에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기호 및 그 변화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경제학의 출발점은 소비자의 욕망 충족이 모든 생산의 목적이라는 것이며, 주어진 경제 상황은 언제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욕망은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경제 순환의 근본적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욕망이 먼저 소비자 측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후에 생산 기구가 그 압력을 받아 전환하는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 발전의 주도자는 생산자이며, 생산자들로부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 혹은 종래부터 써 왔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쓰도록 교육받는다.

생산을 한다는 것은 사물(materials)과 힘(forces)이라는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다른 상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이들 생산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신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결합이 단지 기존의 결합 상태로부터 연속적인 적응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장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이라거나 경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결합은 비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발전을 특징짓는 현상도 이때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신결합은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경제 발전은 바로 ㉠ 이러한 신결합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결합의 수행자는 신결합에 의해 배척되는 구결합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과 상업 과정을 통제하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신결합을 구현하는 기업과 생산 공장 등은 일거에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과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낡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대약진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결합의 수행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결코 이용되지 않았던 생산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요소의 증가는 그 자체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 순환의 양적 확장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신결합에 따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결합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구결합에서 전용(轉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기 변동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낡은 경영을 도태시킨다. 19세기 후반의 세계 경제를 변화시킨 것은 저축과 이용 가능한 노동량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전용이었던 것이다.

**3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균형 이동을 통하지 않아도 경제 발전은 일어난다.
② 경제는 순환 경로 내의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
③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이 상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경제 발전은 경제 외부로부터 일어나 경제 내부로 파급된다.
⑤ 저축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민간 소비의 증가는 순환적 흐름의 규모를 변화시킨다.
② 경제 순환에서는 생산이 먼저 변해야 그에 따라 소비가 변한다.
③ 기술 체계의 변혁과 동시에, 재래 기술을 이용하는 공장도 대체된다.
④ 소비자의 기호가 비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
⑤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경제 발전 담당 주체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다.

**40.**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력 방직기의 도입으로 직물업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였다.
②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부품 표준화를 채택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③ 조립 라인의 증설로 몇몇 자동차 생산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다.
④ 강한 견인력을 가진 증기 기관차의 등장으로 기차가 역마차를 대체하였다.
⑤ 목탄 가격과 석탄 가격의 변화 때문에 코크스 제련법이 도입되어 철강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 [1] 교시 [언어추론] 영역 정답표

[공통] 계열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④ | 11 | ⑤ | 21 | ④ | 31 | ③ |
| 2 | ① | 12 | ② | 22 | ④ | 32 | ② |
| 3 | ④ | 13 | ① | 23 | ⑤ | 33 | ③ |
| 4 | ④ | 14 | ⑤ | 24 | ③ | 34 | ④ |
| 5 | ③ | 15 | ④ | 25 | ④ | 35 | ⑤ |
| 6 | ② | 16 | ① | 26 | ② | 36 | ③ |
| 7 | ① | 17 | ③ | 27 | ① | 37 | ② |
| 8 | ① | 18 | ② | 28 | ② | 38 | ⑤ |
| 9 | ③ | 19 | ⑤ | 29 | ⑤ | 39 | ① |
| 10 | ① | 20 | ② | 30 | ⑤ | 40 | ③ |

2011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 – □□□□□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10 : 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단어는 아무리 집중해서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라서, 결국 누가 더 많이 반복해서 단어를 암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② 예상과 달리 전반기의 매출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자, 사장은 가능한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③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서 타인의 기회 박탈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④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⑤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인 주택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다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은 자기 반쪽이나 온전함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이나 손이 병들었을 때 심지어 잘라 버리는 것도 참아 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혹시 달리 생각하나요?" 디오티마가 말했네.

"전혀 아닙니다. 디오티마 님." 내가 말했네.

(나) "그럼 그냥 간단히,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갖게 되기를'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늘 갖게 되기를'이라 해야 하지요?"

"그것도 그래야죠."

"그럼 결국 사랑은 좋은 것을 늘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다) "그게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몸에서든 영혼에서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려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통 이해 못하겠네요."

"더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은 몸도 영혼도 임신한 상태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출산하고픈 갈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은 조화롭지 않은 것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한 것 안에서는 안 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지요. (중략) 사실 단지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요?"

"아름다운 것 안에서 하는 출산이 사랑의 대상이죠."

"일단은, 좋습니다."

(라)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출산이 왜 사랑의 대상일까요? 출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가사자(可死者)가 가진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사랑이 좋은 것을 늘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불사도 갈망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불사라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디오티마가 가르쳐 주었네.

(마) 한번은 그녀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네.

"이런 사랑과 갈망이 생기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짐승들이 새끼를 갖고 싶어할 때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처하는지 봤지요? 서로 함께 섞일 때에도, 또 태어난 새끼를 기를 때에도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됩니다. 새끼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지요.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 쳐도, 짐승이 그토록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의한 것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게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사자는 할 수 있는 한

늘 있기를, 즉 불사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연속 생성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 대신 다른 새로운 것을 늘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사실 이건 동물 하나하나가 살아 있다고, 또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그렇죠. 예컨대 사람은 갓난애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같을 때가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며, 머리카락, 살, 뼈, 피 같은 것들은, 아니 몸 전체가 계속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경우도, 그러니까 습관, 성격, 믿음, 욕망, 쾌락, 고통, 두려움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 안에 늘 같은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합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특이한 일은 앎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앎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앎의 관점에서조차도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앎 하나하나도 같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도 앎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복습은 떠나가는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같은 앎으로 보이게 하지요. 사실 모든 가사적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 보존됩니다.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 보존되는 게 아니라, 늙어 가고 떠나가는 대신에 자기와 닮은 새로운 것을 남겨 둠으로써 보존되지요. 이런 장치를 통해 가사적인 것은 불완전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불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플라톤, 향연 -

**5.** (가)~(마)에 나타난 디오티마의 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은?

① (가) : '자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사랑의 대상임을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② (나) : 한정 어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랑의 대상을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의 지속적 소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③ (다) : '좋은 것' 대신 '아름다운 것'으로 논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의를 펼쳐 동의를 얻은 후, 사랑을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과 연결하고 있다.
④ (라) : 가사자의 불사 추구라는 논점이 앞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도출됨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이 사랑의 대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마) : 연속 생성의 사례들을 들면서 출산을 통해 불사를 추구하는 가사자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6.** (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의 몸은 평생 동안 계속 변한다.
② 사람과 신은 존재 보존 방식이 다르다.
③ 사람과 짐승 모두 출산과 양육에 열의를 보인다.
④ 기억은 사람의 앎을 동일한 것으로 보존해 준다.
⑤ 동물은 연속 생성을 통해 계속 살아 있고자 한다.

**7.** 사랑에 관해 <보기>와 디오티마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보 기>

본래 인간은 지금의 인간 둘이 붙어 있는 이중 인간이었고, 성(性)도 '남-남, 여-여, 남-여'라는 세 조합이 있었다. 그들의 힘이 강성해 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제우스는 인간을 절반으로 잘랐다. 그런데 절반으로 잘린 인간들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 한 몸으로 돌아가기만 갈망하여 모든 일을 작파하다 멸종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제우스는 인간이 상대방과 몸을 합쳐 자식을 낳거나 결합의 만족을 얻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고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잃어버린 반쪽, 즉 애초의 자기 것을 찾아 한 몸을 이루려는 욕망이며, 그렇게 온전한 옛 자기를 되찾게 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①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②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③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④ 만남의 목적보다 만남 자체를 추구하는 것
⑤ 육체적 결합보다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조의(朝儀)는 군신(君臣)이 만나는 유교적 의식을 총칭했다. 조의의 참석자는 예를 받는 국왕과 예를 행하는 행례자(行禮者)로 구분되는데, 행례자는 조선의 관품 체제에 편성된 사람이었다. 조의에서 국왕의 자리는 근정전 내부에 남향으로 준비됐고, 행례자 자리는 마당에 북향으로 설치됐다.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문관을 동반, 서쪽에 위치하는 무관을 서반이라 했다. 동·서반에는 각각 관품별로 별도의 반열(班列)이 있었는데, 높은 관품의 반열이 앞줄이었고, 낮은 관품은 뒷줄이었다. 같은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동·서반 모두 가운데 길에 가까울수록 높았다. 동쪽은 양(陽)을 의미하므로 우위에 있는 동반을 배치한 것이고, 반열 및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국왕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배치는 유교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 내내 고정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은 조의 절차를 조정하여 국왕을 유교적 군주로 부각시키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적 형식과 현실적 편의성 사이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천명(天命)을 받은 유교적 군주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여야 했다. 조의에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왕은 움직이지 않고, 관원이 국왕을 찾아가서 뵙고 나오는 형식을 갖춰야 했다. 태조 때는 전체 관원이 입장하여 예를 행하고 퇴장하는 과정까지 국왕이 지켜보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적 군주상을 잘 반영한 형식이었으나, 고려 이래의 관행인 승려의 범패(梵唄) 연주와 아라비아 사람의 축송 순서가 있는 등 비유교적인 절차도 포함하고 있었다. 태종 때는 관원이 모두 입장한 상태에서 국왕이 입장하고, 행례 절차가 끝난 후에는 국왕이 먼저 퇴장했는데, 이는 국왕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었다.

세종 13년 정월 초하루에 진행된 ㉠ 정삭조하의(正朔朝賀儀)부터 조의는 조선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 관원이 나뉘어 입장했던 당(唐)의 의식을 참조하여, 유교적 군주상을 드러내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줄였다. 종전과는 달리 3품 이하 관원이 미리 입장하고, 이어 국왕이 어좌에 앉고, 마지막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한 후, 전체 관원이 함께 행례했다. 국왕은 2품 이상 관원의 퇴장을 지켜봤고, 이들의 퇴장과 동시에 행례의 종료를 의미하는 예필(禮畢)이 선언됐다. 이것은 2품 이상의 입·퇴장으로 전체 관원의 입·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이런 구성은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전체 관원을 대표하는 행례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여타 관원과 구분되는 2품 이상 재상급 관원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왕세자의 행례 절차도 이때 함께 정비했다. 왕세자가 일반 관원을 이끌고 행례할지는 논란이었다. 3품 이하 관원이 있는 상태에서 왕세자가 자신의 관속을 이끌고 입장하여 행례하고 퇴장한 후,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하여 전체 관원이 행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승려나 아라비아계가 담당했던 비유교적 요소도 배제했고, 일본인과 여진인 자리도 고정시켰다. 일본인은 동쪽, 여진인은 서쪽으로 했는데, 각각 조선에서 인정한 관품에 따라 해당되는 문무 관원의 반열 안에 가장 서열이 낮은 자리가 배정됐다.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조선적 질서를 규정한 것이다.

수정된 틀 위에서 다양한 절차가 구성됐다. 단순한 의식에서는 네 번 절하는 사배(四拜)만 있었지만, 정삭조하의에서는 여러 절차가 추가됐다. 의례 공간에는 국왕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장물이 배치됐고, 국왕의 임재(臨在)는 제후를 상징하는 홍·청색 의장으로 표시됐다. 사배에 이어, 축하 인사와 이마를 땅에 대는 고두(叩頭), 천세(千歲)를 외치는 산호(山呼) 등이 행해졌다.

세종 13년의 의식은 『세종실록』의 '오례' 조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이 조의에서는 예필이 선언된 후, 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이 먼저 퇴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황제권이 극대화된 명(明)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국왕의 편의가 더 고려된 형태로 조정된 것이었다. 이런 수정을 거친 후, 세종 13년의 의식은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서 정형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이후 그대로 시행됐다.

**8.** 입·퇴장 절차를 기준으로 조의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태조 때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② 태종 때 조의는 『세종실록』 '오례'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③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는 태종 때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④ 『세종실록』 '오례'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⑤ 『국조오례의』 조의는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왕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이용했다.
② 국왕의 행사장 퇴장 여부를 기준으로 예필의 시점을 정했다.
③ 동·서반 반열 중 가운데 길에 인접한 자리에 외국인을 배정했다.
④ 중국 의례 형식과 비유교적 의례 전통을 종합하여 의식을 구성했다.
⑤ 왕세자가 전체 관원을 대표하여 행례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드러냈다.

10. 위 글에서 <보기>의 ⓐ의 예를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교적 통치는 상징을 반영한 의례의 구성을 통해 드러났고, 의례는 상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현존하는 질서 내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의례의 현장은 특정 질서 체제 내에서의 우열 관계를 반영하여 ⓐ 사회적 차등화를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는 기능을 했다.

① 국왕 자리의 북쪽 배치
② 음양에 따른 반열 배정
③ 관품에 따른 행례 구분
④ 범패 연주 절차의 수용
⑤ 사배・고두・산호 시행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성은 ㉠ '참된 객관성', ㉡ '합의된 객관성', ㉢ '수용된 객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된 객관성은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완전히 배제된 객관성이다. 어떤 관찰 대상이라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참된 객관성에는 도달할 수 없다. 참된 객관성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참된 객관성이 구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합의된 객관성은 취재・보도의 절차 및 형식과 관련된다. 언론인들은 관례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취재와 보도를 하는데, 이때 보도가 갖는 객관성을 합의된 객관성이라고 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는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육하원칙과 같은 특정 형식을 통해 전달되므로 합의된 객관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된 객관성은 실재와의 조응 정도를 의미한다. 언론 보도의 객관성의 근거는 그 보도가 실재하는 현실, 즉 실제의 사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이다. 즉, 객관성의 검증은 이미 합의된 절차나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현실 그대로 재현했다면 그 기사는 수용된 객관성이 구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현실 반영 정도를 독자들도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수용된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 문제는 실제 취재・보도 과정 중 발생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구분은 검증이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을 구분하면 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 언론의 보도에서는 특정 경향성을 나타내어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우선 사실의 선택부터가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복잡한 사실들로 구성된 사건 중 일부의 취재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중 일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다. 윤색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이는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평가적 함축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의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전제된 가치의 문제도 있다.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당연한 전제로 가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가치만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평가, 판단,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이다.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 동일한 사안을 상반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동원해서 편의에 따라 한 조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기사를 통해 비판받거나 평가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기사 내용의 구성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적 뉴스를 접한 독자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그 해석의 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언론은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자신의 경향성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무능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먼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자체적으로 제정한 윤리 강령에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이런 비판을 정말 모른 채, 경향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론이 경향적 보도를 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의 경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양되어 전승되는 일종의 역사적 전통이다.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알면서도' 경향성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언론은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갈등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모든 관점을 아우르도록 편집하는 것이 잠재적 독자를 확보하는 상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독자를 저버리는 하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독자층을 유지하고, 광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은 객관성 구현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언론 현장에서는 객관성의 이념을 완전히 유기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보도가 객관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수단이자 언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1.**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취재 보도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기사의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③ 기사의 경향성은 언론의 계몽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통과 관계가 있다.
④ 언론의 경향성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언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도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1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
② ㉡은 보도의 관례적 절차를 따르면 성취될 수 있다.
③ ㉡은 보도 과정의 형식보다 보도된 내용을 중시한다.
④ ㉢은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다.
⑤ ㉢은 실재하는 현실에 조응하도록 사건을 전달하면 얻을 수 있다.

**13.** <보기>의 기사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의혹 폭로전, TV 토론에서 후보 간 혈투**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세 뒤집힐 수도

여론 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OO 후보와 이OO 후보가 TV 토론에서 폭로전을 벌였다. A 방송국이 주최한 오늘 토론에서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돈 선거 의혹을,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토론을 시청한 박OO 씨는 "돈 선거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선거일까지 두 차례의 TV 토론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는 혈투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윤색적 표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는 돈 선거, 사전 선거 운동 등의 제기된 의혹들을 기사화함으로써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는 김 후보의 입장은 포함하지 않고 이 후보의 입장만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일부 취재원의 발언만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의 선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는 정책 대결을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페인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므로, ㉠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기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포함하는 당시로선 다소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권리 개념까지도 수용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페인은 국가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각자 주권을 갖고 지도자와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란 공히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소멸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신성한 인간 권리의 수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택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도자나 국민 모두 회의주의나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민주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 버크, 페인, 러셀의 공통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수결의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②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③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국민은 존엄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존재이다.
⑤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15.**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버크가 말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② 버크는 국민의 자질이나 역할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더 중시했다.
③ 페인에 따르면 국민은 권리 보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④ 페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⑤ 러셀에 따르면 민주적 선거는 국민과 지도자 간 권력 관계의 평등을 보장한다.

**16.** ㉠의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 시간대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진입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②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발생 지역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 발찌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
④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 개발을 제한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체는 원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입체적 구조물인데,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결정질과 불규칙적인 비결정질로 구분된다. 고체의 여러 물리적 성질은 고체 내의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에 의해 설명된다. 전자의 파동은 변위라는 복소수로 표현되는데, 변위는 크기와 위상의 곱으로 주어진다. 임의의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변위 크기의 제곱으로 주어지며, 시간과 공간의 함수인 위상은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낸다. 파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 영역에 갇혀 진행에 방해를 받는 현상을 국소화(localization)라 하는데, 국소화에는 앤더슨 국소화, 약한 국소화, 동역학적 국소화의 세 가지가 있다. 앤더슨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비결정질 고체 내에서 일어나고, 동역학적 국소화는 비결정질과 상관없이 혼돈계에서 일어난다.

앤더슨 국소화란 파동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공간 안에 완전히 갇히는 현상을 말한다. 비결정질의 경우 임의의 위치에서 출발한 전자 파동이 다른 임의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하게 배열된 수많은 원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의 이동 경로가 무수히 존재하게 된다. 각 경로들이 갖는 위상들은 부호(+/−)가 다른 무작위 값을 가지는데, 이 경우 각 경로들에 대응되는 변위를 모두 합하면 그 크기가 0에 가까워진다. 이는 임의의 위치에서 출발한 전자를 다른 임의의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므로, 전자 파동이 멀리 진행할 수 없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갇혀 국소화됨을 의미한다. 이때 파동이 갇힌 공간적 영역의 크기를 '국소화 길이'라 하는데, 국소화 길이가 짧을수록 국소화가 강해진다.

앤더슨 국소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파동의 위상이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잘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상을 갖는 파동을 결맞은 파동이라 하는데, 결맞음의 정도를 '결맞음 길이'라는 양으로 표현한다. 결맞음 길이가 국소화 길이보다 길어야 국소화가 일어난다.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원자들의 요동이 커져 결맞음이 어긋나면서 결맞음 길이가 0으로 접근한다. 또한 앤더슨 국소화는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차원의 경우 장애물이 있다면 되돌아가지 않고 피해 갈 방법은 없다. 하지만 차원이 높아지면 장애물을 피해 가기 쉬워진다. 따라서 비결정질이 1차원인 형태에서는 전자가 국소화되어 부도체가 되지만, 3차원에서는 조건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국소화되지 않아 도체가 될 수도 있다.

약한 국소화는 파동이 폐곡선 경로에 약하게 갇혀 진행에 방해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약한 국소화는 도체/부도체의 특성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전기 저항의 차이를 설명한다. 비결정질 내부의 임의의 점에서 출발하여 전파되는 파동의 수많은 경로들 중에는 폐곡선 형태를 갖는 것들이 있다. 폐곡선에서는 전자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 이 두 경로는 동일한 곡선상에 위치하여 길이가 같으므로 두 경로를 지나 출발점으로 돌아온 파동의 위상이 같아지고, 이에 따라 전자의 파동이 중첩되어 변위가 커진다. 변위 크기의 제곱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므로, 변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전자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쉬워져 이동이 방해됨을 뜻한다. 따라서 방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전기 저항이 커진다. 하지만 자기장 안에서는 두 방향으로 도는 파동의 위상에 변동이 생겨 약한 국소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동역학적 국소화는 혼돈계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국소화를 말한다. 혼돈이란 미세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혼돈계에서는 모든 입자가 복잡한 운동을 하며 확산해 간다. 반면 파동은 혼돈계에서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갇혀 국소화된다. 왜냐하면 어떤 파동이 혼돈계 내에서 복잡하게 진행하는 것은, 파동이 비결정질에서 불규칙하게 배열된 수많은 원자 사이를 지나가는 앤더슨 국소화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7.** 앤더슨 국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국소화 길이가 결맞음 길이보다 길면 일어난다.
② 무수히 많은 경로들이 갖는 무작위적 위상 때문에 생긴다.
③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크기에 따라 결맞음 길이가 변한다.
④ 차원에 따라 비결정질이 도체가 될 수도 있는 현상을 설명한다.
⑤ 전자가 비결정질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확률로써 판별된다.

**18.** 국소화들 사이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동역학적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폐곡선 경로 때문에 생긴다.
② 앤더슨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파동이 완전히 갇히는 현상이다.
③ 앤더슨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비결정질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를 결정한다.
④ 약한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앤더슨 국소화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⑤ 앤더슨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고체를 이루는 원자 배열의 불규칙성 때문에 생긴다.

**19.**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약한 국소화가 일어난 비결정질 시료에 자기장을 가하고 자기장을 가하기 전의 전기 저항과 비교해 보면, 전기 저항은 ( A ).
○ 앤더슨 국소화가 일어난 비결정질에서 국소화가 사라지도록 하려면 온도를 ( B ).

| | A | B |
|---|---|---|
| ① | 커진다 | 높인다 |
| ② | 커진다 | 낮춘다 |
| ③ | 작아진다 | 높인다 |
| ④ | 작아진다 | 낮춘다 |
| ⑤ | 변화가 없다 | 그대로 유지한다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식 기능은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남녀 모두,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호르몬의 자극으로 두 종류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곧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황체 형성 호르몬은 고환 내 간질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남성 호르몬 합성을 촉진한다. 간질 세포에서 합성된 남성 호르몬은 혈액이나 고환 내 세르톨리 세포로 이동한다. 남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이 세르톨리 세포에 함께 작용하여 정조 세포를 정자가 되게 한다. 또한 남성 호르몬은 부고환에 작용하여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성숙시켜 수정을 위해 필요한 활동성을 갖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난소의 난포막 세포에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합성된 남성 호르몬은 혈액이나 난소의 과립 세포로 이동한다. 한편 난포 자극 호르몬은 과립 세포에 작용하여 과립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가 난포막 세포에서 이동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 여성 호르몬은 과립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난포 세포를 성숙시켜 난자로 만들고 배란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궁에 작용하여 임신에 대비한 기본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생식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혈중 성호르몬의 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고환에서 합성된 남성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는 난소에서 합성된 여성 호르몬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영향을 준다. 이 영향으로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고, 이것은 다시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중의 성호르몬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비만이 진행되면서 지방 세포로 인해 각종 호르몬의 균형 상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비만으로 인해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생식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비만은 체지방의 비율이 증가되는 현상인데, 남녀 모두 비만해지면 지방 세포의 작용으로 여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혈액에서 지방 세포 내로 유입된 남성 호르몬은 지방 세포 내에 있는 아로마타제 효소에 의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가 늘어나서 비만해지면 지방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의 작용이 그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 여성에서는 지방 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흡수·저장도 하기 때문에 높아졌던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가 다시 낮아지므로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한편 비만 남성에서는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뇌하수체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 비만 여성의 경우, 혈중 여성 호르몬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은 난소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혈중 여성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결국 비만으로 인해 난소 내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고 과립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성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난자 성숙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난소 내 성호르몬의 농도가 변화하게 되면, 미성숙 난자만 존재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증후군은 배란율 감소와 불규칙한 월경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불임을 야기한다.

**20.**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u>않는</u> 것은?

① 남성 호르몬은 정자가 활동성을 갖도록 한다.
② 아로마타제는 남성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하다.
③ 뇌하수체는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를 조절한다.
④ 남성 호르몬은 고환과 난소 모두에서 합성된다.
⑤ 황체 형성 호르몬은 간질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21.** 비만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u>잘못</u> 설명한 것은?

① 남녀 모두, 지방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은 증가한다.
② 남성의 경우, 고환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진다.
③ 남성의 경우, 혈중의 여성 호르몬 농도 변화량은 여성보다 크다.
④ 여성의 경우, 지방 세포 내의 여성 호르몬 농도가 정상보다 더 높다.
⑤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태의 난소 내 여성 호르몬 농도는 정상보다 낮다.

**22.** 비만 여성의 생식 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여성 호르몬 기능 유사 물질
ㄴ. 아로마타제 효소 기능 억제 물질
ㄷ.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 억제 물질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남편인 '나'는 '아내'의 몸에 생긴 초록색의 피멍이 점점 그녀의 온몸으로 번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내에게 원래 눈물이 많았던가? 그렇지 않았다. 상계동 아파트에 사는 건 싫어, 라고 말하며 처음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처녀 적의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에도 언제나 나직한 웃음의 기운이 밝은 배경 색처럼 깔려 있었다. 동안인 데 비하여 어른스럽고 차분한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떨며 아내는 말했었다.

인구 칠십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죽을 것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했었다.

살아 보지도 않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사람이 많은 게 왜 싫다는 거야.

나는 약간 정색한 얼굴로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한 눈이었다.

일부러라도 나는 번화가가 가까운 곳에서만 자취방을 얻곤 했어. 인파가 득시글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를 꽝꽝 울리고, 혼잡하게 도로를 채운 차들이 경적을 뱉어 대는 곳으로만 옮겨 다녔어. 그러지 않고는 배겨 낼 수가 없었어.

그 선한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그러지 않고는 혼자서 버텨 낼 수 없었다구.

아내는 그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더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치 세수하듯 두 뺨에 거푸 문질렀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 십삼 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렇게 끔찍한 소릴 해. 별나기도 하구나, 정말.

이곳 상계동 아파트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한 첫해에 아내는 과연 자주 잔병을 앓았다. 산동네 자취방의 추위에 익숙해 있던 아내는 밀폐된 아파트의 중앙난방에 적응하지 못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잰걸음으로 오르내리며 박봉의 출판사를 개근하느라 최대한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그녀의 몸은 쉽사리 원기를 잃었다.

그러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결혼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아내는 그동안 저축했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주말에 두어 건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어 모아 둔 돈을 죄다 털어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해 오던 참이었다.

[A] 떠나서 피를 갈고 싶어, 라고 아내는 말했었다. 줄곧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마침내 직속 상사에게 올렸다던 날 저녁이었다. 혈관 구석구석에 낭종(囊腫)처럼 뭉쳐 있는 나쁜 피를 갈아내고 싶다고, 자유로운 공기로 낡은 폐를 씻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다.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다고, 여건이 되지 않아 줄곧 미루어만 왔지만 이제 얼마간의 돈을 모았으며 자신감도 생겼으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일단 떠나서 육 개월쯤 한 나라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몇 달을 머무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말이야, 라고 아내는 말하며 나직하게 웃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 보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쉬엄쉬엄.

그러나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대신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이 아파트의 전세금과 결혼 비용에 털어 부었다.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아내가 꿈꿔 왔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것을 위해 그녀가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들 역시 어린아이 같은 것,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점을 아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며, 그 깨달음은 어쩌면 나로 인한 것이었으리라는 자부심 섞인 추측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일말의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베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투명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묵직한 철구(鐵球)가 발과 다리를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은 채 거기 서 있었다.

깊은 밤과 새벽이면 한산한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택시며 오토바이들의 굉음에 아내는 깜짝깜짝 깨어 몸을 떨곤 했다. 차들이 아니라 도로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도로와 함께 이 집도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내는 말했다. 굉음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다시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 아내의 귀염성 있는 얼굴은 산 사람 같지 않게 창백했다.

저것들,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인가, 들릴 듯 말 듯한 쉰 목소리로 아내는 꿈결처럼 물은 적이 있다.

……다들 어디로 저렇게 달려가는 거야?

(중략)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내가 세 번째 대야의 물을 끼얹었을 때 아내는 노란 위액을 꾸역꾸역 토해냈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아내의 입술이 오그라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희끗희끗한 입술을 더듬어 보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음성을 들었다. 다시는 아내의 목소리를, 신음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의 허벅지에서 흰 잔뿌리가 무성하게 돋아 나왔다. 가슴에서는 검붉은 꽃이 피었다. 끝은 희고 아랫부분이 노르스름한 도톰한 꽃술이 유두를 뚫고 올라왔다. 치켜 올린 손에 약간이나마 힘을 줄 수 있었을 때 아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싶어했다. 아직 어렴풋한 빛이 남아 있는 눈을 마주 보며 나는 그녀의 동백잎 같은 손이 내 목을 잘 안을 수 있도록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물었다. 잘 익은 포도알 같은 아내의 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가을 내내 나는 아내의 몸이 맑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을 열면 아내의 뻗어 올린 두 팔은 바람의 결을 따라 조금씩, 매우 조금씩 부드럽게 흔들렸다.

가을이 끝나 갈 무렵 하나둘 잎이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이었던

몸뚱이는 서서히 다갈색으로 변해 갔다.

아내와 마지막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언제였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아내의 아랫도리에서는 체액의 시큼한 냄새 대신 낯설고 향긋한 냄새가 났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아내가 비누를 바꾸어 쓴 모양이라고, 혹은 남는 향수를 심심풀이 삼아 두어 방울 떨어뜨려 본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을까.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 두 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알같이 맺혀 있던 눈동자는 ㉡ 다갈색 줄기 속에 차츰 파묻혀 갔다. 아내는 이제 볼 수 없었다. 줄기의 끝도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란다에 들어서면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한 느낌이 아내의 몸에서 나에게로 미미한 전류처럼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입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 움큼의 ㉢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낱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 한강, 내 여자의 열매 -

**2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중 화자인 '나'가 '아내'를 관찰하면서 '아내'에 대한 심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아내'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대비하여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③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던 관계가 반전되면서 둘 사이에 극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④ 환상적인 몽환 체험을 삽입함으로써 '아내'의 꿈에 대한 '나'의 반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⑤ '나'는 '아내'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일상생활에서의 세속적 욕망에 영향을 받던 변신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② ㉡은 '아내'가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 진입하게 된 차원이나 세계를 가리킨다.
③ ㉢은 육체성과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한 뒤 도달하게 되는 세계를 상징한다.
④ ㉠에서 ㉡으로 변신하는 비현실적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가 신비화된다.
⑤ ㉡에서 ㉢으로의 변신은 이전의 상황이 마무리된 뒤 다시 새로운 불행이 싹트고 있음을 암시한다.

**25.** [A]에 나타난 '아내'의 심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三萬里).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三萬里).

② 다만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가 부러워
끝 간 데 없이 뻗어나간 하늘이 부러워
바람이 부러워
포플라는 자유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언제껏 손을 쳐들고
흔들고만 있다.

③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④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균일도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여러 성분의 분말들이 혼합되어 복합 화학제품이 만들어질 때, 제품 사이에서 각 성분 함량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많은 양의 원료를 혼합한 뒤 그것을 일정한 질량으로 나누어 최종 판매 제품으로 만드는 대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균일도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균일도는 원료 혼합 공정의 전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료 분말을 최종 함량 비율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 교반기에 넣어야 하고, 교반 중에는 분말의 균일도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성분 함량 비율이 기준에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다종의 분말들을 섞는 혼합 공정에서 혼합 균일도는 교반기를 잠시 멈추고,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일정한 수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여, 각 검체별로 각 성분들의 함량비를 얻고 이로부터 각 성분 함량비의 분산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 분산 값이 작을수록 균일도가 높다고 본다. 교반기를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정지시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교반 진행 시간에 따른 분산 값의 추이는 모두 하강하는 곡선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일정 수준에 수렴하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교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분산 값이 미리 정한 기준에 도달되는 것이 확인될 때 혼합 공정을 종료하면 된다.

균일도를 정확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검체의 개수와 검체 하나당 질량, 검체의 채취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검체 개수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검체 개수가 너무 적으면 분산 값 추정에 오류가 많아진다. 또 검체 하나당 질량은 최종 제품 하나당 질량을 기준으로 삼아 그 채취의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 한편 검체의 채취 위치는 '무작위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즉 교반기 내 분말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에서 무작위적으로 고르게 채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 고전적인 방법은 교반 도중에 화학 분석을 위해 교반기를 반복적으로 대기하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화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검체들을 분석에 적합한 용액으로 만드는 검체 '전(前)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성분 함량의 검출을 위해 시약 반응을 이용하는 화학 분석법 자체가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 총시간을 절약하려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반기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분석으로 얻게 되는 정보가 교반기 안의 현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많이 교반한다고 잘 섞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말의 물성이 균일도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측면에서 물성이 같은 분말들은 오래 교반하는 것만으로도 잘 섞이지만, 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교반 과정에서 물성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구역들이 생겨나는 ⓐ '분체 분리 현상'이 일어나 혼합 균일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분체 분리를 가져오는 물성으로는 분말 입자의 크기, 밀도, 입체적 형태, 표면 부착성 등이 있다. 그런데 분말의 입자 크기와 같은 물성은 사전에 고르게 되도록 조절이 가능하지만, 밀도나 형태와 같은 물성은 실질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다.

균일도 점검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 분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교반기를 작동하는 중에도 교반기 최적 위치상의 투명창에 부착된 분광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동되고 있는 교반기 내부에서 섞이고 있는 분말 전체가 투명창 앞을 지나가면, 특정 시점에 투명창 앞을 지나는 분말의 일정 영역이 분광기가 보낸 빛에 노출된다. 이때 분말에 반사되어 분광기에 다시 도달하는 빛으로부터 분말의 성분 함량과 연관된 몇 종류 색의 빛의 세기 값을 얻게 된다. 각 빛의 세기와 성분 함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그 값은 분광기가 관측한 영역에서의 각 성분의 함량비 값으로 변환된다. 분광기를 통해 거의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함량비 값을 순차적으로 정해진 개수끼리 묶어 분산을 구한다. 이 분산 값이 미리 정한 기준에 이르면 분말이 잘 섞였다고 판단하여 혼합 공정을 종료한다.

**26.** 균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료 혼합 공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② 복합 화학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이다.
③ 복합 화학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함량비이다.
④ 통계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분산 값으로 측정한다.
⑤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혼합 공정을 종료한다.

**27.** ⓐ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① 교반 대기 시간을 줄인다.
② 검체 하나의 질량을 늘린다.
③ 분광기의 자료 전송 간격을 늘린다.
④ 검체 채취 위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⑤ 원료의 조절 가능한 물성을 서로 비슷하게 한다.

**28.** ㉠과 ㉡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 채취된 검체 | 빛에 노출된 분말 |
| ② | 검체의 개수 | 색의 종류 |
| ③ | 검체 하나당 질량 | 빛에 노출된 분말의 영역 크기 |
| ④ | 분석에 사용한 시약 | 분광기가 보낸 빛 |
| ⑤ | 시약의 반응량 측정 | 분말에 반사되어 돌아온 빛의 세기 측정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건축물은 주거나 근무, 공연 등 삶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며, 그러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그러나 이로써 건축의 본질이 다 설명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건축이 아름다움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건축물에 부가된 장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추구되는 본질적 성격이다. 하지만 실용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실용성과 아름다움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할 위기가 건축가에게 끊임없이 닥친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건축가의 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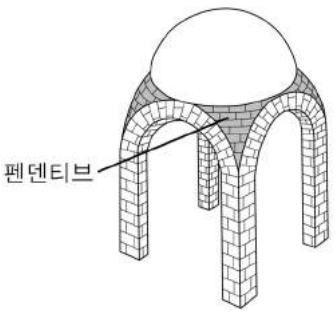
건축의 목적이 공간의 창조에 있다면, 실용성과 아름다움은 공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공간의 창조는 '에워쌈'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에워쌈이란 상하와 전후좌우의 경계를 지어서 사람들의 삶이 담기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다. 삶과 관련된 에워쌈이 없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조각이라는 점에서, 에워쌈은 건축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된다. 이때 에워싸진 공간을 외부와 구획하는 경계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결정된다. 가령 벽체 없이 기둥만 있어도 에워싸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또 경계 지어졌다고 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에워싸진 공간은 외부와 소통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에워쌈은 처음 건축가가 구상할 때는 아직 상상의 영역에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가 공항 터미널을 짓고자 할 때를 생각해 보자. 그는 비행기와 새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새 모양을 닮았으면서도 공항의 기능을 하는 에워싸진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상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형태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간을 유지할 구조물을 '세운다'는 데 핵심이 있다. 곧 '세움'은 공간 창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세움은 장승이나 비석을 세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입체적으로 에워싸진 공간을 만들려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를 세워야 한다. 이 복합체는 아래 부분을 에워싸게 지면에 세우는 기단부, 전후좌우로 에워싸게 세우는 본체부, 공간의 윗부분을 에워싸게 세우는 상단부 등 세 부분으로 분절된다. 이 세 부분이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되면서 그 안에 공간이 창조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에워쌈과 세움의 관계이다. 개념적으로 에워쌈은 세움에 선행하지만, 실제 건축 과정에서 두 행위는 동시적으로 수행된다. 세우는 과정에서 공간이 저절로 에워싸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두 행위는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우기 위해 상상의 에워싸진 공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상상의 에워싸진 공간을 위해 기존의 세우는 방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비잔틴 건축에서 볼 수 있다. 천국을 상징하는 천구 모양의 돔(dome)은 원래 원통형 벽을 쌓고 그 위에 반원구형으로 천장을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당시 건축가들은 윗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 공간 위에 반원구 모양을 얹은,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다 보면 둥근 천장이 바로 보이는 공간을 상상했다. 모든 회중이 일정한 방향으로 제단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제의 공간을 구현하려면, 중앙의 제단을 향해 참석자들이 빙 둘러서야 하는 원통형 공간보다는 참석자들 모두가 한쪽 면에 있는 제단을 향할 수 있는 육면체 공간이 훨씬 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원구형 천장과 육면체형 본체가 연결된 건축물을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은 상상만큼 쉽지 않았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들은 ㉠ 펜덴티브(pendentive)라는 삼각형 구면부(球面部)를 고안하여 육면체 공간 위에 돔을 얹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에워쌈과 세움의 갈등이 해소되어 아름답고도 실용적인 건축물이 지어졌던 것이다.




**2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에워쌈은 세움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된다.
② 건축은 아름다움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구조물로 이해해야 한다.
③ 건축은 삶을 담는 에워쌈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각과는 다르다.
④ 건축은 에워싸진 공간을 밀폐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짓는다.
⑤ 실제 건축 과정에서 공간 창조를 위한 에워쌈은 세움에 선행한다.

**30.** ㉠의 출현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구를 본뜬 반원구 모양의 상단부 양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② 상단부와 본체부 사이의 공간을 트인 모양으로 연결해야 한다.
③ 성직자와 신도가 위치하는 기단부는 사각형 모양으로 해야 한다.
④ 본체부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제단을 원의 중심에 설치해야 한다.
⑤ 윗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형 평면 위에 반원구 모양을 쌓아야 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정자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은 왕이 좋은 경치를 완상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이다. 숲과 연못 사이에 지어진 이 정자는 '아(亞)'자 형태로 만들었고, 정자의 일부가 연못 위로 걸치게 세워진 것이 특징이다.

① 난간 쪽 기둥 사이에 벽 대신 창호를 설치한 것은 외부와의 소통보다 차단을 중시한 것이다.

② 난간을 기단부 바로 위에 세우고 연못 위로 걸치게 한 것은 물 위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③ 연못에 정자를 떠받치는 긴 초석 두 개를 놓은 것은 높이 차가 큰 곳에 정자를 세울 때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④ 석재 기단 위에 목조 기둥의 사각 틀을 얹고 그 위에 기와지붕을 올려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⑤ 지붕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올려진 것은, 비바람을 막는 실용적 기능과 함께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는 심미적 기능을 하도록 고려한 결과이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그것이다. 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는 견해는 적극적 자유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박들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구분이란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속박, 그리고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 간의 구분이다. 나아가 이러한 속박들은 종횡으로 얽혀 네 개의 범주, 곧 내적인 적극적 속박, ㉠ 내적인 소극적 속박, 외적인 적극적 속박, 그리고 외적인 소극적 속박으로 나뉠 수 있다.

적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협박, 방해, 신체의 구속이 그런 속박의 예이다. 그에 반해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돈, 힘, 기술, 지식 등의 부족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부재하는 조건이란 점에서 소극적이다.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아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자아를 양심이나 이성으로 좁게 한정하면, 거의 모든 속박들이 외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의 구분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단순하게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경우 외적 속박은 사람의 심신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속박들은, 근육통이든 두통이든 저급한 욕망이든 그 자신에게는 다 내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속박을 구분하고 나서, '소극적 /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 적극적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란 무언가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인 것이다. 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극적 속박인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의 부재가 주체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속박이다. 또한 속박은 자연적인 무능력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나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와 관련된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적극적 요인만을 속박으로 간주한다면,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은 극빈자의 경우 그가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적극적 속박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살 돈이 없으므로 돈의 부족이라는 소극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속박을 외적 요인들에만 국한한다면, 고열로 심하게 아픈 사람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외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의 내부에 그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속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없다면 X를 할 자유가 있다. 역으로, 내가 X를 할 자유가 있다면, 아무 것도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요컨대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다.

**32.** 위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적극적 속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극적 속박도 없다.
②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③ 적극적 자유이든 소극적 자유이든 속박의 부재로 설명된다.
④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⑤ 소극적 자유는 기회로, 적극적 자유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3.**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스키를 타고 싶은데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타지 못하는 경우
② 스키를 타고 싶은데 스키를 타러 갈 돈이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
③ 스키를 타고 싶은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겨 타지 못하는 경우
④ 스키를 타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
⑤ 스키를 타고 싶은데 스키 타는 방법을 몰라서 타지 못하는 경우

**34.** <보기>가 뜻하는 바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수리처럼 날 수 없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① 자유롭지 못해서 생기는 무능력과 자연적인 무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② 자유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욕구들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③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아닌 데서 오는 욕구의 좌절은 속박의 문제가 아니다.
④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며, 자유는 할 수 있는 것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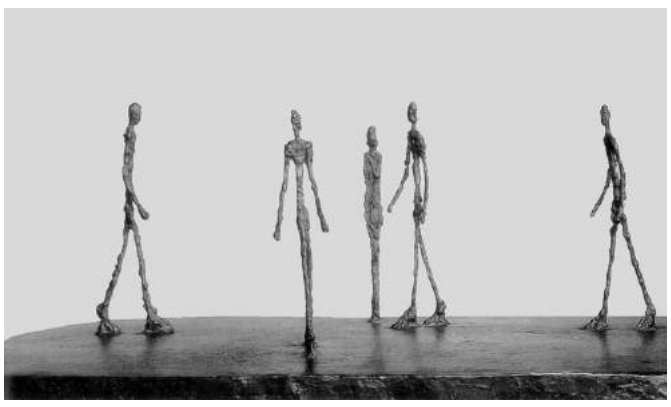
브레송, <자코메티>(1961)

비가 내린다. 파리 이폴리트맹드롱 거리. 비는 허공에 머물다 하강한다. 비는 스스로 자신의 무게를 벗고 지면을 향한다. 도로를 흥건히 적신 비. 비는 수직선(線)의 형상을 벗고 지상과 만나 면(面)이 된다. 산화(散華)하는 비. 세상에 부치는 마지막 인사. 수직의 빗줄기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를 연상시킨다. 비는 실존의 감각적 형상이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비좁은 작업실에서 잠깐 거리로 나섰다. 건널목을 건너는 자코메티를 브레송은 재빨리 포착했다. 찰나적 순간을 잡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귀재. 그래서일까, 사진 속 자코메티는 '어어' 하며 이곳을 그저 응시할 뿐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 두 발은 대지와 밀착돼 있다. 노출을 꺼리는 은둔자는 이렇게 우리와 마주했다.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브레송의 예술 세계를 잘 요약한다. 결정적 순간을 탐식하듯 포착하는 브레송의 촉수는 이처럼 날렵하다.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켜 작업실에서 38년을 은둔한 자코메티. 작업만이 그가 세계와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오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한 그도 브레송의 더듬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자코메티. 그의 은둔적 기질은 유년기부터 그를 포박했다. 사물과 사물이 공간의 심연에 의해 격리된다는 막연한 불안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물이 격리되고 서로 단절되는 것과 인간 사이의 그것을 동일시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단독자로서의 개인을 발견했고 불안과 손잡았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미의식을 맞추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공포와 불안에 직면할 때가 많지 않은가. 자코메티는 사람 사이의 그러한 단절을 끝까지 밀고 갔다.



자코메티, <광장Ⅱ>(1947~1948)

가늘고 긴 형상,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량은 배제돼 마치 정신만이 남은 듯한 일련의 인간 시리즈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가늘고 긴 뼈대로 조형함으로써 극도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고립감을 제시했다. 과장된 발의 크기는 대지와 밀착돼 고립 상태를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그들은 한 공간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계를 꿈꿔도 본래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물질적인 요소가 최대한 제거된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프게 재현된 것이다.

부피와 질량을 제거한 가늘고 긴 입상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비의 형상을 닮았다. 비처럼, 인간 역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리라. 운명이다. 비, 그리고 그가 조형한 입상은 수직이다. 자코메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자신이 조형한 입상처럼 숨을 듯 서 있다. 전면에 불편하게 시야를 가리는 나무는 그를 가두는 것처럼, 그러나 그와 수직으로 만나 팽팽하게 긴장한다. 바닥의 건널목 표지는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등 같다. 그러나 그는 망설인다. 칩거와 외출, 격리와 연계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그때 브레송은 자코메티의 광장 속 외로운 수직 입상들을 떠올렸으리라. 그리고 그를 재빨리 포착했다. 순간 고독한 은둔자의 진면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 결정적 순간이다. 그를 둘러싼 현장이 아연 생기를 띤다. 전면의 나무, 그리고 자코메티, 그의 왼쪽 뒤로 우뚝 선 나무는 사선으로 위치해 평면에 깊이를 준다.

이폴리트맹드롱 거리, 비가 내렸다. 빗줄기처럼, 외롭게 수직으로 선 자코메티. 비처럼, 그 역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리라. 아래 시의 새처럼, 우리 모두 그러하리라.

[A]
새들도 마지막엔 땅으로 내려온다.
죽을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
새처럼 죽기 위하여 내려온다.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종종거리다가
입술을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다.

죽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서 있다.
아름다운 듯 서 있다.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들고
정신의 땀을 흘리고 있다. - 최문자, 닿고 싶은 곳 -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코메티의 작품을 그의 전기적 사실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
② 자코메티의 입상과 비의 외형적 유사성에서 공통적 속성을 유추하고 있다.
③ 브레송의 사진을 통하여 자코메티의 예술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자코메티와 브레송의 작품을 대비하여 사진과 조각의 예술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⑤ 수직적인 구도를 중심으로 브레송의 사진과 자코메티의 조각을 연결하여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다.

**36.**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경과 상황이 피사체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다.
② 피사체의 감춰진 본성이 사진을 통해 잘 드러나는 순간이다.
③ 사진작가가 이끄는 대로 피사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④ 사진작가의 예술적 감각이 피사체 포착의 관건이 되는 때이다.
⑤ 사진 예술이 추구하는, 현장에서의 미적 정수가 구현된 경우이다.

**37.** 위 글의 맥락에 따라 [A]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죽을 줄 아는 새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게를 벗고 스스로 산화하는 비처럼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②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고립이라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이 타인과의 유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새'가 '입술을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 것은, 브레송의 사진에서 자코메티의 앞에 건널목 표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④ '죽지 못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듯' 서 있는 것은, 자코메티의 작품 속 입상들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것과 상통한다.
⑤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들고 '정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자코메티가 작업 활동에 매진했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표면에 있는 어떤 형상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로 표현하는 지리 좌표계는 구형의 표면인 지표상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의 지도에서 그 형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도 투영법이 필요하다. 지도 투영법이란 투명한 지구본 안에 광원을 두고 그 광원에서 빛을 쏘았을 때 투영면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지도로 그리는 방법이다. 그림자가 비춰지는 이 투영면은 단순한 평면일 수도 있고, 원뿔이나 원통 모양으로 지구를 에워싸서 투영한 후 이를 펼친 면일 수도 있다. 이들을 각각 평면 도법, 원추 도법, 원통 도법이라 한다. 평면 도법은 중심점을 지나는 모든 대권(great circle)이 그 중심점으로부터 방사상으로 뻗은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상의 방위가 지표면에서의 방위와 일치하도록 표현된다. 극점을 중심으로 투영하면 위선은 동심원, 경선은 극에서 뻗은 방사상 직선으로 나타난다. 원추 도법으로 지구본의 위선과 접하게 투영하면 위선은 동심원의 호, 경선은 극에서 뻗은 방사상 직선으로 나타난다. 원통 도법으로 지구본의 적도와 접하게 투영하면 위선과 경선은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구를 투영하는 과정에서 이들 투영면에 비춰진 그림자를 그대로 그리는 것은 아니며, 각 투영면에 나타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방법으로 경선과 위선의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지구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표상에 있는 형상들의 모양이 닮은꼴로 유지되는 정형성, 지표에서 측정된 면적과 지도상에서의 면적의 비례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적성, 지표면에서 측정된 거리와 지도상의 거리의 비례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거성, 지도상에서의 각 지점들 간의 방위가 지표면 위에서의 방위와 같도록 하는 진방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지구본밖에 없다. 지도를 제작할 때 이들 가운데 어떤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특성들은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도 투영법은 세 가지의 투영면마다 경선과 위선의 간격을 조정하여 이러한 지구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를 제작할 때는 지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지시켜야 할 특성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투영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선, 정형 도법은 정형성을 유지하는 투영법이다. 여기에서는 경선과 위선의 교차 각도가 지구본상에서와 같이 유지되고 한 지점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가령, 투영 과정에서 지표상의 형상이 동서 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난다면 남북 방향도 늘어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정형 도법의 예로 ㉠ 메르카토르(Mercator) 도법을 들 수 있다. 원통 도법을 조정한 이 투영법은 항해를 위해 제작되었으나 고위도 지역일수록 면적이 과장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정적 도법은 정적성을 유지하는 투영 방법이다. 정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양은 다르지만 면적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만약 지도의 특정 부분이 동서 방향으로 확대되었다면 반드시 남북 방향으로 축소해서 면적비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그 모양이 압축되거나 길게 늘어나거나 휘어진다. 정적 도법의 예로 ㉡ 람베르트(Lambert)의 정적 원통 도법을 들 수 있다. 이 투영법은 정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서 방향의 축척 증가를 남북 방향의 축척 감소로 상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거 도법은 정거성을 유지하는 투영 방법이다. 정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상 두 지점 간의 직선거리가 지구상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인 대권상의 호(弧)를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정거 도법의 예로 평면 도법을 이용한 ㉢ 정거 방위 도법이 있다. 이 투영법을 극 중심으로 표현할 경우 위선은 같은 간격의 동심원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방위 도법이란 진방위를 유지하는 투영 방법이다. 여기서는 한 중심 지점부터 다른 모든 지점까지의 방위가 지구상에서와 같도록 유지된다. 다른 도법과는 달리 방위 도법은 정적성, 정형성, 정거성 중의 하나와 함께 유지되도록 투영할 수 있다.

**3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모든 평면 도법은 진방위를 유지한다.
② 정거성은 평면 도법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③ 정형성과 진방위를 모두 만족하는 투영법은 없다.
④ 정적 도법은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축척이 같다.
⑤ 정형성을 가진 모든 지도는 경선과 위선이 정사각형을 형성한다.

**39.** 위 글의 ㉠~㉢과 <보기>의 ⓐ~ⓒ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다음의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려고 한다.

| 정보 | 도법 |
|---|---|
| 세계 국가별 인구 밀도 분포 | ⓐ |
|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화물선의 항로 | ⓑ |
|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여객기의 직선 항로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40.** <보기>의 실험 결과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북위 38도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 km에 해당하는 원을 지구본 위에 그렸다. 이를 (가)와 (나)의 투영면에 투영한 후, 경선 간격은 그대로 두고 위선 간격만 조정하여 정형성이나 정적성, 또는 정거성을 갖도록 하였다. 투영된 지도에서 처음의 원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가) (나)



* 투영면의 중심은 (가)는 적도, (나)는 북극임.

① (가)가 정형성을 갖도록 조정하면 지도상 원의 면적은 줄어들 것이다.
② (가)가 정적성을 갖도록 조정하면 지도상 원의 모양은 동서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
③ (나)가 정형성을 갖도록 조정하면 지도상 원의 면적은 그대로일 것이다.
④ (나)가 정거성을 갖도록 조정하면 지도상 원의 모양은 그대로일 것이다.
⑤ (나)가 정적성을 갖도록 조정하면 지도상 원의 모양은 남북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1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제 [ 1 ] 교시 [ 언어추론 ] 영역 정답표

## [ 공통 ] 계열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⑤ | 11 | ① | 21 | ① | 31 | ① |
| 2 | ④ | 12 | ③ | 22 | ③ | 32 | ③ |
| 3 | ④ | 13 | ② | 23 | ① | 33 | ⑤ |
| 4 | ⑤ | 14 | ② | 24 | ⑤ | 34 | ④ |
| 5 | ③ | 15 | ⑤ | 25 | ② | 35 | ④ |
| 6 | ④ | 16 | ④ | 26 | ③ | 36 | ③ |
| 7 | ② | 17 | ① | 27 | ⑤ | 37 | ① |
| 8 | ⑤ | 18 | ② | 28 | ② | 38 | ① |
| 9 | ① | 19 | ③ | 29 | ③ | 39 | ③ |
| 10 | ④ | 20 | ② | 30 | ④ | 40 | ② |

2012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 – □□□□□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10 : 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팸 메일이란 대량으로 반복해서 전달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은 그 내용이 유해한 음란물이나 기만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이어서, 수신자들은 심리적 불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스팸 메일은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팸 메일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 금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스팸 메일도 일종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스팸 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발송자에 대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또 스팸 메일이 수신자의 알 권리 행사와 자기 정보 통제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스팸 메일에는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수신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고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스팸 메일 금지는 개인적 기본권 차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논쟁도 야기한다. 스팸 메일을 기업의 기본적 영업 행위의 하나인 광고라고 본다면 스팸 메일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팸 메일은 광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스팸 메일 금지는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스팸 메일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스팸 메일 발송자의 표현의 자유와 수신자의 인격권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스팸 메일의 규제 방식은 옵트인(opt-in) 방식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광고성 메일을 금지하지는 않되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국 등 EU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신 동의 과정에서 발송자와 수신자 양자에게 모두 비용이 발생하며, 시행 이후에도 스팸 메일이 줄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일단 스팸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신자가 이를 거부하면 이후에는 메일을 재발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스팸 메일과 일반적 광고 메일의 선별이 어렵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며 불법적으로 재발송되는 메일을 통제하기 힘들다. 또한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스팸 메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옵트아웃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법은 광고 정보 전달 시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발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메일 주소를 수집한 출처, 그리고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물 광고 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 영리성 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 발송자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교묘히 피해 가며 발송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스팸 메일 규제가 어렵고 수신자가 민사상 피해 구제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옵트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 위 글에 드러난 쟁점이 아닌 것은?

① 스팸 메일은 헌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② 스팸 메일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③ 스팸 메일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④ 스팸 메일의 발송자와 수신자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⑤ 스팸 메일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

**6.**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옵트인은 수신자의 인격권 보호에 효과적이다.
② 옵트인은 수신에 동의하는 데 따르는 수신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③ 옵트아웃은 스팸 메일과 일반적 광고 메일을 구별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④ 옵트아웃은 수신 거부 절차가 불편하고 재발송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⑤ 옵트아웃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광고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취약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스팸 메일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신자는 스팸 메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ㄴ.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물 광고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ㄷ. 광고 정보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교묘하게 피하여 전달하는 스팸 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ㄹ.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스팸 메일을 발송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면 끈 모양의 폴리펩티드가 된다. 이 폴리펩티드는 꺾어지기도 하고, 둘둘 말리기도 하면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폴딩(folding)이라고 하며, 이렇게 입체 구조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를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한 3차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단백질 생산에는 리보솜과 샤페론 등이 관여한다. 리보솜은 세포핵이 제공하는 유전자의 서열 정보에 따라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해 폴리펩티드를 만든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 중에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폴딩하여 기능성 단백질이 되고, 스스로 폴딩하지 못하는 폴리펩티드는 샤페론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폴딩된다. 세포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샤페론이 존재하며, 그 각각마다 작용하는 폴리펩티드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폴리펩티드의 폴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폴리펩티드가 폴딩하지 못하고 서로 얽혀 응집된 덩어리 형태를 띤다. 또한 세포에 열, 중금속, 화학 물질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폴딩 중이거나 이미 형성된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비정상적인 3차원 구조로 변하는 미스폴딩(misfolding) 현상이나 3차원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 풀리는 언폴딩(unfolding)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구조가 변한 단백질을 변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변성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흐트러져서 소수성(疏水性) 아미노산이 분자 표면에 노출된 형태로 바뀐 것이 많다. 변성 단백질 분자 표면에 노출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서로 당기는 상호 작용을 한다. 그 결과로 변성 단백질들이 모여 물에 녹지 않는 응집체가 형성된다. 응집체의 형성 과정은 대부분 비가역적이어서 일단 형성된 응집체는 쉽게 응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응집체를 형성하기 전에, 응집체 형성을 저해하는 샤페론에 의해 변성 단백질이 원래 구조로 회복되는 것이 리폴딩(refolding)이다. 리폴딩은 실험 상황에서는 샤페론 없이도 재현할 수 있다.

세포에는 잘못 생산된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변성 단백질의 재생과 분해 작용을 담당하는 품질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 품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소포체 내부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이것은 소포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소포체 스트레스의 해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포체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ATF6가 활성화되어 소포체 샤페론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샤페론은 리폴딩을 통해 변성 단백질을 정상 단백질로 재생한다. 재생이 되지 못하는 변성 단백질은, IRE1과 XBP-1의 연쇄적인 활성화로 단백질 분해 기구가 활성화되어 분해된다. 이 분해 과정은 재생이 어려운 변성 단백질을 세포질로 역수송하여 분해되도록 하는 것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소포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유지되어 변성 단백질의 축적이 지속되면, PERK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인 eIF2α를 불활성화(인산화)하여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기능을 멈추게 해 변성 단백질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단백질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면 세포는 다음 단계의 수단으로 스스로 사멸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단백질의 구조 변성은 세포의 생존을 위협한다.
② 리보솜은 유전자 서열 정보를 받아 단백질 생산에 관여한다.
③ 세포 내 단백질들의 폴딩은 세포에 가해진 열에 영향을 받는다.
④ 응집체를 형성한 세포 내 폴리펩티드는 자발적으로 리폴딩한다.
⑤ 단백질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존한다.

**9.**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포체의 XBP-1의 활성화
ㄴ.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의 손실
ㄷ. 소포체 내의 샤페론의 농도 감소
ㄹ.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의 불활성화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보 기>

서로 다른 단백질 A와 B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농도가 낮은 A와 B의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두 수용액은 상온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각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A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ㄴ. B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0℃로 가열하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ㄷ.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섞어 50℃로 가열했더니 응집체가 생성되지 않았다.
ㄹ. ㄱ 실험의 결과로 생성된 응집체를 수거하여 세제 수용액에 녹인 후,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니 A가 물에 녹아 있었다.

(단, 수용액의 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무시하며, ㄷ과 ㄹ 실험 결과에서 얻은 최종 수용액 속의 A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

① A의 응집체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분자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하며 형성된다.
② B는 70℃에서 입체 구조의 변화가 없다.
③ A는 B에 대해 샤페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④ 세제는 A 변성 단백질 간의 소수성 상호 작용을 차단한다.
⑤ A는 ㄹ 실험의 시험관 조건에서 리폴딩되지 않는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이단을 물리친다'는 입장에서 도가 사상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대한 주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율곡 이이는, 이론적 고원(高遠)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자』에 담긴 수신적 덕목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자』가 유학의 체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서명응이 『노자』의 비움과 낮춤의 도리를 양생(養生)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하고, 홍석주가 마음 수양법으로 수정(守靜)과 과욕(寡欲)에 주목하여 양생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은 이이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자의 본의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곡해하여 『노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명응이 『장자』 내용의 황당함을 거론하여 『노자』와 차별화하고, 홍석주가 노자와 도가를 구별하면서 장자가 유학의 도를 비난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도가서 주석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세당이다. 그는 노자 사상이 성인의 도(道)는 아니지만 그 사상을 배척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세간에서 읽고 있는 『노자』를 성인의 가르침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며, 『노자』의 올바른 해석을 학문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겸허의 처세술을 노자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무(無), 무위(無爲)' 등을 유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장차 빼앗으려거든 반드시 주어라'라는 말은 권모(權謀)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명(功名)과 이익에 머무르지 않는다'도 결국 공명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비판적 입장도 제시하였다.

한편, 박세당은 당시까지 장자 사상의 근본 성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주해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장자가 제자(諸子) 가운데 공자를 제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자』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고전이라고 보고, 장자가 유학의 윤리 강상을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세계와 동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가) '친유가적 장자'로의 전환을 꾀했던 그의 『장자』 이해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물론」의 '성심(成心)'을 장자의 본의와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장자는 본래 '성심'을 구성된 마음, 즉 피아간의 시비를 일으키는 선입견으로 파악하고, '성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태나 타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상호 대립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시비 대립이 결국 허구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조의 태도를 통해 시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세당은 '성심'을 하늘에 정해진 이치가 나에게 부여된 것, 즉 인간에게 내재한 보편적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인식과 판단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시비 대립이 해소됨은 물론 인식의 동질성도 확보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객관적 시비 판단을 통해 합리적 정치 행위의 실천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박세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자 사상과 유학의 친근성을 긍정하고자 『노자』의 반유학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그 의미를 적절히 약화하여 주해한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의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과 함께 그의 해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이 보수적 폐쇄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른 사상에 대해 포용성을 넓혀 갔다는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의 실제적 효용성보다 이론적 체계성에 주목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②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을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의 범위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③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근본 취지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④ 조선 중기에는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무조건 배척과는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
⑤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은폐하여 유학과 노자 사상의 사상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12.** 『노자』와 『장자』에 대한 박세당의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노자』가 비록 성인의 도는 아니지만 그 책이 세상에 이미 통행하고 있으니,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음 세상을 거듭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ㄴ. 도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禮)로써 공명을 도모하고, 항상 치도(治道)를 말하나 수기에 근본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자가 꺼려서 멀리한 것이다.
ㄷ. 장자는 노자를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자의 학문은 세상에 나와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장자는 이와 같지 않다.
ㄹ. 공자가 존숭되어야 하는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던 자로는 장자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장자』의 언외(言外)의 의미도 궁구해 알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자는 제한적 인식에 따른 시비 판단은 허구성을 수반한다고 본다.
②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을 인식 주체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한다.
③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인 선입견이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객관화된다고 본다.
④ 박세당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의 근원적 설정이 시비 대립을 해소한다고 본다.
⑤ 박세당은 시비 대립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관하여 파악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는 양가성 개념이다. 원래 양가성은 어떤 것과 그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욕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인데,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이것을 식민 상황의 일반적 특징으로 확장한다. 곧 식민자(colonizer)와 피식민자(colonized)의 정체성, 언어, 문화는 분열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분열된 정형'은 이러한 식민지적 양가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정형이란 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자가 문학 작품에서 피식민자를 묘사할 때 그 정형은, ㉠ '충직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잘 보여 주듯이, 분열·모순되어 있으면서 양가적인 두 이미지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식민자의 유동하는 정형, 즉 '재현된 타자성'은 그것을 거울로 하여 형성되는 식민자의 정체성마저 불안정하게 만든다.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본국에 맞게 교화하려 하거나 거꾸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려 할 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 언어 등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하려 해도 그 모방은 완전히 똑같은 복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완전한 동화를 두려워한 식민자가 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불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이 놓인 맥락(역사, 전통,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식민자의 모방은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흉내 내기'가 될 뿐이다. 모방 과정에서의 차이는 피식민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와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전유'라 한다.

주목할 점은 신성하고 권위적이어야 할 식민자의 담론과 문화가 흉내 내기나 전유의 과정에서 피식민자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런 이유로 흉내 내기나 전유가 모두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저항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 때문에 피식민자의 의식적인 동화 행위도 차이를 낳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식민자의 문학을 흉내 낸 ㉡ '검은 셰익스피어'는 차이를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식민자에 저항했던 것이다.

흉내 내기나 전유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화, 담론, 인종, 언어 등을 섞이게 만드는데, 이러한 섞임을 '혼종'이라 한다. 혼종은 피식민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상호 전염·변형을 통해 식민자에게도 나타난다. 혼종은 절대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와 위계를 상정하는 식민자에게 위협적이다.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모두 그 정체성이 오염되고 유동적인 혼종이라면 자기 우월성의 근거도, 따라서 식민 지배의 근거도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문학 연구는 이러한 양가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친일과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식민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도 식민 지배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피식민자의 정체성이건 식민자의 정체성이건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피식민자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식민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친일과 반일의 어느 한쪽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일상적인 식민 경험에 주목하지

않았다.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고, ㉡은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이다.
② ㉠은 피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주고, ㉡은 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준다.
③ ㉠은 피식민자의 단일한 타자성을 드러내고, ㉡은 피식민자의 불완전한 모방을 드러낸다.
④ ㉠은 식민자에 의해 부여된 양가적 이미지이고, ㉡은 피식민자가 생산한 혼종적 문학이다.
⑤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재현할 때 발생하고,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할 때 발생한다.

**15.**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는 식민 지배를 비판·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②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의식적 협력과 무의식적 저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피식민자의 모방이 분열적인 혼종을 낳을 수 없다고 본다.
④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서로 다른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⑤ 민족주의는 단일하고 고정된 주체에 의해, 탈식민주의는 분열되고 모순된 주체에 의해 저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16.** <보기>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소설의 일부이다. 위 글의 관점에 따라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숙부는 한 군(郡)의 수장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게 위신에 관련된 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연설하고 코풀이 선생에게 조선어로 통역하게 했다. 인식(仁植)은 숙부가 일본어 따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첩을 향해서조차 어찌나 득의양양하게, 그게 또 대단한 일본어라도 되는 양 청산유수로 떠들어 대는 것을 몇 번이고 봐 왔기 때문에, 숙부가, 누구 하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 없는 화전민들을 향해, 굳이 통역을 대동하여 실로 애처로우리만큼 엉터리 일본어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다.

(중략)

숙부는 말했다.

"저 여우 같은 낯짝을 하고 있는 내무 주임은 말이다. 연설만은 나를 당해 낼 수 없어서 두 손 다 들었단 말이지. 아무리 자기가 일본인이고 상관인 나보다 실권도 월급도 많다고 잘난 척해도, 연설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월등하다는 건 명백하니까."

① 숙부가 일본인을 흉내 내어 구사하는 엉터리 일본어는 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는 원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훼손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숙부는 일본어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식민자를 자발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숙부가 엉터리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가 식민자가 구사하는 일본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부의 행위는 전유라 할 수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목조 건축물은 지붕과 목가구조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지붕은 기와 등의 각종 마감재와 이를 받치는 서까래로 구성되고, 이 지붕을 떠받치는 목가구조는 서까래에 직접 맞닿는 도리와 이것을 지지하는 기둥과 보로 구성된다.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놓이는 부재이며, 도리와 보는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보아 각각 좌우와 전후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놓이는 부재이다.

가장 원초적인 목가구조는 기둥과 도리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건물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도리는 경사 부재인 서까래를 직접 받치고 각 도리에는 기둥이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경사 지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있는 종도리 1개와 낮은 높이에 있는 전·후면 기둥 위의 처마도리 2개를 포함한 3개의 도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종도리와 처마도리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지붕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측면은 종도리에 연결된 가장 긴 중심 기둥과 전·후면의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며, 지붕의 하중은 각각의 도리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어 지면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3개의 도리가 있는 목가구조를 3량가(三樑架) 구조라고 한다. 3량가 구조는 전통 목가구조의 기본이 되며 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측면은 3개의 기둥이 존재하는 2칸 구성이 된다. 이때 정면 역시 2칸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상정해 보면 그 중앙에 종도리를 받치는 내부 기둥이 하나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보는 이러한 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중앙의 종도리를 받치는 기둥을 지면까지 내리지 않고 마주 선 두 기둥의 상부에서 수평으로 놓인 보와 연결하여 실내 공간에서 내부 기둥을 없앤다. 여기서 보와 종도리를 연결해 역학적으로 내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공이라고 하는데, 내부 기둥이 지지해야 하는 지붕의 하중은 대공과 보를 통해 남은 두 기둥으로 분산되어 전달된다. 보의 도입으로 내부 기둥을 없애는 감주(減柱)가 가능해지므로, 3량가 목가구조의 내부 종단면(정면 중앙의 기둥을 축으로 하여 건물을 건물 측면과 평행하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1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감주는 내부 기둥에 의한 공간의 분절성을 없앨 수 있지만, 2칸 구조에 비해 역학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내부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지붕의 면적도 그에 따라 넓어져야 한다. 서까래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종도리와 양쪽 처마도리 사이에 중도리를 하나씩 삽입하고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에 서까래를 따로 두어 목가구조 및 지붕을 확장한 것이 ㉠5량가 구조이다. 이때 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단면의 칸수는 늘어나게 되므로, 보를 도입하여 역학적으로 종도리를 받치는 종대공, 중도리를 받치는 중대공으로 내부 기둥을 대신하게 한다. 이를 통해 목가구조의 종단면에 있는 내부 기둥들을 제거하는 다양한 감주가 가능해지므로 건물 내부의 공간을 의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붕과 보를 포함하는 건축물 상부의 하중도 같이 늘어나므로 내부 기둥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 역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내부 기둥을 배치한다. 건물의 외곽열을 이루는 각 기둥의 위치에서 마주 보는 기둥의 위치를 연결하면 건물 내부에 격자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정치법(正置法)은 각 연결선이 만나는 정확한 지점에 내부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조를 만든다. 가령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에 내부 기둥을 둘 경우 모두 4개의 내부 기둥을 정위치에 둔다. 건물의 출입문이 있는 쪽을 전면, 그 반대쪽을 후면으로 부르는데, 내부 공간에 정치법에 의해 놓이는 기둥의 전·후면 배열을 각각 전열, 후열이라고 부른다. 기둥 전열이나 후열 혹은 전체를 열 단위로 없애는 방식이 감주법이다. 또한 특정 목적에 따라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기둥 전·후열을 약간씩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식이 이주법(移柱法)이다. 감주와 이주는 정치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떨어뜨리지만 다양한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지붕의 경사는 서까래와 도리의 길이에 따라 정해진다.
② 대공은 지붕의 하중을 분산하여 기둥으로 직접 전달한다.
③ 중도리는 지붕의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하중을 분산한다.
④ 종도리는 목가구조의 최상단에 건물 측면과 평행하게 놓인다.
⑤ 감주는 공간 활용도와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18.**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3량가에 비해 보 위의 목가구조가 복잡해진다.
② 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종단면에 나타나는 칸수는 4칸이 된다.
③ 중도리의 위치를 조절하면 지붕 경사면의 모양에 변화를 줄 수 있다.
④ 보를 사용하면 종단면에서 보를 받치는 내부 기둥의 수는 0~3개이다.
⑤ 보를 사용하면 3량가보다 큰 규모의 연속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19.** <보기>의 ㄱ과 ㄴ에 적용된 기둥 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불전이 있다. 이 건물은 후면의 내부 기둥 중에서 중앙 2개의 기둥 사이에 불단을 두고, 불단 앞으로 중앙 출입문 쪽에 텅 빈 예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 불전과는 달리 남은 네 기둥도 정위치보다 뒤에 배치하여 예불 공간을 더욱 넓게 만들었다.

ㄴ. 궁궐의 편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구성된다. 용상(龍床)은 건물 내부의 후면 중앙에 설치하고 내부 기둥을 중앙 출입문 쪽에 2개만을 설치하여 신하가 품계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지표가 되도록 했다.

① 정치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전열감주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후열감주법은 ㄱ에는 사용되었으나 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전열이주법은 ㄴ에는 사용되었으나 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후열이주법은 ㄴ에는 사용되었으나 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저께 장인과 통화했어."

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매일 스스럼없이 문안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스런 저 태도. 문식과 자영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님처럼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자네 왔는가. 잘 가게. 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앙갚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는 않으시더군."

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음을 안다.

"손주 보실 거라는 얘긴 미처 못 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말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왈칵 붉어진다. 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 볼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잘 견뎌 냈는데. 언제고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스물몇 해를 길들었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잃을 것 없는 ㉠ 방을 꼭꼭 잠그며 살았는데…….

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들척한 기운이 메슥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그를 닦달할 수도 없다. 전임이 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아이를 가진 것. 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래, 일어날까?"

비칠,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다. 부드러워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한다.

(중략)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찻집을 나왔다. 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시든 꽃을 거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 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쫓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가 저렇게 곧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어떠랴. 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뻗는 ㉢ 팔을 부여잡았다. 어스름한 전철역 안에 들어설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때르르르릉. 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문식은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 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쩌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아아, 저것이 문식이다. 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그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륵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려 들어간다. ㉣ 노란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커덕 소리 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환한 빛 더미들이 터널 속 깊고 긴 어둠으로 한칸 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 무덤가를 지나온 듯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 서하진, 추일 서정 -

**20.** 위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재 시제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여 준다.
② 독백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④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⑤ 서술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의 교체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2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식'은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다.
② '자영'은 '문식'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③ '자영'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④ '문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⑤ '문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영'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인물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로 나타낸다.
③ ㉢: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④ ㉣: 두 인물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⑤ ㉤: 주인공이 벗어나려는 상황을 상징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서유럽의 전형적인 농경지 소유 형태는 '흩어진 개방 경지'였다. 어떤 농민과 다른 농민의 경지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서 넘나들 수 있으며, 한 농가의 경지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인접한 경지 조각들은 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파종과 수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공동체가 강제하였다. 이는 수확이 끝나고 휴한기에 들어선 경지에 가축을 공동으로 방목하고 분뇨를 시비함으로써 지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울타리만 치지 않으면 되지 경지가 흩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19세기 이래로 중세사 학자들은 공평한 쟁기질이나 비옥도의 차이를 감안한 평등한 토지 보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정서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1970년대에 매클로스키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매클로스키도 이전의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지가 한곳에 통합된 경우보다 흩어져 있는 경우에 농업 생산의 효율성이 더 낮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더욱 비효율적인 경지 소유 형태가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매클로스키는 흩어진 경지 소유 형태의 효율성을 위험의 분산을 통한 보험 효과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병충해나 기후의 차이 때문에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도 곳에 따라 경작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흉작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지가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곡물 생산의 감소분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페노알티아는 곡물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흉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에 의존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흩어진 경지 형태가 곡물 생산에 더욱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농업에서는 시간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에 노동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오는 오늘은 여기에서 일하고 햇빛 좋은 내일은 저기에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달만은 흩어진 경지 형태가 지속된 이유를 공동 방목에서 찾았다. 개별 농가가 자신의 경지에 울타리를 친다면 다른 농가들이 공동 방목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경지가 흩어지면 울타리를 치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공동 방목을 통해 목축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는 것을 개별 농가가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흩어진 경지 형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달만은 흩어진 경지를 ㉠ <u>반(反)공유자원(anti-commons)의 비극</u>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였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이 각자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효율적인 경우에 모든 소유자로부터 자원의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자원이 남용되는 문제인 ㉡ <u>공유자원(commons)의 비극</u>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헨리 스미스도 공동 방목과 관련하여 흩어진 개방 경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달만과 달리 그는 이것이 ㉢ <u>반(半)공유자원(semi-commons)의 비극</u>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성격이 공존하는 자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따른 독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세 유럽의 개방 경지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곡물 경작은 소규모의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야 효율적임에 비해 목축은 대규모의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가 계절에 따라 다른 규모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개방 경지는 때에 따라 사유지로도 사용되고 공유지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공동 방목을 할 때에 가축의 분뇨를 시비하는 것처럼 경작에 유리한 행위는 자신의 땅에 집중되도록 하고 가축이 뛰어다니며 땅을 훼손하는 것처럼 경작에 불리한 행위는 타인의 땅에 집중되도록 하고 싶은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흩어진 경지 보유 형태였다는 것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매클로스키는 흩어진 경지 형태가 통합된 형태에 비해 곡물 생산의 측면에서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매클로스키와 페노알티아는 모두 흩어진 개방 경지를 곡물 재배와 관련하여서만 설명하고 있지 공동 방목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지 않다.
③ 페노알티아는 곡물 생산의 측면에서, 달만은 목축의 측면에서 흩어진 경지가 통합된 경지보다 더 효율적인 경지 보유 제도였다고 생각하였다.
④ 헨리 스미스는 달만과 달리 농가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목축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였다.
⑤ 페노알티아, 달만, 헨리 스미스는 모두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제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4.** 매클로스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공동 방목을 하지 않고 곡물만 재배한 지역에서는 흩어진 경지 보유 형태가 드물게 나타났다.
ㄴ. 농민들 사이에 토지 교환이나 매매가 활발해진 후에도 흩어진 경지 형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ㄷ. 잉글랜드와 프랑스 북부의 기후와 토양에서는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 흩어진 경지를 필요로 할 만큼 산출의 편차가 충분히 컸는지는 의문이다.
ㄹ. 각 농가가 경지를 통합하여 농사를 짓고 영주가 각 농가로부터 거두어들인 곡물을 흉작 농가에 배분해 주는 방식이, 각 농가가 흩어진 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자원이 지나치게 적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임에 반해, ㉡은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이다.
② ㉢은 동일한 자원이 효율적 이용 규모가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과 ㉡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자원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하여 발생하는 문제임에 비해, ㉢은 그러한 권리가 약하여 생기는 문제이다.
④ ㉠과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묶어서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임에 비해,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누구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⑤ ㉠, ㉡, ㉢은 모두 자원의 소유와 이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인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를 이타적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심리적 이기주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위는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우리가 이기적인 행위를 했든 이타적인 행위를 했든 우리는 단지 가장 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므로 '이타적'이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증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아무리 이타적인 행위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 이런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증도 역시 결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동시에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만족감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격, 결혼, ㉡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등 다양한 일을 원하지만, 이 일을 성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부수적인 산물일 뿐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돕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이라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각 개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또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는 이론은 아니다. 윤리 이론이라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실천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먼저 윤리적 이기주의는 현실적으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서로 대결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승리는 그의 이익이지만 상대방의 이익에는 위배되므로 그는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때까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윤리를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수용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윤리적 이기주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A, B 두 사람의 대결을 생각해 보면, A가 자신을 제압하려는 B의 행동을 막는다면 A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A는 B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바로 그 행위가 A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인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B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윤리적 판단은 충분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윤리 이론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주의처럼 충분한 이유 없이 차별을 옹호하는 이론은 독단적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도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이론이 된다.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심리적 이기주의는 욕구와 당위성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한다.
②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 모두 의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③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만족감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은 부인하지만, 원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④ 심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⑤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27.** ㉠처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이기적이지만 그 동기는 이타적이다.
② 타인을 돕는 일을 한 사람은 그 일로 칭찬을 받을 만하다.
③ 타인을 돕고 싶지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타인을 도울 때도 있다.
④ 타인을 돕는 데서 생기는 만족감 때문에 돕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⑤ 타인을 도움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 만족감은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28.** 윤리적 이기주의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꼭 잘못된 행위인 것은 아니다.
ㄴ.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적절한 윤리 이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ㄷ. 나는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ㄹ.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그런 대우가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실제적 차이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사진에 특정 식별자, 곧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것을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이라 한다. 삽입된 식별자를 특정 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진의 저작권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워터마킹은 원본을 회전, 잘라 내기, 축소 같은 편집이나 압축을 하여도, 워터마크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추출되어야 하는 강인성(robustness)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며, 워터마크를 삽입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 저장 형식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삽입된 식별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는 가로, 세로의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의 밝기 값으로 표현된다. 각 화소의 밝기 값을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간 영역 방식이라고 한다. 공간 영역 방식으로 표현된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에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역에 있는 화소들의 밝기 값을 적당히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상표의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영역의 화소 값에 더하거나 곱하여 밝기 값에 포함하면 된다. 공간 영역에서는 화소 값에 직접 식별자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에 필요한 연산량이 비교적 적고 식별자의 삽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 내기와 같은 간단한 영상 처리 또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이터 압축에 의해서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파수 영역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단위 거리당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공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공간 주파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적 이동에 따른 진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디지털 사진에서 특정 방향으로 명암 변화가 자주 일어날수록 그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되는데, 인접한 화소 사이에 밝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수평과 수직 방향의 2차원 평면에 대한 공간 주파수의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2차원 배열로 표현되는 공간 주파수의 2차원적인 분포를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디지털 사진을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파수 영역 방식이라고 하는데, 공간 영역의 사진 데이터는 푸리에 변환 등 수학적 변환식에 의해 손실 없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고 그 역과정도 성립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려면, 공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다음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 식별자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것을 다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해야 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는 그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영역의 모든 화소에 분산되므로 사진 전체에 퍼져 저장된다.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사람의 시각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잘라 내기 등과 같은 영상 편집이 가해지더라도 남은 영역에 저장된 식별자 데이터에 의해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간과 주파수 영역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므로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특정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 데이터는 공간 영역에서 잡음(noise)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진 전반에 걸쳐 원본 사진이 흐려지거나 변형되는 등의 단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저주파 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이 사진의 내용을 인식할 때는 저주파 성분보다 고주파 성분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워터마크 삽입으로 인한 잡음의 양은 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더라도 고주파 대역에서는 원본의 왜곡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 손실 압축 기술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데이터의 저장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고주파 대역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압축에 취약해진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는 압축에 대해 강인성이 유지되도록 대부분 중간 대역에 삽입된다.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삽입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을수록 저작권을 보호하기 쉽다.
② 주파수 영역에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
③ 삽입된 워터마크는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 형태로 나타난다.
④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 바뀐다.
⑤ 공간 영역의 워터마크 삽입에 필요한 연산량은 주파수 영역에 비해 많다.

**30.** 공간 주파수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공간 영역에서 화소의 밝기 값을 변경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변한다.
② 인접한 화소가 흑과 백을 교대로 가지며 반복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③ 공간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 워터마크가 삽입되면 원본의 가시적 왜곡이 줄어든다.
④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은 화소의 밝기 값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⑤ 수평 방향의 단색 줄무늬가 조밀할수록 수평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된다.

**31.** 다음 사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B에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다.
②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워터마크를 C의 공간 영역 데이터에 삽입하면 비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저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 C가 제거된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④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C의 화소 밝기 값에 식별자 데이터가 많이 저장된다.
⑤ 고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에 손실 압축을 하면, B만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간의 경과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낳는 것을 '시효'라 한다. 한 예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는, 소유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해 온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한다. 하지만 권리를 얻는 쪽의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전택(田宅)에 대하여 5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실려 있다. '과한법(過限法)'이라 불린 이 규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경국대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 일어난 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성종 20년 12월, 조정에서는 서원군의 아들 이추가 제기한 소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 사건은 순경 옹주가 문서를 작성하여 양자인 서원군에게 논밭을 물려준 데서 비롯한다. 그 문서에는 서원군이 죽으면 자신의 양손자인 이추에게 다시 물려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서원군은 순경 옹주의 뜻과는 달리 생전에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서는 성종 6년에 죽었다. 그 재산을 이제 이추가 찾으려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한성부는 서원군이 처분했던 대로 판결하자는 의견을 올렸다. 종실의 일인 데다 강상(綱常)의 문제까지 엮인 터라 조정에서는 큰 논의가 벌어졌다. 주요한 논쟁은 이러했다.

이극배 : 서원군이 원소유자의 본뜻을 어겼지만, 오랜 세월 경작해 오는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거슬러 고칠 수 없다. ≪경국대전≫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이를 마땅히 금석처럼 여겨 따라야 한다.

윤 호 : 서원군은 원소유자의 본뜻을 돌아보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아들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추는 원소유자의 본뜻에 의지하여 서원군의 명령을 좇지 않았으니, 양쪽 모두 옳지 않다. 그러나 본시 순경 옹주의 소유물이니 의당 그 뜻을 따라야 한다.

유 순 : 순경 옹주가 논밭을 이추에게만 전해 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녀자의 치우친 사랑이다. 서원군은 양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아들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허물이 있다. 이추는 아들 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재산에만 몰두하여 아버지의 허물이 들추어지게 만들었다. 종실에서 이럴진대,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논밭은 서원군의 처분에 따르고 이추는 죄를 다스려 풍속에 대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

모든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성종은 이렇게 ㉠ 전교하였다.

서원군이 논밭을 이추에게만 주지 않고 다른 아들딸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은 옳지 않으며, 이추가 소를 제기한 일은 아들 된 뜻이 없는 것이니, 논밭을 국고에 귀속하고 이추를 처벌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 동조하였지만, 반대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홍 응 : 서원군이 양어머니의 지시를 어긴 잘못은 이추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른 것만큼 심하지 않다. 그런데 이추는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게 했으니 아들 된 도리에 옳지 않다. 아들의 소 제기로 인해 논밭을 국고에 귀속하면 백성들을 잘못 이끌게 된다. 마땅히 서원군의 과실을 용서하고 이추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사리에 근접하고 경세의 법이 된다.

송철산 : 양쪽 모두 옳지 않으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지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몰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원소유자의 다른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 후세의 거울이 되게 하자.

마침내 성종은 다음과 같이 ㉡ 전교를 내렸다.

서원군이 원소유자의 뜻을 좇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였으니 국고에 귀속해도 되지만, ≪경국대전≫에 5년이 지나면 재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 서원군의 처분대로 한다. 이추는 소로써 아버지를 거슬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부시로 하여금 신문하도록 한다.

이 사건 이후, 과한법은 소송상 중요한 항변으로 원용되었다. 하지만 부당한 침탈을 확정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들의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충은 마찬가지이다.

**32.**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과한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기치 못한 분쟁이 제기되는 것을 억제한다.
② 평온의 질서를 추구하는 법의 이념에 봉사한다.
③ 정당한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수한다.
④ 지속된 현상이 규명된 진실에 맞추어 변경되기를 요구한다.
⑤ 일정한 행위의 기반 위에 새롭게 형성된 이해관계를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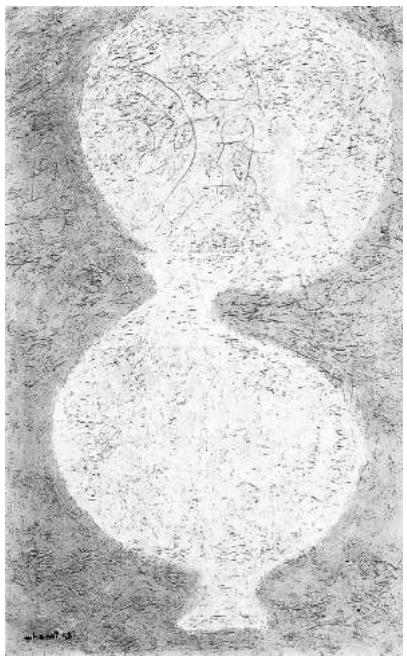
**33.** 성종의 생각이 ㉠에서 ㉡으로 바뀐 계기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보편타당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법규로 도출하여야 한다는 자연법사상을 인정하였다.
② 획일적 규제보다는 정당한 개인 의사의 실현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불가침의 윤리 규범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법 질서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자각하였다.
④ 법과 도덕의 갈등 상황에서는 오랜 관습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였다.
⑤ 통치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규범에 근거하여 통치한다는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34.** 여러 관료들의 의견에 대한 논평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극배는 순경 옹주가 적법한 유언을 하였는데도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서 윤호의 견해와 대립한다.
② 윤호는 다투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추가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유순의 견해와 일치한다.
③ 유순은 재산의 승계 문제에다 풍속의 교화라는 이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홍응의 견해와 대립한다.
④ 홍응은 서원군의 처분 행위를 유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송철산의 견해와 대립한다.
⑤ 송철산은 순경 옹주의 재산에 대하여 이추의 형제들이 승계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극배의 견해와 일치한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환기, 「항아리」

항아리, 조형의 극치. 항아리의 선에서 미의식은 출발한다. 민족의 정서는 항아리의 선이 조형한다. 빛깔 또한 그렇다. 단순한 순백의 결정체. 미를 개안시킨 원형 상징. 수화(樹話) 김환기의 항아리 사랑이다. 수화에게 항아리는 예술혼을 깨우는 생명체이다. 수화는, "희고 맑은 살에 따라 청백자 항아리는 미묘한 변화를 창조한다. 칠야삼경(漆夜三更)에도 뜰에 나서면 허연 항아리가 엄연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더욱이 달밤일 때면 항아리가 흡수하는 월광으로 인해 온통 내 뜰에 달이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황홀해했다. 그러면서 ⓐ "사람이 어떻게 흙에다 체온을 넣었을까." 탄복했다. 그에 의해 항아리는 인격을 획득했다.

수화의 ㉠ 「항아리」. 항아리가 흡수하는 월광으로 세상이 충만하다고 감탄했던 바로 그 순간이다. 달은 항아리를 조형하고 항아리는 달을 모방한다. 희고 푸른 빛을 발산하며 서로 흡수한다. 자연(달)과 인간(항아리)의 교혼(交魂)이다. 경계의 무화(無化). 제목이 「달과 항아리」가 아니라 「항아리」인 이유다. 질량을 버린 항아리와 달은 우주적 합일을 감행하는 듯하다. 도안과 같은 평면, 장식과 수사를 제거한 극도의 단순성만으로 무한한 정신세계를 조형한다. 이처럼 수화는 대상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간결하고 밀도 있는 표현. 절제된 형식은 달빛을 조형하는 데 적격이다. ⓑ 비울수록 더욱 채워지는 것. 이른바 채워진 허(虛)의 역설이 그것이다.

월산대군의 다음 시조를 보라.

(가)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가을 저녁, 월산대군은 강에 당도했다. 경치는 황홀했을 것이다. 시종들이 동행했을 것이고 한담을 나눌 벗도 함께했을지 모르겠다. 낚시를 드리웠으나 고기는 입질조차 없었다. 빈 배의 귀환.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조화인가. 실었으되 비었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온다는 깨우침, 바로 그것이다. 달빛은 실재하며 부재한다. 그러므로 빈 배는 달빛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대군은 소유와 집착을 버릴 때 정신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여기 또 한 항아리. 수화의 ㉡ 「항아리와 시」. 그림은 특별히 서정주의 「기도 1」을 병기했다. 비처럼 흐르는 깔끔하고 소박한 서체는 화려하게 만발한 흰 꽃, 백자와 절묘하게 호응한다. 꽃은 화환을 빚어 잔치를 벌인다. 불꽃같다. 흰빛 속 붉은 점경이 평면에 탄력과 입체감을 선사한다. 장식적 요소가 화면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횡적 배치는 이를 더욱 자극한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다. 그림은 화려한 만큼 슬픔을 내장한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슬픔이라니. 시를 읽을 때 확인한다.

김환기, 「항아리와 시」

(나) 저는 시방 텅 비인 항아리 같기도 하고, 또 텅 비인 들녘 같기도 하옵니다. 하늘이여 한동안 더 모진 광풍을 제 안에 두시든지, 날으는 몇 마리의 나비를 두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가니와 같이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시방 제 속은 꼭 많은 꽃과 향기들이 담겼다가 비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화자는 텅 비인 항아리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한다. 항아리처럼 비었다며 슬픔을 호소한다.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꽃은 빈 항아리의 공허를 더욱 고조한다. 흰 꽃에 가려 화면 왼쪽 뒤로 물러서 선 백자는 애처롭다. 꽃향기 가득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을 토로하는 화자의 신세 같다. 모진 광풍이라도 채워 달라는 화자의 호소에서 허전함이 감지된다. 반이라도 채워 달라는 인간적 솔직함 앞에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태도는 얼마나 무력한가. 비워 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야 비워진다. 채움과 비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달빛을 채운 항아리가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꽃 장식 뒤의 항아리가 허전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35.** 글쓴이의 설명을 따를 때, ㉠,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그림의 주제를 형식 그 자체로 드러내고, ㉡은 시의 주제와의 대립을 통해 드러낸다.
② ㉠은 달과 항아리를 조응시켜 충만감을, ㉡은 꽃과 항아리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은 대상의 단순성을 통해 정신적 허무를, ㉡은 화려한 장식성을 통해 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은 수직 구도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은 수평 구도를 통해 이념과 욕망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⑤ ㉠은 항아리를 전경화해서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은 항아리를 배경화하여 사상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6.** 위 글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무에서 무로 귀결되는 삶의 비애를 이념으로 극복하고 있다.
② (가)는 체념과 달관을 통해 도달한 정신적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③ (나)는 무소유를 꿈꾸다 소유를 지향한다.
④ (나)는 현실의 슬픔을 현실적 대안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⑤ (가)는 유유자적한 탈속의 풍경을, (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를 담고 있다.

**37.** ⓐ의 주제 의식을 ⓑ의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 시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이얀 자기(磁器) / 이조(李朝)의 병(甁)아 / 빛깔 희고도 다사로웁고 / 소박하면서 꾸밈없는 솜씨야 / 진실로 진실로 / 아버지와 할아버지 / 산림처사의 / 무명 도포다.
② 한 떨기 이울면은 / 또 한 송이 피어나듯 // 청자를 보듬은 채 / 백자 빚은 정성 // 파란의 오백년 하늘이 / 점멸되어 흐른다.
③ 겨울 창가에 / 도사려 앉은 백자 항아리는 / 차갑고도 따뜻하다. // 손바닥으로 그의 뱃전을 더듬으면 / 싸늘한 것이 와 닿지만, / 그것이 내 심장 언저리에 / 와 부딪칠 때는 / 벌써 뜨거운 것이 되어 / 스민다.
④ 길어 내리는, 길어 내리는, / 하늘 가득 먼 푸름 항아리배여. / 입술 갓을 빨고 가는 / 따스한 햇볕, / 알맞은 보픈 배의 / 자랑스러움이여.
⑤ 질그릇 하나 부서지고 있다. / 질그릇의 밑바닥에 잠긴 바다가 / 조용히 부서지고 있다. / 스스로 부서져 흙이 되는 / 저 흔들리는 바다. / 그릇에 담긴 생선의 뼈, 질그릇에 담긴 폭풍, / 질그릇에 담긴 공간, / 그 공간 하나 스스로 부서지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역사가이자 묘청의 난을 진압한 정치인이었다. 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유학자로 중세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체제 유지와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했던 사대주의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김부식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대주의와 관련된 문제였다. 그를 '진취적인 고유 사상을 말살한 흉악한 사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이 이후 사대주의에 찌든 조선의 온갖 병폐를 가져온 근원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삼국사기』의 내용과 체재를 분석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부분의 조선 시대 역사서에 비해서는 덜 사대적이라고 하면서, 김부식에게 씌워진 사대주의자의 굴레를 일정 부분 벗겨 내려고 시도한 학자도 있다. 그러면 사대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디 사대란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하위 국가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전쟁과 같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김부식이 활동하던 1120년대는 금(金)의 압박이 가중되던 때였다. 금은 1125년에 요(遼)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며, 그 여세를 몰아 화북 지역에 진출해 송(宋)을 군사적으로 크게 압박했다.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금의 위세를 보고 고려의 지배층이 긴장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듬해 금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고, 김부식 역시 당시 상황에서 사대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는 훗날 병자호란 직전 청(淸)이 조선에 똑같은 요구를 하자 명(明)만을 사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많은 신료들이 화이론(華夷論)의 명분을 내세워 거부를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김부식에 대한 평가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된 것은 『삼국사기』에 담긴 그의 사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제하고 ㉠ 선악의 포폄을 중시하는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서술함으로써 이전의 ㉡ 신이적(神異的)인 고대 사학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 중국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용인하기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존 사료에 담긴 고대적 성격을 말살할 목적으로 『삼국사기』를 새로 편찬하여 ㉣ 고유 사상에 바탕을 둔 고대 문화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해 있다. 이 문제는 고유 사상과 유교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자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김부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의 과거 왕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삼국사기』를 통해 볼 때 그는 ㉤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의 역사를 인식하였다. 『삼국사기』의 서술 순서에서부터 신라의 우위를 부각하였고, 신라 본기의 말미에 붙인 사론에서도 고려 왕실이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여 신라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가 고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지만, 고조선은 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삼국은 애초부터 서로 다른 세 개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 원래 하나의 나라에서 세 나라가 배태되었다는 인

식은 그에게 없었다. 결국 김부식은 삼국의 분립을 전제로 한 신라 계승 의식에 매몰된 채 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 역사 인식의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38.** 글쓴이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김부식은 화이론을 내건 사대주의자였다.
② 김부식의 유교 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
③ 사대의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④ 김부식의 신라 계승 의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⑤ 사료의 고대적 성격을 말살하려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39.** 김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김부식의 사대관을 조선 유학자들의 사대관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ㄴ. 사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상대적 우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ㄷ. 고유 사상은 좋은 것으로, 외래 사상은 나쁜 것으로 보고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ㄹ. 김부식이 사대를 택한 진정한 이유가 기득권의 수호였음을 간과한 채 사대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0.** ㉠~㉤ 중 <보기>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보 기>

신라에서 사용한 왕호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 있다.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지은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에는 모두 '아무개왕[某王]'이라고 하고 거서간 등은 쓰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 그 말들이 비야(鄙野)하여 족히 일컬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서』를 보면, 중국의 사서인데도 오히려 흉노의 말 '탱리고도'를 그대로 보존해 남겼다. 그러므로 지금 신라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 신라 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역시 마땅할 것이다.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2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제 [ 1 ] 교시 [ 언어추론 ] 영역 정답표

## [ 공통 ] 계열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문항 번호 | 정 답 |
|---|---|---|---|---|---|---|---|
| 1 | ② | 11 | ① | 21 | ① | 31 | ③ |
| 2 | ④ | 12 | ② | 22 | ① | 32 | ④ |
| 3 | ④ | 13 | ③ | 23 | ④ | 33 | ⑤ |
| 4 | ⑤ | 14 | ④ | 24 | ⑤ | 34 | ④ |
| 5 | ② | 15 | ② | 25 | ③ | 35 | ② |
| 6 | ② | 16 | ⑤ | 26 | ⑤ | 36 | ② |
| 7 | ① | 17 | ③ | 27 | ① | 37 | ③ |
| 8 | ④ | 18 | ④ | 28 | ① | 38 | ④ |
| 9 | ③ | 19 | ② | 29 | ③ | 39 | ① |
| 10 | ④ | 20 | ⑤ | 30 | ⑤ | 40 | ③ |